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字：1967年 3月23日 登録番号：第 1251 号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9年 10月31日 毎月1回発行 通巻 第 125号

1979 10



고 박정희 대통령각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전국회원일동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月刊 建築士

1979. 10

目 次

遮政刷新 促進大会 및 第14回 定期總會.....	2
會員動靜.....	3
뜻으로 본 韓國建築樣式.....朴 時 翼.....	4
日本 住宅 供給業界와 需要層의 動向.....金 平 坤.....	11
建築디자인의 基本的 性格.....尹 太 鉉.....	16
建築構造物의 巨大化 限界.....金 圭 石.....	22
濟州漫想.....崔 昌 奎.....	26
建築法令의 改正—合理的인 改善策은 없는가—.....李 鶴 榮.....	31
遮音 및 吸音에 대한 小考 (遮音編).....建設研究所.....	33
建築士法 施行令 改正.....	40
協會實施賞.....	41
月間建築情報.....	66
아파트地區 開發基本計劃 樹立에 관한 規定.....	73
海外作品.....A + U.....	76
建築許可統計.....	99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正澈
委員 金昌熙
“ 尹道限
“ 尹鳳源
“ 尹太鉉
“ 李孫會
“ 李文輔
“ 李廷德
“ 洪性穆

發行人兼 編輯人・金斗燮 / 登錄番号・第4-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1979年 10月31日 / 通卷 第128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 89番地
〈非売品〉電話：73-9491~2
印刷人：郭得龍 (三文印刷所) 中区 乙支路3街
電話：265-4558

庶政刷新 促進大會 및 第14回 定期總會開催

11月13日 서울프라자호텔 大會議室에서 全國代議員 및 建設部關係官 그리고 内外賓이 參席한 가운데 庶政刷新에 따른 決議文 採択에 이어 總會로 이어진 이날 行事는 和氣에 찬 雰圀氣속에서 始終一貫하여 盛況裡에 그 幕을 내렸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 1 호의안 : 회원사망 장례비보조금 지급제도변경 (안)승인의견

제 2 호의안 : 1980년도 사업계획 (안) 승인의견

제 3 호의안 : 198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안)승인의견

제 4 호의안 : 임원개선 (감사 1 인)

기타사항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전남
성 명: 주명록
명 칭: (주) 금성종합설계공사
소 재 지: 중구 을지로 2가 195-8
전 화: 776-1346
면허번호: 341
등록번호: 합동 315
월 일: 5. 15



본 적: 서울
성 명: 김치환
명 칭: 우원건축연구소
소 재 지: 종로구 세종로 111
전 화: 72-0197
면허번호: 1044
등록번호: 518
월 일: 9. 10



본 적: 서울
성 명: 김상운
명 칭: (주)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소 재 지: 종로구 견지동 87-1
전 화: 74-0237
면허번호: 1-669
등록번호: 438
월 일: 6. 8



본 적: 서울
성 명: 강문식
명 칭: 현대설계용역주식회사
소 재 지: 종로구 내수동 188
전 화: 73-6741
면허번호: 605
등록번호: 517
월 일: 9. 10



본 적: 충남
성 명: 조종관
명 칭: 예일·명건축기술공사
소 재 지: 강남구 청담동 산 67-2
전 화: 57-8998
면허번호: 1-241
등록번호: 499
월 일: 9. 17



본 적: 서울
성 명: 임광택
명 칭: 현대설계용역주식회사
소 재 지: 종로구 내수동 188
전 화: 73-6741
면허번호: 314
등록번호: 517
월 일: 9. 10



本協濟州支部 建築講演 및 懇談會 開催

日時: 1979. 9. 29

場所: 제주KAL 호텔

演士: 本協서울支部 崔昌奎 會員

演題: 現代國際建築의 흐름과 “마야文化와 잉카문명”

參席: 本協 濟州支部 會員 道內 建築職公務員 濟州 実業
專門大學 教授 및 學生

上記와 같은 內容의 建築講演을 마치고 즉시 초빙된 道內 建築관계 公務員과 本協會員(제주지부)間에 懇談을 開催 相互관심사와 當面問題들을 主題로 진지하게 개진 托로 많은 成果를 남겼다.

특히 本 講演과 懇談會를 위하여 濟州市長, 副市長, 建設局長, 住宅課長, 北濟州郡 建設課長 및 濟州道 開發局長 그리고 都市係長等 많은 關係者들의 參席은 道 建築文化 暢達이라는 共同 目標을 向한 意慾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熱講하는 崔昌奎氏

뜻으로본 한국건축 양식의 특징과 국민성과의 관계

박 시 익

한국 건축 양식의 특징중 단점으로 생각되는 점과 우리 국민성의 단점으로 생각되는 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건축에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건축물(궁궐, 사찰, 민가등)이 옛모습대로 많이 남아 있어서 그모양을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러한 조상들의 옛 건축에서 그 공통적인 특성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이 건축의 특성은 바로 오늘날까지의 우리들의 국민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네모난 그릇에 담긴 물은 비모가 되며 둥근 그릇에 담긴물은 둥글게 되는데(노자도덕경) 건축은 바로 사람을 담는 용기이며 (말)따라서 한국건축은 바로 우리 조상들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의 특성은 자연 그 국민성과 관련지을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건축의 특징을 구라파나 동양의 다른나라 건축과 비교할 때 본인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겠다.

특정 1. 지붕의 선(용마루선, 처마선)이 ?은 곡선이다.

2. 지붕의 비중이 벽에 비하여 과중하다.

3. 곡선의 중심이 건물 외부에 있다.

위의 특징의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나 그 각각의 특징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와 관련된 우리들의 국민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약간의 음양오행의 관점에 입각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이것은 건물의 형태에 내포된 성질을 파악코자함이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추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동양 전래의 음양오행설의 이론으로 그 각각의 성질을 분석함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정 1. 한국 건축의 지붕의 곡선이 육은 곡선이다.

가. 근거 : 한국 건축은 그 지붕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지붕의 곡선은 아래로 육은 곡선이다. 즉 용마루선에서 중앙부가 낮고 양쪽끝이 치켜져 높이 올라가 있다. 이것은 처마선의 곡선도 마찬가지로 중앙부가 처져 있으며 양쪽 추녀있는 부분이 높이 올라가 있다. 또한 지붕의 면 자체도 육은 곡선이다. 이렇듯 육은 지붕인 것은 건물의 구조와 대소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와 지붕에서는 모두가 같이 되어 있다. 이와같이 육은 곡선을 갖춘 지붕의 형태는 다른나라에서는 거의가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외국 건물의 모양은 그 지붕의 중앙부가 높이 있고 좌우가 낮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축의 특징중의 하나로 우선 지붕의 곡선이 육은 곡선이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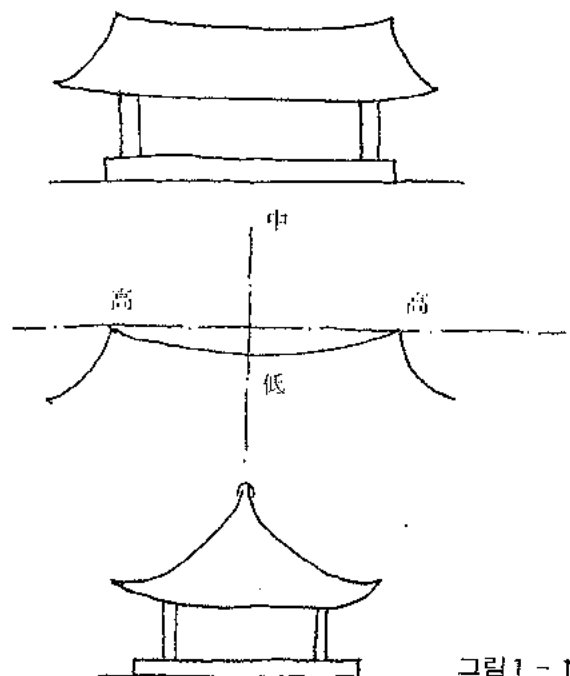


그림 1 - 1

나. 의미 : 지붕의 곡선이 육은 점에 대한 의미

지상의 대부분의 물체는 (생물포함) 각기 고유한 형태를 갖고 있다. 그 형태의 공통점은 그 모양의 중앙 되는 부분이 높게 되어 있어서 힘의 중심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물체의 중심이 높은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중심을 보호하며 중앙이 위주가 되어 한몸으로서의 효과적이고 단결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과 같이 중앙이 육은 지붕은 그 내부의 힘이 중앙부에 집합하지 못하고 좌우의 높은 쪽으로 갈라져서 모이게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은 건물이 초년부터 노년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외지가 상부에 올라가서는 중앙으로 모이지 못하고 좌우로 분리되는 뜻이다. 즉 중앙부위가 힘의 중심이 되어야 함이 자연현상의 대표적인 일인 반면에 한국 건축은 그 지붕의 곡선이 육은 뜻으로 하여 좌우가 높게 되어 있어서 그 중앙의 힘이 미약하고 좌우에 힘이 분리되어지는 상태를 뜻하고 있다.

이와같이 그 힘이 분리되는 상태로 되어서는 결국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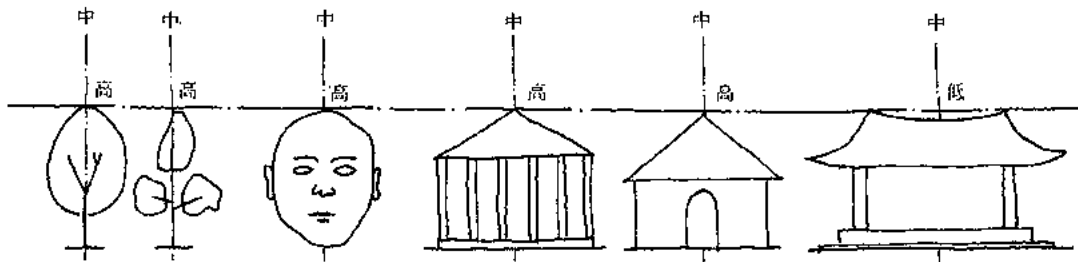


그림 1-2

(2) 왕권빈약과 하극상

왕은 국가구성의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 복리와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국토를 보존하는 막중한 의무와 또한 이에 따르는 권력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조의 역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왕들은 스스로의 왕의 권위와 지도력을 갖지 못하고 좌우의 왕을 보필할 신하들에게 이끌리게 되어 그 신하들의 서로 싸움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유약하였던 것을 왕권빈약의 그 대표적인 예로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중앙의 왕권이 빈약한 상태는 건축에서 그 힘이 중앙에 정점이 있지 못하고 좌우에 흩어져 있음과도 동일하다.

이와같이 좌우로 분산된 힘으로 인하여 자연히 미약한 국력을 유지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좌우의 강한 힘은 중앙의 왕의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심하여서는 하극상을 일으키는 유혈국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3) 정신적 지주의 분산과 사회 정의의 혼란 사람의 각 개인별 정신적 지주는 그 사회의 도덕 혹은 종교에 그 근본을 두게 마련이다. 그런데 각 개인별 정신적인 방향

분리된 힘이 중앙의 미약함을 무시하고 좌우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는 그 경쟁이 심해져서는 과벌싸움을 일으키는 형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현상이 우리 역사상으로 나타난 실패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힘의 분열과 남북 분열
2. 왕권 빈약과 하극상
3. 정신적 지주의 분산과 사회 정의의 배탈음.

다. 나타난 국민성

(1) 힘의 분열상과 조국의 남북의 분열

우리의 이조역사를 보면 당파싸움이 매우 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나라의 지도적인 인물들이 서로 단결하여 뜻과 행동을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분당되어 상대를 모함하여 싸우기를 위주로 하여 서로를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여서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게 되었으며 자기의 당의 일시적인 명분을 위해서는 국가의 존망에 관한 일도 오히려 소홀히 할 정도로 그 분열이 극심하였다. 이와같이 당파로 쇠약해진 국가는 드디어 일제의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또 잡시의 해방동안 후에는 국토는 남북으로 분열당하는 비극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 다름에 그 개인들간에는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마련이다.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를 찾으려면 매우 곤란할 정도로 많다. 현행 대표적인 것만 열거하여도 단군 신화를 비롯하여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이 대중을 이루고 그 이외에도 각 교별 분파나 그 이외의 유사종교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바로 국민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그 만큼 분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른 까닭에 각기의 올바른이 상대에게도 올바르게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의 정의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통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 그 정의를 다르게 생각하게 됨으로 올바른 정의를 혼동하게 된다. 예전대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물질지상주의가 만연되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편이 되어서 기업의 목적이 사회의 공익에 대한 이바지를 망각하고 오직 이윤의 추구에만 있는 줄로 착각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정신적 지주의 분열과 사회 정의의 혼란한 상태는 우리의 건축의 지붕의 모양에서도 그 뜻을 찾을 수가 있다. 즉 지붕은 벽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붕의 상부는 좌우로 그 힘이 나누어져 있다.

도덕이나 종교등은 개인의 정신세계로부터 시작되는데 정신이란 육체와 달리 가볍고 높은 차원에 있어서 그 위

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즉 건물에서 지붕의 부분은 사람의 정신에 해당하는데 그 상부가 분열되어 있으므로 정신이 분열된 것과 동일한 것이며 아래로부터 상승하는 자연적인 힘이 상부에 가서는 올바르게 뚫바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분열되고 꾸부러짐이 바로 사회의 정의가 올바르게 못함과 동일한 상태라 하겠다.

특징 2. 지붕의 구조가 하벽(벽과 기둥)에 비하여 과중하다.

가.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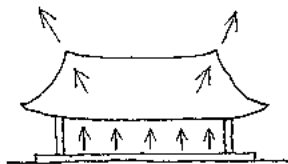


그림 1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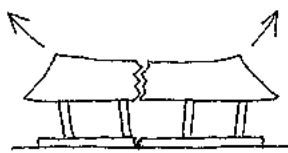


그림 1 - 4

한국 건축은 외관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지붕의 면적과 무게가 이를 받치고 있는 기둥뿔벽에 의하여 다른나라의 구조와는 달리 월등히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한국 건축의 구조가 목조 가구식이며서도 길게 뻗은 처마길이며 또 지붕위에 얹는 많은 양의 앞매(흙)·홍두깨흙등이 지붕의 비중을 시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크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및 외관으로 보아 지붕의 구조가 하벽에 비해 그 비중이 과한 것을 한국 건축 특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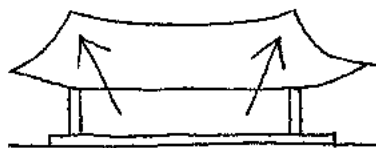


그림 1 - 5

한국 건축을 입면상으로 크게 나누어 지붕면과 벽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붕은 상부에 위치하고 벽면은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 형태의 차이에 있어서 지붕을 활기있게 난개를 펴고 있는듯이 활동적이고 벽은 단순히 정지하여 안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지붕과 벽과를 음양으로 비교할 때 지붕은 그 위치로도 상부에 있으므로 양일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활동적이라 할 수 있어서 이를 양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벽체는 그 위치도 아래에 있고 또한 그 형태도 지붕에 비하여 여성적이고 단정하여 음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한국 건축의 입면을 음양으로 분류함과 같이 사회의 각 분야도 그 성질의 구별로 각기 아래표와 같이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음양의 이론으로 보아 지붕이 양이면 벽은 음이 되고 남자가 양이면 여자는 음이며 정신이 양이면 육체는 음이 되며 양반은 제급상 상에 있으니 양이면 중하인은 아래에 있으므로 음이 되며 문인이 가업고 높은 정신세계를 가졌기 때문에 양이면 무인은 부겁고 불채와 육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음이 되며 문화와 예술은 정신적이므로 그 뜻이 높고 밝아서 양인 반면에 경제이상공은 물질운 다루기 때문에 음에 속하여 사람의 이상은 양이고 현실은 음이 된다. 또한 산업구조로 보아 1차산업이 땅에서 생산되는 만큼 음이 되며 서비스업은 고차산업으로 양이 된다.

	위	치	모	양	외	미	유	양
지	上		활동적		天			양
벽	下		고정적		地			음

양	남성	정신	양	반	문인	문화예술	이상	외	고차산업
음	여성	육체	중하인	무인	경제이상공	현실	내	저차산업	서비스업

이와 같이 사회의 구성을 음양으로 구별하고 이 구별된 상태와 건축과 견주어 볼 때 벽보다 지붕이 과도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의 구성동에서 음보다는 양에 비중이 큰 상태를 이룬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음양의 이론상 음과 양은 서로 그 세력이 비등하여야 서로 균형을 이루어 좋은 결과를 갖게 되고 한편이 과다하게 되면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 국민성

1) 남존여비사상

전반에서 지붕이 남성이며 벽은 여성이 된다. 지붕인 남성이 과도하게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쪽이 위주가 되고 여성은 종속적이 된다. 따라서 남존 여비하는 사상이 되며 우리의 과거 역사가 사실 남존여비 그대로 였다고 할 수 있어서 여성은 오직 집에서 살림만 하였고 외부에 일체 그 활동이 금지된 단편만으로도 알 수 있으며 남자는 처첩을 거느려 살았어도 여성은 결코 개가를 할 수 없었음도 그 일례라 할 수 있음도 당시의 사회가 남성위주였음을 알 수 있는 단편이다.

2) 정신 지조 정조 중시 사상

정신이 양이며 육체가 음이 될 때 한국 건축이 지붕이 벽에 비하여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보아 음보다 양이 앞서고 있어서 육체보다도 정신이 위주였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높은 정신에 따라서 육체는 초개같이

버리는 풍조가 과거에 많이 있었다. 즉 지조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

3) 계급차

사회구조는 양반과 중하인의 계급차가 임격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벽과 지붕의 한계가 확실하게 나타남과 같고 지붕의 비중이 작은 양반의 사회적인 영향이 큰 것을 말하며 양반의 세도가 커서 중하인은 그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야 했다.

심지어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염은 안친다고 한만큼 그 계급의 차가 심하였고 양반의 중하인에 대한 핍박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현상은 건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 문관·무관

문관은 가볍고 높은 이상을 가졌음으로 그 성질이 양에 속하고 무관은 그 무게가 깊고 그 대상이 전쟁과 같이 험하여 음에 속한다. 그런데 건물구조상 지붕이 양에 속하므로 문관에 해당되고 벽이 음에 속함으로 무관에 해당된다.

문관은 지붕으로 위치가 높기 있음으로 문관이 무관보다 훨씬 득세를 하게 되었으며 무관은 문관 밑에서 이들을 받들어야 했다. 따라서 무관을 항상 천대하였으며 심지어 정중부와 같이 무관의 반란까지 있을 정도였었다.

5) 문화 예술 숭상, 상공 천시하다.

문화예술은 그 성질이 밝고 높아 양에 속하며 상공은 무겁고 생계 즉 물질에 밀착되어 음에 속한다.

양이 과다한 건축구조 상태임으로 문화와 예술을 극히 숭상하였고 현실적인 생계에 직관되는 이공, 상공을 천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끼니를 굶으면서도 풍월을 읊은 자를 뜻이 높은 군자로 인정되었고 땀흘려 일하는 자는 저속하게 취급되어서 학식있는 자는 결코 땀흘려 일하고자 하지 않게 되었다.

6) 이상 위주 현실 도피

이상은 높아서 양이 되며 현실은 가깝고 낮아서 음이 된다. 건축구조로 보아 지붕이 과대한 것을 현실보다는 이상에 집착이 큰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상을 위해서는 현실을 쉽게 저버렸다. 이러한 사회성은 많은 배운자들이 당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현실 도피를 많이 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부의 비중이 하부에 비하여 과대한 건축의 형태는 사회 구조상으로 상하가 분열되며 균형을 잃게 되어 현실적으로 보아 옳지 못함이 많음을 볼 수가 있다. 특히 그 무게의 중심이 상부에 있어서 외부의 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힘의 개척보다는 외부세계에 의해 피동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

특징 3. 지붕곡선의 중심이 건물 외부에 있다.

가. 근거

한국 건축의 기와 지붕은 거의 모두가 육은 곡선으로 되어 있다.



그림 2 - 1

그림 2 - 2

용마루의 곡선이 육어져 있고 처마의 곡선이나 합각마루 또는 처마마루등 또한 각 지붕의 면 등이 모두 육어져 있다. 그런데 각 곡선은 그 중심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한국 지붕의 곡선이 모두 육은 곡선이기 때문에 각 곡선의 중심은 건물 외부쪽에 있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각선의 중심이 외부에 있음으로 이러한 선이 모여서 이루어진 지붕면도 또한 육은 곡면으로 되어 있고 그 중심점도 외부에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모양은 대부분의 물체(생물 포함)가 그 표면의 중심점은 그 자체 내부에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볼 때 이러한 외부 중심의 건축은 한국건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물체가 그 중심점을 그 자체 내부에 두고 있음은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우리 건축이 그 중심을 외부에 둔 것에 대하여서 그에 따르는 의미가 주어지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나. 의미(곡선의 중심이 외부에 있는 점에 대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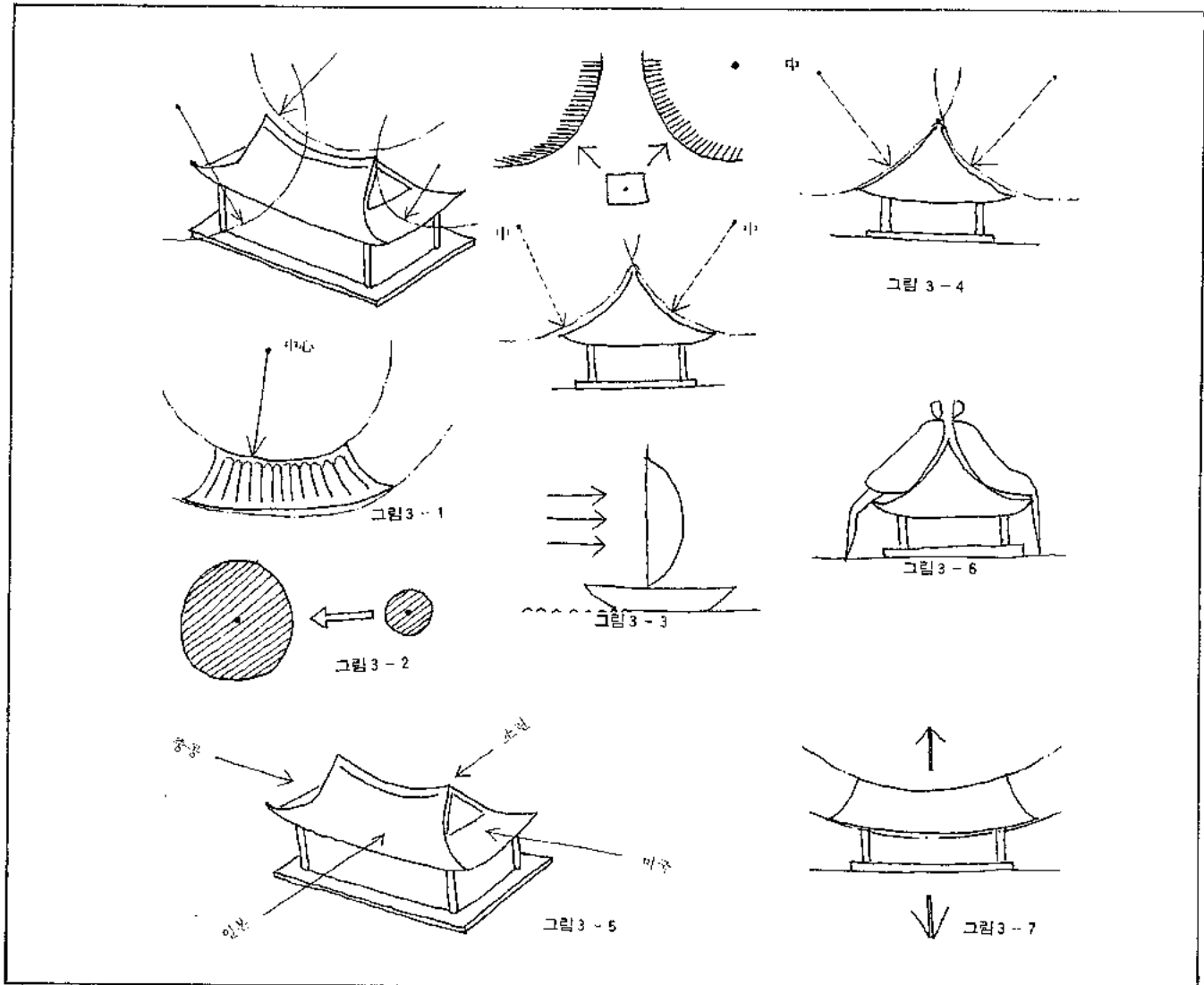
모든 물체가 자기 그외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보유한 힘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력에 대한 자체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그 보호벽은 그 힘의 중심을 위해서 감싸고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보호벽이 많을수록 그 힘은 많게 되고 그 보호벽이 없으면 그 힘은 쇠잔되어 소멸되고 그 물체는 자연히 외부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체의 몸도 지탱하지 못하고 해체되게 마련이다.

또한 한 물체의 옆에 그보다 훨씬 큰 물체가 있을 경우 그 두 물체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여 작은 물체에는 큰 외력이 작용되어 그 영향으로 이끌려지게 되어 있다. (뉴턴의 인력의 법칙) 이때에 한 물체의 주위에 큰 물체가 있다고 함은 큰 물체는 그 자체의 중심점이 있다는 의미이며 그 중심점은 자연히 작은 물체에서 보면 외부에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한 물체의 주위에 그 중심점을 달리는 물체가 있을 경우 그 한 물체의 기운은 큰 물체의 영향에 의하여 그 기운을 빼앗긴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한국 건축의 지붕의 곡선의 중심점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특징은 첫째, 자기의 기운이 적어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이며 이것이 역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사대주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붕이 육은 변이 마치 돛단배의 돛과 같은 상태가 외부의 바람을 많이 받게 되어 움직이는 형상과도 동일하다.

둘째, 지붕의 곡선의 중심점이 각기 다른것은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른 뜻이며 그 지붕면의 중심점이 내부를 보호하지 못하고 외부로 향하여 있음을 그 내부 즉 자체에 대하여 배반하는 상태이며 이러한 배반하는 상태가 전후 좌우 사방에 있음으로 이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자연히 생기는 뜻이 된다.

셋째, 지붕의 곡선의 중심점이 각기 외부에 달이 있는



상태는 각기 그 중심 하는 뜻이 다르므로 이는 서로 분리되는 상태이며 자연히 분열되어 서로 불복하는 상태의 의미를 지니며 또한 상태를 넘어 뜨리려는 뜻도 내포되고 있다.

다. (역사상에 나타나는 국민성)

1) 사대주의 사상

과거 한국의 문화가 스스로 발달된 것도 있었으나 많은 부분을 대륙으로부터 흡수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소화하여 이땅에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외부의 세력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시기에 맞는 말이며 그 스스로가 허약해 있을 경우 (이조중기 이후) 외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부의 의존

도가 자연히 높아지게 되어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외국제 상품이면 무조건 좋은 줄로 알고 우리 고유한 문화나 물질은 또한 무조건 멸시하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렇듯이 만연된 사대주의 사상은 스스로의 조상과 그의 영토를 우습게 여기는 습관이 되어서 자신의 올바른 부모와 조상을 깎뎀없이 창피하게 여기며 각 개인이 그 스스로의 긍지를 잃고 외적 외부의 세력만을 움켜쥐고 이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음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겠다.

이렇듯이 만연된 사대주의 사상은 외국은 모두 잘사는 나라로 착각하고 자기나라를 버리고 무작정 외국으로 이

민가서 그곳에서 이민족의 멸시도 모르고 오직 일시의 안
일한 생각으로 그들 낳아주고 키워준 조상의 땅을 저버
리는 자가 한때 많아지게 된 듯 하였었다.

또한 현재의 정세로 보아 한국의 위치가 주변 강대국
가의 사이에서 독자적인 변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영향에 민감하게 된 형편도 사대주의 사상의 다른 한 면
이라 할 수 있겠다.

2) 간동, 이단자, 배반자

지붕의 모양이 육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마치 서로
등을 대고 밀고 밀리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간동이며 또 서로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서로
배반자가 되는 상태이다. 역사상으로도 당파싸움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며 일제 치하를 벗어나서도 남북간의 갈
등이 바로 이러한 상태라 하겠다.

3) 사회의 불목

지붕의 중심이 그 건물의 안에 있지 못하고 외부에 있
음은 지붕 즉 상부의 중심이 외부에 있음이며 이는 음양
으로 보아 양이 음을 배방한 뜻임으로 양과 음이 서로 불
목하는 뜻이다.

양	권력기관	문 인	문관	양 반
음	국 민	상공인	무관	중하인

이들 사회 구성의 상하 즉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단결이 안되고 불신과 불목을 하고 있음은 현시
점으로 보아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우리 국미성과 건축의 모양이 서로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을 보면 건축이 바로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
는 점과 사람은 그 그릇모양에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어느면에서 발
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건축의 모양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사회의 목적과 일치되어서 그곳 사람으로 하여
금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서 스스로가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에 오늘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치로 보아 앞으
로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정진하여 발전
하기 위해서는 그 뜻에 맞는 모양의 의미를 갖춘 건축을
이론 사회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서 우리
의 사회가 보다 더 단결되고 발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
리 건축이 갖고 있는 의미중에서 그 뜻을 바꾸어야할 필
요성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과거 한국 건축의 지붕의 곡선의 모양이 주위의
산의 흐름과 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생각되나 엄밀하게 말하면 산의 모양도 그 형태

에 따라서 5종으로 구별되고 또한 산의 곡선도 다섯가
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산의 모양을 종수 지리
에서는 금목수화토의 5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산의 곡선도 자연히 달라지게 된다. 오늘날까지
사용된 육은 곡선만이 우리산의 모든 곡선이라고 할 수
없음은 우리나라안에 있는 산의 종류도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건물의 모양도 위
의 산의 모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건축에 자연
의 무분별한 곡선의 도입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로관
단하여 올바르게 유익한 모양을 찾아 이를 활용하여 이
를 바른 모양의 영향을 받아서 국민이 그 안에서 올바르
게 잘 살 수 있는 그릇 즉 건축을 만드는 일이 오늘의건
축가의 임무라 생각된다. 이러한 뜻으로 보아 우리 건축
의 특징은 그 의미가 좋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수
정하여 보다 밝은 사회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
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앞으로의 건축이 과거 우리 민족의 약점을
보강하여 국민성으로 하여금 (1)올바른 정신 (2)단결된 사
회 (3)상하가 균형을 이루며 (4)균형된 자강한 의미를 주게
할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성의 필
요성을 우리의 종래의 건축의 모양에 이루기 위해서는 나
옴과 같은 방법을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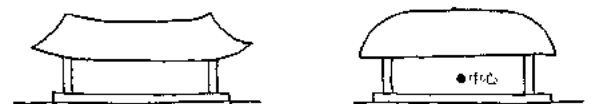
(1) 지붕의 곡선은 솟은 곡선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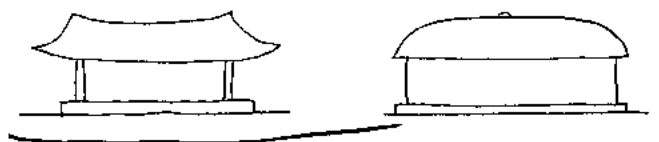
(2) 상하의 균형을 위해서 처마를 조금만 내린다.



(3) 곡선의 중심이 건물 내부에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뜻으로 건물을 그려서 종래의 건축과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성질 비교표”

			
곡선	형태 의미 결과	옥은 곡선이다 림의분산 (1)국토분열 (2)불당연속 (3)왕권비약 (4)보수적	솻은 곡선이다 힘의단결 (1)동일기획 (2)단결제일 (3)왕권강화 (4)전위적
비중	형태 의미 결과	상부가 하부에 비해 너무 크다 (1) 남존여비 (2) 계급차	(1) 남녀평등 (2) 질서를 위한 약간의 계급의식
중심	형태 의미	중심이 내부에 있다 (1) 사대주의사상 (2) 외세영향에 크나	중심이 내부에 있다 (1) 자주적 자립사상 (2) 외부영향에 대해 강하다

이와같이 비교할 때 앞으로의 우리의 건축은 되어야 갓음을 밝힌다.

“보충 설명”

- (1) 산의 모양에 대하여 그 영향에 대하여.
- (2) 외국의 건축의 모양에 대하여
- (3) 한국 건축 종류가 모양이 갖는 뜻에 대하여
- (4) 중심 이론에 대하여

- (5) 등배이론에 대하여
- (6) 한국 지붕의 평면도에 대하여
- (7) 한국 지붕의 장전과 국민의 인내성과의 관계
- (8) 한국 건축의 평면 배치에 대하여
- (9) 건물생김

(주) 완종합건축

검소한 생활로 물가고를 이기자
하루위해 낭비말고 백년위해 저축하자

日本住宅供給業界와 需要層의 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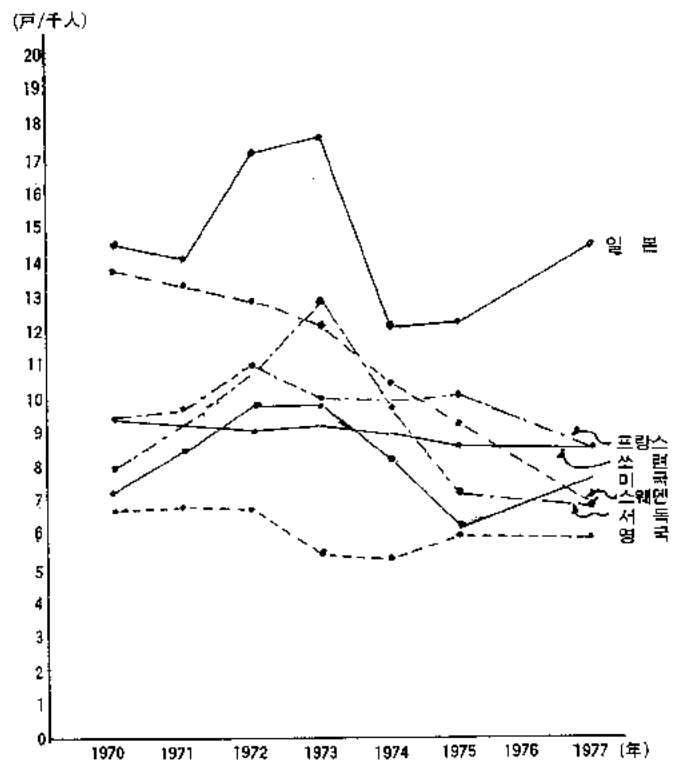
金 平 坤

1. 概 說

일본은 1973년에 都道府県까지 “1世帯1住宅” 확보의 1期5計(1期住宅建設5個年計劃의 略称 以下同)目標을 달성하였고 현재는 “量으로부터 質로의 移行”을 政策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3期5計의 기본자료가 된 1974~80년, 7개년간의 住宅建設 必要戸數 推定을 보면 세대수의 増加 459만호(39.9%), 인구의 사회적 이동 179만호(15.6%)水準以下 居住의 解消 286만호(24.9%), 新築주택보충 226만호(19.6%)등으로 합계 1,150만호를 잡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3期5計에 860만호의 新築目標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年間평균 172만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구 1,000명당 新築주택호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圖1) 참조. 이 계획 중 333만호가 소위 公적자금에 의한 주택으로서 公的 元조율은 38.7%에 이른다. 860만호란 숫자는 주택 공급업체로 볼 때 매우 매력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겠고 따라서 수요층의 취향과 동시에 정책추진方向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업체내에서의 경쟁격화, 타산업으로부터의 신규참가등으로 개개의 업체에게는 냉혹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주택생산공업화는 2 및 3期5計에도 역점추진시책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정책적 배려가 있는 것이다. 한 예로서 1973년에 建設省에서 고시한 “공업성능 인정제도”란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주택금융공고가 1964년에 발족시켰던 “工場生産住宅承認制度”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이 性能承認을 받은 工業化住宅은 원칙적으로 (면적제한등을 제외하고) 주택금융공고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制度에 의하여 구조내력성능이 “適”으로 인정된 것은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축 확인(건축허가)신청時 신청도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등 수속이 간단한 이점을 갖는다.

이하 재래식목조주택(2장), 2×4주택(3장), 「프리채브」주택(4장), 「맨손」(5장)등 각 업계와 수요층의 동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제술코자 하되 우선 저층주택의 생산공업화와 관련되는 부분에 重点을 두고 저 한다.



2. 在来式木造住宅

재래공법에 의한 목조주택이란 不質系「프리채브」나 2×4와 같은 새로운 공법이 아닌 일본고래의 軸組工法으로 만들어진 주택을 말한다.

이 재래식목조주택이 총주택건설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60%이상이나 된다. <表1>참조. 「프리체브」등의 공업화주택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주택자체가 개인選好의 성향이 강한 상품이므로 작개인의 다양한 요구충족이란 점에서 응용이 자유스러운 재래공법이 유리하다. ② 주택수요는 전국각지에 散在하고 있기 때문에 地緣을 가진 도목수나 공무점의 受注가 비교적 손쉽다. ③ 아직까지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여 왔다.

재래식목조주택은 그 대부분이 마을의 都木手나 규모가 극히 작은 工務店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는데 그 규모의 영세성이 문제인 것이다. 75년말 현재 전국의 목수·공무점의 사업소수는 10만을 헤아리나 대부분이 개인경영으로 종업원은 2~3명 정도이며 店主 자신이 설계, 시방, 자재구입으로부터 현장감독까지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분야에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목수·공무점 상호간 협업화의 경향으로 영세한 木手·工務店이 결속함으로써 건설자재의 일괄대량구입, 주택loan 설정, 대규모maker에의 대항, 종래부터의 지연에 의한 수요의 확대 등등의 시도가 가능케 된다. 둘째는 규격형 목조주택의 등장이다. 규격형은 다양한수요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재래공법의 장점을 감소시킬 우려도 있으나 반면에 코스트절감에 의한 주택가격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겠다.

전국 주택장만은 일생의 일대사란 뿌리깊은 편견이 살아 있는한 개별주문을 주종으로 하는 재래식 목조주택에 대한 수요는 금후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장시공부분이 많은 재래공법은 노임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므로 공법의 적극적 개량, 내구성등의 구조면에 대한 개선연구가 불가결일 것이다.

<표·1> 재래식목조주택착공호수

(단위: 천호)

년 도	총계 (A)	재래식목조주택 (B)	B/A %
74	1,316	843	64.1
75	1,356	881	65.0
76	1,524	962	63.1

3. 2×4工法 住宅

2×4工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은 순적으로 아주 미미하여 현재로서는 論議의 대상이 안될지 모르나 그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北美系統의 2×4工法을 導入하게 된 動機에 대하여는 본고의 성격상 생략하고 普及노력의 발자취를 일별해 보면,

72年: 2×4住宅의 試行建設 및 実物 파괴實驗

73年: 基準原案

74年: 2×4住宅의 技術基準制定, 建設省告示

76年: 社団法人 2×4建築協會設立, 關聯業界 各社가 結속하여 管民일체로 보급체제정비

77年: 技術基準 대폭改善

77年の 개선은 '74, '75의 2個年에 걸쳐 실시된 “小規模住宅의 新施工法 開發” (綜合技術開發 project의 하나로써 내용은 構造耐力和 火災耐力的 두가지로 대별된다)에 의거한 研究結果를 반영한 것이다.

実物大實驗의 結果로부터 骨組가 木材인 경우에도 内部火災에 상당히 견딜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日本의 現消防体制은 覺知로부터 放水開始까지 10분이면 85%, 15분이면 95%, 20분이면 97%정도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재래식목조가 6~8分으로 全火로 되어 속수무책이었던 데 비하여 이 2×4工法이면 1室 또는 1戶의 内部 화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耐火上 많은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防, 耐火性能에 대하여 北美에서는 1時間의 화재지향 즉 건축물내부 화재에 건물이 견딜 수 있으며 R.C와 같은 내화 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명든 이와같은 주택생산 공업화를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인 제 실험중 내화성능 실험의 결과는 “木造 即 可燃”이라는 재래판념에 큰 변혁을 주게 될 사실이다.

현재까지 2×4住宅의 普及을 政策的으로 지원하는데는 一面으로서 일본주택 금융공고의 주택자금 惠沢의 정도를 나타내는 <表·2>가 참고되겠다. 이표에서 보면 78年度에 92.4%까지 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公庫의 “Model団地 住宅의 建設資金용자”는 2×4工法에 依한 주택을 50戶以上 集團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대한 支援이 그 目的인 것이다.

<表·2> 2×4住宅建設 및 既存融資실적

年 度	(省住生産課) 確認申請棟数 (A)	現場審査 既存融資棟数 (B)	B/A %
74	168	—	0
75	2,570	575	22.4
76	5,117	2,245	43.9
77	5,163	3,813	73.9
78	6,109	5,643	92.4

4. 「프리체브」 주택

「프리체브」는 주택생산공업화의 과제와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직접, 간접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하 주종을 이루는 저층「프리체브」주택을 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期5計의 시책추진 6개항중 제6항에는 “주택생

산의 공업화에 힘써서 주택건축비의 안정과 품질의 향상을 도모한다”로 되어있으며 총건설호수의 20%를 공장생산주택으로 충당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적은 12%에 그쳤었다. <表·3> 참조

원래 프리체브주택은 공장생산에 의한 코스트 절감 즉 주택가격인하를 겨냥한것이나 ① 아직도 현장시공부분이 상당하며 ② 수요가 소규모이면서 산재할때는 量産 효과를 감쇄시킬뿐 아니라 ③ 주문사양이 다양할수록 규격화의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등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결국 프리체브가 당초 의도한대로 市場 점유율을 잡지 못한것은 그 고유의 이점을 버리고 “自由設計可能”을 강조한데에 있다. 이 자유설계가 프리체브의 가격양동, 공기연장, 설계시공의 불비로 인한 품질의 불균을 가져왔다. 즉 수요층의 다양한 취향에 영합하여 자유설계를 강조한 방향설정자체가 오히려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프리체브주택업체로서는 이점을 극복하여 새 활로를 타개하여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표 3> 工場生産住宅의 建設(計劃/実績)

단위: 호수

年度	区 分	總戸数(A)	工場生産住宅(B)	(B/A)
I 期	共的資金에 의한住宅	2,700/2,576	/ 198	/ 8
66	民間自力住宅	4,000/4,143	/ 198	/ 4
70	計	6,700/6,719	/ 343	/ 5
II 期	共的資金住宅	3,800/3,103	1,080 / 500	28 / 16
71	民間自力住宅	5,700/5,186	820 / 450	14 / 9
75	計	9,500/8,289	1,900 / 950	20 / 12
III 期	共的資金住宅	3,500 /	1,080 /	31 /
76	民間自力住宅	5,100 /	1,070 /	21 /
80	計	8,600 /	2,150 /	25 /

3期5計(76~80년)에서는 시책추진 8개항중 제5항에 “주택생산의 근대화,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건축비의 안정과……”로 되어 있다. 이는 2期5計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3期5計에서는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또 총주택생산 호수对 공장생산주택호수比도 25%(公的자금에 의한 주택 31%, 민간21%)로 잡고 있다.

개설에서 언급한 공업성능인정제도에 의한 인정주택은 79년5월1일 현재 木質系 4社 7타일, 철골계 12社 33타일, 콘크리트系 12社 17타일 計 57타일이다. 일본에서 木質, 철골, 콘크리트의 각系가 共存하고 있음은 흥미있는 현상이다.

철골系는 「프리체브」中에서도 일변주자인 셈이며 <表·4>에서 보는 바와같이 60년대 중반 이되는 그 비중이제 일크다. 원래 55년 L.G.S 생산개시와 동시에 Maker D社가 발족하였고 57년경의 鋼材價格 폭락도 경량철을 보급의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콘크리트系는 '62년의 量産試作으로부터 65년의 주택공단 P.C공법건설개시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시장점유율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表5>는 최근(79년6月現在)의 住宅新築價格 一覽表이다. 이 價格이란 立地条件 其他 諸般要件에 따라 差異가 날 수 있는 것이나 “特別히 別途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없을때는 이 表의 값으로 供給하겠다”는 點이 明示

<表 4> 年度別 프리체브住宅 実績

(단위: 호수)

年度	목질계	철골계	콘크리트계	계(A)	비 고	
					용자受 惠(B)	B/A (%)
63		862 (100)		862 (100)	862	100
64		6,050 (100)		6,050 (100)	1,450	24
65	1,850 (8.3)	7,242 (32.7)	13,087 (59)	22,179 (100)	3,137	14.1
66	2,751 (11.7)	7,082 (30.0)	13,747 (58.3)	23,580 (100)	4,548	19.3
67	4,881 (16.9)	9,982 (31.1)	15,026 (52.0)	28,889 (100)	5,373	18.6
68	6,728 (21.0)	13,182 (41.2)	12,093 (37.8)	32,003 (100)	7,914	24.7
69	7,619 (13.9)	24,261 (44.3)	22,879 (41.8)	54,759 (100)	15,270	27.9
70	17,532 (24.5)	34,460 (48.2)	19,487 (27.3)	71,479 (100)	21,017	29.4
71	28,657 (31.2)	41,678 (45.4)	21,375 (23.4)	91,710 (100)	30,759	33.5
72	38,431 (31.9)	55,432 (45.9)	26,776 (22.2)	120,639 (100)	41,124	34.1
73	51,387 (33.7)	72,544 (47.6)	28,487 (18.7)	152,418 (100)	54,843	36.0
74	30,125 (26.2)	63,599 (55.3)	21,350 (18.5)	115,074 (100)	55,840	48.5
75	25,891 (23.4)	60,083 (54.3)	24,733 (22.3)	110,707 (22.3)	51,101	46.2
76	28,324 (25.3)	66,338 (59.3)	17,115 (15.4)	111,777 (100)	44,183	39.5
77	23,807 (22.3)	61,326 (57.3)	21,836 (20.4)	106,969 (100)	45,593	42.6

되어 모델 하우스와 동시에 公開展示되는 것이므로 일단은 有力한 資料로 볼 수 있다.

먼저 在來式木造나 2×4 住宅이 平均 358,000~366,000엔인데 「프리채브」는 322,000엔 特히 철골系는 288,000엔으로 20%稅供廉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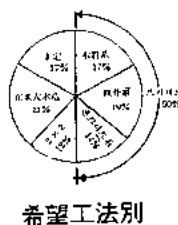
模範的이라 꼽는 永福住宅綜合展示場이 78. 11. 1부터 79. 3. 31사이에 來場者를 相對로 한 調査資料를 보면 몇가지 興味있는 傾向을 볼 수 있다. 來場者中 50%가

住宅新築時에 「프리채브프리채法」에 의한 住宅을 택하겠다는(未定 17%를 감안하면 60%에 해당된다) 反應을 보였다. 이중 철골系「프리채브」는 19%(上向23%)였다.

반면 재래식 목조주택은 21%(상동 25%)에 불과하다. 응답자의 年령층은 30세대가 44%였고 장차의 수요층이 될 20~30才台로 보면 過半이 된다. 즉 비교적 젊은層은 재래식 목조가 아닌 새로운 공법에 의한 주택을 희망하고 있다. 〈圖·2〉 참조

〈表 5〉 住宅新築價格一覽表

79. 6. 3. 현재								
種 類	名 稱	社 名	性 能	建築面積 (M ²)	床 面 積 (M ²)	總 價 格 (円)	單 價 (円) /3.3M ²	備 考 (平均値)
在來式木造	武蔵野の家	東急不動産		110.19	146.43	18,200,000	4,000,000	357,700
	住友林業の家	住友林業		101.649	130.558	14,600,000	369,000	
	野村Home 永福展示場型	野村不動産		92.74	136.91	13,350,000	325,000	
	西武不動産注文建築	西武不動産		97.14	150.91	15,886,000	348,000	
	다이야 Living 세시에르	菱化商社 東急不動産		131.65 89.43	129.59 154.77	13,170,000 17,250,000	335,000 369,000	
2×4	積水 House M型	積水 House		71.25	110.77	11,830,000	353,000	366,400
	特別注文	三井 Home		66.24	128.35	15,764,000	406,079	
	永大ED構造住宅	永大産業		80.33	119.24	12,280,000	340,000	
本 質 系 PREFAB	新 佳	所屬住研	認定A2171-1	95.34	136.56	15,630,000	330,000	328,400
	三井木材工業House F型	三井木材工業	認定A-0176-2	92.49	146.03	15,500,000	350,000	
	미사쿠 Home F型	미사쿠 Home	認定A-0274-1	91.09	109.31	11,693,382	347,600	
	미사쿠 HomeC 비라스O型	미사쿠 Home	認定A-1075-1	73.11	141.99	12,300,000	286,000	
鉄 骨 系 PREFAB	2FB型	積水 House	認定B0774	88.26	119.98	10,906,220	299,970	288,700
	하이루MR	積水化学工業	認定B-0877-2	90.85	155.93	10,751,000	228,000	
	8・13-J-03反転	大成 Prefab	認定B-3377	79.74	123.16	10,337,000	277,400	
	GPA-H型	구보다 House	認定B-0777	102.55	143.08	12,856,000	297,000	
	송 K-Type	東芝住宅産業	認定B 0974	83.658	109.300	9,570,000	290,000	
	빠나홈「大屋根の家」	National 住宅建築	認定B1877	59.69	106.10	10,890,000	339,000	
	빠나홈 후미 A-1	National 住宅建材	認定B1074-1	85.08	119.08	11,700,000	325,000	
	에와세이후	人和 House 工業	認定B-1477-1	56.55	106.02	7,008,000	221,000	
	新富士 GSY-II	永大産業	認定B0374-2	74.53	105.58	9,768,000	300,000	
	빠나호 一무너2-F, F-108	National 住宅建村		54.16	104.94	10,500,000	310,000	
CONC系 PREFAB	하이루란 35	清水建設		58.52	113.04	13,500,000	395,000	351,800
	빠레웅 G 280-101型	大成建設	認定 C-3177	47.97	92.74	9,520,000	340,000	
	기우푸스루 Home N 33S-1	日本 Prefab	認定 C-3077	74.588	107.670	11,700,000	325,000	
	HEBEL HOUSE	旭化成工業		77.41	113.49	12,530,000	356,000	
	빠루웅 G385-111A-DK	大成建設	認定 C-3177	76.99	127.52	13,200,000	343,000	
								338,600엔



5. 맨손

「맨손」이란 원래 고급주택을 뜻하였으나 근래 일본에서는 그 뜻이 변질되어 대중형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민간맨손업자가 공급하는 중고층주택의 출현은 1956년이었으며 당시만해도 “고급”의 이미지

가 당연하였던 것이다. 그후 도시에서의 인구집중, 소득의 상승등으로 「맨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형의 대중「맨손」이 보급되게 되었으며 63, 64년의 고급「맨손」붐, 69년의 대중「맨손」붐, 72, 73년의 3차「맨손」붐, 76, 77년의 4차「맨손」붐등 「맨손」건설 「럿슈」가 몇번있었다.

맨손의 특징은 고층화에 따른 地價부담경감, 교통편이 비교적 양호한 立地등으로 같은 가격이면 「맨손」쪽이 단독주택보다 거주면적이 넓고 통근시간이 짧게 되는 것으로 이와같은 특징을 살리므로써 「맨손」은 많은 需要層을 確保할 수 있었던 것이다.

近來의 「맨손」供給動向을 일별해 보면(표 6) 참조) 「오일 쇼크」余波로 '74, '75년에는 계속적으로 新規供給戶數가 減少하고 있다. 이것은 一般의 住宅과 같이 「맨손」供給價格과 需要層收入의 乖離가 커졌고 수요층의 購買力이 떨어진데에 큰 要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4년의 「맨손」1戶당 平均價格의 急上昇(72년의 2倍以上)과 契約率의 急落이 위 事實을 뒷바침하고 있다. 그러나 '76년에 와서는 需要가 漸次로 回復하는듯 하다. 이 傾向은 '77년에도 계속되었다. 最近의 「맨손」需給에서 特徴的인 點은 低價格化와 購入層의 年令 下向이라 할 수 있다. 「맨손」1戶당 平均價格은 '75, '76년 共히 '74년 價格을 下廻하고 있다. 수요층의 收入에 副應한 價格設定으로 「맨손」의 便利性이 再認識되어 가는듯한 印象이다. 또한 一般 借家の 家賃이 大幅 上昇한 點과 20~30才年令原의 맨손 購入意慾이 높아진 點이 있으며 비교적 젊은 年令層은 住宅 만이 一生一大事한 在來의 감각에서 이탈하여 家族數나 所得水準등에 맞추어 必要에 따라 집을 바꾸는 傾向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의 수요동향으로 보면 「맨손」은 편리한 都市型 住宅으로 정착되어 가는듯 하다. 그러나 日照權을 비롯한 環境問題, 公共負擔의 增加, 적당한 「맨손」建立후보지의 物色難等 어려운 點이 增加되고 있어 今後 「맨손」價格의 上昇과 이에 따른 需要鈍化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넓고, 보다 쾌적한 「맨손」에 對한 選好傾向이 漸増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가격의 「맨손」供給을 어떤 方向으로 이끌어갈 것인가가 今後 「맨손」業界의 課題라 할 수 있겠다.

〈표 6〉 수도권 「맨손」 공급경향

年度	공급호수(천호)	1호당평균가격(만원)
72	28.7	774
73	38.6	1,171
74	26.7	1,657
75	25.7	1,530
76	29.5	1,630
77	47.2	

6. 결론

일본은 년도별 인구 천명당 신설주택호수가 12 이상으로서 지난 10년동안 세계정상급이었으며 3期 5計(76~80)기간중에도 건설목표를 860만호로 잡고 있다. 또 2期 5計에 이어 3期 5計에서도 주택생산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방향설정이 되어 있다.

공법상으로는 아직도 재래식목조주택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뿌리깊은 목조주택에 대한 선호성은 앞으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圖1) 및 表1) 참조)

2×4주택은 아직은 그 보급실적이 아주 미미한 단계이다. (表2) 참조) 2期 5計에 있어서 공장생산주택의 총 주택건설호수에 대한 비율은 계획 20%대 실적 12%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3期 5計에서 그 비율을 계획25%로 잡고 있음은 주택생산공업화의 시책을 강력히 추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表3) 참조) 따라서 2×4주택이나 「프리채프」 주택의 보급이 활발하리라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시책추진의 강도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프리채프」는 不質系, 철골系, 콘크리트系가 공존하고 있는데 70년대에는 木造 鐵骨系의 비중이 우세하다.

(表4) 참조) 철골系주택은 외관이 생소하고 철이라는 선입감이 어떤 저항감을 이루킬수도 있겠으나 실리(건축공사비가 저렴)나 실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교적 젊은 세대를 통하여 계속 보급될 징후가 보인다.

(圖2) 및 (表5) 참조) 콘크리트系는 60년대 후반을 고비로 下向의 傾向이 있다. 자유설계가능을 강조한 방향설정을 시정할 단계에 있는 것이다. 소위 「맨손」에 대한 젊은층의 수요확대도 도시형주택으로 정착 단계에 있는 것 같다. 木質系에 있어서는 2×4住宅 普及을 위한 여러 실험으로부터 “木造 即可燃”이란 고정관념을 뒤엎는 결과를 얻게 되었음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며 역사적인 木造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일수도 있겠다.

참고 문헌

1. 日本の住宅と建築, 建設省, 1977
2. 第3期住宅建設5個年計劃, 建設省, 1976
3. 住宅問題入門, 住宅金融金庫, 1979
4. 建設大臣性能認定工業化住宅, 뿌리하브建築協會, 1979
5. 昭和53年度 調査研究報告書, 北海道立寒地建築 研究所, 1978
6. Annual Bulletin of Housing and Building Statics, United Nations, 1976.

住宅銀行・技術部長

建築디자인의 基本的 性格

(1)

尹 太 鉉

建築은 生活의 三要素인 衣食住의 하나로 發生하여 今
日에 이르기까지 그간 여러 方法으로 追究되고 發展하여
왔다. 그리고 建築의 發展 過程은 좀더 人間生活을 實現
하기 爲한 建築物의 役割을 追求하여 그 構造, 設備, 施
工等 技術面에서 여러 檢討를 加하고 어떠한 建築物이 가
장 適切한가를 模索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木材 建築物은 그 時代의 社會的인 背景이나 生
活樣式을 基盤으로 하여 存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界의 建築物은 거의가 다른 環境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建
築디자인 亦是 그러한 要因에서 여러모로 影響을 받는 特
徵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物的인 滿足感을 얻을 수 없는 狀態에서
는 物, 量에 置重한 建築 디자인을 支配하는 傾向이 있
어 建築物의 使用目的을 物과 量만으로 解決하려는 建築
디자인이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物的인 滿足感이 어
느 程度 達成되려는 人間의 慾求는 物量的인 面에서 質
의 向上을 重視하는 方向으로 變化하기 始作한다. 卽 單
純한 “生活의 容器라는 建築物에서 生活 內容이나 그 環
境을 充實하게 채우려는 建築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建築物이 생기는 過程에서 機能이나 技術, 그리
고 經濟등 合理的인 解決, 卽 使用하기 便利하고 어떠한
工法으로 어떻게 싸게 지을 수 있는나 하는 問題가 重要
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가장 根本的인 金요한 要因
은 人間이 “建築을 만들고 싶다”라는 生活의 慾望인 것이
다. 이 慾望을 達成하고 滿足시키는 手法으로 技術이나
經濟나 機能이 생긴 것이라 生覺해도 別로 틀리지 않는
다고 본다.

여기서 그 慾望의 하나의 要素로서 形態나 空間의 美
인 “建築美”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建築이
“잘됐다” “잘못 됐다”를 判斷하는데 機能이나 技術, 그리

고 經濟등과 同格以上, 建築美에 関한 問題를 다루지 않
으면 안되는 것이다.

建築의 歷史는 空間을 만드는 人間의 歷史이기도 하다
從來의 建築史나 樣式史는 人間의 生活史이며 社會史라
해도 틀림없다. 人間이 만든 建築에는 그 時代의 人間의
思想이나 魂이 어떠한 方式, 어떠한 性格이든 象徵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建築美의 問題가 表面上의 形式보
다도 그 形態나 空間에 表現되는 人間의 內面的인 깊이
에서 求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現代는 高密度인 地域 環境을 形成하고 따라서 生
活 環境 全体를 再整備하는 것이 크게 要望되는 時代인
만큼 單一의 建築디자인을 解決하는 同時 人間 生活이나
地域의 綜合 計劃에 寄与하고 調和하는 建築物을 實現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要求된다.

이와 같이 建築 디자인은 建築物을 둘러싼 여러 가지
要因으로 左右되는 側面을 가진 分析的이고 綜合的인 것
으로 그 特徵을 充分히 認識하여 健全한 建築 디자인의
考察 方法을 育成하는 同時에 市井은 生活知識과 詳細한
建築技術, 그리고 豊富한 創作力을 기르는데 不斷한 노
력을 쌓음으로서 可能的인 것이다.

建築을 計劃하는데 앞서 우선 그 形態의 基本的 性格을
把握함으로써 建築디자인 計劃에 도움될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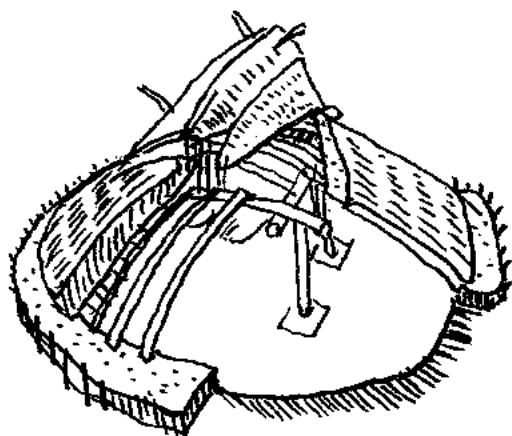
1. 形, 空間의 發見

住居는 人間生活의 休息과 便利를 주는 場所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그 모양은 거의 四角 立方形로 되어 있다
왜 그럴까? 이는 人間 生活의 方式이나 心理面에서 眞至

하게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特이 이들 專攻하는 建築人으로서는 그냥 등한히 넘길 수 없는 課題인 것이다.

人間 生活은 人間 個體를 軸, 또는 刻으로 한 円 運動으로 行해진다고 본다. 여기서 人間 個體가 中心된 性格學上, 心理學上, 生理學上 여러가지 形으로 分類된 行動狀態에 依한 行爲 即, 意識的인 것보다 無意識的인 面인 行動인 自然 必須條件에 따른 空間 構成이 많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要素를 基盤으로 거기에는 必然的 하나의 曲線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住居는 原來 四角의 平面으로 構成되는 것이 아니라 無意識的인 曲線을 空間으로 構成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原始的 形態로서의 円은 人間이 만든 最初의 것이 된다는 理由가 된다. 그리고 世上에 存在하는 모든 物象은 円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太陽, 달, 얼굴, 동굴, 그릇 등등 모두가 円이 아닌가, 自然界의 森羅萬相을 알고 보면 거의 曲線이요 円에서 始作되었다는 點을 느낄 수 있다.

世界 各地에서 發見되는 原始 住居를 보더라도 円形으로 된 平面은 原始 文化의 共通된 一般的인 傾向이라 할 수 있다.



窟穴, 住居想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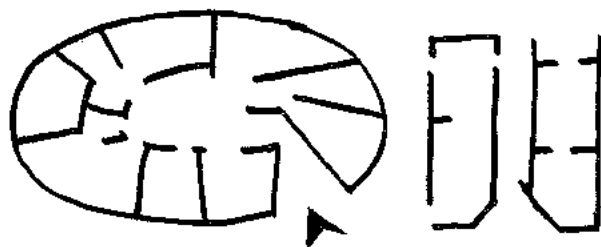
西아세아의 천혹집, 円形 住居, 印度의 초가지붕, 아프리카 各地의 土人의 住居, 蒙古人의 移動天幕 住居인 빠오(包)등등 円形 平面을 가진 것은 周知의 事實인 것이다.

2. 円形에서 四角形으로

우리들은 방이라 하면 四方 四角形 空間을 우선 連想한다. 平面이 円에서 四角形으로 發展하기까지에는 많은 時間과 人工的인 技術이 加末되었다. 人工이 加해지지 않은 自然中에는 거의 四角을 볼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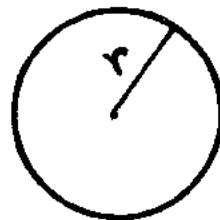
그림은 平面의 形의 變化를 表現하고 있다. 이를 보면 기둥이나 보에 使用된 材料와 여기에 附隨되는 構造에 따라 円形에서 四角의 平面과 直線的인 立面에 必然的으로 到達된 過程을 알 수 있다.

먼저 円이 생긴 意義부터 다시 살펴보면 어떨까? 建築의 生活의 便利와 人間의 安息을 주는 場所가 되기 爲하여 外部에 對한 防衛, 風雨를 防止한다는 目的이 있으므로 円形區劃이 原始 住居에 먼저 利用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円이란 一定한 面積을 둘러싼 圓形中에서 가장 周圍의 “길이”가 짧고 적다는 點과 外敵을 막는데 가장 有利한 形이라는 點이다.



有史以前의 圓의 住居

円은 中心에서 對稱의 位置에 있는 單純한 形으로 그 自身, 完結된 것,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가 알고있는 曲線 가운데 가장 完壁한 것이다. 円을 支配하고 있는 法則은 円周率 π (3.14)로서 他의 어떠한 偶然的 펙타-로도 近接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正, 多角形은 円에 內接, 또는 多接하게 된다.



이러한 훌륭한 幾何學的 性格이야 말로 円이 가진 嚴格한 規制요, 特性인 것이다. 그리고 円은 모든 平面圖形中에서 가장 對稱性이 強하고 均衡과 調和의 正統이다. 自古로 円은 “永遠의 심볼” “神의 榮光” 円滿, 親睦의 表現이었다. 即, 円形은 가장 記念性이 많은 것으로 옛부터 墓, 統樣, 塔등 人間의 構築物로서 記念性이 豊富한 形態로 愛用되어 왔던 것이다.

다음 四角은 人間이 만든 가장 單純한 形態로서 自然 속에서는 그리 찾아 보기 쉽지 않다. 飛行機의 始初는 새가 나는 것을 보고 흉내낸 것이다.

人間이 만들어낸 것의 大部分이 自然에 存在하고 있는

物象中에서 模倣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住居의 房이나 窓의 모양, 箱子, 책등의 形態인 四角이 생긴 原因은 무엇일까? 房이든 窓이든 그 始初는 四角이 아니라 圓形이었을 것이다.

그 基本的인 理由의 하나로 人間은 두 다리(足)로 서 있다는 点이다. 서 있을때 먼저 느낀 것이 바닥(床)이 水平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바닥이 屈曲된 狀態에서는 恒常 不安한 느낌이 가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爲先 바닥은 水平面이어야 했을 것이다. 다음 여가에 서있다는 것은 座直을 意味한다. 垂直은 水平과 直角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四角의 房안에 서 있으면 安靜을 갖게 되는 것이다.

水平에서 垂直으로 四角을 만들어낸 것은 二脚을 갖인 人間이며 四脚의 動物에는 水平面이 別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 四角을 만들어낸 것, 거기에 人間の 創造의 始作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形態 創作 活動의 始作인 것이다.

3. 黃金 分割이란.

人間이 四角을 認識하게 되고 形態의 創作이 始作하여 爲先 그 形態를 그리는 方法을 알게 되었다. 埃及 時代에는 하나의 끈으로 簡單하게 正方形을 그리는 方法을 알고 있었다. 그림 1 에서와 같이 하나의 끈을 13等分한 14個의 매듭을 만들어 첫번째와 13번째의 매듭을 連結, 그 끈의 1, 4, 8 番의 매듭이 隅角이 되는 3, 4, 5의 比例를 갖인 三角形을 만들면 4 番째 매듭이 直角의 頂点이 되는 三角形이 생긴다. 直角三角形이 되며는 13 番째의 매듭을 풀어 0과 8 番째의 매듭을 基点으로 하여 그것을 反轉하면 正方形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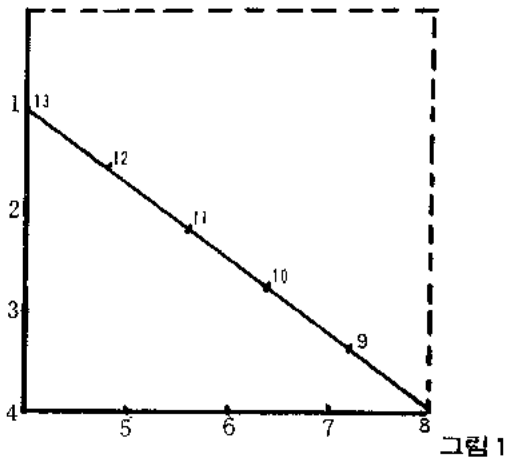


그림 1

이 簡單한 繩張法은 埃及 나일江 流域 洪水에 流失된 土地의 境界를 四角으로 復旧하게 된 것이며 “피라미드”의 構築이나 各種의 神殿의 建築을 四角으로 하는것을 可能하게 하였다.

하나의 끈으로 正方形을 만드는 方法은 實際로 必要에 依해 생긴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造形上에도 重要な 役割을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直角을 만드는 過程에서 發見된 直角三角形은 그 自身 뛰어난 美를 갖인 美的 形態이기도 한 것이다. 이 三角形은 3 : 4 : 5의 整然한 整數比를 갖인 3邊의 線分の 最短과 最長の 比가 3 : 5로서 바로 이것이 黃金比의 近似値를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人爲인 正方形의 發見이 同時에 美的 發見이 되고 黃金比의 起源에 連關되었다는 點은 뜻 깊은 事實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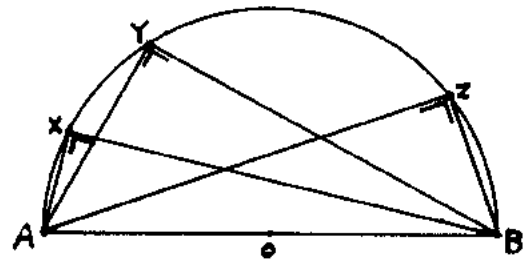


그림 2

하나의 끈으로 直角三角形을 만드는 方法을 發展시켜 생각한 다른 方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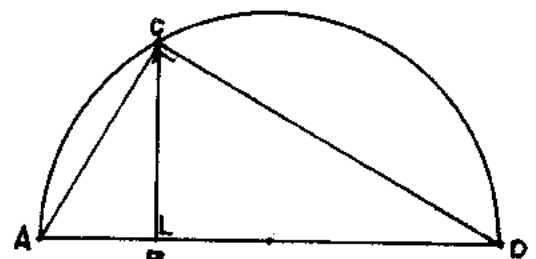


그림 3

그것은 끈 A, B를 底邊으로 하여 그 頂点 X, Y, Z를 圓弧에 內接시키면 半圓안에 그려진 모든 三角形은 直角三角形이 된다는 原理가 된다. 여기서 三角形의 頂点에서 底邊에 垂直으로 내린 線은 그것이 底邊을 比例 中項으로 分割한다.

即. 그림 3 $AB : BC = BC : BD$ 가 된다.
여기서 希臘의 幾何學者는 線이나 面을 두個로 分割하여 작은 部分이 큰 部分에 對한 比가 큰 部分이 全体에 對한 比가 큰 部分이 全体에 對한 比와 같다는 原理를 半圓內에 그린 正方形에서 發見할 수 있었다.
(그림 4)에 있어서 正方形의 垂直 2個且은 半圓을 2點으로 가른다.

正方形 한변에 對한 底邊 兩端에 있는 짧은 線分の 比는 兩者를 合한것에 對한 正方形 一辺과 同等하다.
 $AB : BC = BC : AC$
 $CD : BC = BC : BD$

線에 관한 分割方法은 面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림5)에서 높이 BC와 같은 矩形을 AC線상에 그리면 B를 통한 垂直線 BE는 큰 部分에 대한 작은 部分의 比가 全体에 대한 큰 部分의 比와 같은 두개의 面으로 分割된다. 큰 部分은 分明한 正方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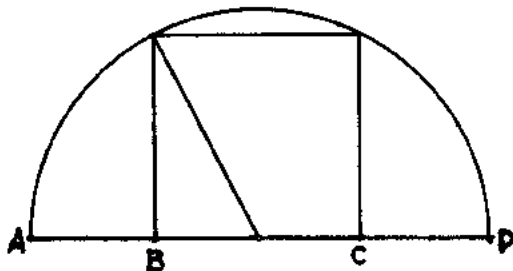


그림 4

黃金分割이란 무엇인가를 端的으로 말하자면 어느 量이 다른 量에 대하여 一定한 比例를 가졌을때 우리는 거기에 어느 美를 느끼게 된다. 그 原理를 法則적으로 規定한 것이 말하자면

黃金分割 (GOLDEN SECTION) 인 것이다.

獨逸의 美學者 “싸이징그”는 (1810~76) 美學上에서 一般의 比例問題를 研究하여 所謂 黃金 分割法을 確立하여 黃金比의 美的 價値를 強調하였다.

거기에 따르면

어느 長이를 2等分하는데 작은 部分이 큰 部分에 대한 比가 큰 部分이 全体에 대한 比와 同等할때, 그 美的 效果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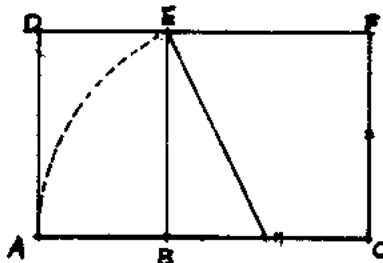


그림 5

即, 大를 a, 小를 b라 하면,

$$b:a = a:(a+b)$$

$$a^2 = ba + b^2$$

$$a^2 - ba - b^2 = 0$$

$$b=1 \text{ 이라면 } a = \frac{1 \pm \sqrt{5}}{2} = 1.618 \dots$$

따라서 $b:a = 1 : 1.618 \dots$

이것을 黃金比() 또는 黃金率이라 부른다.

黃金分割은 自然이나 造形등의 形態美를 規定하고 있는 各種 比例 가운데 自古로 가장 理想의이라 하여 그런 뜻에서 黃金이란 名稱이 주워져 尊重되어 온 것이다.

지금 長邊과 短邊의 比가 黃金比가 되는 矩形의 作圖法은 (그림 6)과 같다. 正方形 A, B, C, D를 그리고 A, B의 中點 M을 中心으로 MC의 半徑으로 圓弧 CE를 그리면 AE는 黃金比 矩形의 長邊이 된다. 矩形 A, D, E, F는 短邊 1에 대하여 長邊 1.618의 比를 가진 黃金比 矩形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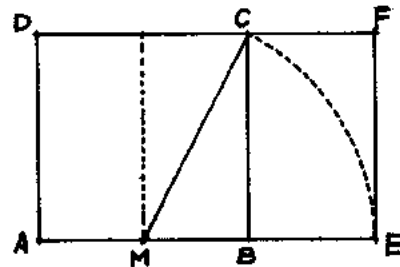


그림 6

以上은 주로 黃金比의 數學上的 解明이지만 實際 우리가 造形上에 必要한 것은 嚴密한 數字보다 3對5의 分割을 가진 黃金比라 생각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事實에 埃及人이나 希臘人이 使用한 것은 人体나 動植物에서 直接 얻어낸 놀랄만한 自然의 法則으로서의 “美의 分割”이며 처음부터 黃金比를 計算하여 얻은 數字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2 矩形의 分割

√2 矩形은 모두가 正方形이 基準이 되어 만들어 지는데 √2 矩形은 正方形의 一邊을 短邊으로 하여 그 對角線의 長이를 長邊으로 한 矩形인 것이다.

(그림 8)은 √2 矩形으로 自古로 「調和의 門」이라 불리워 그 安定感있는 圓滿한 形으로서 즐겨 쓰여 지는데 建築뿐만 아니라 여러 分野에 널리 愛用되어 왔다. 實用上으로는 矩形이 가진 特徵으로서 두개로 접으나 4개로 접으나 그 比가 變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洋紙의 規格으로 이 比例가 採用되어 왔다. 長短의 邊의 比는 $1 : \sqrt{2}$ 數式으로는 $1 : 1.414$ (近似值)로서 長短의 比가 比較의 가장 正方形에 가까운 形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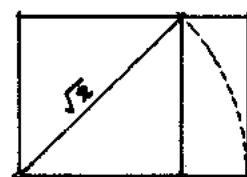


그림 8

√2 矩形을 基本으로 하여 (그림 9)와 같이 對角線을 長邊으로 한 矩形을 만들면 √3 矩形이 생긴다. 같은 方法으로 對角線을 長邊으로 한 正方形을 차차로 求하면 √4, √5, √6, √7, ..., √n 과 같이 正方形을 基本

形으로 한 一連의 矩形이 導出되어 얻어진다. 여기서 $\sqrt{2}$ 矩形을 「調和의 門」이라 한 것은 $\sqrt{\quad}$ 矩形의 最初의 出發點인 뜻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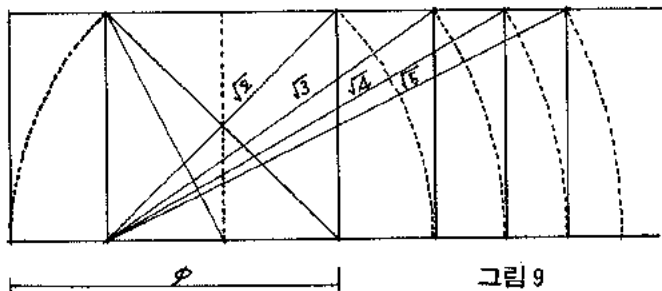


그림 9

(그림12) 正方形의 높이와 底邊을 二等分한 길이의 比는 $1 : \sqrt{3}$ 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지금 正三角形의 底邊의 길이를 S 나 하면은 그 半은 $\frac{S}{2}$ 가 되며 높이를 h 라 하면 $\frac{S}{2} : h = 1 : \sqrt{3} = 1 : 1.732\cdots$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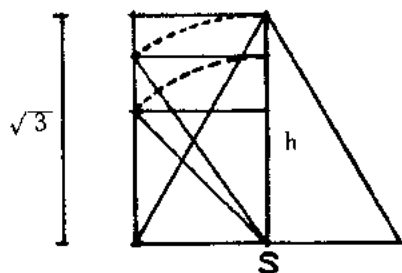


그림 10

이 比率은 “近似 黃金比”라 부른다.

4. 形態美의 追求

黃金比의 矩形은 왜 아름다운가? 이는 오늘날까지 感覺의 問題로서 그以上 追求할 수 없었다. 맛있는 것을 맛 있다는 것으로, 맛있다는 것에 왜 그렇게 맛있느냐 理由가 없듯이 아름답다는 것에도 理由는 없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黃金比」를 말할때마다 어쩐지 딱 잡아 말할 수 없음을 느껴왔다.

美가 數로 表示되는 것과 껴꾸로 數가 美라는 말에 對해서 어딘가 納得이 가는 說明을 얻지 못하는 以上 아무리 美라 하여도 그대로 받아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 知性이 快히 容納해 주지 않는다 생각한다.

「黃金比」가 참말로 美라면 무엇인가 어떤 形式이던 証明되어 納得이 갈 수 있는 說明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黃金比가 自古로 무슨 普遍的인 真理나 있는 것처럼

느꼈고 神秘的인 數나 比例의 美學이라고도 생각한 것에 대한 合理的인 近代 科學으로서의 解明은 果然 不可能한 것인가?

이 興味있는 傾問에 對하여 現在 生理學 또는 心理學의 立場에서 두가지 解釋을 하고 있다. 그 하나는 勿論 「黃金比는 아름답다」라는 肯定說이고, 또 하나는 「그다지 아름답다는 根拠는 없다」라는 否定說이다.

形態의 美는 우리들의 눈이 重大한 役割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同時에 눈을 즐겁게 한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하면 눈의 機能이 힘드리지 않고 즐겁히 움직인다는 狀態에 있을 때, 우리는 快感을 느낀다. 快感을 주는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매우 當然한 原始的인 感情이다.

이것이 바로 黃金比의 矩形을 解讀하는 鍵이 되는 重要性을 가진 것이다.

또하나 잊어서는 안될 것은 形態를 보는 것은 人間의 눈인 것이다. 얼굴正面에 두 눈이 나란히 뿔려 있다. 눈이 하나라면 問題는 다르다. 이 때는 正方形이 調和가 잡힌 形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는 心理學이라기 보다 生理的인 眠球의 構造와 機能에 原因이 있는 것이다. 人間의 兩眼의 視軸은 自然의 狀態에서 여러 角度를 가지고 一點에 集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 角度는 사람에 따라 $3^\circ \sim 7^\circ$ 쯤 다르다. 이 角度를 模의 巾으로 만들어진 矩形이 3과 5일때 가장 보기 즐겁다는 것은 3과 5의 黃金比의 矩形이 가장 아름답다는 証拠인 것이다.

以上은 人間의 兩眼의 構造와 機能에서 考察한 것이지만 人間이 魚類와 같은 눈을 가졌을 때는 黃金比는 成立되지 않을 것이다. 또 눈이 하나로 退化하거나 눈이 셋으로 進化하지 않는 以上, 黃金比는 人間만의 美의 比例로서 尊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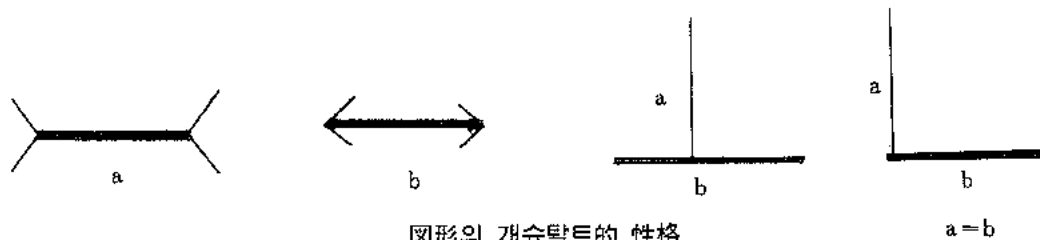
黃金比의 否定說

地平線 위에 뜬 달은 中天에 있는 달보다 크게 보인다. 구름이 움직이면 달이 움직이는 것같이 보인다. 같은 길이, 같은 면이라도 다르게 보이는 수가 많다. 누구나 日常 經驗하는 事實, 人間이 느끼는 心理的인 空間은 物理的인 空間 그대로의 모양이 아니며 均質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知覺된 空間은 恒常 어떠한 程度나 環境 條件에 따라 錯覺할 수 있다는 것이다. 視野의 中心部와 周辺部の 差異, 또 縱의 直徑은 橫의 直徑

보다 크게 보이는 등 예를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들 눈이 左右 上下方向에서는 틀리는 機能을 가진 것으로 다시 말해서 視空間의 不均衡性(異方性)을 가르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視野속에 어떠한 形態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周圍에 어떠한 影響을 끼친다. 따라서 形態가 두개以上 있을때의 視覺的 像은 그것들을 따로 따로 보았을 때의 印像을 重合한 結果와는 다르다.



圖形的 개슈탈트의 性格

지금 假令 黃金比의 矩形이 美的이라 하여도 橫인것을 縱으로 하면 벌써 그 造形的인 性質은 變하고, 또 다른 矩形을 옆에 놓으면 거기에 또 다른 事態가 變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黃金比의 矩形이 그다지 아름답다는 根拠는 없는 것이다.

以上이 黃金比에 對한 肯定說과 否定說의 人要라 하겠는데, 實인즉 黃金比가 꼭 必要하고 使用하여야 한다는 理由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人類가 몇 世紀를 通하

여 自然에서 배워 發展해온 美的 比例의 法則을 아주 否定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오히려 普遍的, 神秘的인 真理라 하는 黃金比를 盲信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科學, 새로운 心理學의 立場에서 解明하여 現代의 새로운 建築美學을 새운다는 意味에서 貴重히 다뤄야 하며 꾸준한 綜合 研究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慶熙大學校 教授

新刊 韓國傳統木造建築圖集

1. 柱心包式建築 / 2. 多包式建築 / 3. 折表式建築
/ 4. 翼工式建築 / 민도리집建築 / 圖版解說 / 東洋
三國의 傳統木造建築年表 / 찾아보기

編著者 韓國建築家協會

값 15,000원

發行處 一 志 社

建築構造物の 巨大化 限界

—스팬의 長大화와 高層化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金圭石

建築構造物術의 中核은 材料에 관한 力学, 構造에 관한 力学과 시공법등이다.

이들은 현단계로서는 꽤 높은 수준까지 발전 하였다고 생각된다. 제 2 차세계대전이 끝나고 經濟가 발전, 안정기에 돌면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大建築物의 需要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構造技術의 진보를 촉진케 하였다.

技術이란 自然法則을 이용하여 인간의 使用 目的에 알맞게 利用・活用하는 것이다. 技術에는 여러 分野가 있겠으며 그 進化에도 또한 여러 方向이 있다.

크기면에서 본다면 動力技術인 경우, 1 킬로에 대한 出力의 增大, 制禦技術에서는 小型化에 의한 容量 增大가 그 進化의 方向이라 할 수 있다. 선박이나 항공기도 巨大化하고 있고, 土木・建築構造物에서도 巨大化가 進化의 한 方向이기도 하다.

이러한 技術은 각기 그 方向으로 진보하는 도중에 어떤 시스템을 밟게 되는데, 어느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된다.

예를 들면 橋梁인 경우, 스패인이 길수록 利用度가 높으므로 큰 스패인이 요구되었다. 간단히 봉나무를 강에 걸쳐서 다리로 이용하던 것이 組積構法에 의한 야치교가 생겼다.

그 다음으로 트러스構法에 의해 스패인이 長大化 하였고, 연속보나 鋼의 懸垂構造는 더욱 스패인을 증대케 하였다. 建築에서도 大空間의 지붕을 덮기 위한 셸構造가 등장하였고, 이 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空氣膜構造가 개발되므로써 構造技術은 놀랄만치 진보하였다.

建物높이면에서도 組積造의 建物에서 鉄骨의 架構式構法과 엘리베이터의 개발로 뉴욕의 세계무역회관에 이르

기까지 발전하였는데, 이 시스템으로서는 그 한계에 다달은듯 하다.

이와 같이 土木, 建築構造에서는 스패인과 높이에 대하여 무한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構造物の 巨大化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많은데 安全性, 快適性(機能面), 經濟性등을 중심으로 構造物の 巨大化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安全性

安全性이란 強度化의 문제와 가장 관련깊은 것이다. 物理的인 면에서, 構造物은 自重과 外力에 대한 耐力을 가져야 하고, 따라서 安全率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構造物은 한없이 크게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638년 이탈리아의 갈릴레오는 「2 개의 새로운 自然科學에 관한 對話」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自然이나 人工의 인 것이 무한히 크게 될 수 없다고 하였다. 樹木은 대략 90m를 넘지 못하고, 人間은 뼈의 強度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같은 프로포션으로 2 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인간이 같은 프로포션으로 2 배가 된다면 8 배의 體重을 지탱해야 하고, 뼈대의 斷面은 4 배가 되어야 하므로 8 배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코끼리 다리 현상(象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人工的인 것을 보더라도 모든 材料는 그 自重만으로 破壞되는 限界가 있다. 圖 1 에서와 같이 軟鋼의 鋼棒을 매달았을때 6.7km가 되면 自重만으로 許容応力度에 이르고, 8.9km이면 破斷하게 된다. 安全率까지 생각한다면 그 값은 더욱 작아질 것이며, 地球上의 重力場内の 構造物은 이 법칙의 支配下에 있게 된다.

建築物인 경우 규모는 다양각색이므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교량인 경우 비교적 단순하며, 표 2, 그림 1과 같다. 건축은 스패의長大化와 高層化인 두 가지의 進化方向이 있다. 이 두가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교량보다 더욱 복잡하게 된다. 현존하는 建物, 計劃 發表된 건물, 計劃中인 것을 살펴보면 표 3, 4, 5와 같다.

표 1. 매달린 재료의 길이한계

材 料	σ (t/cm ²)	γ (g/cm ³)	ℓ_1 (km)	ℓ_2 (km)
軟 鋼	5.2	7.8	6.7	8.9
소 나 무	1.0	0.5	20.0	26.5
피 아 노 선	22.0	7.8	28.0	37.0
나 이 론 끈	5.7	1.14	50.0	66.0
콘크리트(압축)	0.6	2.2	2.7	3.6

주: σ : 引張強度

γ : 比重

ℓ_1 : 応力度가 인장강도의 0.75배인 때의 길이

ℓ_2 : 応力度가 인장강도인 때의 길이

표 2. 現存橋梁

構造시스템	位 置	스팬 (m)
연속보의플레이트거더	하아렘 리버橋(미국)	100
鋼복스 거더	琵琶湖大橋(일본)	140
연속 트러스	天草 1 号橋(일본)	300
단순지지트러스	메트로 폴리스橋(미국)	222
아 치 橋	베아온느橋(미국)	504
겔비식 트러스	백橋 (캐나다)	549
斜 張 橋	세베린橋(서독)	302
현 수 橋	베라자노나로우스(미국)	1,294
"	南海大橋(한국)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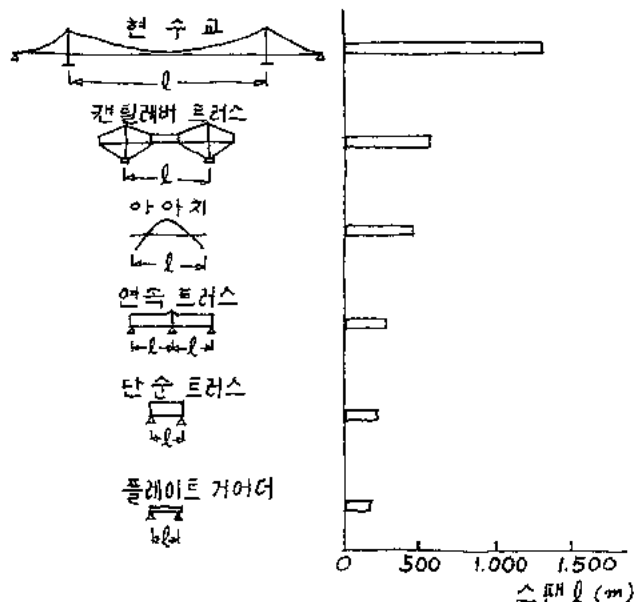


그림 1. 교량구조시스템과 최대스팬

그런데 建築構造 시스템의 源流를 살펴 보면 單位個体の 블록을 쌓는 것과 部材를 組立하는 두가지의 主流로 발전되어 왔다. 즉 벽돌, 블록, 목재, 철강재를 組積 또는 組立하던가, 재료를 거푸집 속에 부어 넣어서 굳힌 형태의 것이 건축시스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空氣壓力을 이용하여 큰 공간을 형성하는 空氣膜構造 시스템도 실용화되고 있다.

표 3. 現存하는 큰 규모의 建物

建 物 名	位 置	規 模	建設年代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뉴 욕	102층 378m	1931
존 한 콕 센 타	시 카 고	100층 337m	1969
세 계 무 역 회 관	뉴 욕	110층 410m	1973
국 립 기 술 센 타	파 라	RC220m스팬	1959
아 스 트 로 돔	휴 스톤	S. 196m스팬	1965
T V 탑	모스크바	529m	

표 4. 計劃案으로 發表된 建築物

構 造 形 式	規 模 및 位 置
현 수 식 지 붕	600m×600m, 이라노이대학
브래멘港의테트지붕	폭390m, 길이1,500m, 높이55m
맨 하 탄 의 공 기 돔	직경 3.5km
마 일 · 하 이 · 타 워	높이 1,600m 1956년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작품

표 5. 計劃中의 건축물

構 造 形 式	規 模 및 位 置
슈 퍼 돔	스팬 208m 뉴우올린즈
토론토의 CN 타워	높이 542m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는 自然의 法則에 따라서 만들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대부분이 創出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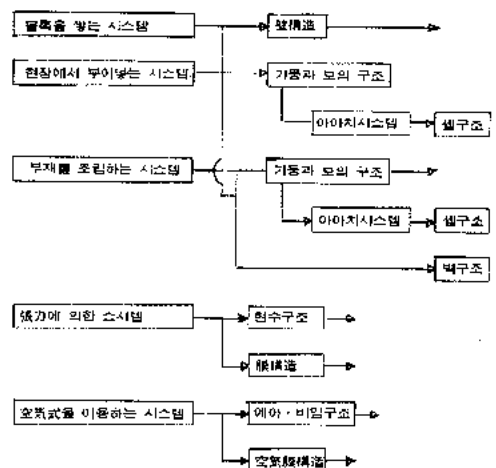


그림 2. 건축구조의 시스템 일람표

그림 2는 이러한 구조시스템을 정리해 본 것이다.

구조시스템은 最終到達系에 다달았다고 생각되며, 이의 개발 방향은 그러한 構造시스템들의 組合, 材料의 開發, 接合에 관한 開發, 材料力學的인 研究, 構造力學的인 研究등의 細分化된 領域에서 깊어 研究進行되고 있다.

高層빌딩을 예로 들어보면 시카고의 John Hancock Center, 뉴욕의 World Trade Center, 시카고의 Sears Roebuck Tower 등과 같은 耐力壁시스템은 部材를 組立한 壁構造와 라아멘構造의 組合이다. 라아멘 構造시스템으로는 파즈버그 US Steel 本社와 같이 主 라아멘을 3層마다 큰 보와 기둥으로서 구성하고, 그 중간의 보와 기둥은 다만 主라아멘과를 연결하는 構法, 즉 그들간의 間막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도 라아멘 구조시스템과 벽 구조 시스템의 合成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런던의 Commercial Union 빌딩과 같이 어느 층에 平面 梁구조를 배치하여 이것에 上下層을 지지해 주는 라아멘과 梁구조시스템의 조합도 있다. 물론 여기에도 벽구조 시스템은 들어 있다.

한편 스패에 대하여 살펴보면 高層化와 같이 각종 시스템을 구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機能面에서 교량처럼 큰 스패를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다. 현수교시스템이 가장 큰 스패에 적합한 것으로서 뉴욕의 Verrazano-Narrows Bridge(1964)가 1,300m의 스패이며, 1,500~1,600m의 本四連絡橋(일본)가 計劃中이고, 우리나라의 南海大橋의 스패도 405m나 된다.

建築인 경우 無柱大空間이라면 多目的의 스포츠센터나 大壁航空機의 整備用 格納庫가 있고, 전자는 스패가 200m 정도, 후자는 이보다 약간 적은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建築에서의 스패는 構造面에서 아직도 増大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高層化인데 지금까지의 최고 건물높이를 증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風, 地震등의 水平外力이라 할 수 있다.

2. 機能面

建築을 高層化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 오는 것은 상하층의 交通 문제이다. 이를 해결한 것이 1880년경 엘리베이터의 개발이다.

엘리베이터의 設計基本方向은 사무소 建築인 경우, 아침 출근시의 5분간에 入館者를 여하히 円만하게 수송처리하느냐에 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의 速度, 定員, 平均運動間隔, 서비스層數등에 따라 설계가 다소 달라지는 수도 있겠다.

建築物이 高層化하게 되면 엘리베이터의 대수가 늘어나고, 너무 늘이면 건물의 有効面積이 작아지고, 또한 防災을 위한 設備가 많아져서 서늘한 바와 같이 自重과 給水の 限制와 같은 象足現象이 나타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象足現象의 완화책으로 Sears Roebuck Tower에서는 2개층마다 멈추는 스톱형식과 World Trade Center의 Skyloby 시스템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스카이·로비시스템이란 기능적으로 서로 관계없는 3개의 建築物을 重疊하는 것이다. 3종류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의 최하층의 로비에서 다시 4종류의 엘리베이터群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建築物의 최하층 콘·코오스바닥에서 각 블록으로 直行急行群으로 110층의 세계무역회관이라는 건물의 기능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150층 정도까지는 高層化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 經濟面

미국은 금세기 초부터 建築物이 高層化하기 시작하여 建物高의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초기의 마천루는 記念建造物의인 이미지의 塔狀形態였고, Woolworth 빌딩과 같은 시카고 양식이 대부분이었다.

선택이나 항공기가 大型化하듯이 建築物도 土地利用, 收容能力面을 고려하여 高層化함에 의해 경제적일 수 있다. 전자의 建造費는 그림 3과 같이 増加추세가 완만하나, 建築物의 경우는 그림 4와 같이 増加추세가 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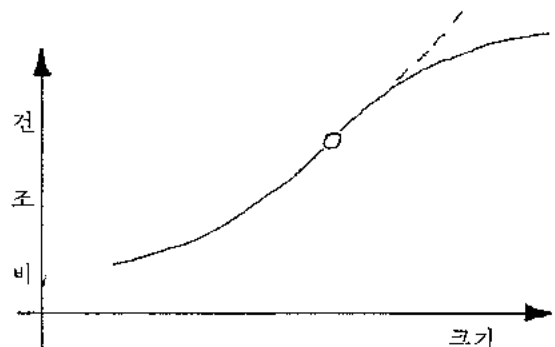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물의 크기와 건설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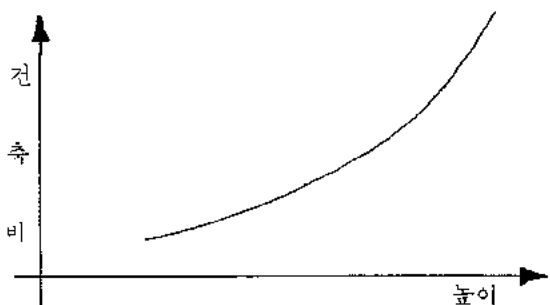


그림 4. 건물의 높이와 건축비와의 관계

그림 3에서 황축의 크기를 건조비로 나누어서(효율) 표현한 것이 그림 5이고, 그림 4에서 마찬가지로 높이를 건조비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 그림 6이다. 이는 효율을 살펴 본 것인데, 그림 5에서 어느 크기 이하에서는 효율이 갑자기 떨어지며, 그 이상에서는 점점 효율이 좋아진다. 이에 반해 그림 6에서 어느 높이 이하에서는 효율이 떨어짐은 그림 5에서와 같으나, 그 이상에서는 점점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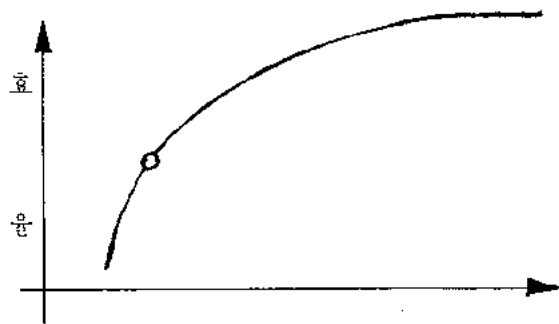


그림 5. 크기와 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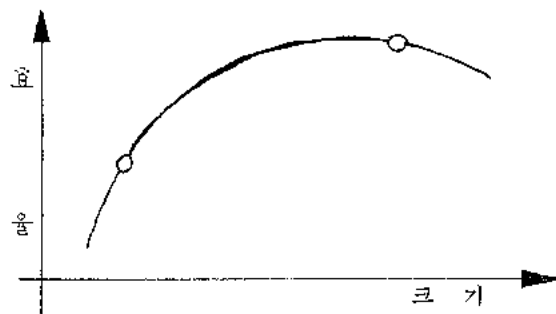


그림 6. 건물고와 효율

결국 건물에서 어느 높이 이하나 이상이 되면 효율(建物高/建築費)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高層化 限度는 材料, 構造시스템, 施工法 등의 研究·開發에 따른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즉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건설될 때에는 高層化의 한도에 다달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커튼 월 시스템과 순철골조의 상자形플랜을 채택함에 따라 더욱 高層化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7 참조)

결국 기술자는 細分化되어 개발된 것을 종합적으로 組合한다면 계속 建物高의 상한선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8의 2개의 曲線은 미국과 일본의 초고층 빌딩의 使用鋼材量과 建物高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인데,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고층화의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여기서 더욱 발전하려면 다른 새로운 구조시스템의 기술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물을 高層化함에 있어서 어려운 3가지 요소에 관해 살펴 보았는데, 構造分野에서는 아직도 高層化의 가능성이 엿보이며, 機能이나 經濟面에서는 어느 한계점에 온 느낌을 갖게 한다. 즉 기술개발에 따라 高層化의 방해 요소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이며, 이것이 오늘날 건축의 기술개발의 방향인듯 한다.

새로운 시스템의 궁리에 의한 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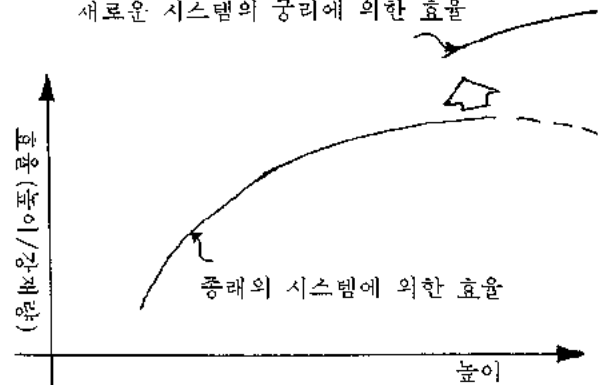


그림 7. 시스템의 변화에 의한 효율의 변화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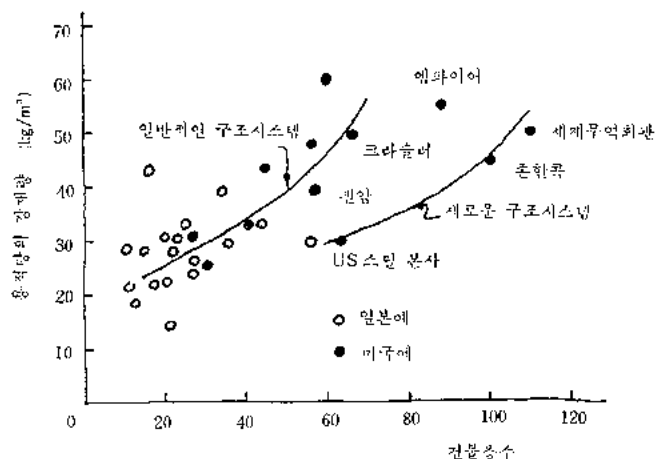


그림 8. 현존건물의 층수와 사용 강재량과의 관계

그러나 경제성만을 너무 추구하는 중에 Redundancy (여유)를 잃게 될 수 있다. 건물이란 인간의 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이라 볼때 Redundancy-less의 건물에는 인간적인 매력도 없을뿐만 아니고, 다만 기술의 산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建築의 巨大化를 위한 適性規模의 문제는 대지위에 선 1개의 건물이 아니라 地域全体속에 있는 建築群에 어울리는가를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東國大 助教授

濟州 漫想

崔 昌 奎

今年 9月29日 建築士協會 濟州支部의 要請으로 「現代建築의 動向」과 「마야文化와 인카文化」라는 演題로서 濟州 KAL HOTEL에서 講演會를 가진 일이 있었다.

偶然히 事務室이 間暇했고 學校가 連休가 겹쳐 있었고 季節이 가을이라 짧은 旅行에는 알맞는 條件에서 신나는 氣分으로 濟州를 訪問하였다.

濟州에서는 이러한 講演會라든지 展示會 등이 그리 자주 열리지 못해서인지 支部會員同志들이나 그의 補助士, 學生, 關係官庁의 公務員들까지도 參席해서 3時間半이나 和氣充溢한 가운데 뜻있게 이루어졌고 相互 質疑 応答도 진지하게 展開되어 實共히 盛況裡에 끝났다.

支部會員同志들은 濟州에서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 確保에 도움이 되었다고 기뻐들었다.

濟州란 確實히 異國의인 섬이다. 數 많은 名所들과 古跡 景致 좋은 곳 山과 그리고 바다, 方言, 新鮮한 海産物, 特別히 亜熱帶의 植物들 돌하루방이며 特異한 土産物들, 數 많은 觀光客들과 新婚旅行者들 그들이 말하는 陸地에선 흔히 볼 수 없는 事況들이 많아서 好奇와 흥분으로 소풍간 少學生마냥 즐거웠다.

講演會가 끝나고 會員들과 고급公務員들이 모여 食事に 하고 많은 이야기의 꽃이 피었다.

이승만박사의 自由黨 政權時代에 濟州를 東洋의 또 하나의 香港과 같은 國際自由港으로 하자는 案이 나왔다가 實踐되지 못했다. 그 理由는 自由港이 되면 安保上의 干渉의 침입이 쉬울 것이라는 것과, 外國商品이 들어 오면 國內製造業에 打撃이 온 것이라는 點과 또 하나는 當時의 國庫로는 自由港답게 한 施設投資가 不足하다는 點 등으로 좌절되고 말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近者에 와서 政府는 莫大한 投資를 해서 濟州道 開發에 着手했고 中文의 觀光團地나 新濟州建設, 飛行場의 大擴張, 港灣의 大整備 等 活氣한 濟州의 모습을 볼수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食事途中 한담에서 主要한 話題였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 濟州 漫想을 쓰게 된 動機로는 問談途中에 最高位 官職에 있는 분의 問談中에 觀光순환道路의 街路樹를 벌채해야겠다는데 대한 나의 所見을 말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 理由인즉 濟州에는 觀光客이 많이 온다. 그것은 山과 바다를 보기 위해서 온다. 그 山과 바다를 보는데 街路樹가 支障이 된다는 것이다.

하도 어처구니 없는 理由와 施策에 놀랄수밖에 없었고 有口無言으로 아연했을 뿐이었다. 도대체 이러한 施策樹立이나 決行의 決定權을 가진 公務員들은 이部門의 專門家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 또는 濟州島民의 見解를 들어보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이다.

바로 講演會를 主擧한 士協支部는 이곳에서 이 部門의 專門團體임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些小한것 같으면서도 濟州 全島의 景觀이 關係되는 重要한 일에 參與할 수 없었는지, 意見 陳述이나, 建設的인 建議같은 것을 한적이 있었는지, 또는 當地의 工業專門大學의 教授들도 이일에 參與하거나 자문에 應한 적이 있었는지 꽤 궁금한 일이다.

筆者의 순간적인 所見으로도 그 觀光 순환도로의 街路樹의 벌채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 理由로는 于先 反問하려니와

- 1) 山과 바다는 濟州島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왜 觀光客이 濟州로 모여 오는가?
- 2) 濟州道는 觀光위주여야 할 것인가, 島民위주여야 할 것인가?
- 3) 濟州의 山과 바다는 陸地의 山이나 바다와 어떤點이 다른가?
- 4) 순환道路를 통과하는 視線의 移動과 그 速度는?
- 5) 景致의 好不好의 基準은?
- 6) 觀光客이 山과 바다를 감상하는 時間的인 것은?
- 7) 觀光客의 觀光地에서의 心理狀態는?
- 8) 순환道路는 濟州全島의 風景에 어떤 意義를 갖고 있을까?
- 9) 山과 바다에 미치는 濟州의인 氣候(氣象)은?
- 10) 濟州의인 것이 大體 무엇인가?

以上 10個 條項으로 나누어 筆者의 所見을 밝히고자 한다.

1) 은 陸地에도 또 外國에도 山과 바다는 많다. 다만 濟州의 山과 바다는 他處의 山과 바다와 전혀 다른 外觀의 인데가 있다. 즉 恥羅의인 것이기 때문이다. 地質, 地形學的 立場에서도 陸地의 그것과는 다르다. 바다 亦是 색깔부터가 다르다. 이것은 濟州의 山河의 영향이고 氣候의 영향이라고 보아야겠다. 때문에 山과 바다와 다를 뿐만 아니라 觀光오는 사람들은 오직 山과 바다만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旅行의 心理的 分析까지는 하지 않아도 家庭과 職場에서 解放되고 싶은 慾望이라든지 즉 旅行者의 心理로서 自己住居하는 周圍에 없는 人文이나 風致나 學術的 浪漫的 雰囲気가 要求되기 때문인데 濟州가 이러한 點엔 가장 쉬운 安城다종의 場所이기 때문이다.

2) 은 濟州島는 太古海中에 火山이 噴出했고 그後 어떤 經路이든 間에 人間이 定着하게 되었고 그 氣候에 맞추어 自然的으로 森林이 우거지게 된 것인즉 始初로 定着한 島民이 耽羅國을 建立했다든지 長久한 歲月을 거쳐 現在의 濟州島를 形成하고 있는즉 누가 무어라해도 濟州道는 島民을 위한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觀光客의 來島는 島民의 所得増大와 直結된다. 즉 島民所得 増大를 위해 觀光客이 必要한 것이자 觀光客을 위해 濟州島나 島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主는 島民이고 觀光客은 부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主客을 전도하는 생각을 가지긴 쉽지만, 冷情히 생각해 볼 必要가 있겠다.

3) 濟州의 山은 漢拏山이고 바다는 周圍의 모든 바다이다. 漢拏山은 標高 1,964m 의 우리나라의 高峰의 하나인데다 氣候의으로 山麓은 亞熱帶植物이고 中腹은 溫帶植物이고 頂峯附近은 寒帶植物이 尙存하다. 1개의 山에이 3候帶의 植物이 다 갖추어 있다는 點이 漢拏의 特徵의고 매력인 것이다. 더우기 山頂의 白鹿潭은 名稱 그대로 白鹿이 노닐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고 이 詩的 名稱과 千變萬化하는 山의 모습과 구름이나 안개가 더욱이 漢拏를 裝飾해 주고 있다.

바다는 隣接陸地의 影響으로 左右되는 것이며 山의 푸른 投影은 勿論 熔岩의 凝固된 海邊의 奇岩怪石이 濟州의 바다를 돋보이게 해주고 진흙과 塵埃가 적으니 海水가 澄澈하고 더우기 熔岩地層形成時의 斷崖가 많은 名瀑을 만들었고 그 瀑布의 물이 맑으니 더욱 돋보이고 世界에 有例없는 瀑布가 直接 바다에 落下하는 絶景을 남겨 놓고 있다.

이렇게 바다와 山이 他處의 山과 바다에 比할수 없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4) 物理的으로는 視野의 적은 物體도 遠景眺望에 支障이 있다. 즉 視覺障礙가 된다. 그러나 그 障礙物을 通過하는 視線과 移動速度 如何에 따라서는 아무런 支障이 없다. 이것을 손가락 하나를 눈앞에 가리면 앞이 안보인다. 그러나 그 손가락을 上下나 左右로 빨리 움직이면 앞은 다 보인다.

街路樹 伐取의 問題가 난 것은 바로 즉흥적인 山과 바다를 眺望하는데 支障이 생긴다는 物理的 생각만하고 大端한 創案이나 한것처럼 上申했고 上部는 또 簡單히 그 殘사한 일이고 觀光客을 誘致해야 하는데만 熱中해서 그러한 案이 나온 것같이 생각되나 깊이 생각이나 또는 一部分의 試驗도 안해보고, 또는 專門家들의 意見도 묻지 않고 自己의 在職時에 무언가 色다른 것을 해야만 되겠다는 습관성 拙速過多症 患者들의 処事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순환道路는 徒歩로가 아닌 觀光버스나 택시로 다닐 것 인즉(登山客以外)는 時速 30~40km/HR 程度로 보아 道路邊의 街路樹를 確知할 수 없는 速度이다. 하물며 山과 바다의 遠景의 障礙가 될 수 없다. 人間徒歩의 8~10km/HR 速度라면 街路樹의 樹種이나 꽃까지도 鑑賞할 수 있고 樹間隔(10m~15m)間에서 充分히 山과 바다의 遠景을 즐길수 있고 오히려 樹間으로 보는 景致는 더욱 韻致가 있을 것이다.

5) 到大如 景致란 무엇인가?

遠景이든 近景이든 間에 視覺的인 것과 心理的인 것이 混合해서 사람들은 鑑賞한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 한다.

濟州의 山과 바다는 많은 伝說과 文言과 그리고 濃厚한 綠色과 奇岩에 구비치는 파도가 있는 바다일게다. 心理的인 또는 氣候의인 面은 姑捨하고 오직 視覺的인 面에서만 생각하더라도 景致에는 原景과 副景과 添景이 있어서 비로서 아름다운 景致를 이룩한다.

바다, 바다 하지만 茫茫大海도 그 雄壯한 맛은 있어도 거기에 帆船이나, 燈台가 있는 岬岸寺가 副景으로 있을 때 景致가 좋을 것이고 周圍나 附近에 漁夫나 釣士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든지 또는 비바람이나 눈이 내릴 때 그바다는 더욱 아름답고 해나 달이나 별 등 添景이 있는지 잘매기나 가려기의 翹列이 明月과 어울리듯이 반드시 어떤 副景과 添景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漢拏에는 구름과 안개가 걸려야 멋있다. 바다엔 船舶이나 奇岩의 海岸이나 白沙의 海岸이나 瀑布 등이 副景, 添景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제아무리 景致가 좋은 곳이라도 副景과 添景없이는 朔莫한 걸이다. 山의 副景은 山麓의 村落이나 農家, 家畜, 古木, 고개길이나 街路樹등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例를 들어 泰西名畵나 傑作写真作品의 山과 바다를 보자 반드시 副景이나 添景이 있음을 發見할 것이다. 勿論 氣象도 副景이나 添景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人間만의 것으로 오직 外形的인것만으로 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心理的, 浪漫的, 詩的, 歷史的 各種의 內面的인 物件이 합칠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6) 筆者 自身도 旅行을 많이 해 보았고 濟州島라도 3회나 다녀 왔다. 그에 勿論 濟州의 山과 바다가 보고 싶었던 것도 事實이지만 한 旅行者로서 濟州에 와서 山과 바다를 얼마만한 時間을 吟味했는가 旅行者가 되어서 그곳에 가면 首先 解放感과 余裕가 생기고 마냥 흥분과 好奇에 가득 차 버린 지리고 거리로 山으로 바다로 쏘다닌다. 이때 山과 바다를 조용히 吟味하고 鑑賞하는 것은 호넬이나 旅館에서窓 너머로 즐기는 時間이 더욱 時間의으로도 긴 것을 알았다. 山과 바다가 제아무리 좋아도 몇 時間이고 山과 바다를 쳐다만 보지는 않는다. 어떤 때, 아침이나 저녁에 무료할 때 배스나 비행기를 기다릴 때, 문득 詩情이나, 浪漫的인 気分일 때, 벗과 거닐다 意外의 場所에서 골목에서 不意에 나타난 山과 바다의 놀라운 等이나, 하룻밤 觀光버스속에서는 近景에 더 精神이 쏠리고 遠景은 가끔 가끔 보게 되는 것이다.

7) 바쁜 世上에서 모처럼의 觀光이 短期間에 많은 것을 볼 때는 慾心이 생긴다. 때문에 無理해서 疲勞를 느낀다. 職場과 家庭과 모든 拘束에서 解放된 気分은 절없는 아이를 같이 된다. 名物이나 土産物·記念品을 사는데 많이 쓴다. 어른들은 이때나라고 慰樂을 찾는다. 낮에는 대개 名所를 찾고 밤에는 慰樂을 찾는다. 호넬이란 바로 이런것을 노린 建物이 아니겠는가, 또는 장난기가 생기고 신이 나고 明朗해진다. 觀光地 開發은 바로 이러한 心理條件을 充足시키게 해주어야 한다.

8) 5.16革命이 나자 濟州道에 5.16橫斷道路라는 것이 생겼다. 近者에 와 이것과 連結시켜서 觀光 순환 道路가 생겼다. 그러면 濟州道에서 이 순환道路란 어떤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單的으로 人間, 物的量의 早速輸送이 道路 根本 目的이다. 그러나 觀光道路란 若干의 다른 意味도 附加된다.

즉 名所나 景致 좋은 곳으로 客을 誘導한다는지 全島의 여러 名所를 順次的이고 安易하게 巡回할 수 있게 한다는 点이고 道路自体가 景致의 一部分이 된다는 点이 되겠다.

景致의 一部分이 될려면 道路自体도 아름답게 되어야 하겠고 副景과 添景도 必要하겠고 또 道路가 副景이나 添景이 되는 경우도 있어야겠다.

道路가 副景이 될려면 計劃時부터 位置나 句配나 補裝이나를 深重히 考慮해야 하겠고 道路의 副景이나 添景이 될 것이라면 街路樹나 花草나 岩石이나 돌하루방등의 配置나 SIGN BOARD 등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濟州道全體를 위한 道路이지 道路를 위한 濟州島는 아니라는 点이 되겠다.

9) 濟州의 山과 바다는 陸地와 다른 氣候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 價值性을 發揮하고 있다. 즉 溫暖한 溫度와 多濕한 湿度와 바람과 구름 그리고 안개가 濟州의 自然에 特有的 맛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溫暖하기에 油菜와 감자와 커인애플이 있지 않은가, 바람이 안개가 있기에 陸地에서 孤立된 어떤 特殊한 獨立 環境은 것이 생각되고 距離感이 생기고 旅客은 完全한 連絡이 杜絶되므로서 더욱 解放感을 滿喫할 수 있고 안개와 구름에 늘 가라앉아있는 漢拏山이기에 더욱 쳐다보고 싶고 손사라도 그 안개와 구름이 거치면 아— 하고 경탄의 聲을 올리는데 한라의 멋이 있는 것이다.

바람은 파도를 일게 하고 航空機를 缺航케 한다.

濟州 三多, 風, 石, 女이지만 바람은 視覺으로 나무나 파도로서 認知되고 청각으로 소리의 銳鈍으로 認知된다. 꽃밭이 서 있을 나무가 바람에 춤출때 人間은 더욱 아름다운 驚嘆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리밭의 風波, 防波堤의 파도, 湖水의 잔물결, 瀑布의 물보라등을 바람이 自然에 덧붙여 주는 造化인 것이다. 이것을 人間은 아름답다고 하고 詩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勿論 靜寂의 美도 있기는 하지만

10) 그러면 觀光客은 왜 濟州에 오는가?

오직 山과 바다뿐만은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陸地와 色이 다른 濟州的인 風物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濟州의인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自然的인 것으로는 높은 한라산과 白鹿潭 溫暖한 氣候와 湿度와 바람, 구름, 안개, 特殊한 樹種의 密林, 淨潔한 바다, 特有的 果實들 花草들, 火山岩 등등 名所로서는 萬丈窟을 비롯한 數 많은 洞窟들 천재연을 비롯한 많은 瀑布들 傳統的 三姓穴, 萬德碑등등 風物로서는 草家집, 조랑말(生馬잡이등의 由來) 油菜밭, 굴감, 炬熱帶果實등등, 地學的으로 竜頭岩, 日出峰, 月出峰, 溪谷, 火山岩등등, 人爲的인 것으로서는 海女, 方言, 飲食, 風俗, 民謡(이여도山) 많은 伝説, 秋史先生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程度이다.

陸地에 이만한 地域에 이렇게도 많은 特異한 古事나 名所나 伝説이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이 濟州의인 것이다.

濟州島는 이 濟州의인 것을 조금이라도 損傷 시킬때는 濟州島에는 觀光客이 올 理由가 없다.

人物의 境遇에도 濟州島에 태어나서 그곳의 물을 먹고 成長한 住民이 가장 濟州의인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濟州의인 것을 살려서 濟州島民의 所得増大를 꾀하는 方法으로 手段으로서 觀光客이 誘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故로 濟州島는 濟州島民의 것이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다. 막말로 大韓民國에 예속해 있는 濟州島이지만, 國家가 어찌되는 間에 島全體가 海底로 가라 앉지 않는限에서는 濟州島의 山河은 永遠히 存在하고 自然은 그대로 存在할 것이다.

國破在 山河란 두보의 詩句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濟州島에서 濟州의인 것을 損傷시킬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자량이요 보배이기 때문이다.

以上을 간추려 10個條로 濟州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본
內容이고 綜合的인 結論으로서의 所見은 다음과 같다.

人間은 開發이라는 前提나 美名아래 地球의 表面을 업
청나게 損傷시켰다. 甚至於는 그 內臟까지 파헤치고 끌어
내서 地球를 不均衡으로 하게 해서 頻死狀態로 만들어놓
고도 큰소리를 치고 있다. 즉 우리는 萬物의 영장이라고
人間은 原初的으로 地球의 表面에 발 부치고야만 살 수
있다는 宿命的인 位置에 있는 것이다.

즉 生存의 基本의 場을 짊고 파헤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地球表衣인 樹林을 얼마나 伐採해서 헐 버렸는
가? 여기서 公害라는 우리의 生命을 威脅하는 狀態를 낳
게 했다. 한겨울에 한오라기도 걸치지 못한 우리의 裸體
를 생각해 보면 알만할 것이다. 그 結果는 滅亡밖엔 없
지 않겠는가. 때문에 一草一木이라도 伐取해서는 안될 것
이다. (어떠한 理由를 莫論하고) 筆者는 濟州島의 순환
觀光道路의 街路樹 伐取란 問題에 대해서는 義憤 마저도
느끼는 것이다. 아니 公憤이라고 함이 마땅할 것이다.

나는 이 施策의 決定權者들에게 反問하고자 한다. 즉
山과 바다의 眺望에 支障이 있다는 單한가지 理由로서 街
路樹를 伐取한다고 하면 한라산에 수시로 덮혀있는 구름
과 안개도 거두어버려야 마땅할 것이 아니겠는가? 바다
에 이는 바람과 안개도 거둘 것인가? 天帝淵이나 正房瀑
布가 잘 보이게 옆에 있는 나무나 바위를 부셔야하지 않
겠는가? 市內의 二層以上の 建物도 헐어 버릴 것인가. 果
然 濟州島는 觀光客의 것인가? 筆者의 생각으로서는 오
히려 陸地에 없는 樹種으로 全島에 植樹를 해야 한다고
본다.

濟州島의인 景致의 主要素인 樹木을 伐採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拙速이 繼續된다면 未來에 濟州島는 喪失될 것
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斷言한다.

真正한 意味의 開發이란 民主主義의 正義라는 倫理性
에 비추어 住民意識의 絶對的인 參與가 併行되어야만 하
는 것이다.

우리의 國家組織이 中央集權制이고 官主導型이라 할지
라도 歷史的 記憶을 가진 恣意的인 住民意識의 參與가 없
는 開發은 名目이나 名分뿐이지 그 內容에는 空虛하다는
것은 文脈上의 허위일뿐인 것이다.

우리의 자랑이요 보배인 濟州開發은 어떤 時間性을 지
녀서도 안되겠다고 보는 것이다.

누구의 在職時에 꼭 이루어야 한다는 理由가 成立되지
않기 때문이다. 住民의 參與 專門家의 參與, 研究, 試驗
을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多幸히도 濟州島는 地域全体가 比較的 협소하므로 全
島의 MASTER PLAN을 深重히 計劃한 다음 徐徐히 段
階的으로 実行한다는 과정과 手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줄 안다. 短時間에 잠깐 보고 느낀 新濟州市의 計劃도 將

次 飛行場 拡張과 航空機의 騒音이 너무도 市街地와 가
깝다는 느낌이었고, 政府의 莫大한 投資가 短時間에 消
化된다는데에도 問題點이 있을줄 안다.

前記한 住民意識의 參與에서도 問題點은 많다. 즉 住民
意識이 이部門에 대한 水準이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濟州大學이 綜合大學이 되고 建築科와 音樂・美術科가 반
드시 包含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 理由는 說明안
해도 自明할 것이다. 여기에 더 添加한다면 近代의인 人
爲的인 施設로서 더욱 濟州의인 것을 附加한다면 觀光開
發이란 그 地域의 自然을 損傷시키지 않고서 慰樂施設을
해야 한다는 點이 되겠는데 例를 들어 海洋公園, 魚族保
護施設이나 法令制定이나 濟州의인 것의 保護, 勸奨, 民
俗이나 方言의 保護, 伝說이나 歷史의 發掘도 併行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울러 文化的인 行事의 計劃
과 MASMADIA의 活用이 큰 役割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筆者도 濟州島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기에 세번씩
이나 찾아 濟州의인 것을 滿喫했다. 때문에 人間환경을
創造한다는 職을 가졌기에 더욱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英語로 台灣을 FOMOSA로 한다. 17世紀 中葉 葡萄牙
人들이 台灣近海를 航海하다가 그 아름다움에 놀라 그들
의 言語로 ORA FOMOSA (오-아름다운 섬이여) 라고
외친 것이 台灣의 英名이 되었다고 들었다. 萬一 그들이
濟州 近海를 航海했다면 그 아름다움에 더욱 놀라서
ORA FOMOSA JEJOO를 連發했을 것이라고 생각 된
다. 그것은 面積은 적지만 台灣과 形態나 內容이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이 台灣에 阿里山이 있고 우리에게 漢
壑가 있듯이 그 높이나 山勢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伝說
도 名所도 어찌면 비슷한가 말이다.

우리는 이런 自然이 우리에게 준 宝物을 保護하고 가
꿀 義務가 있는 것이고 더우기 建築家들에게 이러한 問題
들에 대해 發言할 權利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地域開發을 官一辺倒로 보다 專門家나
住民이 包含된 特別構機가 있어 그 決定權을 그 機構가
管掌하게 하고 官은 行政과 予算과 施行을 主管케 함이
어떻게 하는 意見도 아울러 말하고 싶은 것이다.

霜降이 지나고 제법 늦가을 初겨울을 느끼게 한다. 自
然은 이렇게 正確하게 거짓없이 人間에게 時間과 惠沢을
應報하는데 人間들은 虛偽와 誇張이 眞實과 正義를 앞치
르는 경우가 많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自然에의 同化와
適應은 萬古不滅의 美德인데 말이다.

小山이 能幣大山이란 古語가 있다. 즉 작은 山이라도
能히 큰 山을 다 가리워서 안보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인
데 이것을 障礙物과 눈과의 距離에서 左右되는 것이고 15
cm程度의 物体를 두눈에 바짝 막으면 모든 것을 다 가리
울 수 있다.

들건데 濟州의 傳統的인 草家를 한곳에 모아서 民俗村을 만들고 各處에 分布한 在來의 草家를 撤去한다고 들었다. 이것도 亦是 街路樹 伐取와 다를바 없는 일이다. 龍仁의 民俗村의 失敗를 되풀이하려는 것이 되겠다. 民俗研究者들에게 便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觀光客은 그곳만 보면 그만이고 만 곳은 볼 必要도 없으니 돌아가게 될 것이다. 全島의 全體的인 景觀에서 옛부터 자리잡고 있는

그자리의 草家が 濟州의인 것이고 伝説과 由來를 聯想케 한다는 것을 잊고 오직 便利 위주로 또 變貌만 시키면 發展이요 開發이라는 생각이 우습다는 것이다.

泰國 BANGKOK 郊外의 民俗村의 흥내를 내서 龍仁에 民俗村을 만든것을 民俗村이란 이름으로 意圖的으로 商行為를 하는 것이지 民俗的인 것을 保全하고 展示한다는 일과는 距離가 아주 먼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신진건축연구소 대표)

會員作品 原稿作成要領

※ 본지에 게재된 귀하의 設計作品은 본지와 더불어 永久保存되는 귀중한 資料가 되며, 또한 본지에 게재된 作品만이 자동적으로 本協會 建築賞의 候補作品이 됩니다.

(1) 구비도서 및 작성요령

① 圖面

配置圖: 대지가 소규모인대는 평면도에 결한다. 대규모인 경우는 별도작성(인쇄 크기의 2 배정도 크기)

平面圖: 1층평면·기준층평면.....일반적인 경우

각층평면(지하층포함).....특수한 경우에 추가

断面圖: 주요 기준단면..... 단순한 경우는 생략

② 作成要領

1. 박지(트래싱지 또는 펜트지)에 점정색으로 잉킹한다.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모자이크 타일선 등과 같은 섬세한 부분은 생략 연필선은 지운다.

2. 室名과 縮尺표시는 연필로 가입한다.

3. 방위표시는 잉킹한다

4. 平面圖, 断面圖의 縮尺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소규모(주택등)..... $\frac{1}{50} \sim \frac{1}{100}$

중규모..... $\frac{1}{100} \sim \frac{1}{500}$

대규모..... $\frac{1}{200} \sim \frac{1}{500}$

(2) 寫眞

作品寫眞: 全景, 内部, 詳細 各 2~3 점씩.

(후백) : 全景寫眞은 환경 불가능한 특수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透視圖로 대신 할수 있다. 다만 연필 작도는 불가.

設計者寫眞: 자연스러운 포즈로 한다. 사진 뒷면에는 그 성명을 명기할 것.

(3) 建築物概要 및 設計說明

建築物 概要

① 建築物名:

② 所在地:

③ 設計者: 担当/事務所名 별도 가입

④ 施工者:

⑤ 規模: 基地面積/建築面積/基準層面積/延面積/地上層數/地下層數/層높이/建築物높이
기타施設規模(例·病床數, 客室數, 座席數등)

建築法令의 改正

—合理的인 改善策은 없는가—

李 鶴 榮

「런던」남쪽 「템즈」江 기슭에는 16세기 「헨리」8세가 살던 「햄프턴·코트」城이 자리잡고 있다. 이 城 옆에는 조그만 기차역이 서 있는데 이 지역 구청은 역건물을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관광 「호텔」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細部計劃을 세우기에 앞서 구청은 「異議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데로 많은 意見을 3個月안에 제출 하시오」라는 회람을 돌렸다 한다.

우리는 他國의 首都區庁이 計劃하고 있는 建築 및 地域計劃에 얼마나 면밀하고 공개적인 法の 집행으로 民怨(民怨)을 줄일려고 하는가를 볼 수 있다.

법이 오히려 必要가 없을 것 같다.

「서울」에서 흔히 보아왔던 建設行政과는 근본적으로 출발부터가 좀 다르다. 주변에서 新設陸橋가 철거되기가 다반사이고, 地下道가 2년이 못되어 拡張되고 計劃이 變更되어 너무 近視眼的인 建設行政과 法の 執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난 9月24日 建設部는 建築法, 建築士등 일련의 改正法案을 여당권 審議에 提出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日前에 든 法令改正이 언제 國會에 상정되며, 연이어 施行令이 어떻게 改正發表될지는 確實한 言及이 없다.

그러나 대상 法規중에서 建築法은 制定이후 六次 改正되었고, 同施行令은 9次나 改正되어 法令의 改正수명이 法은 2年4個月, 同 施行令은 1年9個月로 計算된다.

이러한 法令의 개정이 여러차례 진행되는 동안 建築에 從事하는 諸賢들은 法令의 새로운 理解와 改正된 法令을 다시 알기 위하여 10여차례 官報를 열람하거나 改正 冊字를 購入해야만 했을 것이다.

筆者도 그러한 經驗을 겪어 나왔기에 實吐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지난 6月 23日 建築家協會 79年度 建築計劃會에서도 너무 빈번한 改正法令에 異口同聲으로 불만의 표시가 많았다.

文明이 發展하고 生活의 水準이 向上되고, 經濟가 成長하면 社會의 모든 構造가 多樣化되고, 工產品의 品質 및 種類가 많아지면 여러 측면에서 法的, 行政的인 規制의 必要性은 있게 된다.

그러나 建築關係法規는 人間의 基本生活要素인 衣食住의 一分野로서 住居 및 環境과 直結되는 重要한 規範으로 간주할 때 人間의 편의와 公共福利의 증진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認識을 恒常 가다듬어야 하고, 그것은 建築主가 요구하는 住居生活의 需要에서 實務別 建築 行爲에 까지 相關的으로 法令上의 制約은 항상 받고 있는 것이다. (圖表追加)

法은 萬人의 것이며 그 중에서도 建築法令은 生活과 연결되는 特別法으로 상당한 期間동안 運營해 보다가 心然的으로 再考해야 할 부분만 改正의 檢討를 해야 할 것이며 法은 運營의 妙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法이나 規定이라도 運營의 묘가 따르지 못하면 斜陽化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建設部가 제출한 개정안의 主要部分은 建築法 第五條의

紙上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와 再考하여야 될 점 몇가지를 要約하여 보면

1. 建築法 第五條 但書規定의 완화는 法 第39條 및 同施行令의 158條의 2 ① 및 ②項에 따라 建蔽率의 適用을 받은 適法한 建築物의 空地比의 減少 내지 綠地 確保에 對한 問題點이 없는지 考慮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建築法 第25條에서 不良建築資材의 使用을 規制하기 위하여 한국공업규격(K.S)표시없는 資材에 對하여 建設部長官이 品質基準品으로 인정하는것만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建築을 창작 및 기술적인 綜合化 내지 綜合藝術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작품행위로 볼 때 材料의 規制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므로 品質基準品의 告示 및 使用을 制定하는 데는 상당한 時間의 經過措置가 따라야 할 것이고, 不得已 한 곳에는 수입제품이나 特殊제품의 使用을 인정하는 但書條項이 必要한 것으로 생각한다.

3. 建築法 施行令 第160條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을 20%에서 60%로, 층수도 3層까지 완화하도록 보도되었는데, 改正의 根本趣旨은 都農間의 均衡과 聚落構造改善사업에 좀더 伸縮性있는 事業의 展開를 위해서가 아닌가 보여주는데, 法39條의 2, 同 施行令 159條에 의하여 本地域은 基準面積이 600m²이상으로 규제되나, 현행 20%에서 60%로 3倍완화하는 것은 전체율의 調整이 없는限 現행법 취지에 어긋나며, 그것은 곧 자연녹지 지역의 田園的인 調和를 해칠 염려가 있다. 社會的인 側面에서 볼 때는 都市와 農村間의 水平의 發展보다는 오히려 都市의 投機性 資금이 물리던가 豪華別荘이 될까 걱정이며 새마을 事業精神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볼수 없을 것 같다.

4. 建築法令에는 善한 개정의 과도기 때문에 改善하고 취사선택하여야 할 곳이 오히려 先急하다.

예를 들면 建築法 施行令 第158條의 條文中에 「法 第39條 第①項 第五號 및 第六號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모양이……」에서 第五號는 75年 12月31日 削除된 事項이므로 法의 인용을 削除해야 할 것으로 考慮되고, 한가지 예를 더 들면 法第41條의 第④項에서 「住居地域 및 商業地域 內의 地로서 인정하는 空地上의 建築物에……」는 同施行令 第167條의 本文을 勘案하고, 都市計劃法의 地域의 선정 기준을 包含하여 理解한다면 法條文의 상임지역 다음에 綠地地域이 追加되어야 옳을 것이며, 其他의 부분도 재고해야 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앞에서 言及했지만 法令의 改正 및 補完은 恒常 再考하고, 申證을 加해야 마땅한 것이며, 建築關係 法令은 國民의 財産權과 직결되는 重要한 法令이니만큼 改正은 斯界專門家의 意見聽取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다른 方法이 있다면 大都市圈정비법안이 國民의 재산권과 特權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公聽會를 거쳐 修正, 補完하는 것과 같은 方法으로 建築關係法令도 이러한 公聽會등을 갖는 方法도 있을 것이다

遮音 및 吸音에 對한 小考 (遮音編)

李 聖 國

1. 遮音 및 吸音이란?

보통 遮音材를 使用할 個所에 吸音材를 使用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遮音과 吸音의 材料를 選擇하는 問題는 먼저 遮音과 吸音에 對한 正確한 知識을 얻는게 必要하다. 아래의 內容은 遮音과 吸音이 무엇인가를 簡單히 나타낸 것이다.

어느 材料에 音이 入射하면 一部의 音은 그 材料를 透過하여 反對側에 傳達되고 一部의 音은 다시 反射된다. 전자를 透過音(T)이라 하고 후자를 反射音(R)이라 하며, 遮音이란 것은 이 透過音과 反射音의 사이 즉, 透過音의 大·小에 關한 問題이고, 吸音은 反射音의 大·小에 關한 問題이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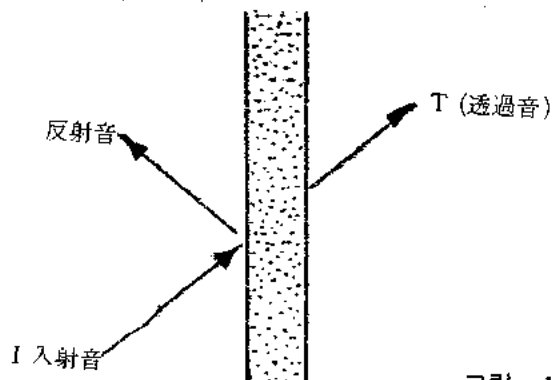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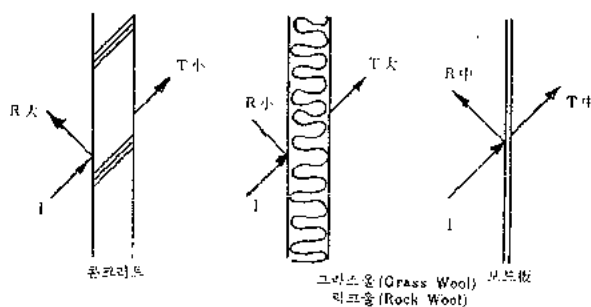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2는 材料別로 나타낸 透過音 및 反射音의 大·小이다.

2. 遮音 概論

한 房에서 다른 房으로 傳達되는 騒音을 防止하는 問題, 즉 遮音(Sound Insulation)의 問題를 생각해 보자.

騒音이 있는 室内에서 加外の 吸音을 일으키는 것은 余韻音의 세기를 줄이게 되고 따라서 遮音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세기의 減小은 遮音材에 의한 減小에 比할바가 못되며 加外の 吸音은 適切한 遮音을 위한 代案이 되지 못한다. 一般적으로 吸音이 騒音問題를 全적으로 解決해 주리라는 생각도 갖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遮音에는 空氣伝送音 遮音(Air borne sound Insultion)과 衝擊音 遮音(Import Sound)이 있는데, 空氣 伝送音 遮音은 空氣中에서 發生하는 騒音, 예를 들면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의 遮音에 關係되고, 衝擊音 遮音은 발자국 소리와 같은 衝擊音의 遮音에 關係된다.

衝擊音 遮音(Import Sound)은 空氣伝送 騒音(air borne noise)과 衝擊騒音의 調合이다. 왜냐하면 衝擊音源이 室内에서 空氣伝送騒音을 일으키게 되고 이 空氣 伝送騒音이 또한 伝播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直接 衝擊騒音에 依하여 受信室에서 일어나는 騒音が 더 큰 影響을 미친다. 이런 騒音은 衝擊에너지를 줄이므로 해서 소기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空氣伝送音 遮音(air borne sound insulation)은 한 室内에서 일어나는 騒音源은 室内의 모든面에 부딪쳐서 그面을 振動케 하는 餘韻音場을 일으키게 된다. 가장 簡單한 경우는 受信室이 音源室과 어떠한 開口部도 없는 단단한 單一壁體로 隔離되어 있는 경우이다. 아래 그림 3은 經路를 表示한 몇가지 예이다. 이 壁體의 音源室쪽의

影響을 미친다. 또한, 實際로 모든 壁과 바닥은 高周波數에서 보다 低周波數에서 遮音이 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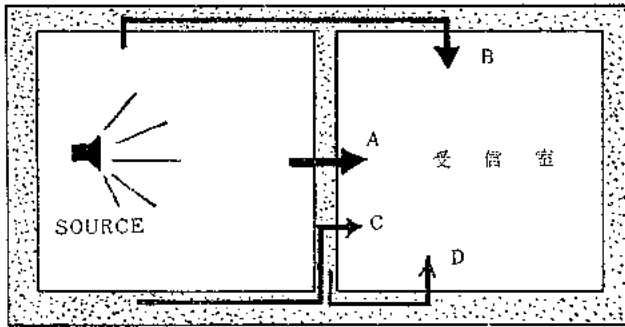


그림. 3

英國建築研究所의 研究員인 P. H. PARKIN과 建築家인 H. R. HUMPREYS의 “Acoustics Noise and Buildings”란 論文에 나타난 實驗結果를 보면, 單一板의 固形壁에서의 遮音은 周波數가 2배로 될 때마다, 즉 每 옥타브보다 5db씩 增加한다. 例를 들면 100HZ에서 30db의 遮音을 하는 壁은 200HZ에서 35db의 遮音을, 400HZ에서 40db의 遮音을……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그러나 實際로 우리가 必要로 하는 周波數 範圍는 100HZ~3,150 HZ인데 建物の 性格과 建築主의 要求에 遮音을 고려할 것이다.

3. 遮音材料和 遮音構造

1) 材料에 있어서 遮音性能을 表示한 量

遮音의 程度를 나타내는 量은 透過損失(Transmission Loss : TL 또는 dB)로 表示한다.

例를 들면 壁體에 80dB의 音이 入射해서 50dB 音이 透過했다고 하면 透過損失은 30dB라고 하며, 一般的으로 옥타브 밴드마다 측정 結果가 表示되어 있다.

透過損失은 다음式으로 定하여진다.

$$\text{透過損失 (TL)} = \text{入射音 레벨} - \text{反射音 레벨} = 10 \log_{10} \frac{I}{I_0}$$

$$\tau = \frac{I}{I_0}$$

I : 透過音의 에너지

I_0 : 入射音의 에너지

즉, 入射音의 1/10의 에너지가 透過하는 경우는 TL은 10dB, 1/100의 에너지가 透過하는 경우 TL은 20dB, 1/1,000의 에너지가 透過하는 경우 TL은 30dB, 1/10,000의 에너지가 透過하는 경우 TL은 40dB이 된다. 그리고 TL의 값은 材料音의 入射條件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2) 平均透過損失

2種 以上の 壁面에서 音이 透過하는 경우 受信室이 拡散狀態에 있다면 平均透過損失을 求해서 그 壁面의 透過損失로 한다.

平均透過損失은 dB 加算과 같이 Energy 計算하지 않으면 안되며 에너지 透過率 τ 와 面積 S 에 의해서 平均透過率 $\bar{\tau}$ 를 求하고 나서 平均透過損失 $\bar{TL}$ 을 求한다.

$$\bar{\tau} = \frac{\tau_1 S_1 + \tau_2 S_2 + \dots + \tau_n S_n}{S_1 + S_2 + \dots + S_n} = \frac{\sum \tau_i S_i}{\sum S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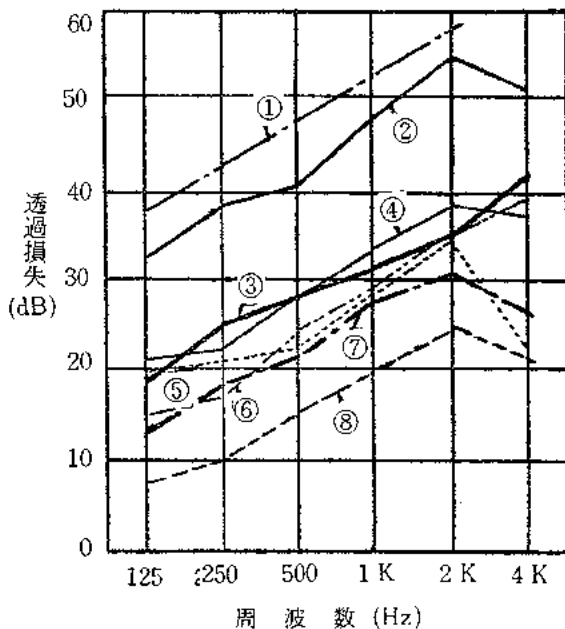
$$= 10 \log_{10} \frac{1}{\bar{\tau}}$$

τ_n : 材料 n의 透過率

S_n : “ “

이것은 코인시덴스라는 現象에 기인하는데 板의 共振에는 다르게 되는 것이다. 즉 板狀의 材料로 傾斜하여入射한 音波에 의해서 勵振된 板의 屈曲振動에 의한 共鳴透過에 의해 遮音量의 低下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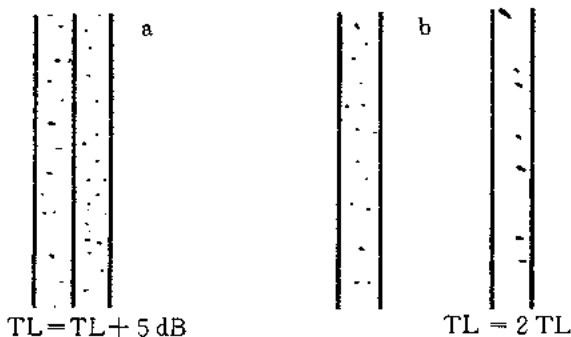
- ① 철근 콘크리트 150mm 두께 (330 kg/m^2)
- ② 경량 블록 100mm 두께 양면칠 (160 kg/m^2)
- ③ " " 표면미장
- ④ 플렉시블 보드 6mm 두께 (11 kg/m^2)
- ⑤ 석고보드 9 " (9 ")
- ⑥ 스투트 6 "
- ⑦ 유리판 3 " (6.9 ")
- ⑧ 베니아판 6 " (4.4 ")



各 材料의 透過損失 그림. 5

코인시덴스가 일어나는 周波數는 단단한 材料, 혹은 同一한 材料일 경우 두께가 두꺼울수록 낮은 周波數가 일어난다.

따라서 베니아板등에서는 3mm 두께의 板보다는 6mm 두께의 板이 透過損失이 적다. 또한 2重壁, 3重壁의 透過損失은 그의 構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極端의인 例를 그림 6에서 表示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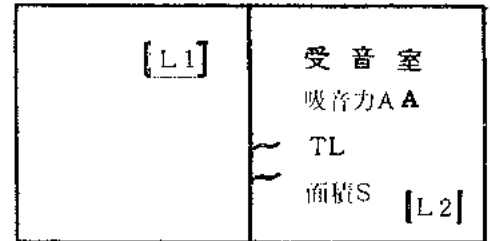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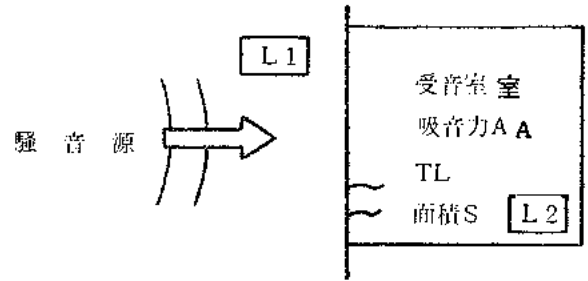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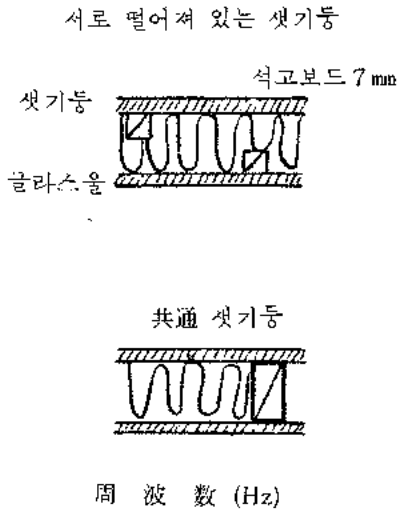
二重壁의 透過損失 그림. 6

그림 6의 a는 2個의 板이 겹친 경우이고 b는 安全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a는 單順이 面密度가 培로 된 것으로 앞의 式에 의하면 透過損失은 약 5 dB 增加하고, b의 경우는 제작기 實際問題에서 空氣層이 있는 경우 完全히 獨立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 어떤 振動으로 인한 伝達(音의 橋)이 透過損失에 얼마나 많은 影響을 미치는 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7에 表示한 것처럼 셋기둥이 共通으로 設置되어 있을 때, 셋기둥이 分離되어 있을 때는 비록 材料가 同一하다고 하더라도 部材의 獨立度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서로 分離될 때의 透過 損失의 값이 높아진다.

따라서 多重壁의 경우에는 獨立의 狀態에서 指持하는 것이 遮音의 좋은 構造를 實現하는 要点이다. 다만, 多重壁의 경우에는 低音域에서 二重板과 그배의 空氣層에 의해 共鳴이 생기고, 周波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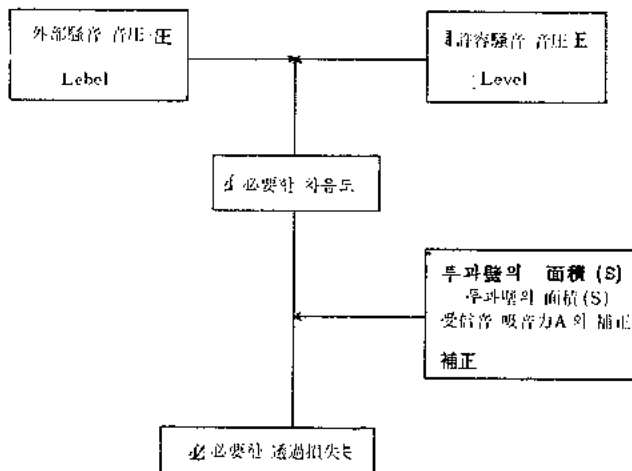


隔壁을 통하는 음의透過 그림. 9

4. 遮音構造에 必要한 遮音性能

遮音構造에 必要한 透過損失은 그림 8의 順序에 따라 求한다.

그림 9와 같이 a는 外壁, b는 室의 間壁일 때, 圖示한 바와 같이 음이 入射한다고 보자. 外部의 音圧레벨 L_1 , 室内의 許容騒音레벨을 L_2 , 壁의 面積을 S , 室의 吸音力을 A 로 하면 A 는 平均 吸音率 a 와 室의 總面積 S 와 의 곱이다.



$$TL = L_1 - L_2 + 10 \log_{10} \frac{S}{A}$$

必要한 透過損失을 求하는 設計順序 그림 8

必要한 透過損失의 값인 TL (dB)은 外壁의 경우에 아래의 式에 의해 求한다.

$$TL = L_1 - L_2 + 10 \log_{10} \frac{A}{B} + 6 \text{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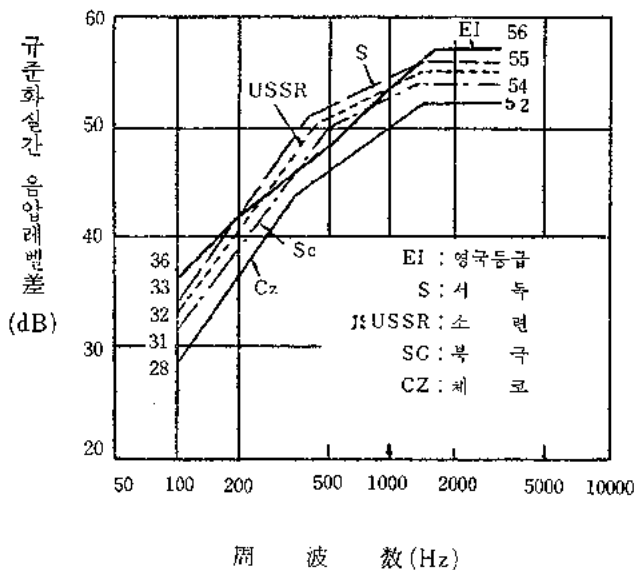
또한, 間壁인 경우에는

$$TL = L_1 - L_2 + 10 \log_{10} \frac{A}{B} \text{ (dB)}$$

壁에 入射한 騒音에 對해서는 周波數別의 音壓 Level을 알 必要가 있으며 室内 騒音의 許容값에 對해서는 NC 曲線等을 使用하여 定한다.

材料에서 얻을 수 있는 騒音의 性能은 壁에 入射한 音의 性質에 따라 달라진다. 例를 들면, 섯기 騒音처럼 中·高音域의 周波數 性분이 있는 경우와 送風機 騒音처럼 低音域의 周波數 性분이 큰 경우에는 각기

嚴密하게 보면 直接 比較한 性質의 것은 아니지만 구미의 基準과 日本의 基準을 比較해 보면 日本에서 500Hz에서 $TL=40dB$ 라면 구미의 基準에 比較하여 약 10dB정도의 差가 있을 수 있다. 勿論 40dB정도는 必要로 하는 結果는 되지 못한다. 日常生活을 하는데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確保하기 위한 透過損失은 적어도 50dB以上이 必要하다.



歐美各國의 隣戶間 遮音性能基準 그림 10

5. 遮音構造의 選定 및 施工의 要點

- 좋은 遮音構造가 될 수 있는 條件을 들면 첫째, 隙間(틈), 通氣性이 없는 것.
- 둘째, 무겁거나 부드러운 材料
- 셋째, 多重壁의 경우 各各 獨立으로 支持되어 지는 것 이어야 한다.

隙間을 없애는 方法으로 흔히 그라스울을 치밀하게 充填되거 코킹材 또는 패킹等을 使用하여 充填하나 그와같은 作業은 根本的인 解決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放送局 스튜디오等에서는 판넬壁을 設置할 때 그림 11과 같이 어긋나게 設置하여 優秀한 效果를 가져오게 하며 遮音度를 要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工法을 많이 使用한다.

조그마한 空間에 의한 遮音層의 低下는 透過損失의 값이 크게 나타나며 첫째의 問題點을 解決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一般적으로 40dB以上을 要求하는 遮音構造에서는 隙間에 充分히 注意해야 한다. 따라서 시멘트블록等の 材料는 때때로 遮音構造에 使用하지 않는다. 만약 使用한다면 반드시 片面 또는 兩面에 플라스터나 모르타르를 充分히 발라 通氣性을 遮斷해야 한다.

두번째 事項에서 “材料는 무거워야 한다”는 것은 遮音에서 반드시 必要하며 그러한 結果 設計者는 각종 制約을 받게 된다. 따라서 高度의 遮音構造를 要하는 建物を 建築할 경우에는 計劃時에 위의 事項을 고려하지 않으면 困難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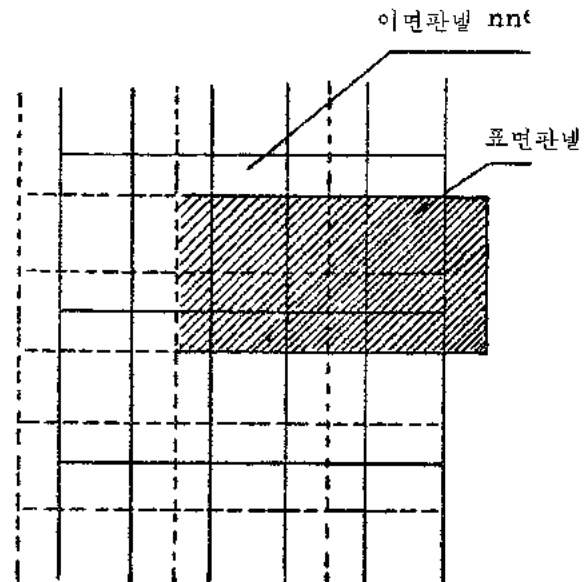


그림 11

獨立支持라는 工法은 防振 고무 등을 使用하여 行하는 것이 確實하며, 기타 간단한 工法으로서 길드(guild)壁, 그림 7과 같이 서로 다른 間柱工法등이 使用化되고 있다. 이런 工法은 간단한 作業에도 많은 效果를 볼 수 있음에도

3. 遮音構造의 實際

1) 壁

外壁・内壁의 遮音壁으로써 콘크리트壁의 利用이 可能하며, 集合住宅등 日常生活에서 發生하는 騒音을 対象으로 하는 한 遮音構造로써 充分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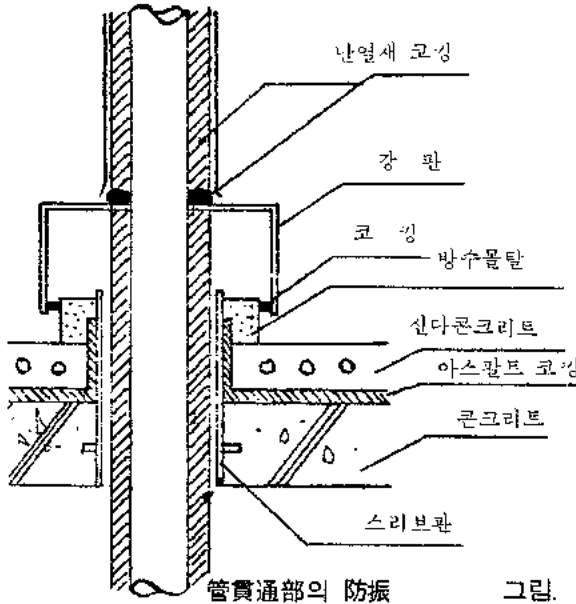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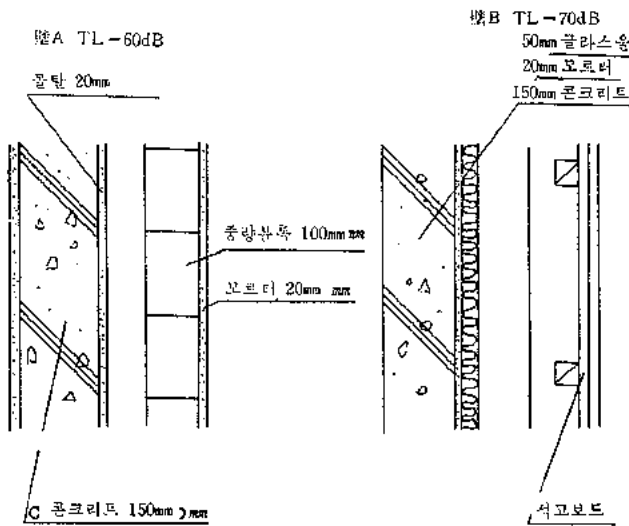


그림 13

60dB 以上の 遮音性能을 必要로 할 경우는 그림 14 처럼 重量블록과의 二重壁 또는 防振으로 支持한 遮音層을 가지면 可能하다.



50dB (50Hz) 以上の 遮音構造 그림 14

60dB 以上の 遮音性能을 必要로 할 경우는 그림 14 처럼 二重壁, 또는 防振으로 支持한 遮音層을 갖으면 可能하다.

콘크리트壁체로써 確實한 遮音性能이 얻어지는 것은 重量블록(2급 블록은 除外)壁이다. 다만, 一面은, 必要한 두께의 모르타나 플라스터를 발라 通氣性을 遮斷해야 한다.

보드材로서 遮音용으로 使用되는 것은 石膏보드平板이다. 價格面에 있어서 比較的 低廉하고 施工이 容易한 利点이 있는 結果, 放送스튜디오등의 内侧 防振 遮音層은 大部分 石膏보드를 使用한다. 다만, 이것은 물에 弱하므로 外壁에는 使用하지 않는다.

外壁用으로는 遮音性만으로 滿足할 수는 없고 強度나 耐火・耐水性등을 고려해야 하며, 溫度나 湿度에 의해 收縮이 많은 材料는 遮音構造로써 좋지 않다. 위와같은 欠点이 比較的 적은 材料로서 硬質木片 시멘트板이 있으며 이 板은 무엇보다도 強度가 있고 프리캐스트住宅의 外壁에 使用되고 있는 材料이다. 다만, 問題는 價格이 보드材에 比하여 높다는 것이다. 透過損失은 25mm 두께에서 500 Hz 인 경우 약 30dB 이다.

바름構造는 重量이 있다는 点과 隙間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点에서 遮音構造로 使用된다. 라스 모르타 바름 輕量블록, 모르타바름, 혹은 도링루板에 모르타를 바른 構造등은 125Hz 에서 25dB 以上の 透過損失을 갖는다.

다음 그림 15는 500Hz에서 40dB 以上の 透過 損失을 취할 수 있는 構造의 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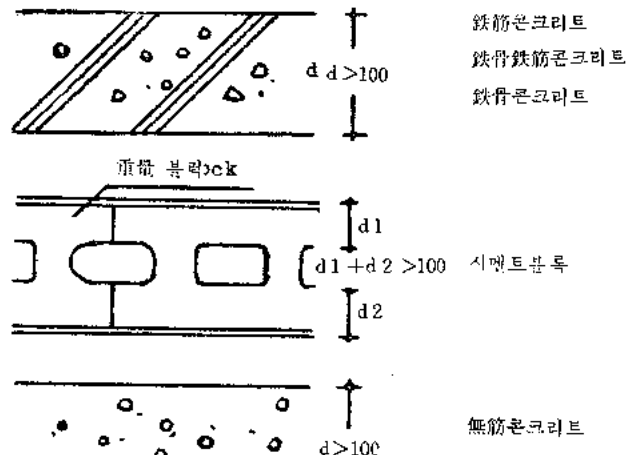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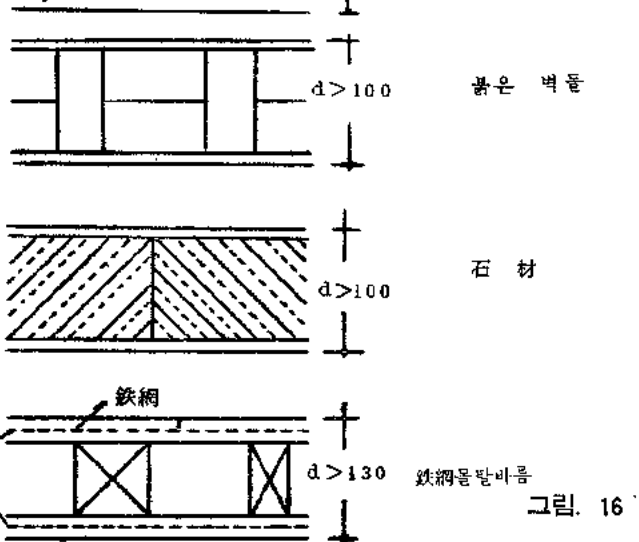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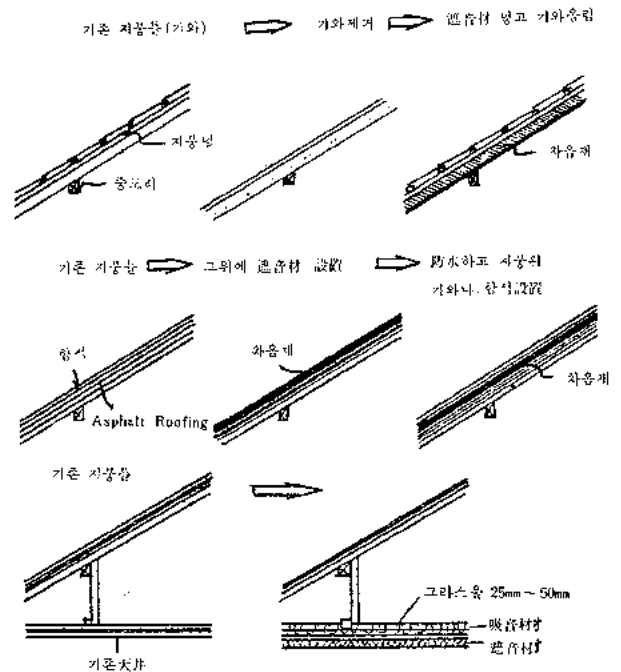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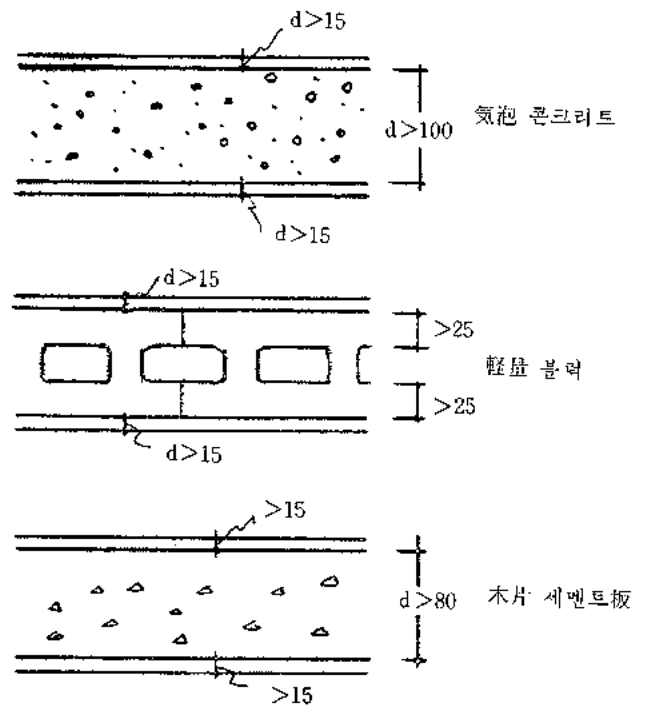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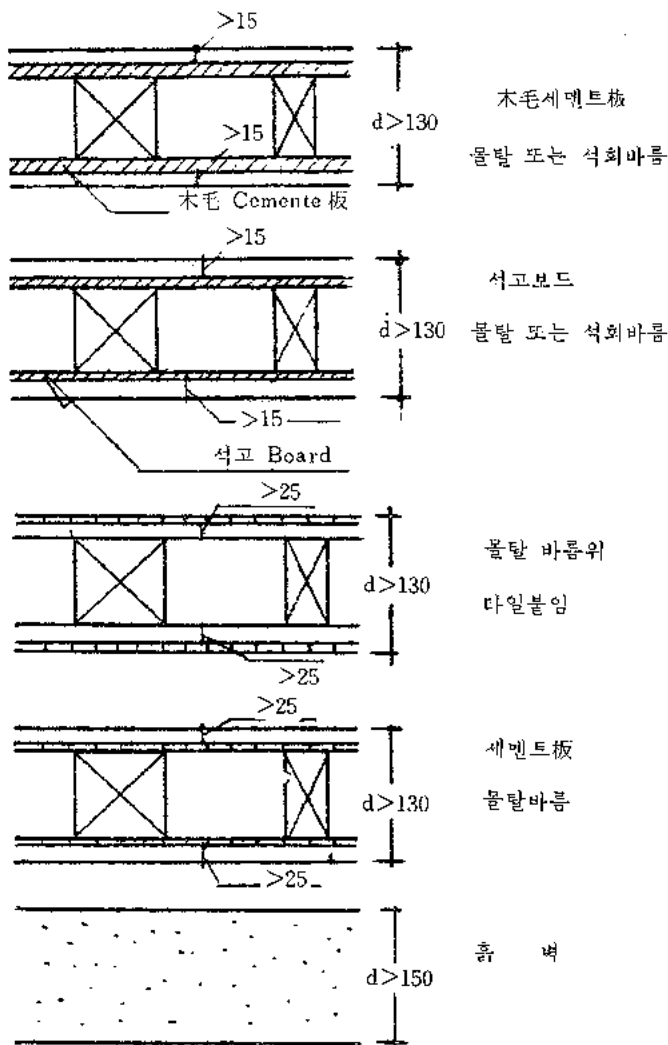


그림 16



2) 지붕·天井의 構造

工場 등의 建物에서 지붕에 遮音構造를 設置하는 것은 構造体的 荷重面에서 볼 때 制約이 있고, 또한 天井의 遮音層도 吊物, 크레인 등으로 設置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住宅의 경우에는 그림 16에서처럼 서까래위의 널 등, 天井에 遮音構造를 한다. 材料는 石膏보드, 샌츄리 보드 등이 좋다. 集合住宅의 경우에는 床 衝擊音에 대한 방안으로 防振天井을 設置해야 한다.

「本 글은 国立建設研究所刊 “建設 技術” 第62号에 發表된 것임」

지붕·天井의 遮音改善 方法

国立建設研究所 建築基準科

건축사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9652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규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
성하거나 서울특별시·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
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
는 설계 도서를 말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게도서가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
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작성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폐지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
한다.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제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
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시험과목등)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
| 1. 제1차시험과목 | 2. 제2차시험과목 |
| 가. 건축구조 | 가. 건축계획 |
| 나. 건축시공 | 나. 건축설계 |
| 다. 건축법규 | |

②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부 장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
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건축법규 이외
의 과목 및 제2차시험과목중 건축설계 이외의 과목
을 면제한다.

제10조중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
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가 포함된 합동사무소(중
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를 제외한 건축사의 수가
2인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호 및 제3호의임
무를 행할 수 없다.

제35조 제1항 본문중 “법 제35조”를 법 제5조로 하
고, 동조 동항 제3호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3조·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사사무소의 등록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28조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
다.

대통령령 제9,183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중
“60일내” 및 동 부칙 제3항중 “30일내”를 각각 “2년내”
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중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제
3,074호 건축사법중 개정법을 부칙 제3항의 2급건축사
로서 법 제14조의 자격이 있는 자가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차시험을 면제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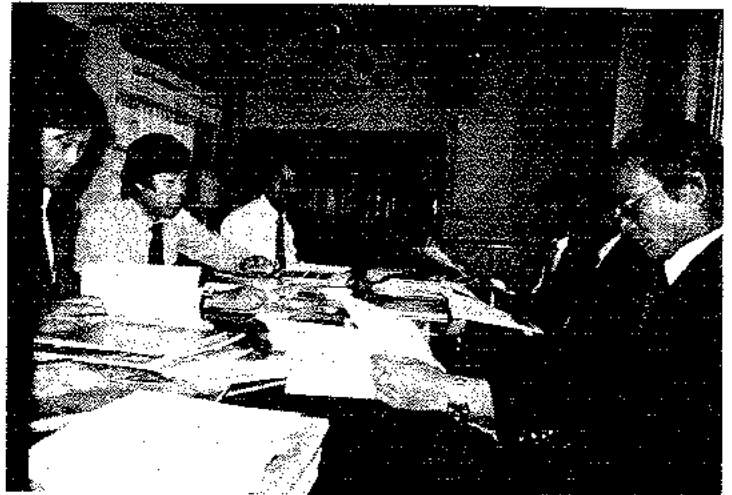
本協創立 第14周年 紀念 協會賞 施賞

審 査

日 時：1979. 10. 17

場 所：本協會議室

審査委員：金斗燮 本協會長
 李圭福 本協前任會長
 金正澈 本協理事
 姜明求 中央大學校 美大教授
 金正秀 延世大學校 工大教授
 李海成 漢陽大學校 工大教授
 李璵會 延世大學校 工大教授
 尹道根 弘益大學校 工大教授



협회상 시상 광경

審査方式：

作品 論文 共に 本協會에서 發行 되고 있는 會誌 “建築士”에 1978. 10~1979. 8 까지 期間中 寄稿掲載된것을 그 審査 対象으로 原則을 定하였음.

作品部門

住居와 非住居로 区分 관례에 따라 協會大賞은 非住居에 局限 選定하기로 하고 作品과 論文을 分科別로 1次 審査에 着手 入選작을 選定하였다.

1次 入選作品은 아래와 같다.

가) 非住居用

종합건축 한국증권거래소
 (주)정림건축 한국종합전시장
 구리사건축 세종대학 박물관
 삼송건축 대한교원공제회관
 신아건축 강화호국원
 정주건축 교회
 정림건축 교회
 원전건축 아육실리움센터

나) 住居用

대우건축 주택
 한국건축 주택(광장설계단부산)
 도시건축 주택
 삼육건축 주택
 흥진건축 주택
 회림건축 주택
 범양건축 주택
 신진건축 주택
 조구현건축 주택

2次 決選審査 入賞作

大賞 韓國綜合展示場(株) 正林建築
 協會賞 韓國証券去來所 綜合建築
 協會賞 貞洞第一監理敎會 正林建築
 優秀賞 住宅 大字建築
 優秀賞 住宅 부산광장설계단

論文部分

協會賞 宋長福 極東綜合建築公社
 優秀賞 劉香山 誠信女子師範大學敎授

以上과 같은 內訳으로 選定된 作品및 論文이 協會 第14回 定期總會 에서 施賞되었다.

受賞作品및 受賞者 略歷은 다음과 같다.

大 賞

受賞 有感

大韓 建築士 協會가 10周年을 記念하는 事業으로 마련한 施賞制度가 五個年제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100억弗 輸出을 記念하기 爲하여 建立한 綜合 展示場 建物이 作品大賞에 選定된데 對하여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며 이 建物이 開館되기까지 貿易協會 執行者側은 勿論 設計에 加担한 여러 멤버들 그리고 짧은 期間內에 建設을 完了한 施工 技術者들이 다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 設計를 爲하여 手苦가 많으신 建築・構造・機械 電氣分野의 諮問委員들과 計劃段階에서 不徹晝夜 努力한 廣場建築의 金 洄氏에게도 치하드리며, 賞이 주어지는 義意를 생각할 때 앞으로는 社会的 要望에 副應하는 建築活動이 여러 分野의 專門人들에 依해서 獻身的 協同으로 遂行되어 보다 나은 人間을 爲한 環境을 創造해내야 할 명예를 背어져야 된다는 點을 깨달아야겠다. 三社指名으로 案 提出을 依頼받았을 때부터 우리팀은 集約的이며 可變性있고 現時代의 거울이 될 한국 固有의 造形物을 提案하는데 전력하였고 이러한 計劃目標를 達成하기 爲하여 많은 論難과 說得의 努力으로 貫徹한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建築家들의 使命感에 넘친 産苦의 鎮痛이 얼마나 貴重하고 切實한가를 통감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나라의 모든 建物이 完成될 때마다 이에 要求된 엄청난 不合理한 要素와 不利한 條件等 극복하여야 할 일들에 對하여 우리의 謙虛하고도 斷呼한 姿勢가 必要하며 또 이러한 歷史的 過程을 참을성 있게 쌓아올려 社會가 우리의 役割을 認定하는 그런 時代가 하루速히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努力해야겠다.

끝으로 建築家の 비전있는 創作性 追求및 格려와 보다 나은 社會環境 創造를 誘導하고 社會와 建築의 關係改善을 爲한 努力을 爲하여 마련된 이 大賞을 우리 關係者들에게 내려준 뜻을 되새기며 맡겨진 創作活動을 通하여 完璧한 토탈 디자인의 遂行을 爲하여 더욱 精進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주) 正林建築



金 正 澈 1932年生

1952년 2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1978년 8월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대학원 수료

1958. 9. 한국은행 근무

1967. 9. 한국외환은행 근무

1973. 10. (주) 정림건축 대표이사

1971. 대한건축학회 설계계획위원

1976. 4. 동탑산업훈장 수상

“작 품”

1973. 7. 한국외환은행 본점 지명현상설계 1등당선

1975. 5. 한국산업은행본점 신축 지명현상설계 1등당선

1977. 2. 한국무역협회 한국종합전시장 신축현상설계 1등 당선

1974. 3. 삼양사 본사 사옥신축설계

1975. 12. 일신제강(주) 사옥신축설계·감리

1979. 10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1976. 4. 한국개발금융 본사 사옥신축설계·감리

1978. 1. 서울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설계

協會賞 (作品)



李 丞 雨 1931년

- 195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1954. 종합건축연구소 근무
- 1955.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구조역학교관
- 1958. 종합건축연구소 공동경영자
- 1960.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건축과 강사
- 1963. 종합건축설계사무소 개소
- 1965. 건축사 국가고시합격 일급 건축사
- 1967. 정부종합청사 설계 懸賞一位入選
- 1968. 구미건축제 視察後 귀국
- 1974. 제 2 정부종합청사 설계 懸賞 1 등 당선
- 1975. 한국증권거래소 懸賞 1 등 당선
- 1975. 기술사 구조부문합격, 건축구조 기술사
- 1978. (주)종합건축설계사무소로 사무소 명칭변경 대표이사로 취임.
- 한국건축가 협회 부회장
- 대한건축학회 이사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역임

受賞 所感

먼저 건축사협회 작품상을 본인이 수상하게 된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한 건물이 지상에 세워지기 까지는 실로 많은 일들이 설계작업뒤에 숨어있다.

설계당시에는 복합적인 기능의 해결과 그 다양한 성격 사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어려움이 늘 따라 다녔다. 이제 실제로 지어져 사용되는 건물을 보고 어떤 아쉬움도 느낀다. 건축가는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현의 영역이란 넓고 모호한 점도 포함하고 있어서 항상 높은 이상을 향해서 고루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상이란 잘한 일에 대한 칭찬이지만 그안에는 보이지않는 비난도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 미흡이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재작이 될 수 있다. 본인은 오히려 상이 주는 그 다른 한면을 보려고 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탐구와 새로운 시도로 건축창작활동에 활력소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뿐이다. 눈에 띄지않게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協會賞 (作品)



金 正 湜 1935年生

- 1958.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1966. 3.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1972. 6. Netherlands 소재 국제관리계획과정 수료 Diploma 취득
- 1974. 1. 노량진교회 신축설계 건축사협회상 수상
- 1976. 5. 호남석유화학(주) 여천사택단지 1 등당선
- 1979. 10.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 1976. 10. 모토로라 코리아(주) 새마을회관
- 1979. 1 제 1 회 서울시 건축사 수상
- 1977. 정동제일감리교회 신축설계
- 1979. 10. MBC 여의도 스튜디오 신축설계

受賞 所感

이번 貞洞教会로 協會賞을 받게 되어 筆者自身은 勿論 이 project에 關係되었던 여러분과 함께 榮光으로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할 때 '75년에도 鷺梁津教会 作品으로 因하여 受賞하고 보니 결국 教会만으로 協會賞을 받았다는 것이 우연의 關係만은 아닌것 같다.

이 貞洞教会는 新聞紙上에 현상募集도 있었고 여러 建築家들이 關係되기도 하였지만 제대로 實現되지 못했던 복잡한 project로 우리에게 위탁하려하였을때 拒絕하였으나 모든 것을 委任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또 前任建築家와의 關係를 깨끗이 整理된 것을 確認하고 着手하였던 것으로 約 100年の 歷史를 가져 文化財로 指定된 既存教会를 保存해야 하는 까다로운 project 였었다. 約 一年의 設計끝에 保守의인 建築委員들을 說得하여 案을 通過시키고 設計에서나 監理過程에서 精誠을 기울였으며 建築主는 모든 指揮權을 建築家에게 委任하였고 施工者도 많은 誠金을 회소한 大字가 自己建物을 짓듯 지어 주어 三者의 呼吸이 一致한 結果 比較的 環境이 좋은 貞洞 골목에 아담한 教会를 建立한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即 人間的인 相互 理解와 信賴및 精誠이 담길때 아름다운 空間이 創造될 수 있다는 事實을 새삼 切感하며 되며 이 教会의 當회장인 殷牧師任과 여러 建築委員들과 施工에 專念한 大字側과 設計와 室内裝飾 音響 stained glass 設計等に 献身한 여러분에게 다시금 感謝를 드리고 앞으로 이 教会가 100余年의 既存建物과 더불어 歷史를 繼承하여 貞洞골목을 빛내며 하나님에게 榮光을 돌리게 되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優秀賞(作品)



洪淳寅 1943 年生
弘益大学 建築科 卒業
韓国綜合技術開発公社 建築部 勤務
(金壽根 建築研究所)
嚴德 建築研究所 勤務
中央大学校 建築美術科 講師
大宇建築研究所 代表
第13回 大韓民国 国展 建築部門 特選
서울市民會館 懸賞設計에 佳作 入賞
建築家協會 正會員
大韓 建築士協會賞

受賞 所感

住宅은 꾸밀 따름이지 Design은 아니다. 왜냐하면 住宅이란 육신의 따뜻함과 사랑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安樂의 場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造形精神의 꽃인 建築을 이루는 要素는 건축가 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흔히 느끼는 것은 owner 의 건축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住宅에 깃들여 生活하며 호흡하는 使用者가 진정으로 住宅에 愛情을 느끼며 다듬어 가는 그러한 過程이 더욱 重要的 것이기 때문이다.

建築은 人間社會의 秩序이기 때문에 強要된 感動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소박함이라는 것을 恒常 念頭에 두고 計劃하였으며 좋은 건축을 보여 준다는 즐거움과 사용하기 편하고 아름다운 건축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건축가와 owner 가 이 주택에 대한 무언의 약속을 서로가 목적은 다르지만 最善을 다해 지킬수 있었다는 것은 건축에 대한 서로의 믿음 때문이었다.

優秀賞(作品)



柳光弘
동아대학교 공대 졸업
오주건축설계사
군복무
부산건축설계사
한국건축연구소 개업
광장설계단 (합동사무소)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상 별”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부 주최
작품공모전 3등수상(주택)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부 주최
작품공모전 가작 수상(주택)

受賞 所感

집을 지으려할 때마다 나의 좁은 시야와 안목이 이것 뿐인가 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우기 다시 하려면 더 잘할 수 있을것 같은 기분은 집이 완성될때마다 느끼는 마음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은 대지선정부터 의뢰받아 오랜 시간동안 내가 건축주가 되어 주위환경에 적응하고 건방지게 외부공간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거창하게 욕심을 부려보았지만 나에겐 무리였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기위주의 자극이나 표현보다 단순하면서 평범한 집이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는 자연스러운 집이었었다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더 잘해 보라는 채적으로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論文部門

協会賞



宋 長 福 1934年生
漢陽大学校 工科大学 建築工学科 卒業
서울大学校 環境大学院 都市計劃学 碩士学 修了
韓國建築家協會 正會員
誠信女子師範大学 講師
韓國技術檢定公団 國家技術 資格檢定 試驗
問題出題委員 問題選定委員
建設部 主管 第15期 建築士 研修班 教育過程 修了
建設部長官賞 受賞

受賞 所感

貴会에서는 限定된 紙面에 本人의 拙稿를 掲載하여 주셨고, 더구나 優秀論文으로 選定하여 주셨다니 한걸 부끄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는 바입니다.

나날이 增加해가는 人口의 數만큼 必要하게 되는 住宅政策에 本人의 研究가 多少라도 참고가 된다면 甚多幸스러운 일이며 個人的으로는 값진 보람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本人의 「單獨住宅과 아파트住民의 住居意識」은 회소가치가 있는 單獨住宅쪽에 더욱 愛着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을 계속 建築하고 있는 아파트를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剛一的인 아파트에서 住民들의 바람을 감안하여 細心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本人은 계속해서 이 方面에 더욱 研究精進하여 갈 것을 다짐하며 同系同學의 變함없는 指導鞭撻을 바라면서 거듭 感謝한 마음으로 人事에 代身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貴會의 發展을 빌며 審査를 맡아주신 先生님들께도 진심으로 感謝한 人事를 드립니다.

本人의 研究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諸賢들께서 寬容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기에 새로운 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理想的으로 講究하여 줄 것을 希望하는 바입니다.

優秀賞



劉 香 山 1941年生
梨花女子大学校 師範大学 教育学科 卒業
" " 碩士
" " 博士課程修了
文教部 學校施設 設備審議委員會 常任專門委員
韓國教育學會內 比較教育學會 教育行政學會 會員
誠信女子師範大学 教育学科 副教授

受賞 所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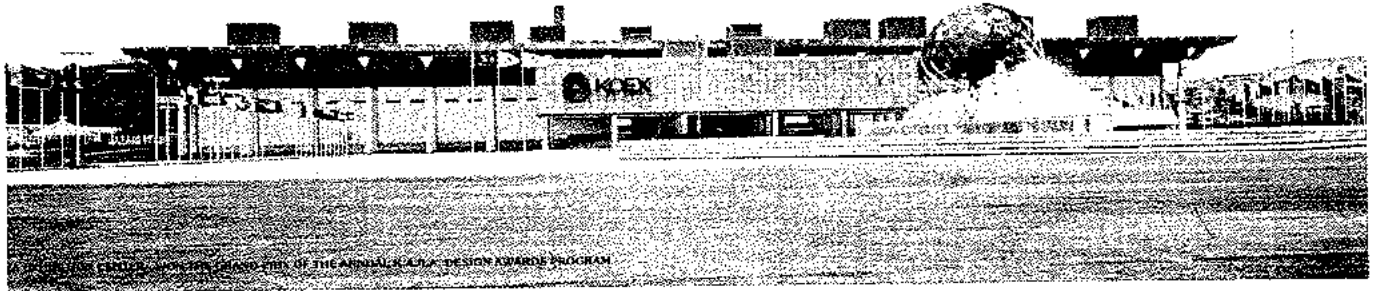
먼저 大韓建築士協會 會長님과 여러분에게 깊은 謝意를 보내며, 大韓建築士協會가 國內外的으로 無窮한 發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本人은 15余年동안 教育을 中心으로 學校 建築에 関心을 가졌을뿐 建築技術面에는 門外漢입니다. 그러나 周邊의 先輩님들의 끊임이지 않는 激勵에 계속 努力을 하였던 뿐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今番 大韓建築士協會의 “뜻밖의 関心”의 配慮로 本人에게 크나큰 賞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當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本人에게 學校 建築의 基礎資料研究를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忠告의 機會로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리겠습니다.

재차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大韓建築士協會는 建築作品面에서나 建築研究面에 있어서나 各界 各層人에게 큰 注目の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大學에서 研究하는 學生들이 美術·教育·經營部面에서도 그 関心은 대단히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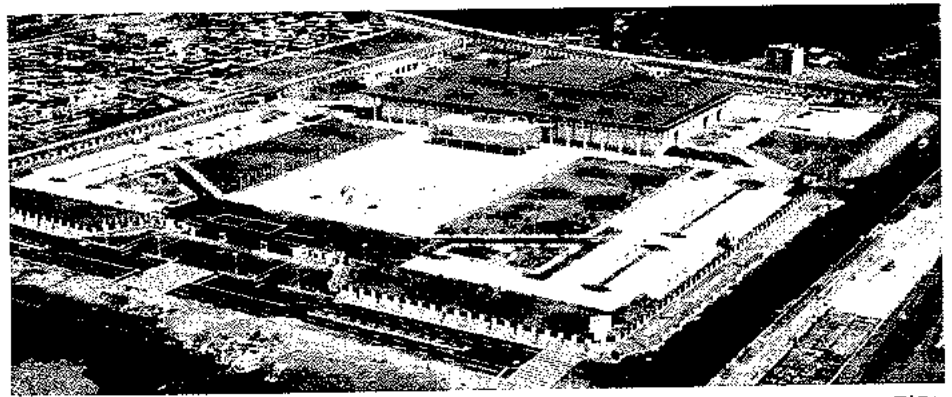
그러므로 本人은 大韓建築士協會의 活動이 보다 學問 분야 및 실제活動분야에서 積極적으로 공헌하여 왔고 공헌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受賞의 所感에 代身합니다.

大 賞



정면

한국 종합 전시장



전경

설 계 자 : 김정철 (주) 정림건축	담 당 : 원도웅 감 리 : 이정우	구 조 : 이창남 기계설비 : 최상홍	전기설비 : 문유현 토 목 : 유정근	조 경 : 우정상 인테리어 : 한도룡
-------------------------	------------------------	-------------------------	-------------------------	-------------------------

설계개요 :

대지위치 : 강남구 삼성동 65의 1
 대지면적 : 130,803m² (39,568평)
 연 건 평 : 27,433m² (8,313평)
 본 건 물 : 26,242m² (7,952평)
 건설기간 : 1977년 10월 28일 - 1979년 6월
 구 조 : 지붕틀-스틸파일프, 스페이스 트리스
 자 붓-경량평지붕
 외 벽-프리카스트(Pre-Cast) 콘크리트
 칸막이-회닝 도아(Folding Door)
 층 수 : 지상 3층
 높 이 : 18m
 천 정 고 :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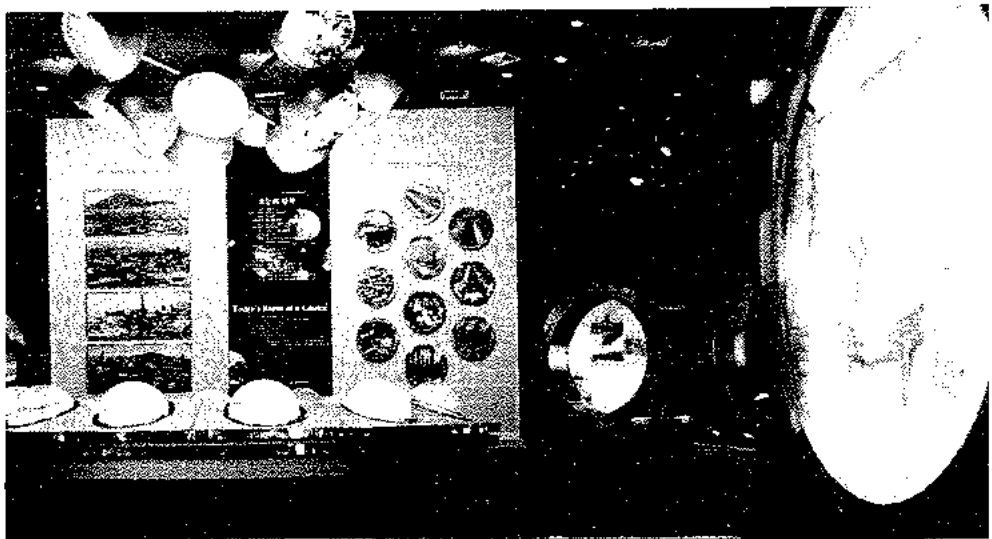
주요시설 :

- 1) 전 시 시 설 : 16,988m² (5,139평)
 - ◆상설전시 : 8,407m² (2,543평)
 - (1층-3,491m² (1,059평),
 - 3층-4,916m² (1,487평))
 - ◆특별전시 : 7,884m² (2,385평)
 - 3개실로 구획가능 천정고 11 15 m
 - ◆홍보전시 : 697m² (211평)
- 2) 회 의 시 설 : 548m² (165평) 125석,
6개국이 동시통역시설, 국제회의 기능
- 3) 지 원 시 설 :
 - 기계실 : 1,183m² (358평)
 - 전기실 : 1,266m² (383평)
 - 기타 통신시설 · 우체국 · 은행 · 전시 스탠드 · 광고
원충동
- 4) 옥외전시장 : 16,218m² (4,906평)
- 6) 주 차 시 설 : 17,655m² (5,341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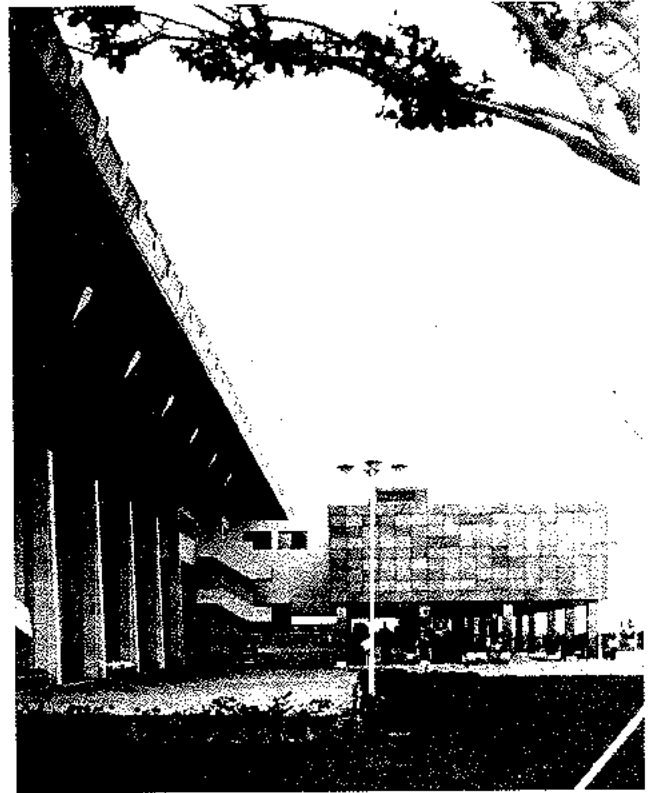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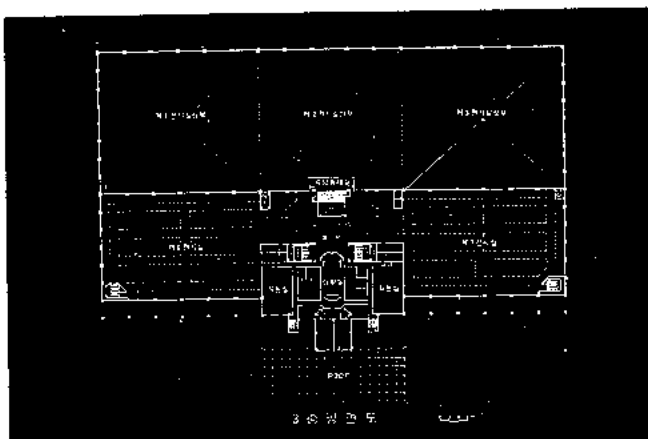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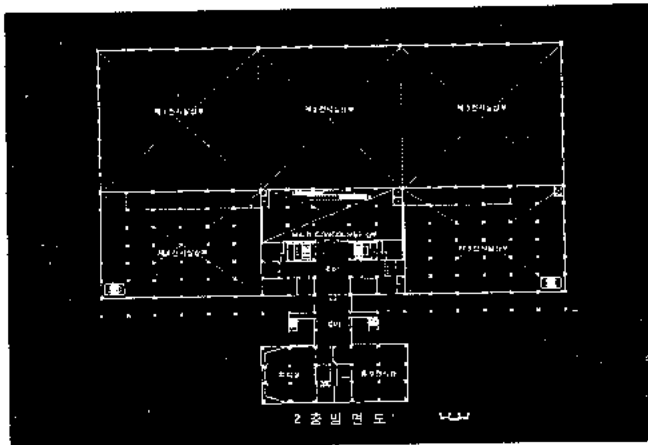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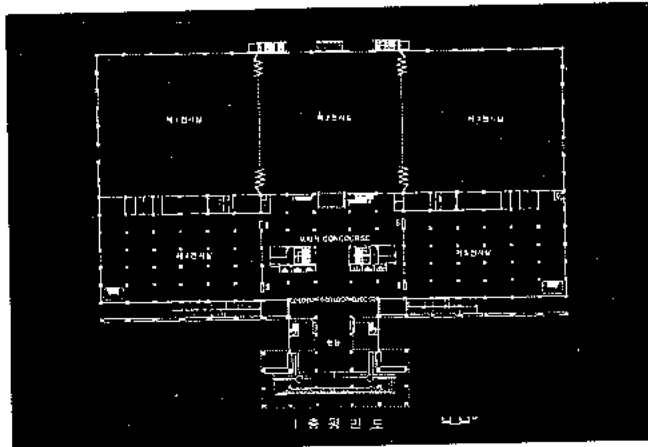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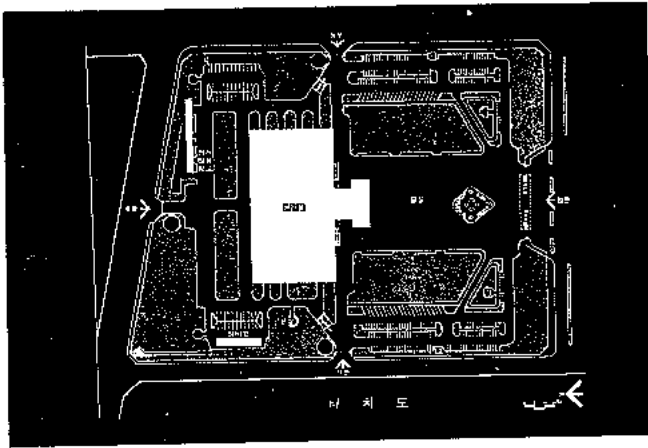
대회의장



상설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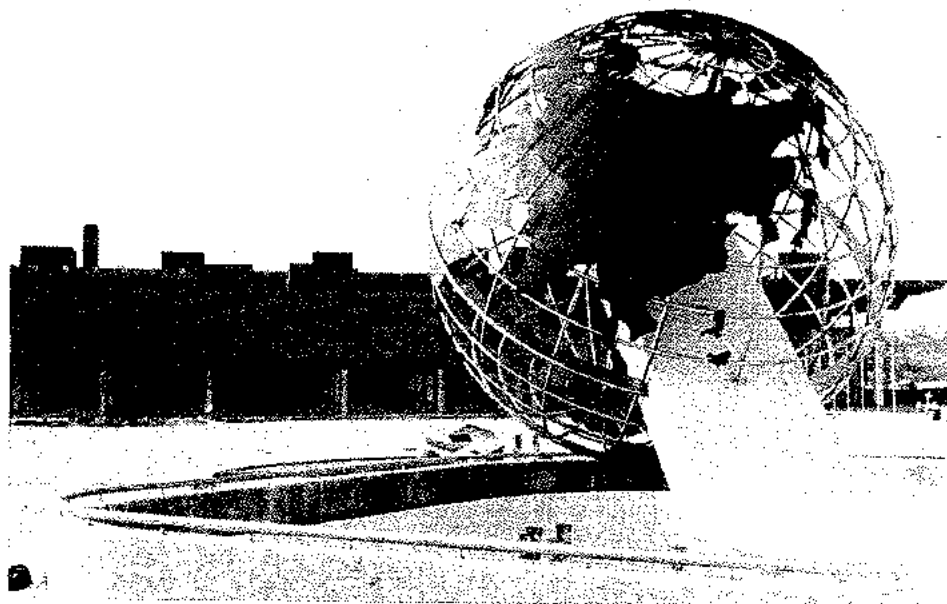
중앙홀



측면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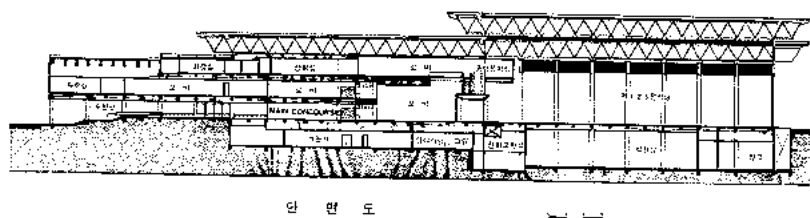
“설계상의 특징”

1. 규모에 비하여 아담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도록 배치 및 형태에서 한국의 고유미를 현대화하였다.
2. 전시홀 (Exhibition Hall) 스페이스 트러스 (Space Truss)를 사용 중앙에 기둥 (Column)이 없는 무주 공간 (Non Column Space)으로 하여 전시기능, 집회기능, 체육기증까지 가능하다.
무주공간규모 : 48M × 156M : 1 개소
36M × 54M : 2 개소
3. 중앙통제실을 두어 컴퓨터 (Computer)에 의한 냉·난방·방재등의 시설기능을 통제하고 전시상내 여러개소에 T.V 모니터를 설치 중앙통제실 T.V 스크린과 연결, 통제실의 기능을 완벽히 하였다.
4. 전시장 하부 (Under Floor)에 PIT를 설치 전기, 급배관, 압축공기, 개스, 전화등의 공급이 가능도록 하여 전시위치, 면적에 구애없이 편의시설 공급 가능하다.
5. 외부 공간 (Exterior Space)와 내부 공간 (Interior Space)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증축이 가능하다.
6. 불구자의 관람 편의를 위한 램프 (Ramp) 및 화장실을 설치했다.
7. 대 전시장은 용도에 따라 3개의 전시장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9.5M × 폭 48M의 자동 개폐문 (Automatic Folding Door)을 설치했다.
8. 냉·난방시설 완비로 사철 전시 가능하다.



입구

분수대



한국 증권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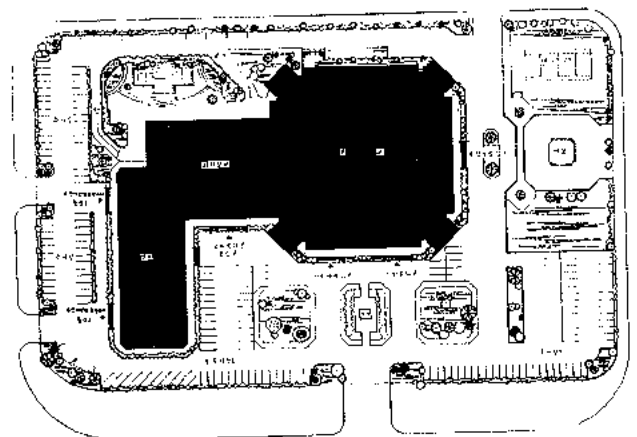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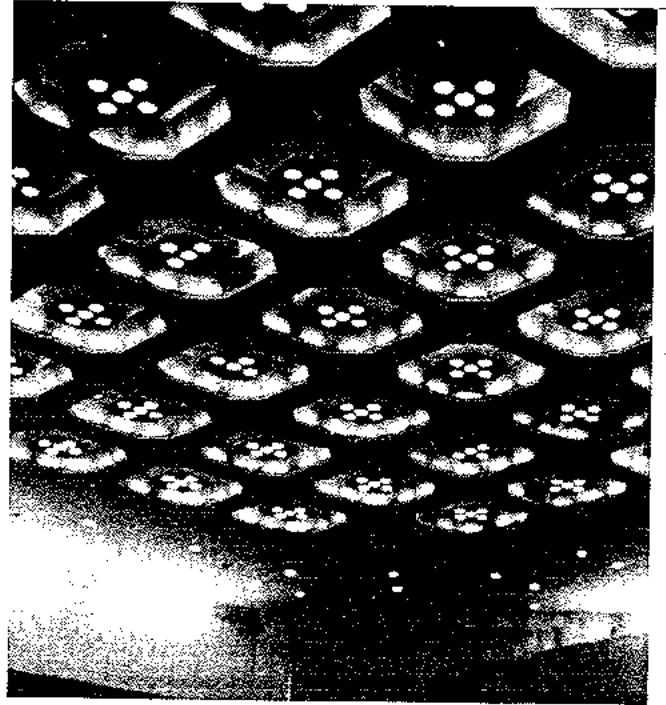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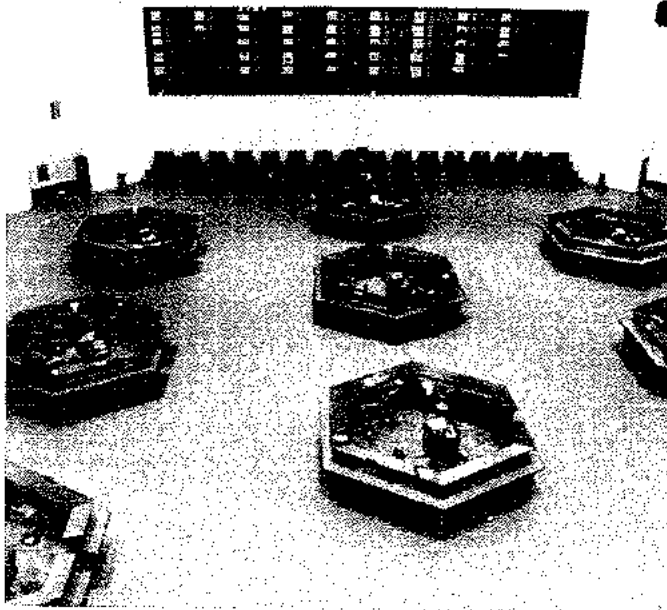
외관전경



배치도

설 계 : 李 丞 雨 (주)종합건축설계사무소
 위 치 : 서울 여의도
 규 모 : 본관, 지하 1층 지상 4층
 별관, 지하 2층 지상 14층
 회의장관, 지하 2층 지상 2층
 건축면적 : 7,345 m² (2,226평)
 연 면 적 : 49,286 m² (14,936평)
 구 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설 비 : 냉·난방, 위생, 공기조화설비, 전기설비, 엘리베
 타설비, 청소용곤도라설비, 컴퓨터 설비에 의한 전
 자 주가 표시판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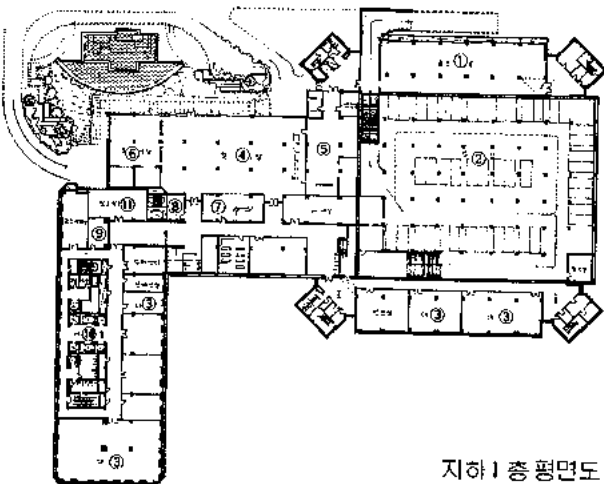
천정조명

매매입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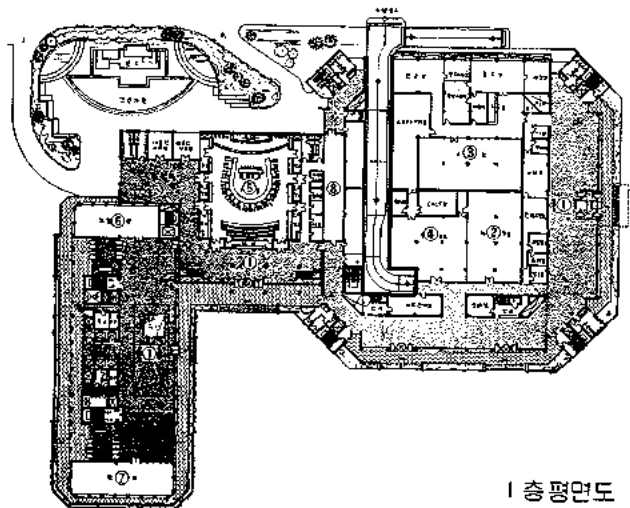
설 계 개 요

- 우리나라의 자본의 종집산지로서의 상징적인 분위기 조성.
- 거래소(매매입회장 및 사무소등) 유관 기관을 위한 사무소, 국제회의장 또한 이들을 위한 지원 시설들의 복합기능을 본관(거래소기능), 별관(유관기관들의 사무소기능), 회의장관(국제회의장기능)의 3개동으로 구분 서로 연결하여 해결.
- 본관은 면적이 700평으로서 국제적 규모인 매매입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에 거래소 사무실을 배치하여 기능적으로 원활하도록 계획.

- 매매입회장은 모든 SYSTEM 이 전산화하여 시장정보 처리에 만전을 기한 국제적 수준임.
- 국제회의장은 5개국에 동시 통역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
- 별관은 유관기관들의 사무실로서도 MODULE 화하여 기능적으로 처리
- 넓은 대지에 건물과 조화되는 조경시설을 하였으며, 식당과 연결되는 휴식 공간으로서 SUNKEN GARDEN 및 연못을 시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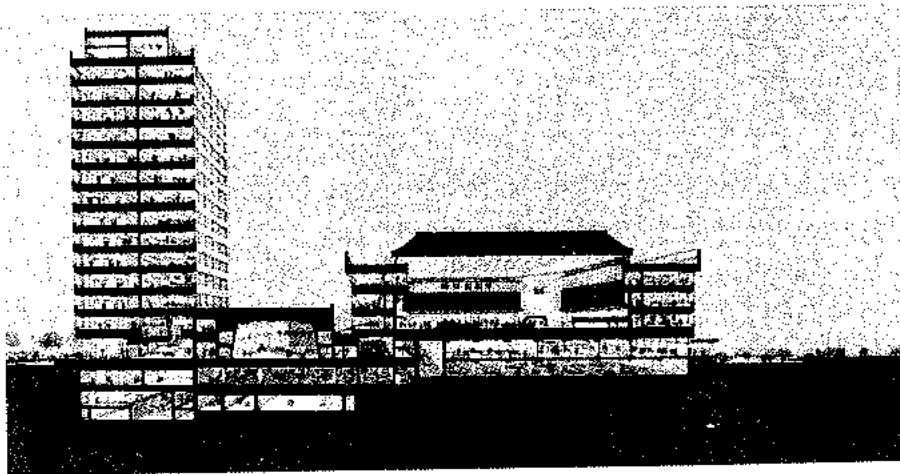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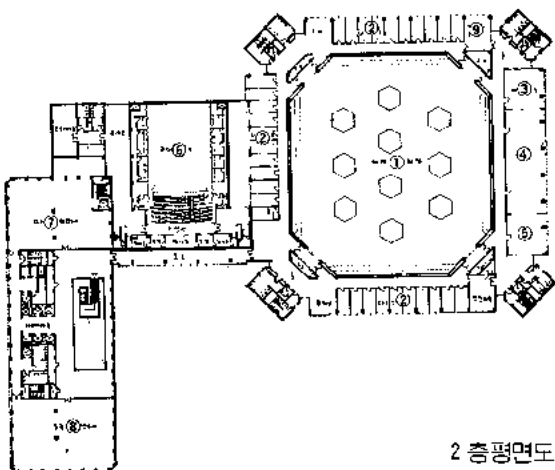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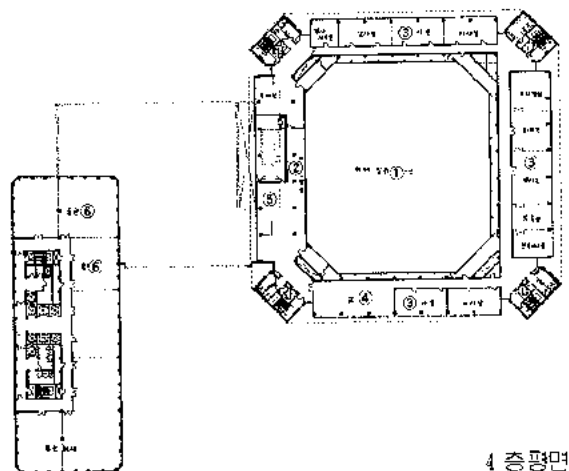
정면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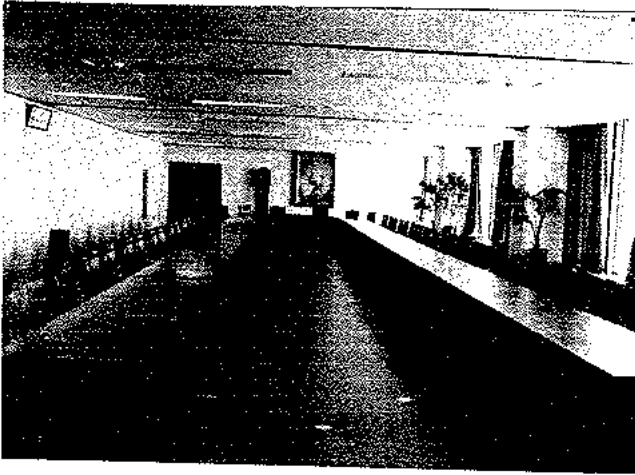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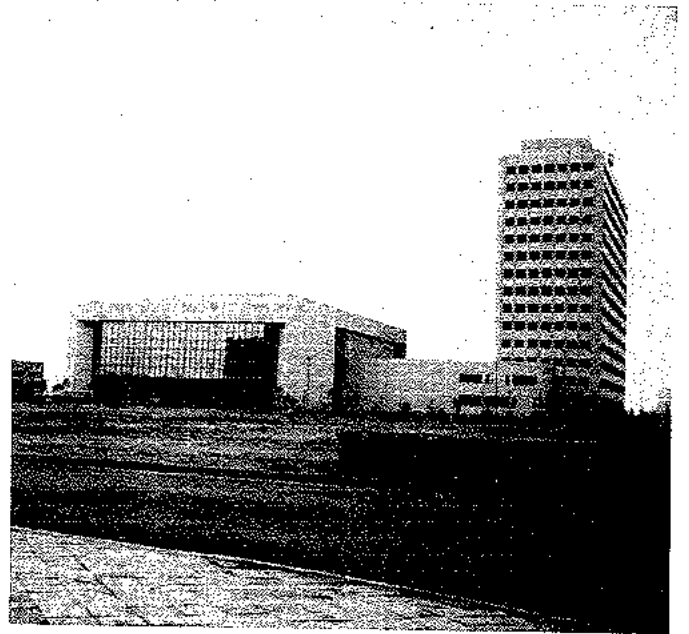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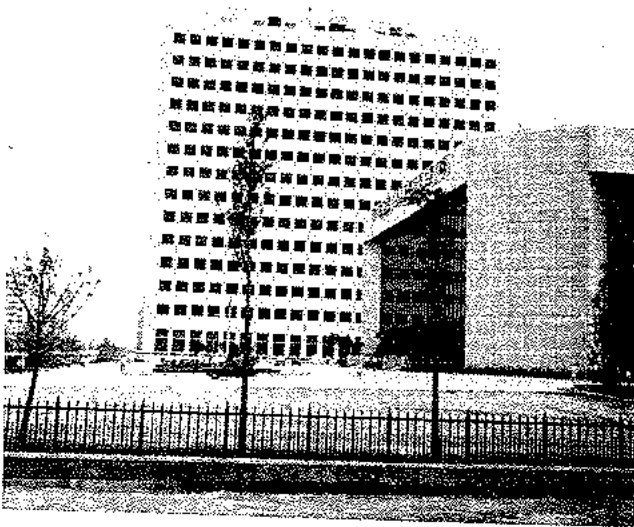
4층평면도



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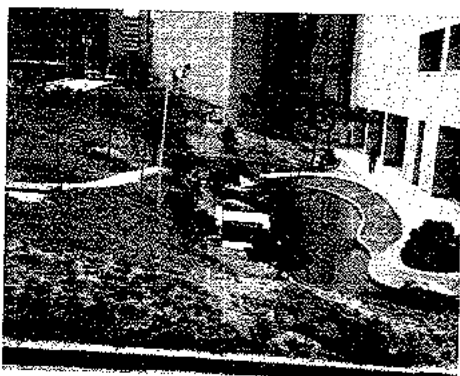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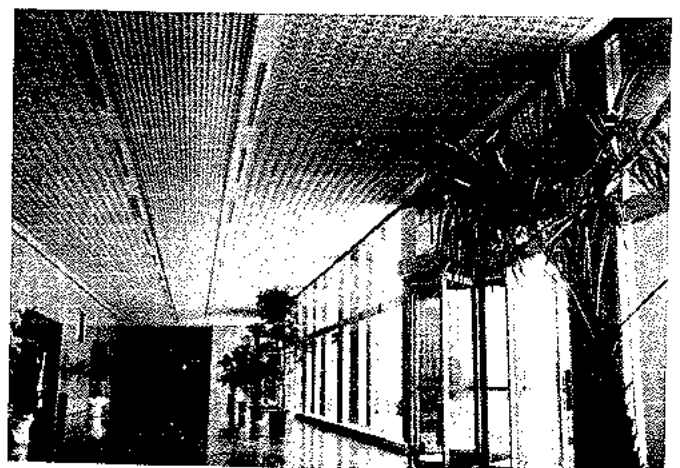
측면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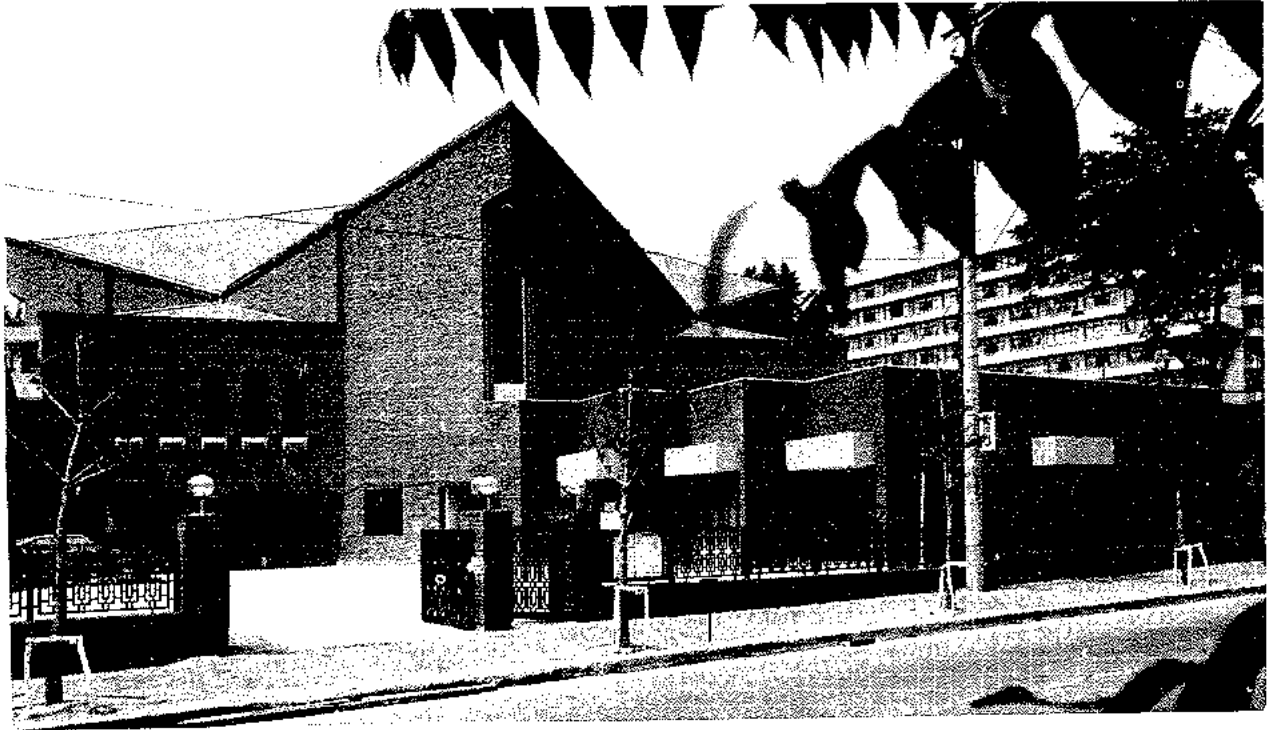
별관로비



썬큰가든



본관로비



정동제일감리교회



설 계 : 金正曄 (주)정림건축

계획담당—백 문기
설계담당—오 정권
구조담당—마 춘경
기계설비—심성설비
전기설비—한일전기

건물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32-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격자Slab 지붕

설 비 : 2관식 온수난방—본당 음향조정설비

공사기간 : 1976. 11—1979. 4. 15

시 공 자 : 미우개발

규 모 : 대지면적— 5,190M²

건축면적— 1,393M²

연 면 적— 2,610M²

건물높이— 17.3M²

본당수용인원— 1,100인

설계 개요 :

1. 역 사

1887년 10월 9일 창설, 독립운동의 산실이 됨

2. 배치계획

1) 문화재로 지정된 기존건물과의 조화 (Detail에 이르기까지)

2) 좁은 대지내에서 Approach되는 과정이 인간적 Scale감을 느끼도록 함

3. 기 능

봉사활동 공간과 교육공간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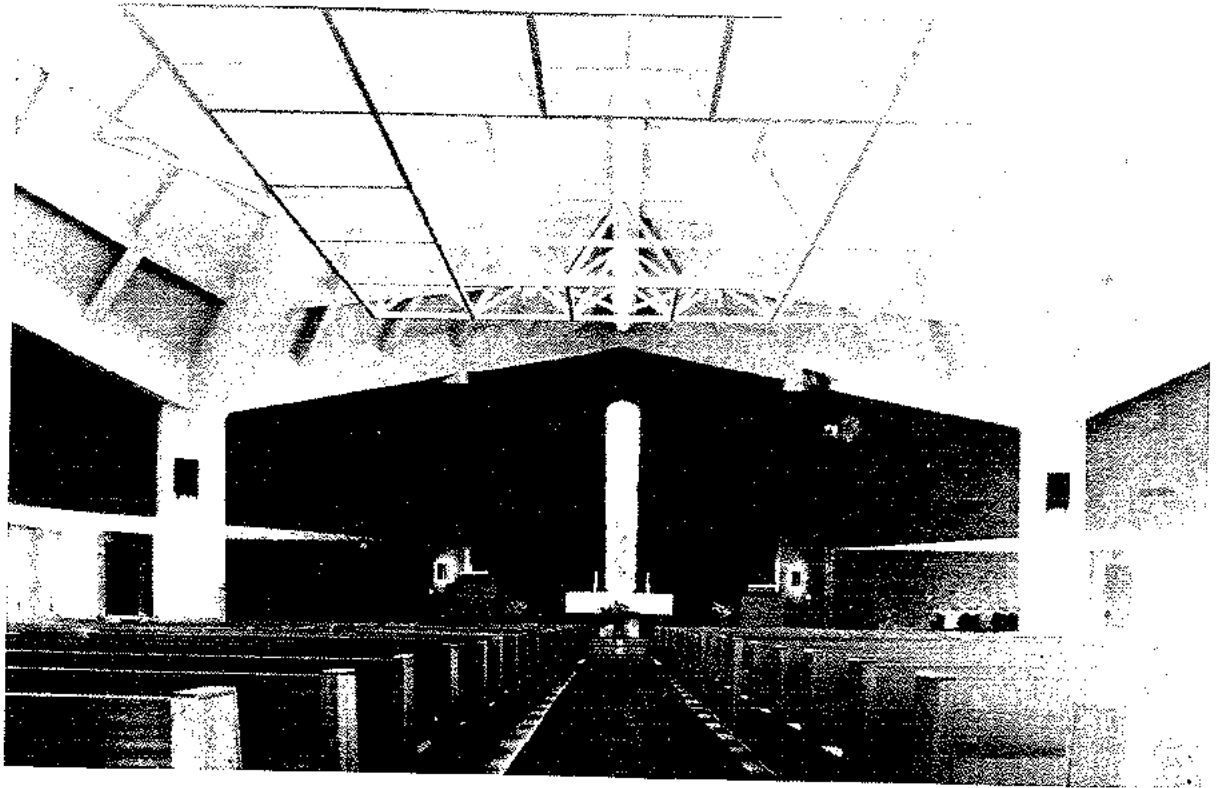
4. Design

1) 성당과 화중석과 구별없는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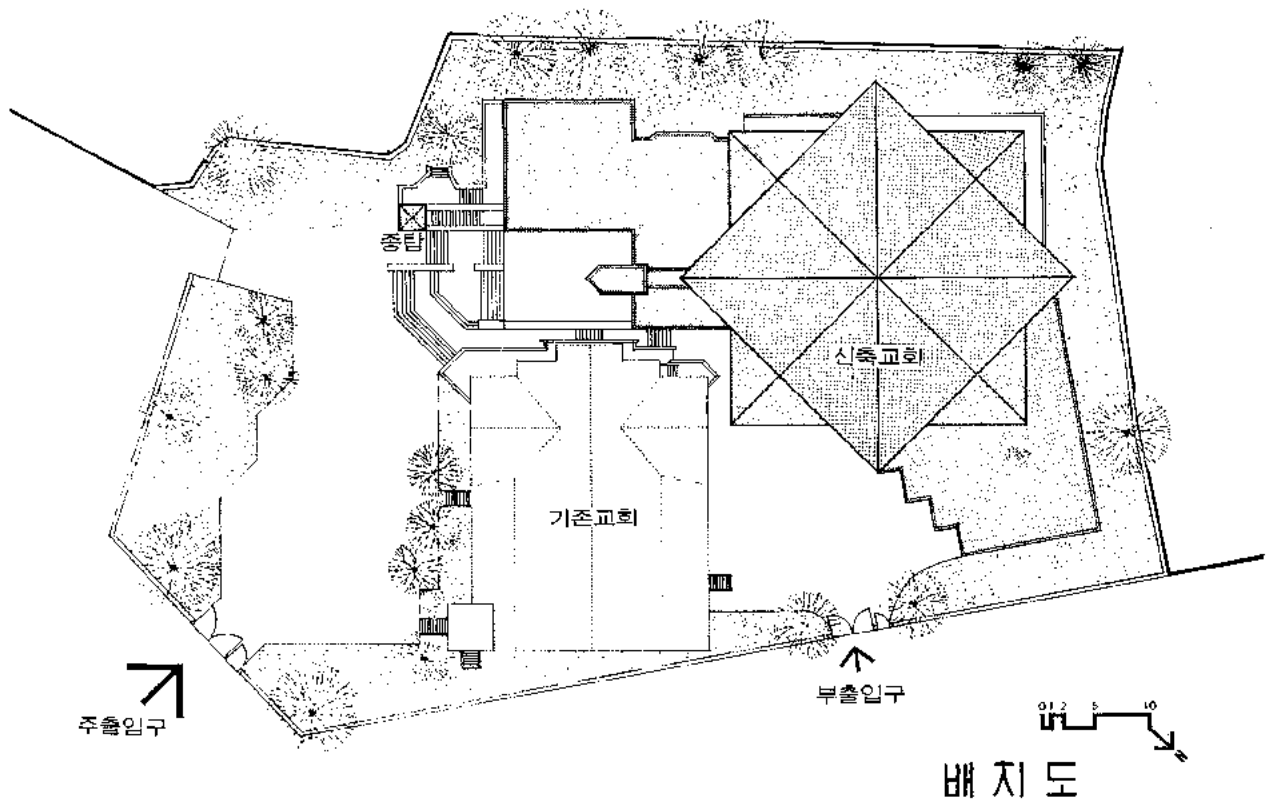
2) 내부 Structure의 노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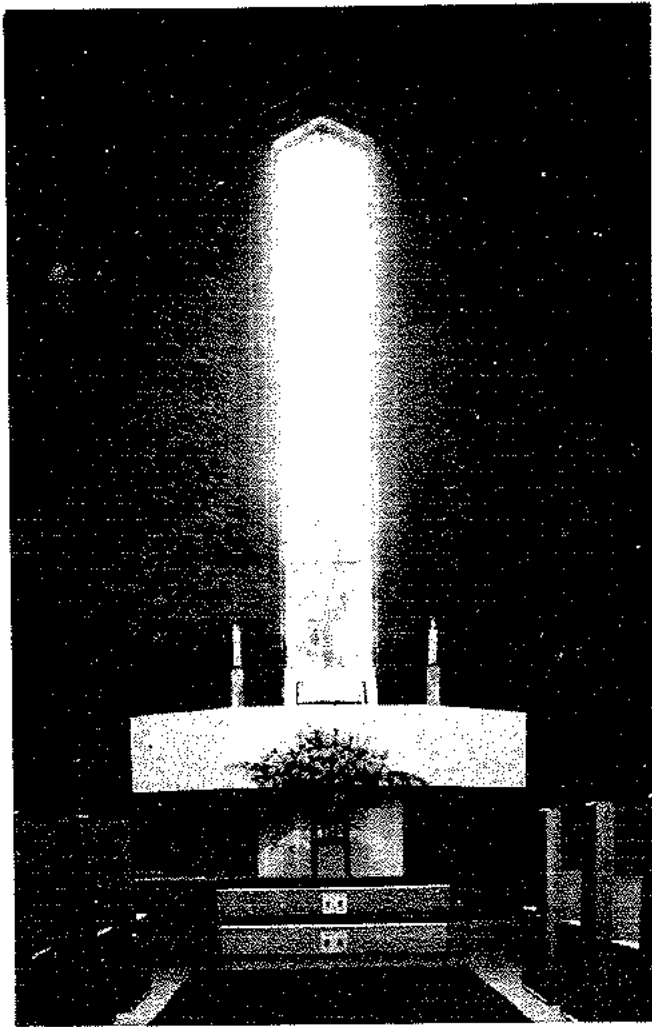
5. 구 조

격자 Slab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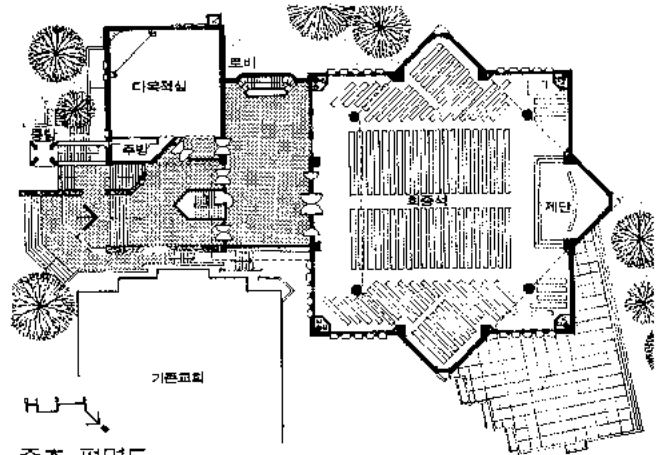
제단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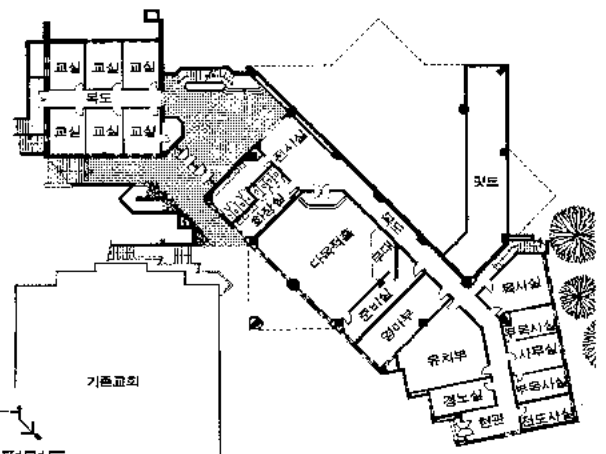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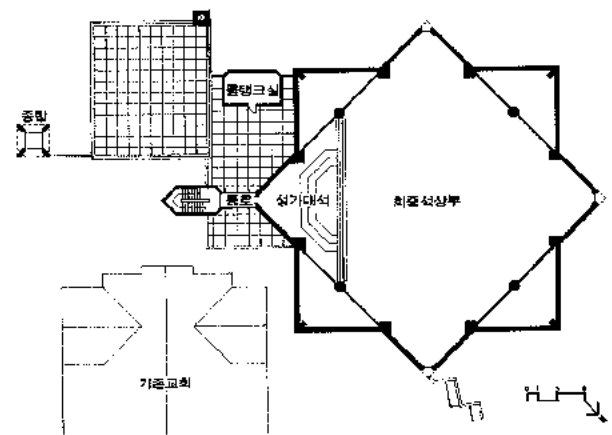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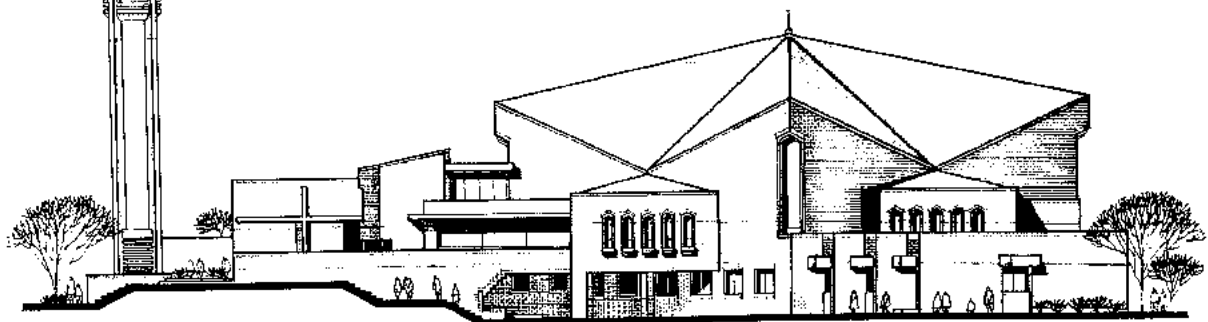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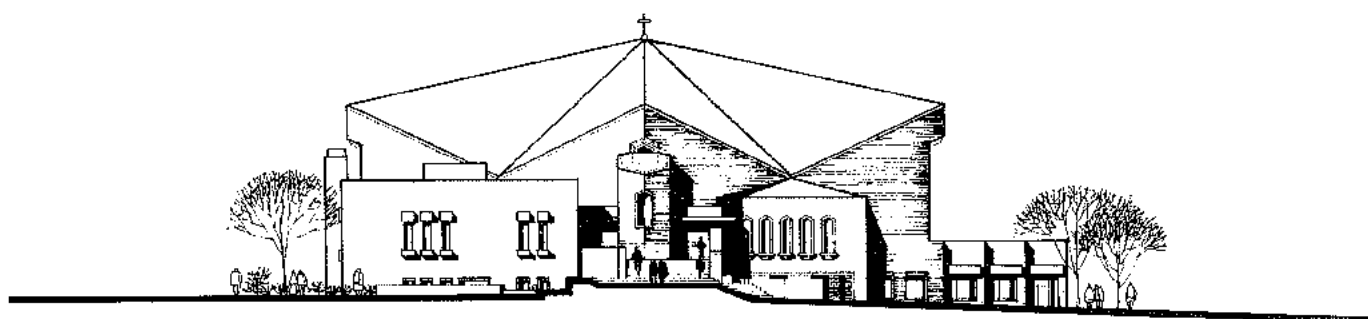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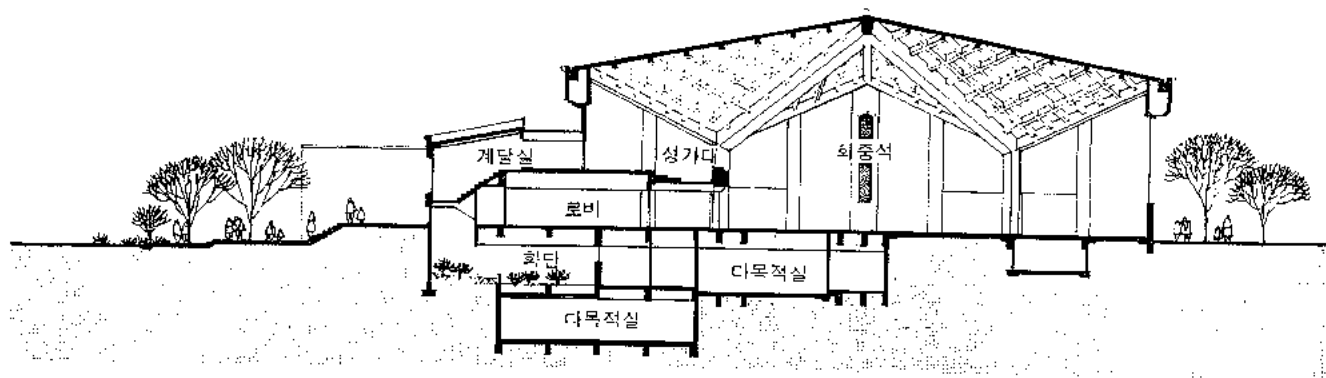
서 측 면 도



정면입구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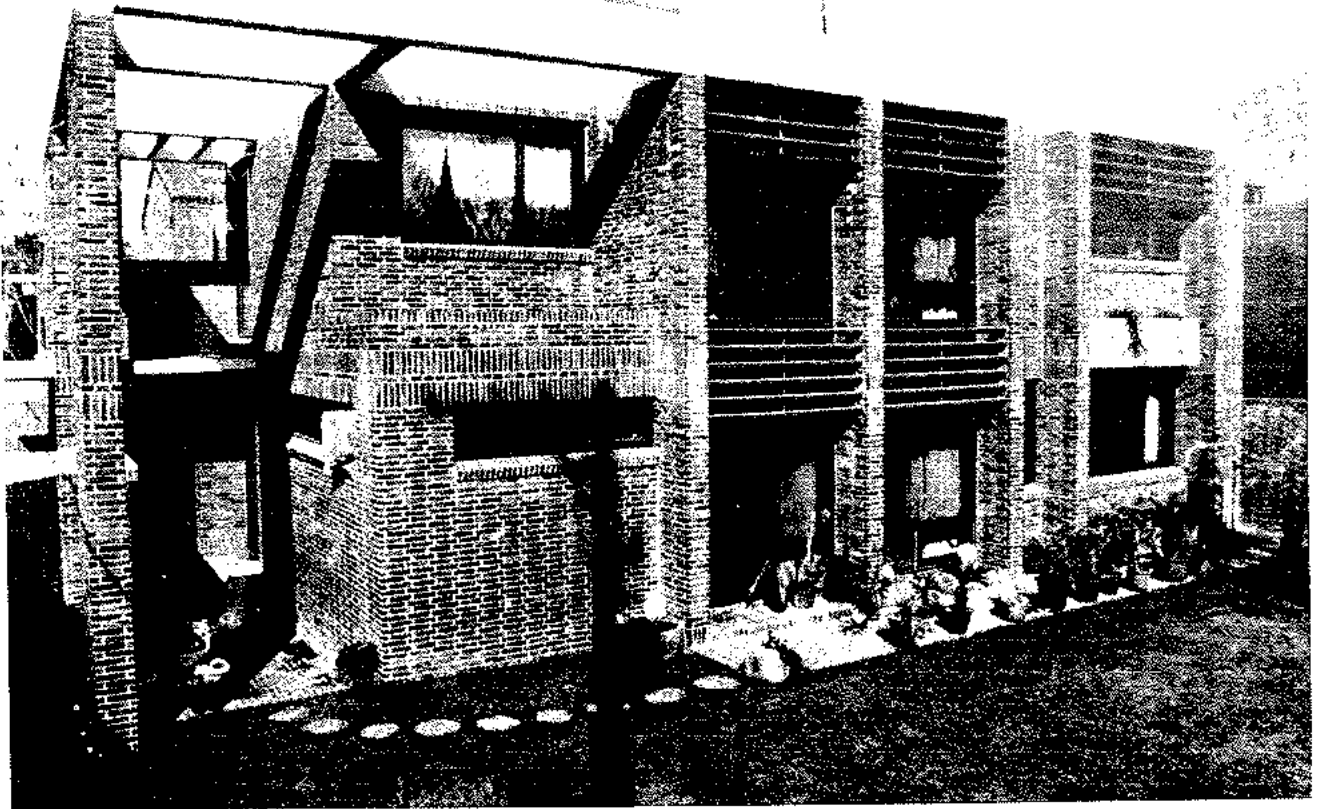


남 측 면 도



일 반 단 면 도





전경

동송동 P씨댁



설 계 : 홍 순 인 대우건축연구소

건물위치 : 종로구 동송동 구서울대부지내

건물면적 : 연면적 268㎡

1층 : 147㎡, 2층 : 70㎡

사용재료 : 외부 : 오렌지색 적벽돌 (대동요업)

밤색 알루미늄

내부(거실)벽 : 노출벽돌위에 백색본타일

바닥 : 암스트롱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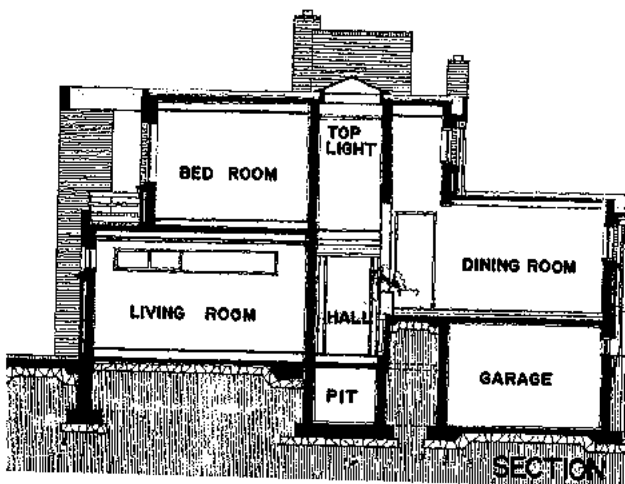
천장 : 스킵목후로팅

설계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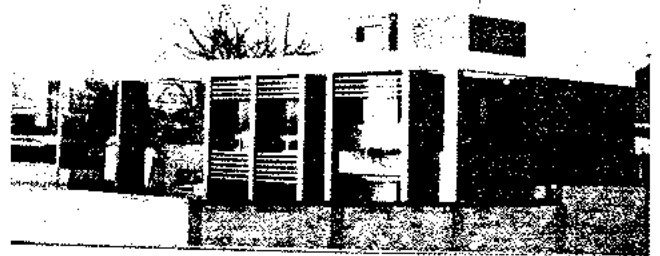
도심에 가까운 좋은 조건의 택지라고는 하나 최일적으로 잘라 놓은 대지는 우리(설계가)들의 생각을 구속하거나 또는 좋은 발상을 유발케 하는 계기는 되지 못했으나 두 번째 집을 짓는다는 의사인 건축주 부부의 건축에 관한 열의가 끝까지 마음에 들었다. 외부조형에서 대문과 담을 본 건물과 일치되도록 노력해 보았고 대문에 들어서면 지붕위로, 그리고 정원쪽으로 터진 공간이 연결되고, 현관문에 들어서면 2층으로 터진 천정과 중이층의 식당이 함께시야에 들어온다. 좁은 흠이지만 좌·우로, 위로 연결된 공간때문에 꽤 넓게 느껴진다. 장남인 주인은 년중 가정내 행사가 잦아서 한식형 다용도의 방을 식당옆에 요구했는데 쓰기에 아주 편리하다는 뜻이야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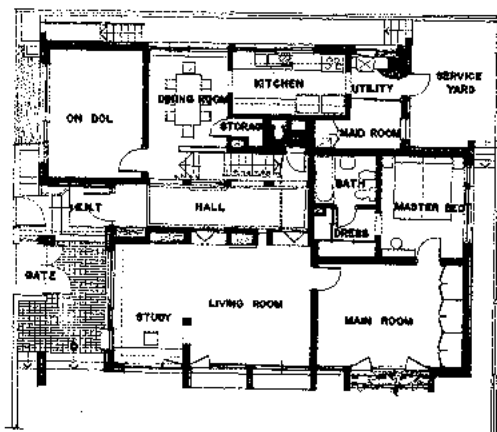
서측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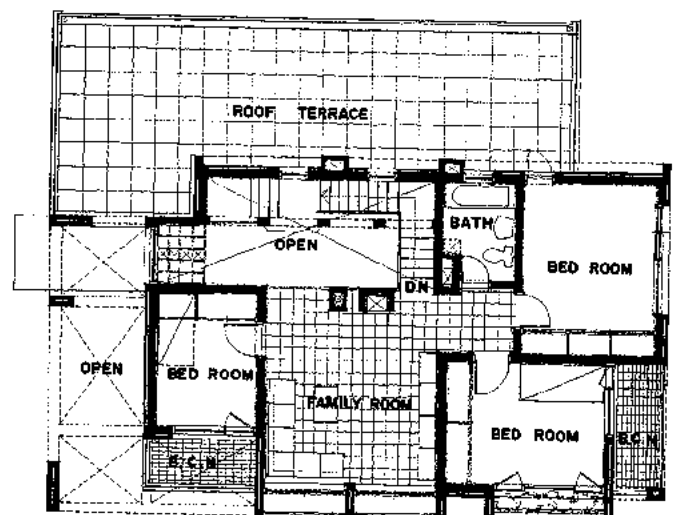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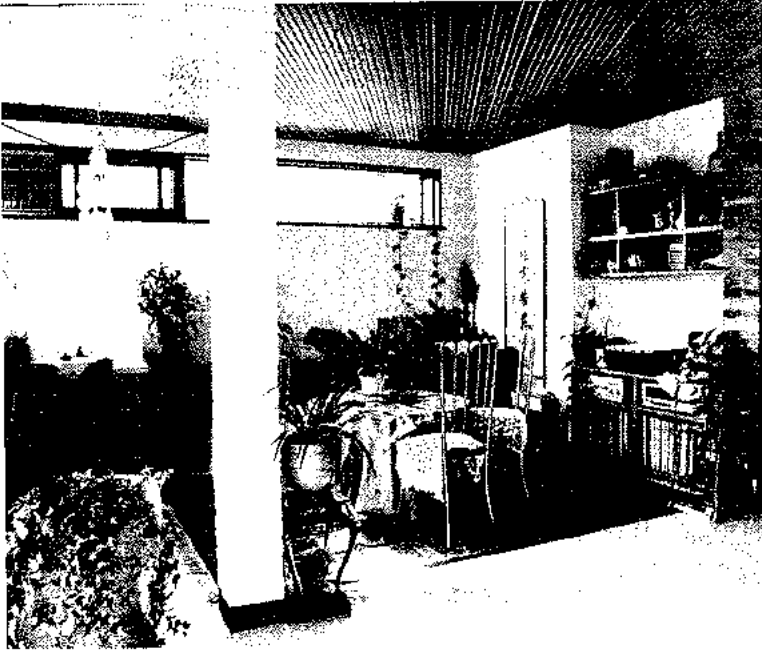
남측외관전경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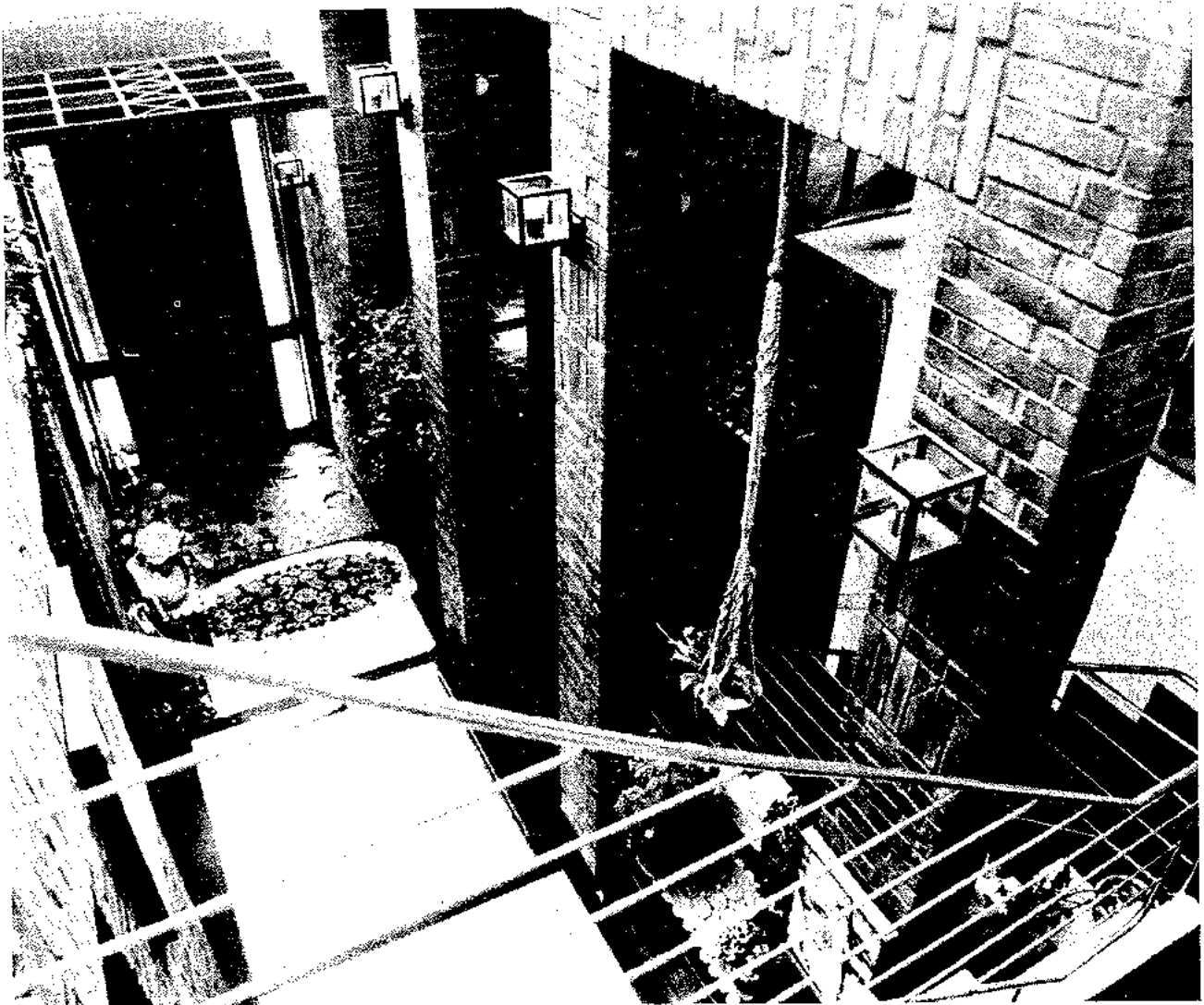
2층평면도



거실



측면외관



계단



남천동 H씨댁

외관전경



설 계 : 柳 光 弘 한국건축연구소

위 치 : 부산 남구 남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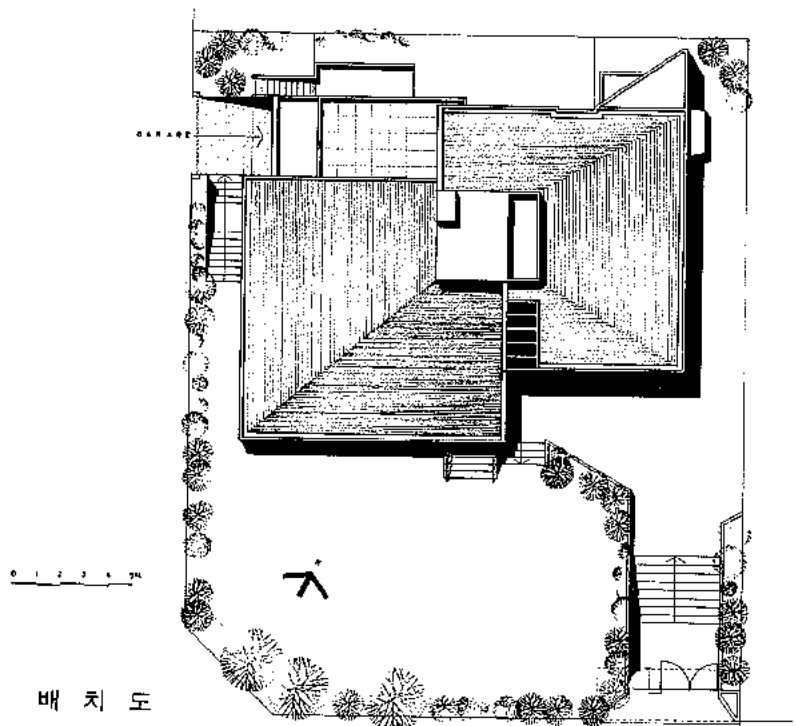
건물면적 : 지 층 29. ²m

1 층 96. ²m

중간층 78. ²m

2 층 68. ²m

연 면 적 : 272. ²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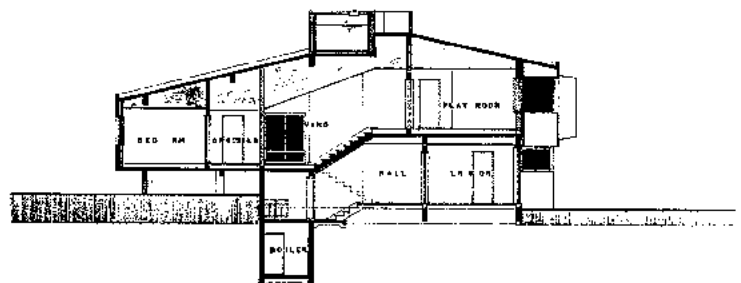
배 치 도

설계 개요

대지 선정에서부터 의뢰받았었고 건물이 남양이나 전망이 좋은 경사지 동향이 나로 무척 고심했다. 결국 남향으로 하고 바다를 볼 수 있는 동향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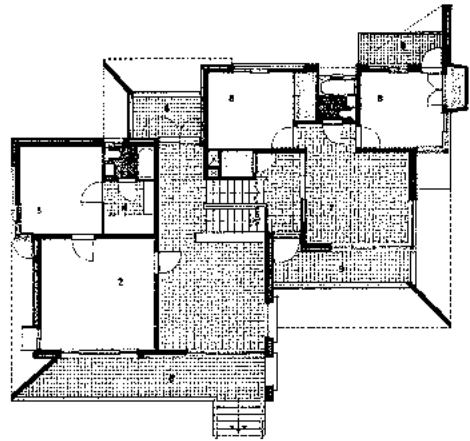
계단을住宅 내부 한가운데 두어 Skip Floor System으로 하고 거실을 이용하여 1층과 2층 사이에 중간층을 두고 주인사용 부분인 중간층에서 2층 아동 사용 부분과 1층 공용 사용부분 또 정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住宅 내부나 외부마감을 단순하게 처리하여 가구, 조명, 커튼등이 장식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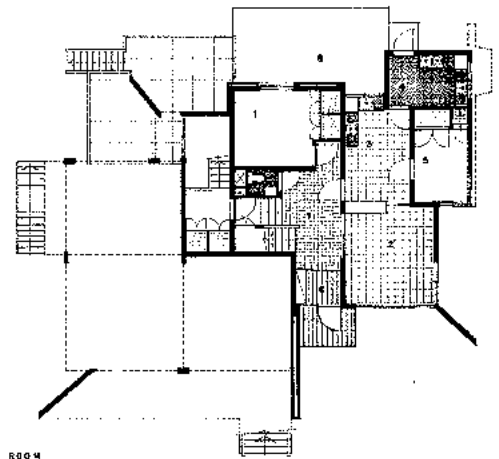




거실및발코니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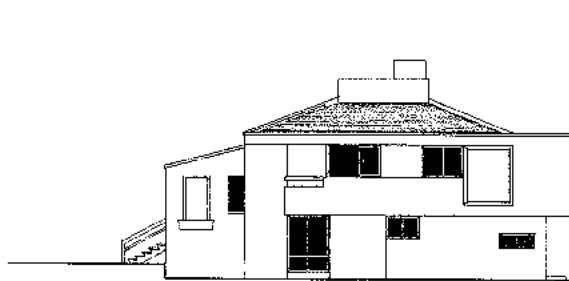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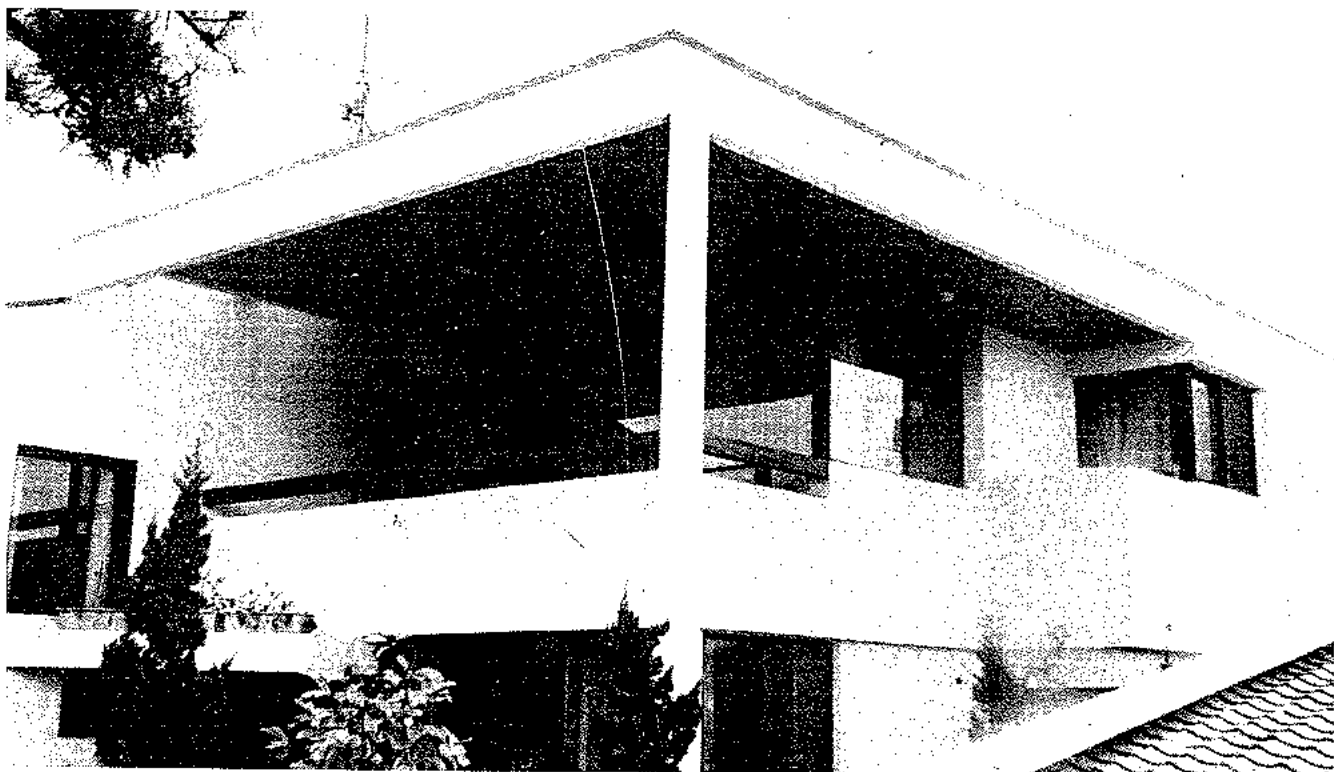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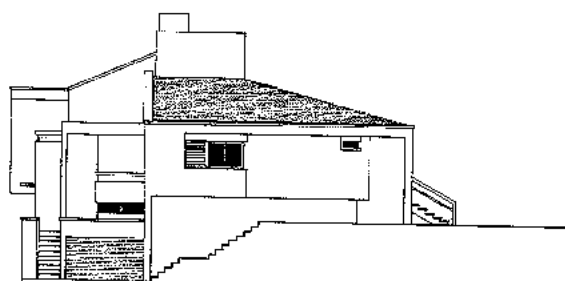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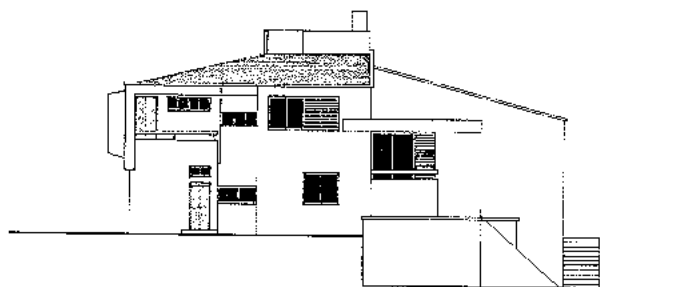
정원에서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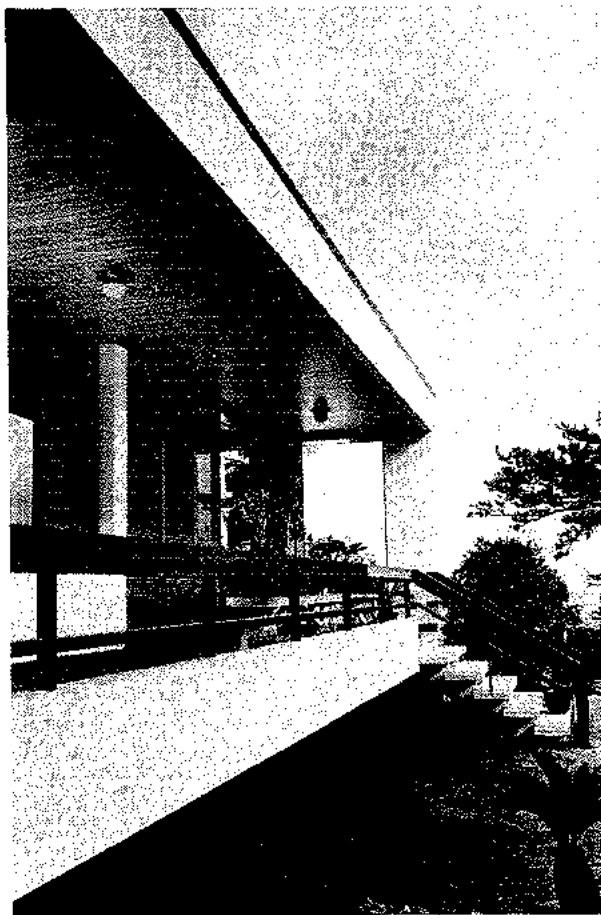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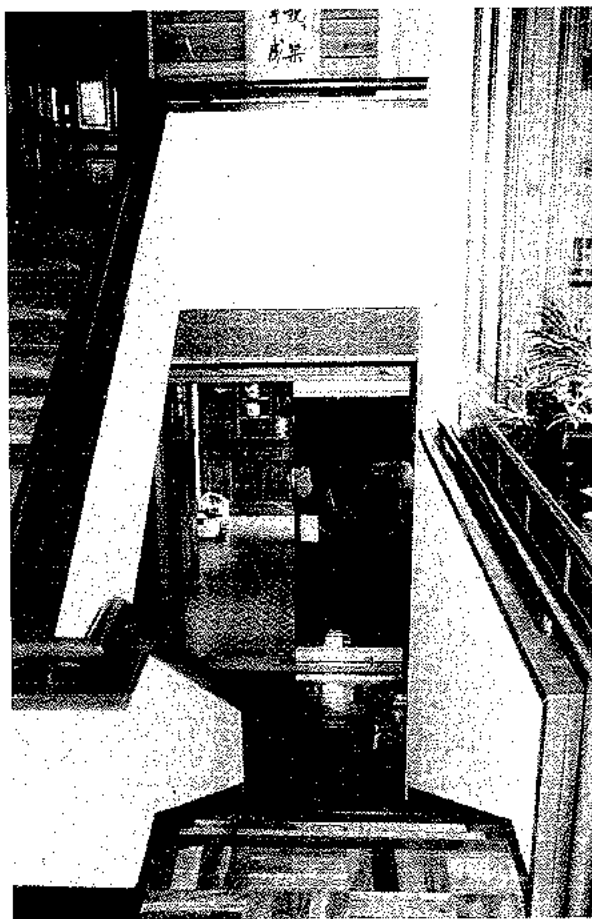
북측면도



남측면도



발코니



내부계단



거실내부

第4回 協會賞 審査評

姜 明 求

建築士協會賞 制度가 創設된지도 어느덧 4회가 되었다. 매달 建築士協會 會誌를 받으면서 느껴지는 일은 會誌에 紹介되고 있는 會員의 作品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大形化되고 作品的으로도 以前의 作品紹介에 보다 漸漸 優秀해지며 그 速度도 빠르게 發展되는 것을 누구나 쉽게 느끼게 하고 있다.

몇해되지는 않았으나 協會賞 制度는 이러한 會員들의 作品 發展을 더욱 促進한 原動力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協會賞 制度가 있기 以前에도 會員들의 作品이 紹介되고는 있었음으로 누구나 곧 对照할 수 있을 만큼 作品들이 長足の 發展을 이룩하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以前에 會誌에도 會員들의 作品은 紹介되어 왔으나 當時의 設計事務所는 輻輳되는 業務中 圖面の 整理도 미처 못한 靑写真 또는 畧圖等 印刷事情에 未備된 것이거나, 또는 집장사等 施工主 強要에 의한 拙作品까지 할 수 없이 提出된듯한 作品들이 왕왕 눈에 띄었다.

그나마 會員들은 或時 망신이나 당하면 어찌하나 하는 杞憂로 出品이 不振하여 會誌 編纂委員들의 勞苦가 많았다. 이러한 作品向上을 위한 會員作品 紹介의 隘路도 解決하기 위하여 協會賞 対象은 協會誌에 실린 會員作品中에서 選定하는 原則이 생겨난 것이다.

近來와 같이 會員들의 作品水準이 向上되는 한편 作品 出品者의 數가 늘어만 간다면 가까운 將來에는 每月 作品도 嚴選하여야 하며 때때로 單行作品集 刊行도 予想된다.

이러한 會員作品 紹介와 協會賞 制度는 서로 相乘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建築發展에 直接的인 役割과 成果를 남게 하였다.

그것은 27回나 거듭된 國展의 建築部門에 出品되면 作品이나 또는 作品爲主의 建築作家들이 發展하는 計劃案과는 달리 建築士誌에 紹介되어온 建築들은 實地로 建築士들이 어렵고 複雜한 條件下에서 제각기의 立地 條件과 改変되는 建築法規의 制約을 받으면서 竣工에 이르는 建築을 圖面으로 再整理하고 写真으로 說明할 수 있도록 撮影까지 하여야 하므로 作品制作의 勞苦는 可히 짐작할 수 있다.

今番 當選된 作品의 大賞은 金正澈設計의 “한국종합전시장”이다.

作品部門의 選定方法은 非住居用과 住居用으로 区分하고 論文部門은 大學에서 敎鞭을 보는 審査委員 3名으로 別途審査하였다.

一次審査 対象 候補로 選定된 非住居用 建築의 候補作家名은 다음과 같다.

김정식·김충득·김정철·이승우·이영일·안장원·정희춘·김효일 이들 8名의 候補作家中에는 審査委員으로 任命된 金正澈理事의 作品도 無記名 投票에 의하여 選定되었으나 本人을 退場시킨後 殘余 審査委員들의 投票로 決定되었음을 特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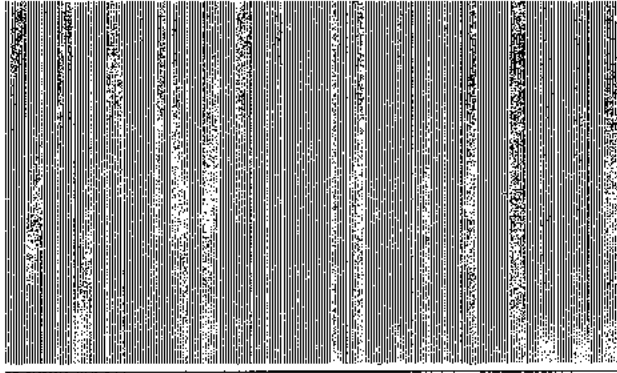
協會賞 選定도 4次에 걸친 無記名 投票 結果 李丞雨·金正澈이 每番 同票數로 되어 會長과 相議하여 하나뿐이던 協會賞을 追加하여 두분으로 決定되었다. 住居建築部門을 選定하는 無記名投票에서 選出된 候補 設計者는 다음과 같다.

유경철·이기범(未竣工으로失格)·유광홍·홍순인·정소·이영희·유규정·최창규·조구현等 9名이었으나 投票決果 洪淳演과 柳光弘의 住宅이 優秀賞으로 決定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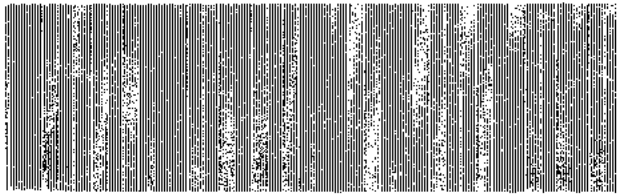
이러한 當選賞의 優劣은 多數 審査委員들이 作品 하나하나를 分析 採点 討論을 거치지 않고 各自의 經驗에 의한 主觀的 判斷으로 多數決原則에 의한 投票에 의함으로 客觀的으로 最優秀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어 當選이 아니된 作品中에도 相當히 水準높은 좋은 作品들이 많았음을 끝내 아쉽게 생각된다.

論文部分에서도 入選候補로 審査委員인 金正秀·尹道根教授等은 自進 入選을 사양하고 協會賞 論文에 삼일종합건축연구소 宋長福의 “아파트·單獨住宅의 住居意識 및 生態에 關한 比較”는 앞으로 建築士들의 設計方向 指針에 좋은 方法論이기도 하였다.

優秀賞 論文의 劉香山은 協會 會員은 아니나 協會誌掲載論文을 對象으로 選定한다는 原則에 의하여 入選케 되었다. 이는 비록 建築을 專工한 분은 아니라도 學校에서 敎育을 專工으로 研究하는 教授로 오랜동안의 實務를 통하여 建築士들에게 計劃의 方向을 提示한 좋은 研究論文으로 높이 評價된다.



月間建築情報



79. 9. 21 ~ 10. 20



78年度 国内外 建設 4 兆 원

建設業체数 4,200, 従業員 48萬 — 경제기획원 조사

9月20日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78년도 建築系統計 調査 結果에 따르면, 78年은 건축경기가 활발했던 해로써 大規模建設工事 (아파트)와 대기업의 자재공사가 건설경기를 유도했으며, 公共部門 土木工事は 77年보다 다소 鈍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国内 4,200個 業체가 건설한 建築 및 土木工事 実績을 部門別로 비교하면, 建築은 77年工事額 8,478億 원에서 78年에는 2兆5,154億 원으로 196.7%가 증가한 반면, 土木은 77年 1兆2,528億 원에서 78年 1兆4,147億 원으로 15.5%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建設業체는 77년에 3,875個에서 78년에는 4,200개로 8.4%가 증가했으며, 종업원은 77년의 407,809명에서 78년에 484,213명으로 18.7%의 증가율을 보여, 業체数 增加率보다 雇傭率이 크게 앞지르고 있다.

建築審議, 57%가 조건부 통과—서울시

38%는 반려, 거의 駐車場 造景基準 미달

8月1日の 建築規制 緩和措置 이후 부쩍 늘어난 건축허가 신청분 중 90% 이상이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 위반으로 반려를 당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9月21日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열린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려진 건축허가신청분 103건 가운데, 공사시 시정한다는 조건부 통과 건수가 57.2% 59건에 달했으며, 38.8%에 해당하는 40건은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하자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겨우 4%인 4건 밖에 안됐다.

서울시 건축관계자는 건축허가신청자의 대부분의 관계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반려 또는 조건부 통과분의 반 이상이 駐車場法을 위반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조경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있다고 말했다.

建設部, 建築關係法 改正案을 마련

- 建築法—增·改築申告범위 확대, 用途制限 완화 등
- 建築士法—工事監理專担事務所制의 新設
- 住宅建設促進法—住宅組合육성, 優秀住宅部品 認定制

건설부는 9月24日, 建築法 및 同施行令, 建築士法, 住宅建設促進法の 改正案을 마련,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정부·여당권 심의에 넘겼다. 각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 建築法—① 都市計劃區域등 建築許可 対象區域에서 增·改築 申告對象을 現行 10m²를 30m²로 완화한다. ② 建築許可 対象區域 外에서는 用途·規模·構造에 관계없이 200m²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일 때에만 建築許可를 받도록 단순화하였다.

지금까지는 특수건축물인 경우 100m² 이상, 목조건축물인 경우 300m², 목조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200m² 또는 2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③ 不良材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KS규격표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이 品質基準品으로 인정하는 것만 사용하게 한다.

▲建築法施行令=① 自然綠地地域의 容積率을 60% (종전 20%)로 크게 완화했다. ② 專用工業地域에서 工場附設學校(대학·전문학교·고등학교)의 건축을 허용한다.

▲建築士法=① 共同住宅·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工事監理專担事務所가 監理할 수 있게 한다. ② 工事監理專担事務所에는 建築士外에 電氣·機械·暖房등의 기술자를 확보하게 한다. ③ 工事監理專担事務所가 監理를 하지 못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建築設計事務所의 補助士가 工事現場에 常駐하여 工事 監理를 하게 한다.

▲住宅建設促進法=① 각종 住居用設備品(예: 주방용품·도어록 등)에 관하여 優秀住宅部品の 認定制를 실시, 메이커를 보험에 가입케 하고, 股權가 있을 때에는 保險会社에서 개수 또는 변상하게 한다. ② 優秀住宅部品の 認定制度는 中央設計審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住宅組合에 관한 규정을 신설, 職場·地域組合에 대해서 金融 및 稅制上的 지원을 한다. ④ 組立式住宅 部材의 구조, 断熱 및 遮音등의 性能認定制度를 실시하여 組立式住宅의 品質水準을 향상한다. ⑤ 전국을 8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별로 25평형 單體住宅 1종씩 표준설계도를 보급한다. ⑥ 住宅建設事業全体에 土地開發公社를 추가하여 土開公이 國民住宅財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漢江辺 9곳에 大規模 公園 造成

80~85年間, 400億 들어—서울시

서울시는 9월 25일, 80년대 도시정비사업으로 내년부터 85년까지 5년간 총 400億원을 들여 漢江辺 高水敷地 247万평 중 비교적 지대가 높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汝矣島 北쪽 21万坪 등 9개 지역 130万여坪에 公園을 조성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서울시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漢江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水質淨化를 뒷받침하는 한편 漢江辺을 따라 들어선 아파트團地 주민들에게 休息施設을 주며 86년 아시안 올림픽, 88년 世界올림픽競技 誘致를 위한 都市整備事業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公園이 들어설 곳은 ▲汝矣島를 비롯 ▲第2 漢江橋 望遠洞 쪽(10.7万평) ▲第2 漢江橋 永登浦쪽(5.6万평) ▲第1 漢江橋 龍山쪽(14.3万평) ▲潛水橋 盤浦쪽(18.4万평) ▲第3 漢江橋 新沙洞쪽(15.1万평) ▲뚝섬(16.1万평) ▲蚕室大橋 南쪽(16.7万평) ▲4戶大橋 밑 광나루(12.5万평)등이며, 이들 지역은 모두 漢江다리 주변으로 敷地가 비교적 높아 물이 잘 들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시, 美觀地區 適用幅을 조정

美觀地區 各種別로 25m~15m 씩

9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美觀地區 폭을 정할 때 도로 양편에 일률적이고 12m 씩으로 잡아 오던 것을 앞으로는 1種美觀地區의 경우 각각 25m로, 2種 및 3種美觀地區는 20m, 4種 및 5種美觀地區는 15m 씩으로 잡기로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美觀地區의 각종별 최소면적만을 정해놓고 일률적인 美觀地區隔을 적용, 심한 경우에는 單一筆地內에서도 前面의 일부는 美觀地區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일반건축규정을 따르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각종별 正方形 地 最小面積을 기준으로 하여 差等 적용키로 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1種美觀地區의 경우 地 最小面積이 660m²(200평)이므로 地 형태를 正方形으로 가정하면 한변이 25.69m로 美觀地區의 幅은 25m로 잡는 것이다.

각종별 地 最小限度面積 및 美觀地區 조정폭은 아래표와 같다.

종별(美觀地區)	地 最小面積	美觀地區 조정폭
1 종	660m ²	25m
2 종	330m ²	20m
3 종	330m ²	20m
4 종	200m ²	15m
5 종	250m ²	15m

내년 國際空港管理公團발족, 施設擴充등 향상

80年代 外國航空社 就航러시 대비

9월 27일 교통부에 따르면 金浦空港등 현재의 國際 空港은 교통부가 직접 운영, 모든 施設과 管理權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정부가 出資한 特殊法人體를 발족시켜 이 法人體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부가 이같이 國際空港管理運營을 民間主導型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觀光客을 비롯 航空人口 増加에 따라 金浦·金海·濟州空港 利用客이 늘어나고 있고, 金浦空港이 美州地域과 유럽·아시아地域의 幹線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空港의 施設擴充 및 서어비스向上을 위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0年代에는 外國航空社들이 서울就航의 러시를 이룰 전망이어서 보다 규모가 크고 施設 및 運營面에서 先進國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空港管理運營을 外國처럼 民間主導로 바꾸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一次로 金浦空港을 國際空港管理公團에 운영권을 넘길 방침이다.

새로 발족될 國際空港管理公團은 현재 空港施設을 정부 출자로 하고, 신규투자부분은 民間企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浦 및 濟州空港은 施設이 貧

弱해 年次的으로 擴張을 추진중인데 金浦空港은 내년 6월까지 擴張工事を 끝내 현재의 旅客收容能力을 3 배로 늘리게 된다.

大都市開發, 広域的 次元에서

大都市整備法案 제정 추진—건설부

정부는 서울·釜山·大邱 등 大都市를 大都市圏으로 설정하여, 지역단위별로 한정되었던 도시기능을 圏域化 함으로써 狹意의 都市概念에서 발생하던 문제들을 広域的으로 해결하기 위해 大都市圏 整備法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9월27日, 건설부가 마련 与党圈 심의에 넘긴 이 法案은 ① 都市의 人口 및 産業의 적정 배치와 ② 土地利用計劃의 효율화 ③ 都市間을 연결하는 交通·通信·上下水道 등 社会間接資本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大都市問題를 폭 넓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法案은 대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건설부장관이 大都市圏을 ① 既存市街地 整備地域 ② 市街地開發予定地域 ③ 綠地保存地域 등 3개 지역으로 구분·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既存市街地 整備地域은 人口·産業이 집중된 기존시가지의 정비를 위한 지역으로 人口·産業의 적정규모를 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① 土地利用計劃, ② 特定施設의 制限区域範圍 ③ 公共施設의 整備, ④ 建築物의 規模, ⑤ 疏散施設 범위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제하여, 都市開發과 再開發事業을 추진한다.

시가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한 지역은 市街地開發 予定 地域으로 지정, 단계별 開發計劃을 수립하고 土地區劃整理事業들을 통해서 택지를 개발토록 한다.

綠地保存地域은 대도시 구역밖의 녹지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自然綠地保存地域으로 지정하여 都市와 都市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이 法案은 大都市 및 既存都市에서 疏散되는 人口 및 産業을 수용할 수 있도록 大都市圏 外廓地域에 新都市開發地域을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既存市街地에서 이전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우선분양의 혜택을 입은 자는 土地利用計劃을 사전에 承認받게 하였다.

또 市都市와 既存都市의 人口集中을 유발하는 시설인 ① 公害工場 ② 専門學校 이상의 教育機關 ③ 綜合都売市場 ④ 百貨店 ⑤ 學校 등에 대해서는 市長·都知事が 移轉을 命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移轉에 필요한 ① 보상과 금융지원, ② 도시개발토지 우선분양, ③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大都市圏 整備計劃을 사전 심의·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國務總理를 위원장으로 한 大都市圏 整備計劃 委員會를 두기로 하고 있다.

레미콘協會設立 추진, 過當競争等 防止

双竜·江原産業·振星·現代·東亜등

9月28日 업계에 의하면 5개 레미콘 市販業体들은 최근 잇다른 모임을 갖고 과당경쟁의 지양, 믹서트럭 운전원 스카우트 방지 그리고 업계의 종합적인 정부 건의를 위해, 각사 부장급 1명씩 파견되어 레미콘協會의 정식 발족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금년 하반기에 들면서, 레미콘業界의 가동율이 저조한 가운데 이같이 협회 설립이 급진전을 보게 된 배경에는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가격유자가 조집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双竜등 선발업체는 사멘트판매 수단으로 레미콘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장 콘크리트보다 레미콘이 유리하다는 건설업계의 인식이 높아져 수요가 급성장, 자체 사업성의 밝은 전망으로 江原産業에 이어 振星레미콘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고, 現代建設·東亜建設등도 자가소비단계를 벗어나, 市販을 단행하는 등,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후발업체의 진출 러시로 생산 능력은 서울의 경우, 시간당 2,600m³로 작년에 비해 300%가 늘었으나 올해 수요신장은 60%선에 머물러, 下半期에 들면서 가동률이 평균 45%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특히 民需用的 경우 덩핑 현상에 두드러지고, 대금지불조건도 최장 6개월까지 어음이 통용되는 등, 레미콘업계는 유례없는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었다고 한다.

서울市 機構 대폭 개편

31課 폐지 50課 신설 建築局등 신설, 住宅局은 개편

9月28日 서울市는 오는 10月1日을 기해 千戸·恩平 2개出張所를 區로 승격시키고 建築局·道路局을 신설하는등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31個課를 폐지하고 50個課를 신설 내지 명칭 변경 하였다. 건축관련 기구의 개편상황은 다음과 같다.

▲建築局(신설)=建築行政課 신설, 都市整備課를 再開發 1課로, 住宅改良課는 再開發 2課로 명칭변경.

▲住宅局=住宅建設事業所 폐지, 住宅工事課 신설.

▲環境局=清掃 1, 2課를 清掃課로 통합, 環境課는 環境 1, 2課로 분리

▲道路局(신설)=建設行政課와 施設管理課를 道路管理課로 통합

▲水道局=水源課와 施設課를 水源施設課로 통합

▲下水道局=下水施設 1課와 2課를 下水施設課로 통합.

共同住宅 瑕疵補修保証 1~2年으로

하자보증보험 신설도—건설부

10月3日, 建設部는 아파트의 시설별 瑕疵補修期間과 아파트建設業体에서 瑕疵補修保記金を 사전에 예치하는 것을 주

요골자로 한 共同住宅 管理規則을 제정 法制처 심의에 넘겼는데 오는 11月初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규칙에 의하면 종전에 아파트 및 聯立住宅의 瑕疵 補修 期間을 일률적으로 1年으로 규정한 것을 施設別·材料別 耐用年數를 감안, 主要施設別 瑕疵補修期間을 1~2年으로 구분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瑕疵補修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주민과 건설업체간의 마찰을 없애고 瑕疵補修期間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① 문틀 등 나무종류의 형태가 뒤틀리는것을 비롯 ② 마루판 들뜨는것 ③ 미장공사의 균열 및 들뜸 ④ 造景 工事의 不實 ⑤ 노출된 配管·配線 工事는 종전대로 하자보수 기간을 1年으로 하고 道路沈下 등 土木工事, 發電 및 變電設備의 不良, 昇降機의 고장 및 불량 3mm이상의 콘크리트 균열, 屋上 및 浴室등의 漏水는 하자보수기간을 2年으로 확정했다.

건설부는 하자보수의 신속한 이행과 아파트建設 業체의 倒産 등에 따른 入宅者 보호 및 責任補修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建設業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入宅者 自治會에 납부토록 규정했다.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入宅者 自治會와 구성된지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고, 自治會에서는 아파트建設業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韓半島 地震發生圖 처음으로作成

은 江流域이 發生 빈도높이, 平壤 60회로 최고

서울大 自然大 地質學科의 鄭鳳日教授(地球物理学)는 우리나라에서 發生했던 2,000여회의 地震記錄을 분석, 처음으로 韓半島의 地震發生圖를 작성했다. 이것은 서울大의 韓祐勛教授(國史學)가 분류해 놓은 事實을 기초로 三國時代부터 1907年에 이르는 동안의 地震記錄을 통계처리 하여 완성시킨 것이다.

鄭教授가 記錄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地震은 대개가 水系에 따른 河谷地帶에서 일어나는데 地震發生頻도가 높은 지역은 大同江·洛東江·錦江·榮山江등의 河岸 地域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강물이 地震發生 可能性이 있는 地殼構造帶를 따라 흐른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地震發生度를 보면 洛東江流域의 尙州 33회, 星州 28회, 金海 25회, 安東 24회인데 비해, 機張 12회, 彦陽 11회, 蔚珍 7회등으로 해안쪽은 발생빈도가 낮다.

錦江流域도 빈도가 높은데, 公州 34회 淸州 29회, 忠州 28회의 기록이 있으며 역시 해안지역인 藍浦 8회, 保寧 6회 보다는 3배의 횟수를 보이고 있다. 근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洪城은 지질보다는 斷層構造에서 오는 지진으로 보고 있다.

榮山江 流域은 洛東江이나 錦江流域보다는 훨씬 적어 光州 14회, 羅州 9회, 潭陽 8회, 靈岩 6회를 기록하고 있다.

大同江流域도 地震多發地域의 하나로 平壤이 60회, 江西 25

회, 咸從 16회, 龍岡 11회 등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地震發生圖 작성에 이용된 기록들은 日本의 기록보다 자세한 것이며, 특히 李朝家錄 등의 記錄은 상당히 정확성을 갖고 있었으나 地震의 強度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 記錄은 우리나라가 14~16세기에는 상당히 많은 地震이 발생했으나 17세기에서 170年間은 地震發生이 크게 줄었으며 19세기말에 이르러 다시 地震發生이 잦아지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都心·幹線에 都市設計制度 신설

設計·監理業務 분리 建築士試驗制度 改善-건설부

法改正 추진

정부는 都市設計에 의한 都市機能 및 美化 증진을 위해 都市部나 主要幹線道路邊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建築主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市長·郡守가 만들어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받은 都市設計대로 건축키로 하고, 이에 따른 규정을 建築法에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10月 6日 建設部에 의하면 현재 건축주나 건축사가 자기의 사대로 건축함으로써 도시기능이나 미화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고 판단, 도심부의 경우 이를 시장·군수가 종합적인 안목에서 만든 都市設計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造景義務化 規定은 현재 都市計劃法上 用途地域에 상관없이 工場의 경우 내지면적의 15%, 기타 건축물은 10%로 되어 있는 것을 自然 및 生産綠地地域은 40%, 기타 지역은 반드시 조경토록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自然 및 生産綠地地域이 아닌 기타地域에서 900평 이상의 工場을 건축할때에는 내지면적의 15% 이상에 조경하고 石油化學工場은 지역에 상관없이 조경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建築法 施行令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변두리 商業地域에도 自動車 整備工場의 건축을 허용, 자동차수리의 편의를 꾀할 방침이며

單獨 및 合同 建築士事務所에서도 共同住宅등의 아파트監理를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綜合建築士事務所制度를 신설, 이들로 하여금 共同住宅등의 監理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이는 同一人의 監理와 設計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建築士試驗制度를 改善, 현행 1차시험 과목중 建築計劃 및 設計科目을 削除하여 建築構造·施工·法規 등 3科目으로 하고 2차시험과목은 建築計劃과 設計의 2科目만으로 하기로 했다.

88年 올림픽 서울誘致計劃-鄒市長 発表

각종 競技場 85년까지 건설, 地下鉄 3·4号線 84年 완공
第2의 國際空港 건설 추진, 選手村·宿泊施設도 계획

鄒相干 서울특별시장은 10月 8日 “오는 88년도 제24회 올림픽大會의 서울誘致方針을 최종 확정, 지난 9月21日자로 政

府의 承認을 받아 곧 國際올림픽委員會(IOC)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고 發表했다.

鄭市長은 "올림픽유치"란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계획적으로 추진, 현재 30%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가운데는 국제규모의 서울綜合運動場 건설, 올림픽選手의 선정계획, 地下鉄의 건설, 道路網의 확충 및各種 都市施設의 정비·정돈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밝힌 올림픽 유치를 위한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다.

(1) 競技場施設 ▲收容人員 10萬의 서울綜合運動場 메인스타디움 83년 완공, ▲2萬 수용규모의 室内體育館 준공, 사용중, ▲국제규모의 室内풀장을 80년도 완공, ▲벨로드롬(사이클 경기장) 및 부대시설 83년 완공, ▲補助競技場 85년 완공

(2) 交通対策 ▲地下鉄 2號線을 80년중 완공, 도심지와 서울종합운동장을 연결, ▲2號線의 남은 區間과 3, 4號線 57km를 84년까지 완공, 서울시 교통인구의 75%를 처리, ▲金浦國際空港 擴張工作를 83년까지 완공, ▲計劃中인 제2의 國際空港 건설을 추진, ▲空港과 都心圈 및 競技場間의 連結道路網계획 추진

(3) 選手村 및 宿泊施設 ▲현재의 숙박시설 외에 호텔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 ▲서울近郊에 宿泊施設 건립, ▲서울 綜合運動場 근처에 선수촌 부지를 마련, 설립계획을 마련중

(5) 레저 등 기타시설 ▲163萬坪 규모의 서울 大公園을 85년에 완공, ▲西部公園 등 대규모 憩樂施設을 서울近郊에 3~4개 더 건설할 예정.

80년에 2,580개 病床 民間綜合病院신축 추진

종합병원없는 工団·邑 이하 地域에

10월 8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保社部가 정한 56개 진로지구에서 구역내 綜合病院이 없는 2개 지구 및 3개 工業団地에 540개 病床 지구내에 綜合病院은 있지만 人口 10萬명당 病床數가 100개 미만인 취약지구에 2,040개 病床등 내년중에 모두 2,580개 病床의 民間綜合病院을 신축하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개 病床당 1,000萬원의 施設費를 각 금융기관이 연 11.5%로 5年据置 10年間割償還條件으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해 연 7%의 利差를 國庫에서 보상해 주기로 결정 새해 予算案에 21億 2千 3百萬원을 計上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病床당 1萬달러의 裝備購入費를 지원해 주기 위해 日本海外協力基金(OECF)과 3千萬달러 규모의 借款導入을 교섭중이라 했다.

정부는 78年末 현재, 人口 10萬당 144개에 그치고 있는 病床數를 내년말까지는 160個線으로 늘리고, 81年에도 1,400개 病床의 綜合病院 신축을 低利資金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綜合病院 新築資金을 医療胞弱地區에서 개업중인 個人醫院들이 法人을 만들어 綜合病院을 신축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綜合病院을 경영하고 있는 法

인이 医療胞弱地區에 分院을 설치할 때에도 지원해줄 계획이지만,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개인명의의 綜合病院 신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果川 新都市建設 11月 舊工, 83年 開發完了

3,369億원 投入, 人口 4~5萬의 田園都市容

정부는 京畿道 始興郡 果川面 文原里 및 官門里에 696,000평에 건설할 果川都市開發計劃을 확장, 총 3,369億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부터 착공, 83년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10월 9일 建設部가 마련한 同計劃에 의하면 여기에 政府第2 綜合庁舎와 인구 45,000(10,030호)인을 수용하며, 開發面積의 46%를 住居地域 60%를 商業地域 23%는 公園綠地로, 나머지 25%에는 기타시설을 갖춘다는 土地利用計劃을 마련하고 있다.

3단계사업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1단계사업(79~81年, 52%), 2단계사업(81~82年, 33%), 3단계사업(82~83年, 15%)으로 마칠 예정이다.

住宅公社는 이 일대 土地를 買収, 開發後 実需要者에게 분양할 계획이며, 공사착공과 함께 올해 안에 78億원을 풀어 土地買収에 나설 예정이다. 개발후의 宅地分讓대상자는 78. 10. 25이전 開發地區內의 가옥소유자이며, 호당 70평 기준의 단독필지를 분양하거나 희망에 따라 지구내에 건설하는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기로 했는데, 이 분양은 土地買収에 따른 보상과는 별도로이다. 건설예정인 주택은 단독 및 연립주택의 1,110호이고 나머지 8,920호가 아파트이다.

建設部는 果川을 충분한 綠地空間이 확보된 전원적 도시로 구성하기로 하고, 標高 60m 이상은 綠地로 保全하는 한편 最小宅地面積도 70평 이상으로 강화하고 인접 주택과 사이에는 담장이 없게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都市開發의 일반경향인 路線商街를 자양, 주거단위별로 서어비스 기능을 배치, 생활환경을 分格化하기로 했으며 정부제2 종합청사를 중심으로 주위 야산 등 自然環境에 맞도록 건물높이를 균형있게 맞추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

또 도시특성과 지구별 구별감을 고려한 造景計劃으로 도시특성을 강조하는 외에 자전거 및 보행자용 도로의 구성으로 생활의 안정감을 확보하기로 했고 전구역에 共同溝의 설치와 電力 및 通信線의 地下化로 소위 電柱없는 도시 건설로 향후 개발될 도시의 淸本으로 삼기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人口 10,000인당 국민학교 1개교 기준으로 국민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교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빗물과 汚水의 분리식 위생하수도 설치 될지마다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 완비하기로 했다. 地番표시에 있어서 西歐式 住居表示方法 등을 적용,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상적인 都市建設計劃을 구상하고 있다.

韓國 海外建設 急成長

契約高 32億費(76年)서 69億弗(78年)올가름

세계의 각종 工場建立 및 建設都綜順位 1위를 지켜오던 美國은 日本・韓國・西独・이탈리아 등 4個國의 급격한 成長으로 5위로 밀려났으며, 이들 4개국중에서도 韓國은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서 지난 76년 32億달러이던 建設契約高가 78년에는 69億달러로 급증했다고 美商務省이 최근 발표했다.

美 商務省은 지난 76년부터 78년까지의 全世界 建設工事 및 工場建立現況에 관한 調查報告書에서 지난 76년 전체 契約高의 16%에 이르는 86億달러를 차지, 1위를 기록했던 美國은 78년에는 7.9%인 32億달러로 5위에 처졌다고 지적하고 같은 기간중, 가장 괄목할 점은 韓國을 비롯 브라질・필리핀・파키스탄・인도 등 開發途上國들의 등장이라 했다.

이 보고서는 또 韓國은 契約高에서뿐만 아니라 技術的인 水準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들 4개국 이외에 브라질・파키스탄・인도 등도 그들의 노동자가 파견되어 있는 中東地域에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美國이 점차 이 분야에서 침체되어 왔으며 여타 국가와는 달리 政府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됨으로써 국내 경쟁력이 약화,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建設會館 建立計劃

江南區 鶴洞에 10층규모 建設關係 協會・學會 등 入住방침

10월17日, 알려진 바에 의하면 土地開發公社가 社屋新築을 위해 확보해둔 江南區 鶴洞일대 5,000평 가운데 2,000坪을 建設共濟組合이 買入, 여기에 10층 규모의 建設會館을 건축할 예정이라 한다.

이 建設會館에는 大韓建設協會를 비롯 海外建設協會・住宅事業協會・全國單種協議會・建築士協會・土木 및 建築學會가 입주할 방침이다.

한편 建設共濟組合은 土開公 소유의 地買入 작업에 나서는 동시에 建設會館 基本設計작업에 들어갔으며 會館 建立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會館建立委員會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共同住宅에 分流式과 下水施 의무화

서울시, 漢江水質保存對策의 일환으로

10월17日 서울시는 漢江水質保存對策의 일환으로 작년 11月 이후의 신축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共同住宅에만 적용해오던 生活下水와 雨水管을 따로 설치하는 下水道 分離施設規定을 기존 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하고, 금년말까지 이를 모두 개수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갑작스런 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당초 入住者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新築의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었으나 이들 기존아파트 가운데 대부분의 下水道施設이 노후에 下水處理機能이 마비돼버려 環境汚染原因이 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雨水管을 별도로 만들고 기존 下水管施設도 전면 보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0月末까지 各區別로 관할 지역내에 78年 11月 이전에 事業承認 또는 竣工된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共同住宅의 下水 不水道施設을 점검, 單一管으로 돼 있는 것을 금년말까지 二元化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分流式 下水處理를 할 경우 처마홈통 등을 통해서 모아진 有然水는 그대로 漢江으로 흘러들어가고 부엌이나 목욕탕・화장실・정화조 등에서 나오는 生活下水만 따로 모아 下水處理場으로 보내 정화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單體住宅에 대한 이같은 二次化된 下水道施設 설치 여부에 대한 현단계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共同住宅 연면적의 합계 825m² 넘으면

建設業 免許者만이 施工—건설부 유권해석

10월18日 건설부에 의하면 建設業法 제4조 규정에 의거, 共同住宅등 特殊建築物은 825m²까지 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자는 시공할 수 있으나 여러棟의 共同住宅이 一團의 地內에 있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825m²를 초과할 때에는 建築工事業 또는 土木・建築工事業免許를 갖지 않은 住宅建設業者는 직접 시공할 수 없다고 有權解釋했다.

이와 아울러 건설부는 점포 상가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의 시공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이는 一般 工事に 해당되므로 單種工事業체는 도급 시공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했다.

用役 先受金制 法制化 촉구

人件費 부담높은 특성 감안—技術用役業界

技術用役業界는 用役業이 人力中心의 技術集約産業인 점을 감안, 工事契約時 外國과 마찬가지로 선수금제를 적용, 법제화 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10월18日 技術用役協會 및 業界에 의하면 技術用役業은 技術集約産業으로 工事費 中 人件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영 기업체나 정부기관에서는 공사계약시 선수금을 주지 않고 工事完了後 工費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資金回轉이 지연, 人件費 滯貨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미국・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用役工事契約時 工費의 일정액을 선수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0평이상 住宅・商業用建物 내년上半期까지 규제

高建設談—住宅投資 GNP의 6%로

高在一 건설부장관은 10월19日, 현재 시행중인 慰染施設등 일부 商業用 建築禁止措置를 포함한 각종 建築規制措置를 내년 上半期까지는 풀지 않겠다고 지적, 不動產景氣狀況을 보

아 내년 下半期에는 현재 남아있는 建築規制措置를 해소할 뜻을 비쳤다.

高長官은 이날 建築材料값과 人件費가 안정된 지금 40평이상의 單獨住宅 45평 이상의 共同住宅등 大型住宅에 대한 建築規制措置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중요한 규제조치를 이미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내년 下半期까지는 추가해제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언제 또 투기가 울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을 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高長官은 이어 住宅難 解消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住宅投資増大는 필요한 것이며, 이에 따라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住宅投資比率를 현재 3.8%수준에서 6%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서는 國防費 등 다른 部門에의 투자가 먼저 필요하고 또 建設部門에서도 道路, 上下水道事業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 어느정도 마련된 뒤, 住宅投資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北坪에 대규모 工業團地 建設

81年 1단계 完工, 786,600평에

정부는 江原道 北坪港 건설 1단계 사업이 年內에 마무리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既存市街地인 北坪邑 松亭里 및 竜井里 일대 786,600坪에 北坪工業基地 港灣背後團地를 조성키로 하고(1단계 사업)이달 안에 착공, 81年 12月末까지 事業을 마치고로 했다.

10月19日 建設部에 의하면 北坪港灣과 인접한 松亭里 및 竜井里 일대에 건설될 北坪工業基地 港灣背後團地로 기존 밀집지가지인 松亭里·竜井里地域을 포함한 786,600坪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江原道知事로 되어있다.

현재 정부가 工業基地로 개발키로 한 이들 지역은 北坪港에 인접한 기존밀집지가로서, 北坪港灣 이전 건설에 따라 이들 지역을 工業基地로 개발키로 하고 기존지가지인 松亭里와 竜井里 주민들은 北坪港 북쪽에 위치한 泉谷里로 이주시키기로 했다.

工業團地建設事業 착공과 함께 정부는 이 지역의 土地収容에 나서는 한편, 관계도서를 건설부의 江原道 北坪地區 支援事業所에 비치, 利害關係人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다.

賃貸借期間 1年 이상으로 特別法案 마련

無住宅遮民의 住居生活安定을 위해—유정회

政府·与党은 住宅을 마련할 수 없는 無住宅 低所得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현행 民法에 대해 特別法이 될 賃貸住宅

入住者 保護에 관한 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10月20日 維政會가 마련한 이 法案에 의하면 賃貸 面積이 25평 이하인 賃貸住宅에 대해서는 ① 賃貸借期間은 1年 이상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이 1年 미만이거나 賃貸期間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기간을 1年 이상으로 하고 ② 賃貸人의 同意 또는 請求가 있는 경우와 기타 정당한 事由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賃貸借 契約을 解除 또는 更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全文 7条 附則으로 된 이 法案은 또 賃貸借期間이 滿了되 기 1개월전에 賃貸人이 상대방에 대해 契約更新의 거절이나 條件의 變更通知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契約滿了日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간주하며, 賃貸借契約期間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限, 賃貸人은 賃借人에게 借賃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 法案은 賃貸借의 權利繼承은 法律的인 相續人이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婚姻關係者나 同居人이 할 수 있도록 하여 遮民의 경우 訟事없이 權利繼承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같은 法이 제정될 경우 현행 民法에 규정된 賃貸借 契約 條項과 중복이 될 경우 賃貸借住宅 入住者 保護에 관한 法律이 우선 적용이 되도록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無住宅 家口는 총 6829,000家口中 2,427,000家口로서 37%에 달하고 있으며 都市에는 56%가 월세 또는 전세등의 형태로 賃貸借하고 있다.

住宅難 解消 계속 不振

需要 29万戶 증가에 20万戶 供給

현재와 같은 住宅建設 추세로는 住宅難 解消가 요원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月20日 建設부에 의하면 지난 60년부터 78년까지 19年間 年平均 家口増加數는 2.7%인 18,400호에 이르고, 78年 현재 年間 減失住宅數도 기존주택의 2%인 105,000호에 이르고 있어 年間 신규 주택수요만도 289,000호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住宅建設은 작년에 異例的인 建築景氣 好況으로 사상 최고인 30万戸에 달했으나 금년의 경우, 건축경기 침체로 목표 278,000戸에 크게 미달한 20万戸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어서 住宅難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건설부훈령 제464호

1979년 10월 31일

제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55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린주구”라 함은 당해 주민들에게 주거 또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2. “주구중심”이라 함은 근린주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3. “지구중심”이라 함은 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4. “세대”라 함은 장래에 있어서의 지구 개발 계획이 완료될 때의 수요를 고려한 전설세대를 말한다.
5. “저층아파트”라 함은 5층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6. “고층아파트”라 함은 6층 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제4조(지구개발계획수립의 기본원칙)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지구개발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제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55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주민의 거주 및 이용에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지구개발계획은 근린주구 단위로 계획하되, 결정된 근린주구의 범위에 따라 지구중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구개발계획 승인신청도서) 시장·군수가 지구개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도시계획도(축척 1/5,000~1/25,000)
2.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전체 배치계획도(축척: 1/1,200)
3. 주구중심 및 지구중심의 배치계획도(축척 1/600)
4. 대지현황도(축척 1/1,200)
5. 건축법 시행령 제1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6. 지구의 가로망도(축척 1/1,200)
7. 하수시설 계획도(축척 1/1,200)
8. 조경시설 계획도(축척 1/1,200)
9. 공원시설 계획도(축척 1/600)
10. 지구계획의 조감도(190mm×190mm 이상)
11.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2 장 구획의 결정 및 건축기준

제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지구내의 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린주구를 관통하지 않는 도로
2. 학교시설
3. 시장(도시계획시설인 시장에 한한다)
4. 공원시설(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한다)
5. 자동차 정류장

제7조(근린주구 및 지구중심의 결정) 지구내 근린주구 및 지구중심은 도로로 구획되는 가구단위로 하되,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

1. 근린주구는 반경 400미터 이내 또는 공동 주택의 계획 전설 세대수가 3,000세대 이내의 단위로 구획하여야 한다.
2. 근린주구내의 중심지역에는 1개소의 주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근린주구 기능에 따라 적정

하게 결정하되 근린주구 면적의 2/100이상이어야 한다.

3.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되는 지구일 경우에는 지구의 중심지역에 1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지구면적의 3/100이상으로서 30,000m²이상이어야 한다.

제 8 조 (근린주구내의 건축범위) 지구중심을 제외한 근린주구내에서 계획될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근린운동시설
4. 노인정
5. 유치원
6. 학교시설 (국민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7. 당해지구내의 이용에 공하는 난방, 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등의 공급 및 처리시설

제 9 조 (지구중심의 건축범위) 지구중심에 계획될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 8 조 제 2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7 호에 개기한 건축물
2.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관서, 우체국, 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3. 판매시설
4. 종교시설
5. 시장 · 군수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제10조 (지구중심의 건축범위) 지구중심의 건축 계획에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11조 (구획도로의 설치기준) 지구내의 도로에 대한 일반적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근린주구 또는 지구중심을 구획하는 도로의 폭은 25m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지구내의 도로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방향으로 교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제12조 (공동주택의 종류별 건설계획) 근린주구내에 계획하는 공동주택은 다음에 제기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연립주택 : 40세대 / 헥타아르

2. 저층아파트 : 120세대 / 헥타아르

3. 고층아파트 : 170세대 / 헥타아르

제13조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① 공동주택의 배치 계획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소음관계,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배치결정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별로 집합설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과 수평거리 5m 이내에 접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주차장의 설치에 당해 건축물 외 외곽부분의 길이를 수평으로 합산한 길이의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14조 (시장의 설치) 시장의 종류별 건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용도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15조 (자동차 정류장 설치) 지구중심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시설의 설치) ① 지구내 학교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학교시설의 배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린주구내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문화시설의 설치) ① 지구내 공공문화시설은 집합 배치되도록 하되 설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18조 (지구공간의 조성) ① 지구중심 및 지구중심내의 건축물 이외의 공간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조성을 하여야 한다.

1. 보도는 유색벽돌 유색블록이나 바닥타일 또는 화강석 등의 재료로 포장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환경의 미화를 위하여 연못 폭포 또는 분수등의 수경시설과 벤치, 광고탑, 화단, 새장, 벽화 또는 조각물등으로 조경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지구내의 공원계획은 별표 4 에 정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의료시설의 설치) 지구내 의료시설은 별표 5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20조 (경미한 변경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지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1/100범위내에서의 근린주구면적의 증감
2. 10/100범위내에서의 지구중심면적의 증감
3. 3/100범위내에서의 지구중심면적의 증감
4. 밀도의 변경없는 범위내에서의 공동주택의 종류변경
5. 10/100범위내에서의 근린주구내의 공동주택세대수의 증감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않는 지구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의 설치 기준

(별표 1)

시장의종류	건설위치	용도(수용대상)	비 고
상 가	공동주택인근	근린생활시설	1.규모에 따른 설치기준은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규칙에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합상가	지구중심 또는 지구중심	은행, 슈퍼마켓, 약아소를 포함한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시장	지구중심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전용판매시설	
소매시장	지구중심 또는 지구 중심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 시설을 포함한 소매시장	2.상가의설치 는 기본 계획에서 정하지아니할 수 있다.

학교시설 설치 기준

(별표 2)

구 분	설 치 계 획	대 지 면 적
국 민 학 교	근린주구 1개소마다 1 개교를 기준으로 함.	15,000m ² 내외
중학교또는 고 등 학 교	근린주구 2개소 이 내마다 1 개교를 기	20,000m ² 내외, 다만 동일 대지내에 중학

	준으로 함.	교와 고등학교를 설치할 경우 30,000m ² 내외
유 치 원	근린주구 1개소마다 1 개교를 기준으로 함.	

공공문화시설의 설치 기준

(별표 3)

구 분	설 치 계 획	비 고
도 서 관	6,0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1 개소이상	공용의 청사는 가급적 일정지역에 집약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우 체 국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의함	
동 사 무 소	"	
경찰관파출소	"	
소 방 관 서	지구중심이 설치된 경우에 1 개소	
관람집회시설	지구중심이 설치된 경우에 1 개소이상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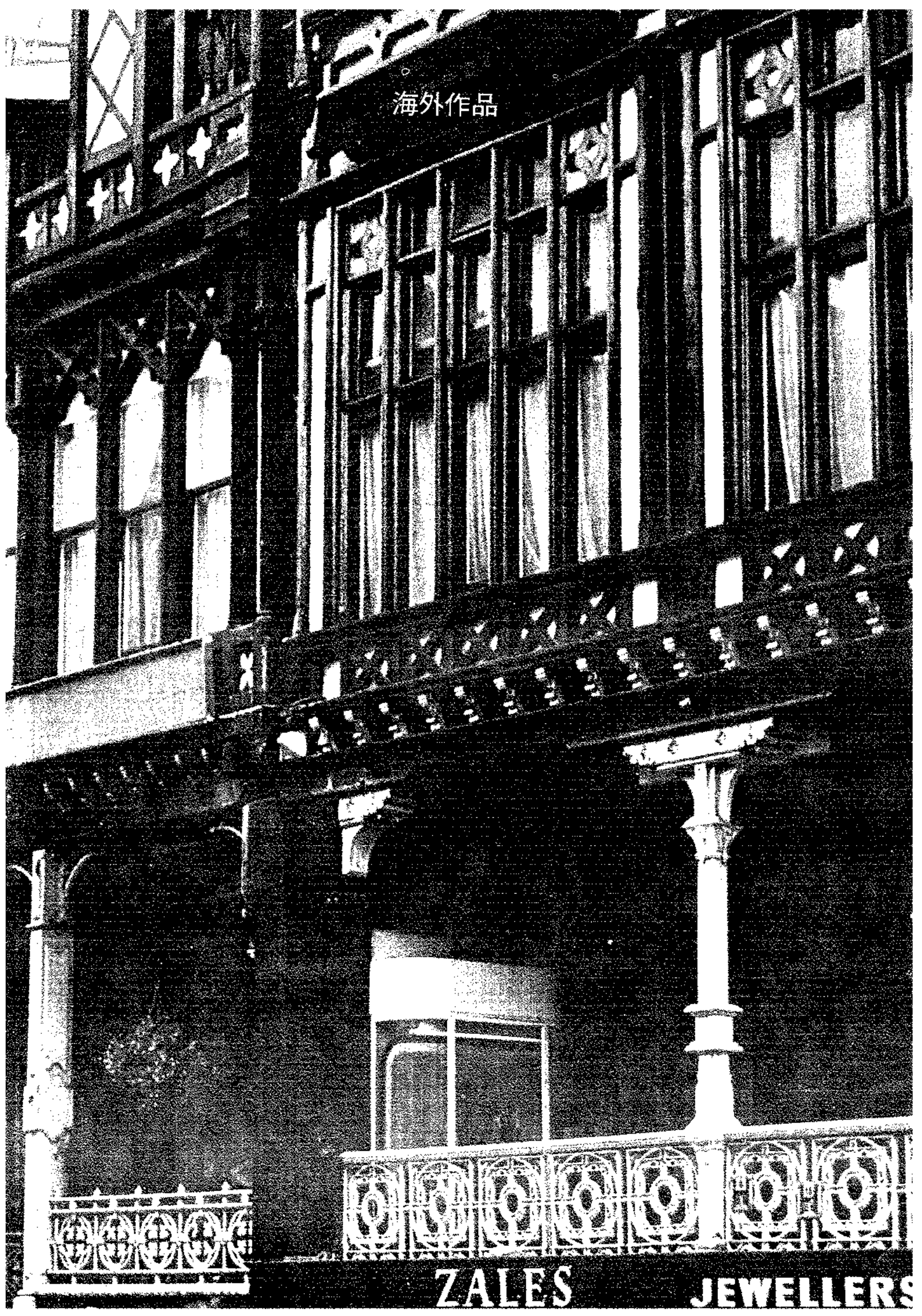
(별표 4)

구 분	설 치 계 획
어린이놀이터 및 녹지시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단계에 따라 확정한다.
공 원	지구면적의 10%이상

의료시설의 설치 기준

(별표 5)

구 분	설 치 계 획
약국 및 의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단계에 따라 확정한다.
종합병원또는 병 원	지구중심이 설치된 경우에 1 개소



海外作品

Z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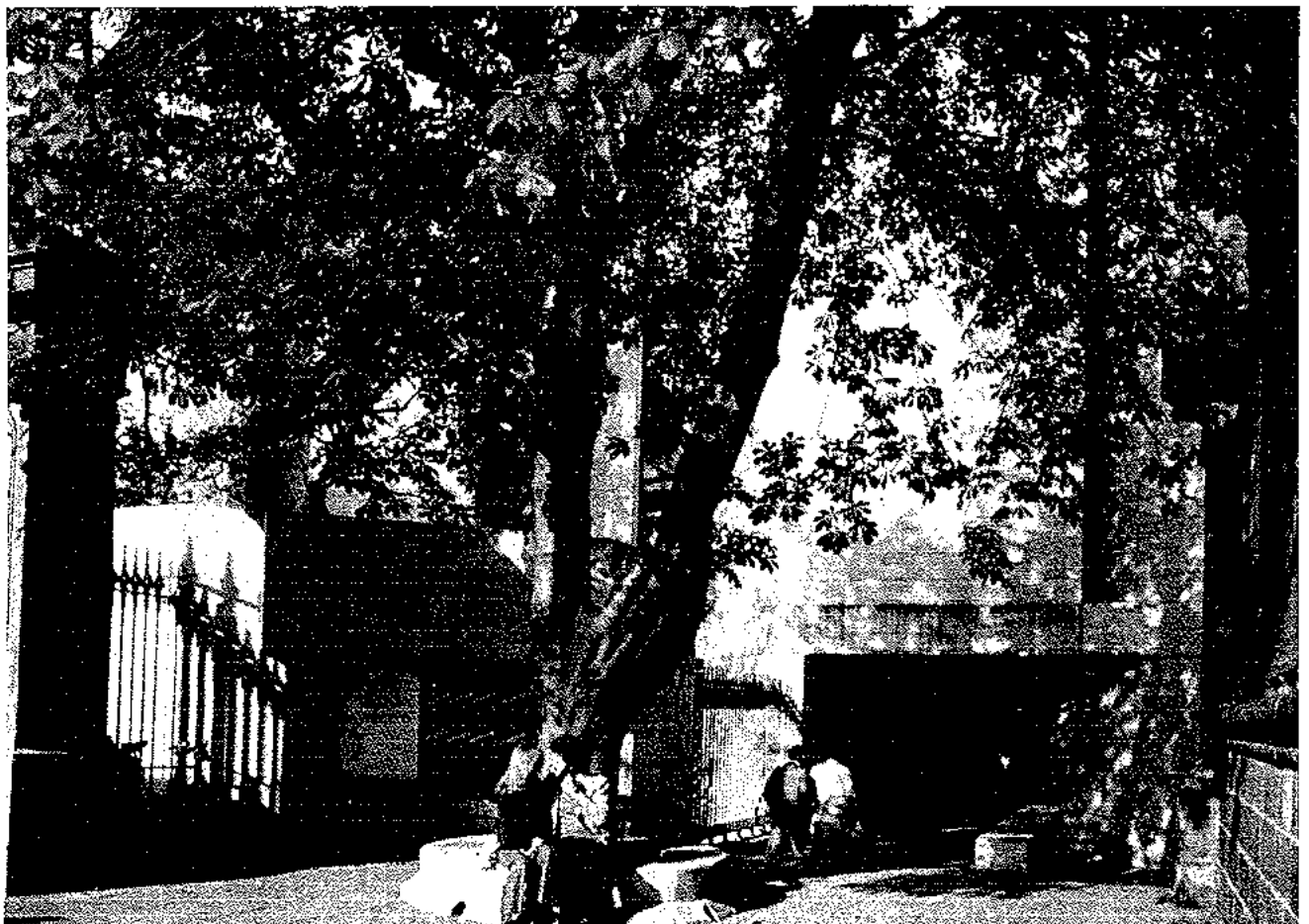
JEWELLERS

트리니티大学・芸術学部棟 아일랜드・다브린

設計：AHRENDs BURTON AND KORAL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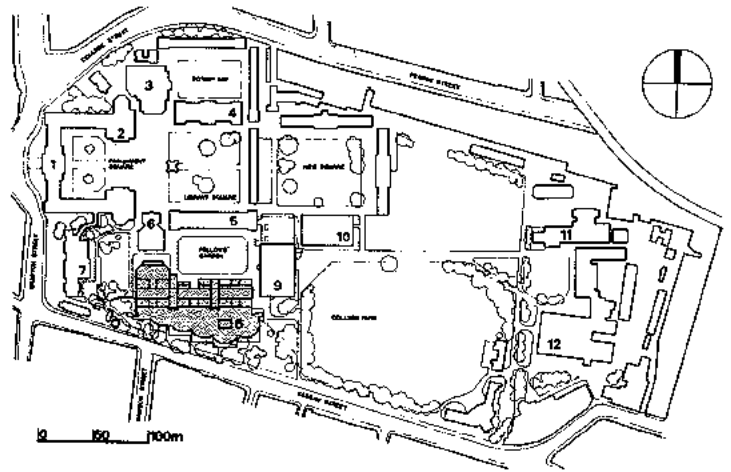


Peter Ahrends, Richard Burton, and Paul Koralek



①-낮소거리에 면한 새로운 入口





② - 北東上空에서 본다

③ - 配置図

1 - 評議員會館

2 - 禮拜堂

3 - 食堂

4 - 學士紀念館

5 - 舊圖書館

6 - 1937年 圖書閱覽室

7 - 學務長住居

8 - 藝術・社會科學棟

9 - 바크레이圖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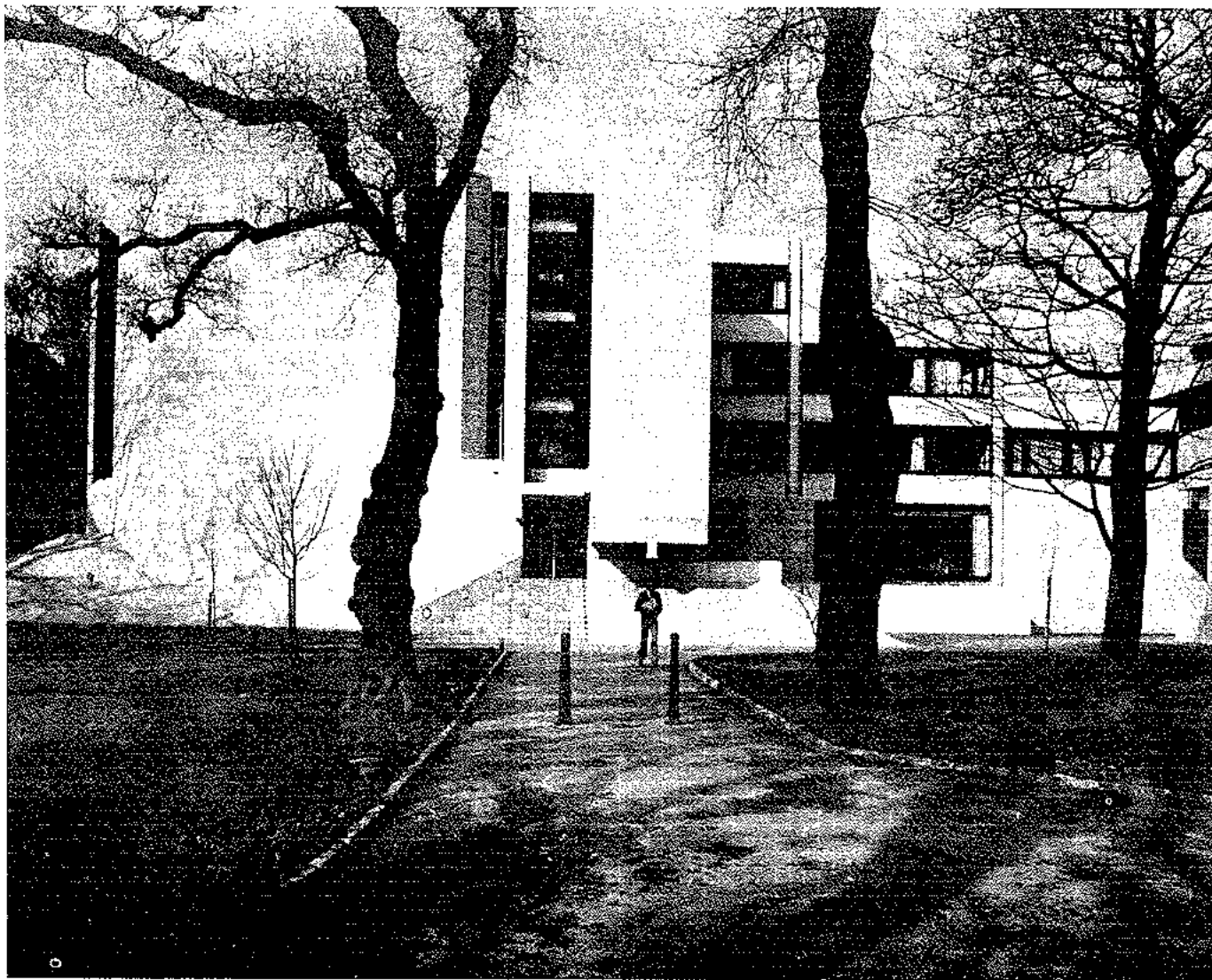
10 - 博物館

11 - 物理學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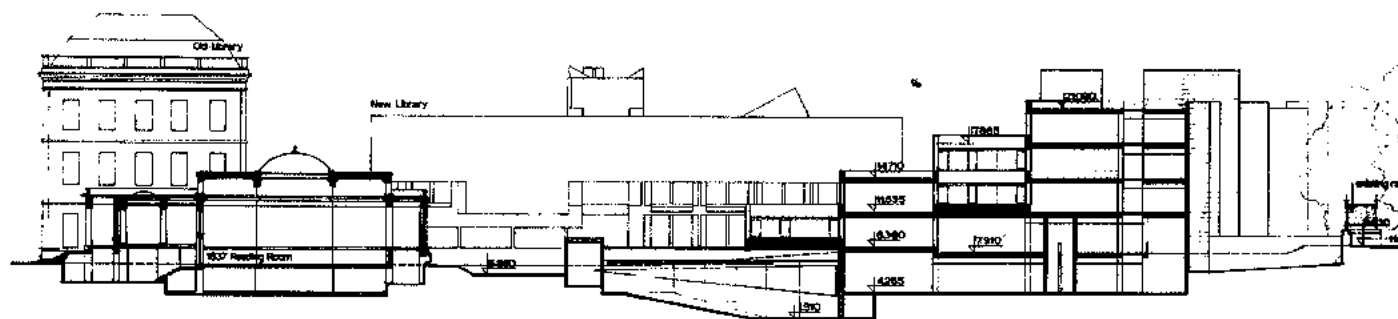
12 - 化學棟

④ - 北側의 舊圖書館에서 아프로-치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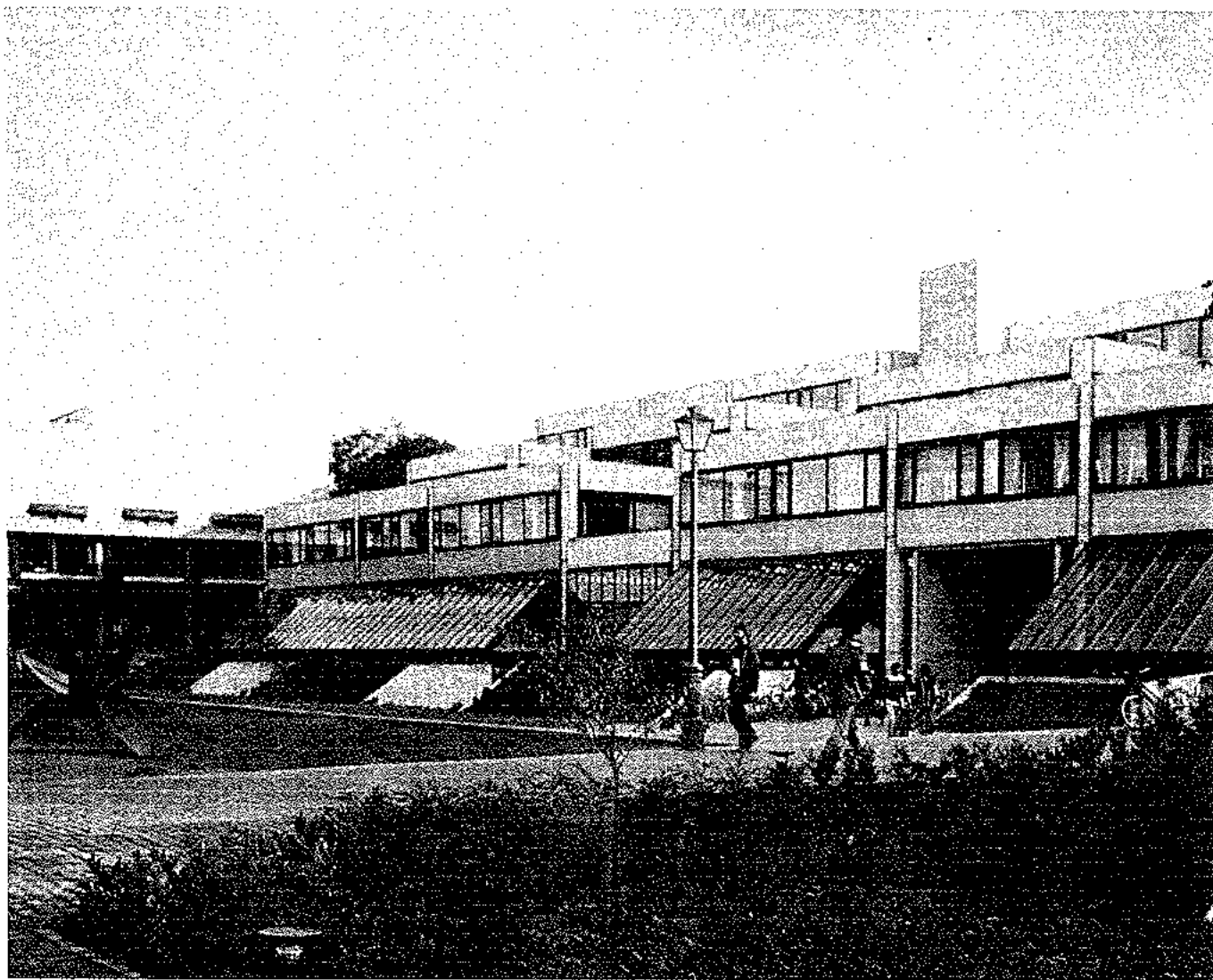




⑤-東側外觀,北側(右)의 段狀의 유리部分과 南側(左)의 堅牢한 壁面과의 對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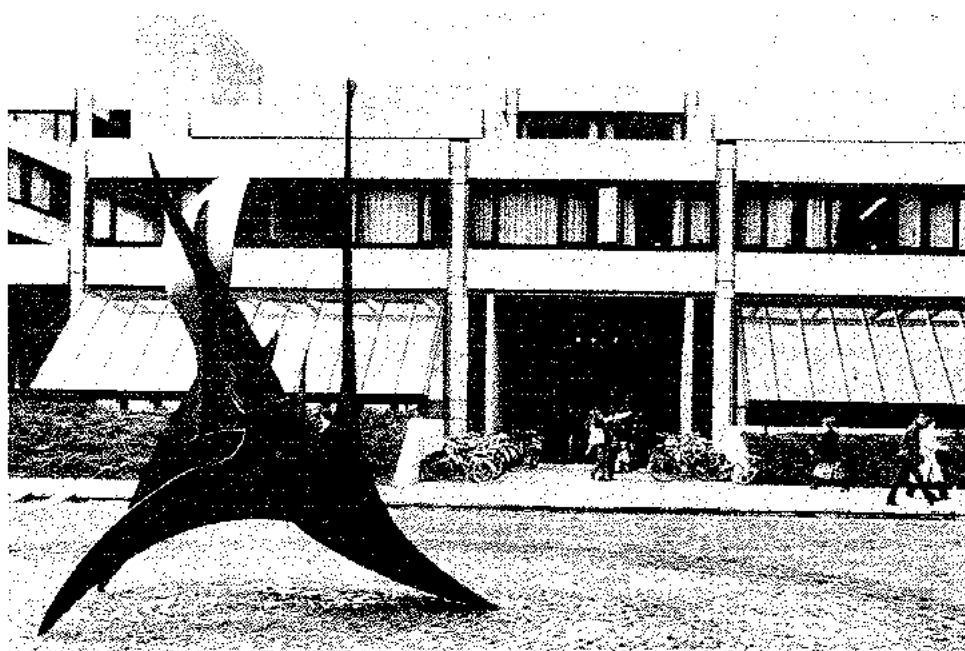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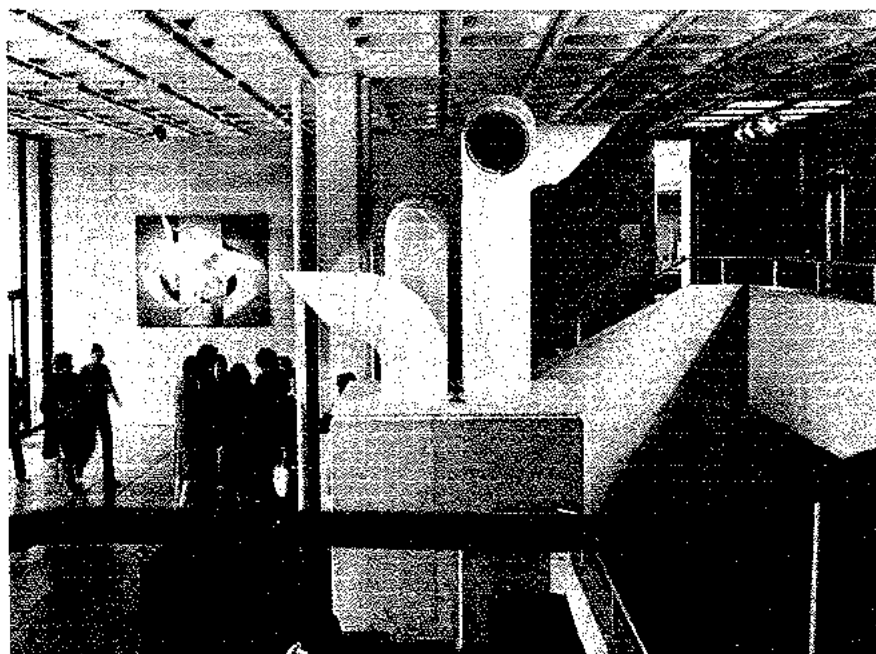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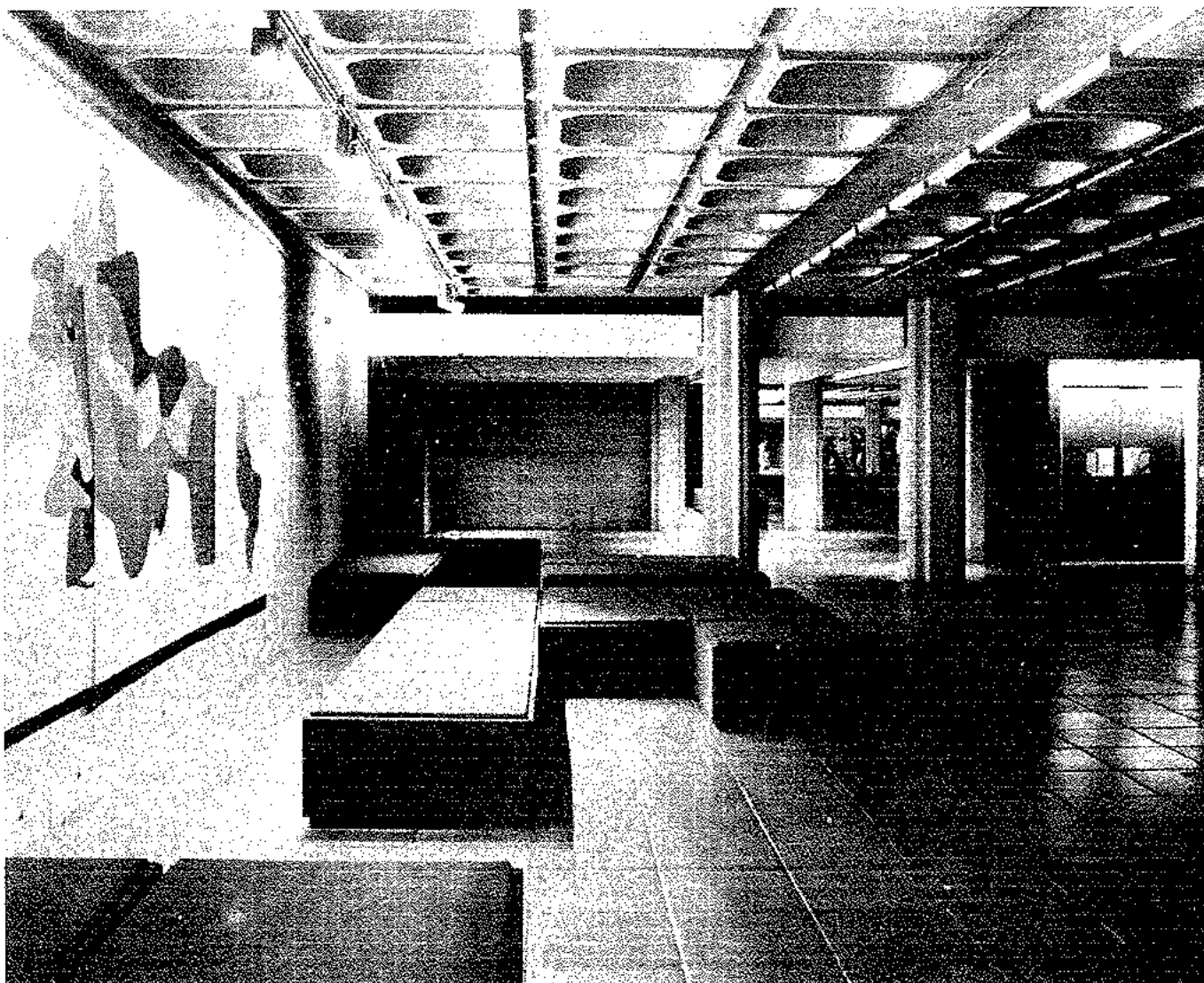
⑦-南北断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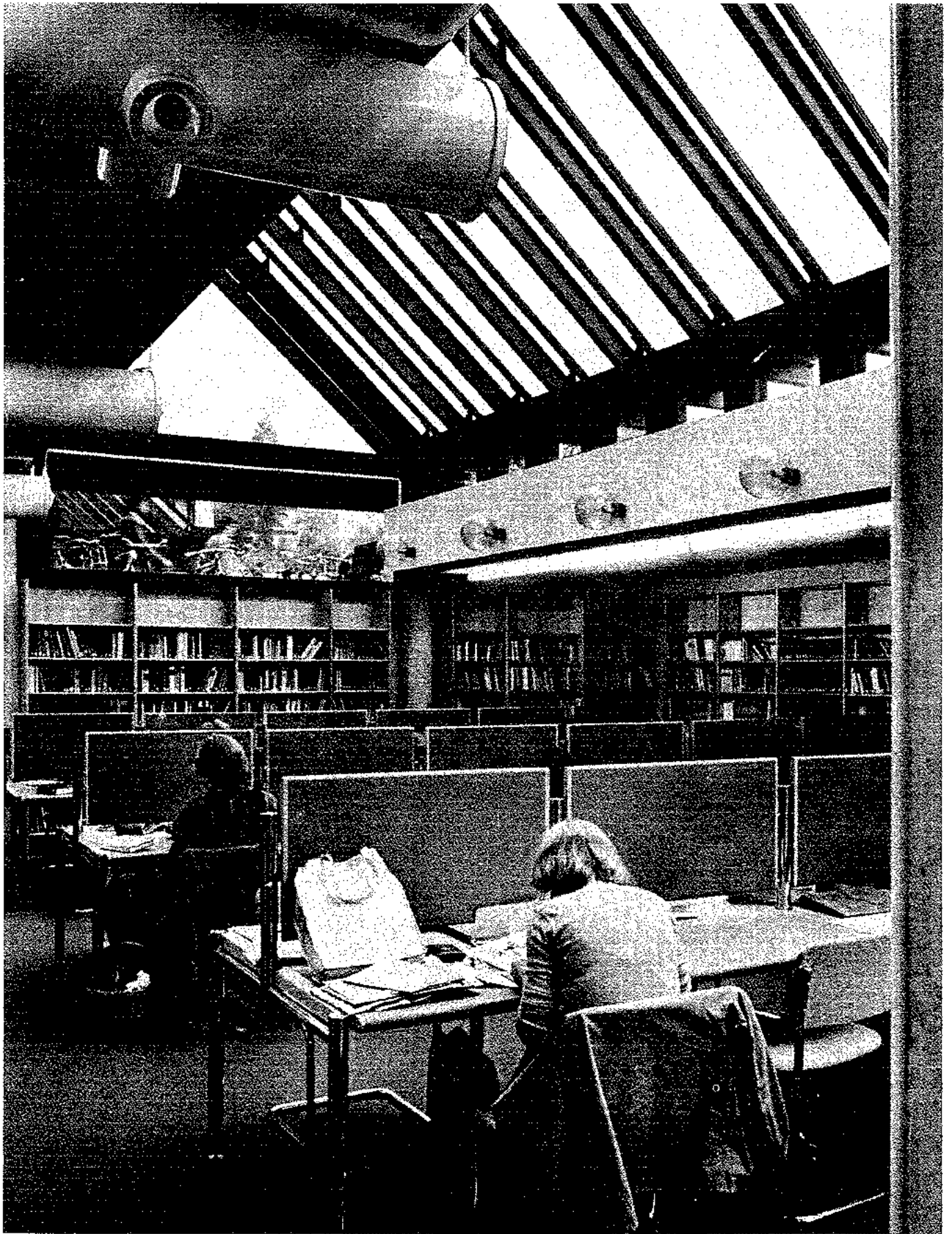
⑥-北側을 본다. (左)1967년에 完成된 바크레이 圖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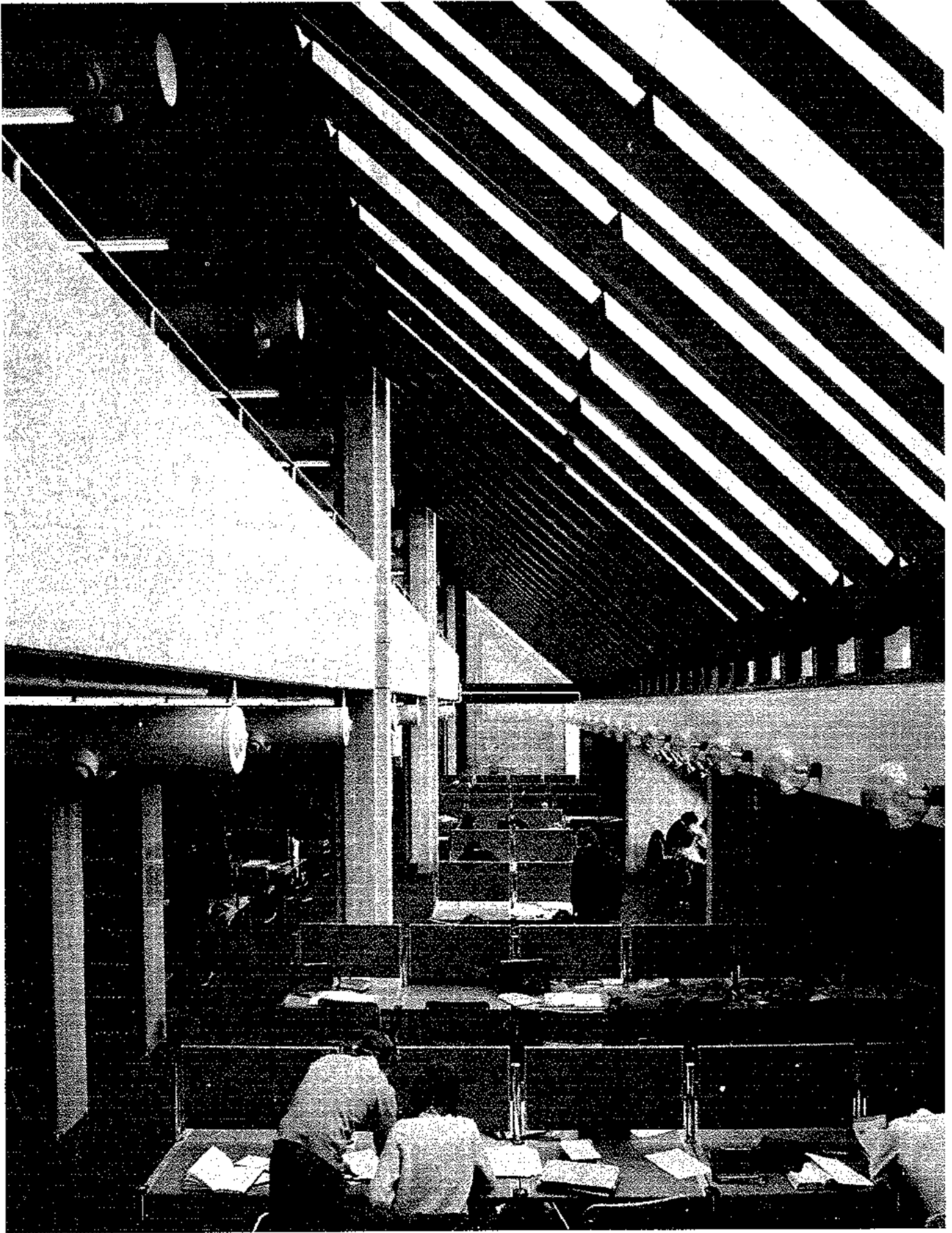
⑧-地下콘코스과 코-피 바에 이르는 北側入口調刻:아렉산다 가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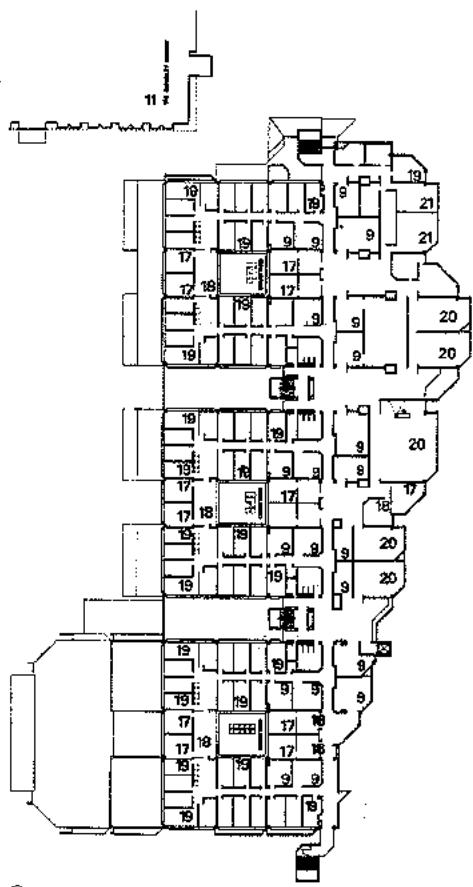


- ⑨-上層 콘코-스에서 西側을 본다.
- ⑩-上層 콘코-스에서 茶室部分을 본다.
空調의 duct를 造形的으로 取扱하고 있다.
- ⑪-圖書館 内部 前面의 広場에서 아래 콘코-스에 이르는 入口部分이 창 너머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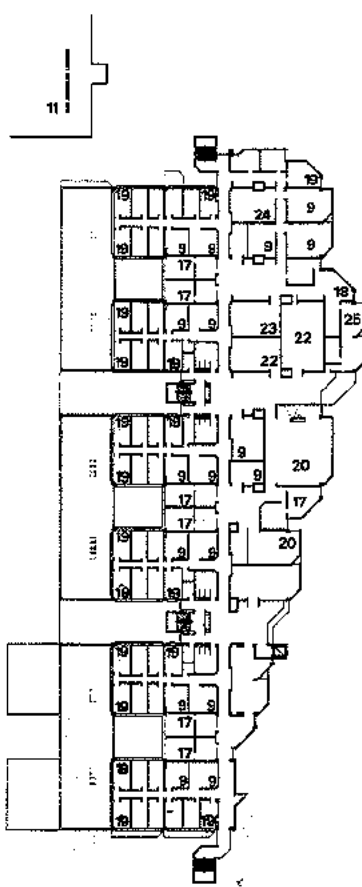




⑫-図書館内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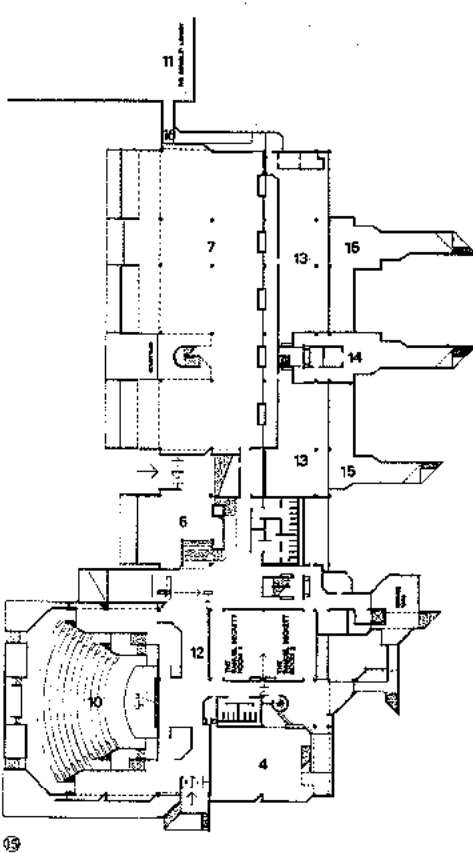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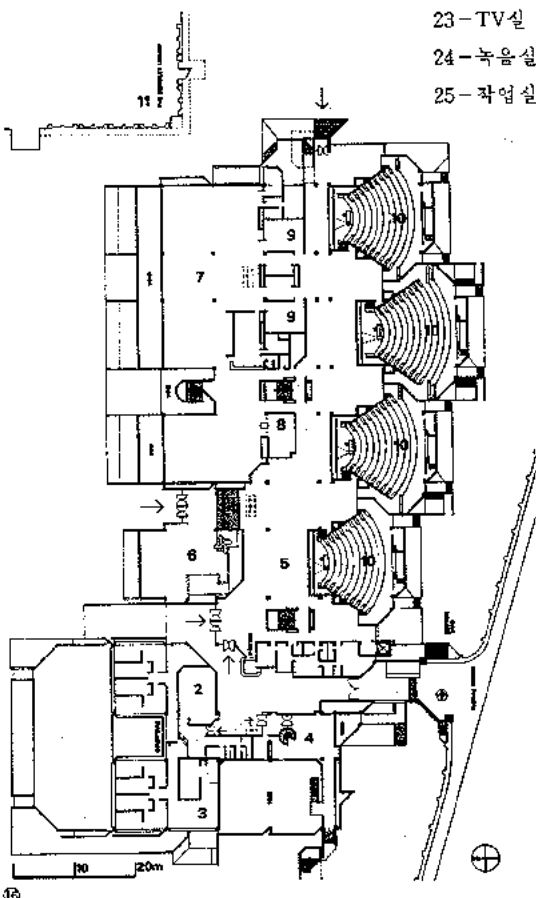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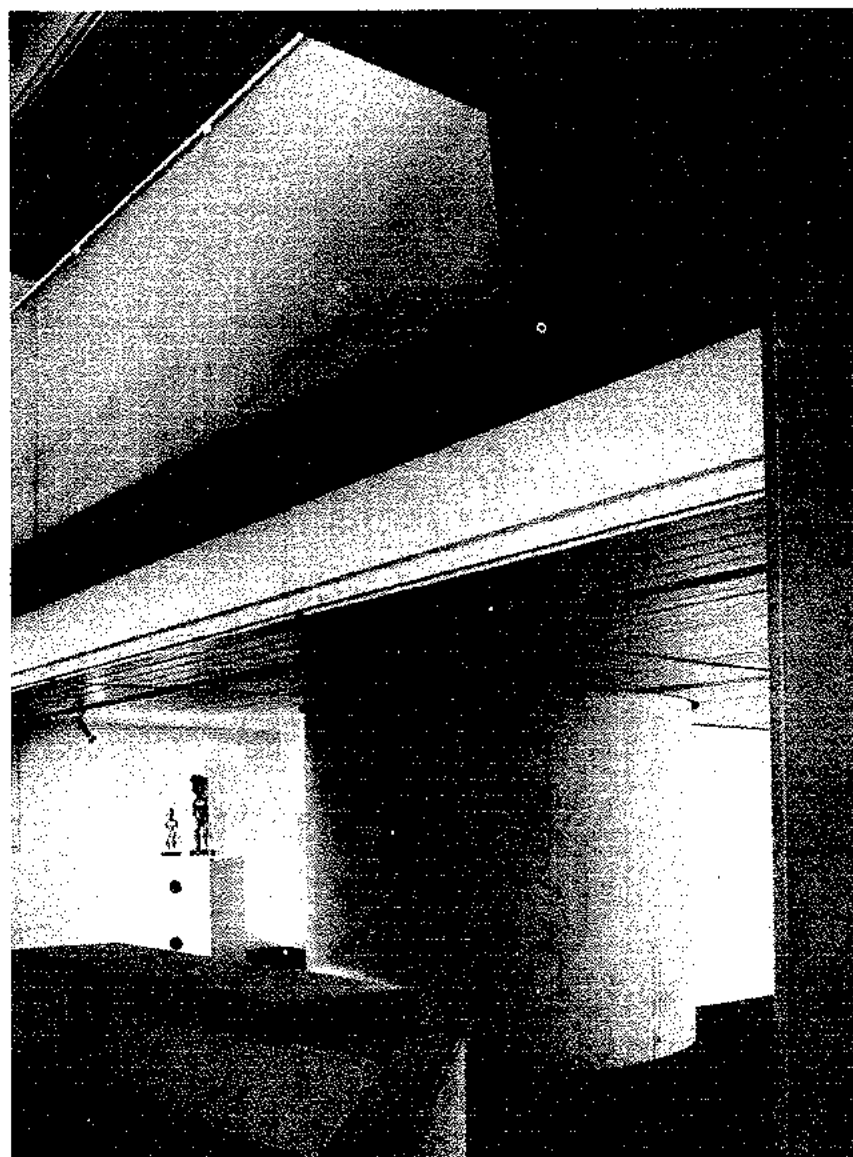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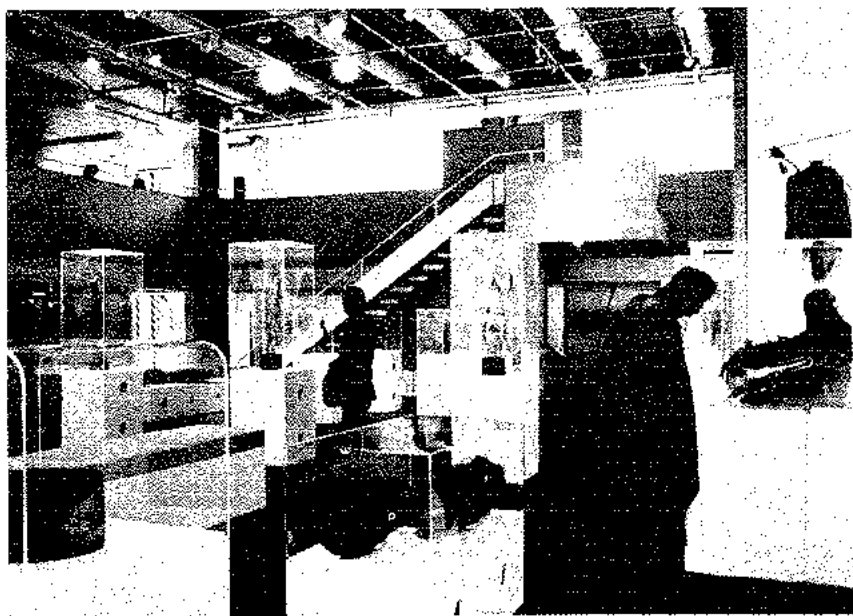
- 1 - 교직원관리부
- 2 - 회의실
- 3 - 비서실
- 4 - 더그러스·하이도 가라리
- 5 - 上층 콘코스
- 6 - 코-피바-
- 7 - 럭키圖書館
- 8 - 러비
- 9 - 세미나실
- 10 - 講堂
- 11 - 바크레이圖書館
- 12 - 地層콘코스
- 13 - 기계실
- 14 - 배기구
- 15 - 급기구
- 16 - 바크레이圖書館에로의 地下道
- 17 - 学科長室
- 18 - 사무실
- 19 - 직원실
- 20 - 강의실
- 21 - TV스튜디오
- 22 - 교실
- 23 - TV실
- 24 - 녹음실
- 25 - 작업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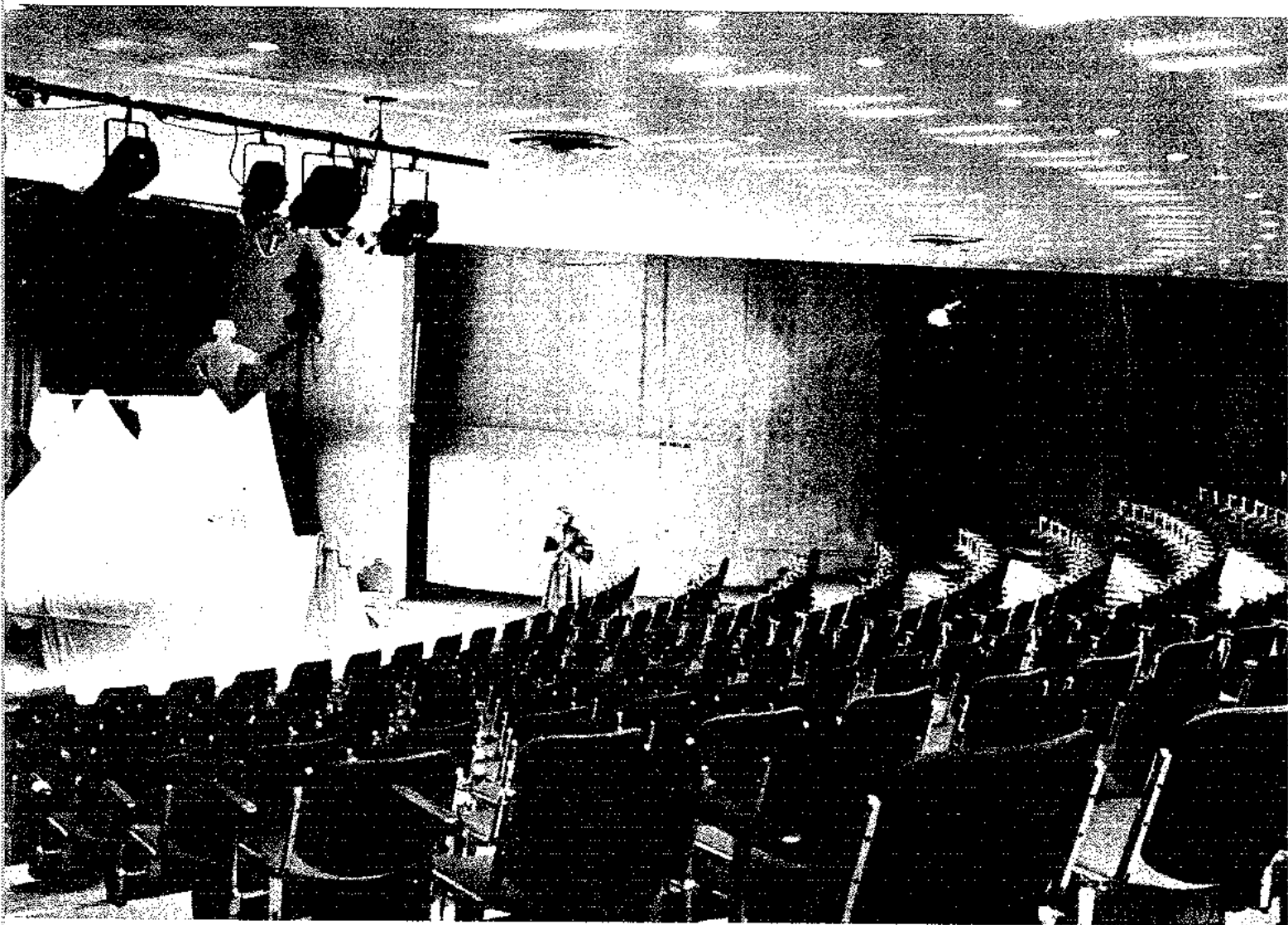


15



①⑦- 더그라스·하이드·가라리의 吹抜의 展示室

①⑧- 더그라스·하이드·가라리層上의 入口에 이르는 원통의 계단실



設計者의 辯

이 芸術學部의 新館은 이計劃이 綜合大學의 施設로서 發展되는 過程으로서 생각되어져야만 하고, 또 트리니티大學을 全体로 생각했을때 그部分으로서도 意味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設計 및 施工까지는 數10年이 걸리며, 計劃에 關하여는 마이루스·라이트教授에 의해 세워진 總學生數 6,000名까지 大學 綜合計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綜合大學은 大學의 擴張의 基本의인 패턴을 定하여 다시 藝術學部新館의 디자인上的 基準도 決定하고 있다.

또 이 計劃은 既存의 大學 施設의 原型—藝術學部와 社會科學部는 主要한 中央社會管理施設과 共히 歷史的인 線이 있는 캄파르西端에 理學部는 計劃되어 있다.

建物과 그 敷地의 概要는 大學의 綜合計劃에 의해 決定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는 敷地內에 어떠한 方法으로 膨大한 施設을 集合시키느냐 하는 建築的인 問題를 提起했다. 다시 그 問題에 建物を 高層化시키지 않고 最大限의 敷地를 使用하겠다는 願望과 또한 韋로스 GARDEN이 있는 場所에 새롭게 韋로스 廣場이라 부르는 調和가 잘되는 廣場을 마련한다는 意圖가 制限을 加하고 있다.

이 廣場은 새로운 建物과 바—크레이 圖書館과 旧圖書館사이 에 둘러싸여, 그 規模面에서 既存의 廣場에 比較하여 大學의 中央의 軸線에 대해 對稱을 이루는 이들 廣場의 면모를 完成시키고 있다.

새로운 建物の 計劃의 一部인 낮소거리에서 大學애로의 入口를 새롭게 設置하는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市와 大學의 새로운 重要한 接点이 발생되어, 韋로스廣場의 새로운 重要한 軸線인 空間으로의 特徵을 늘려 大學全體의 重心을 南쪽으로 移動시키고 있다.

建物の 計劃許可가 最初에 市에서 떨어졌을때 控訴가 이에 대해서 이루어져 公의 審議가 열렸다.

이것은 낮소거리에 관한 建物の 位置에 대해서는 대단한 關係에 놓여 있었다.

審議의 結果 새로운 建物の 建築線이 市에 의해 定해지고 敷地에 관해서도 制限이 加해져 擴張計劃의 是正이 必要케 되었다.

敷地의 形狀은 大學建物과 廣場의 直線狀의 形을 敷地 南端에 沿하여 狀角을 이루어 뻗은 낮소거리의 線과 調和시킨다는 建築士의 問題를 놓고 있다.

이 計劃의 設計作業이 시작 되었을때 마침 새로운 綜合大學의 프로그램이 順調롭게 進行되어 英國 本社나 아일랜드에 많은 새로운 大學이 建設되어진 時期였다.

建物の 設計主旨의 詳細로서는 大學當局과 文部省問의 長時間 協議에서 얻어진 結果로서 進行되었다.

英國의 本社나 아일랜드의 새로운 大學의 몇몇을 數回에 걸쳐 合同 視案을 했다.

이같은 視案에 의해 다시 有益한 知識을 얻을수가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가

장 重要했 던 部分으로서 建築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점이 規模와 獨自性인 것을 認識한 것이었다.

大型建物の 콘푸렉스에 의한 圧迫感中에서 어떻게 하여 個人이 要求하는 또 다른 部門이 要求하는 獨自性의 感覺을 調和시켜 가느냐.

이와같은 種類의 建築의 대부분이 特徵으로 여기는 研究所의 趣向을 어떻게 避할 수 있는가?

無味乾燥한 房으로의 준비한 補道, 어떤 경우는 疎外의 狀態가 너무나 엄청나 사람이 전혀 使用치 않은것 같은 建物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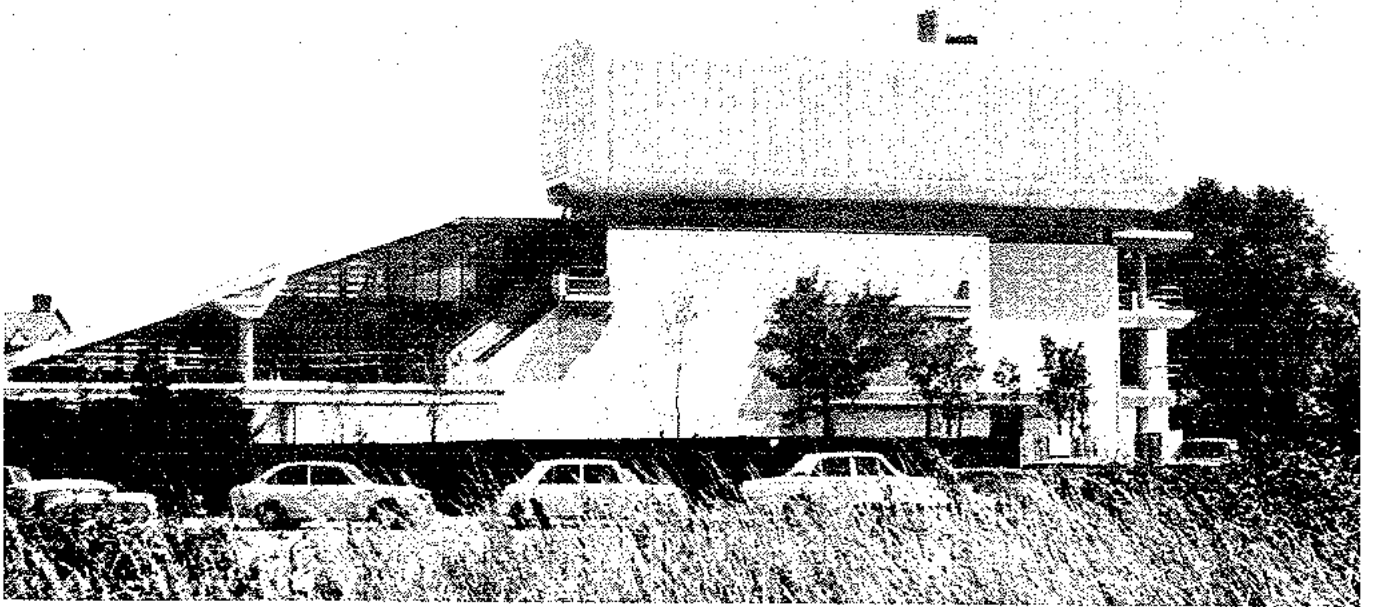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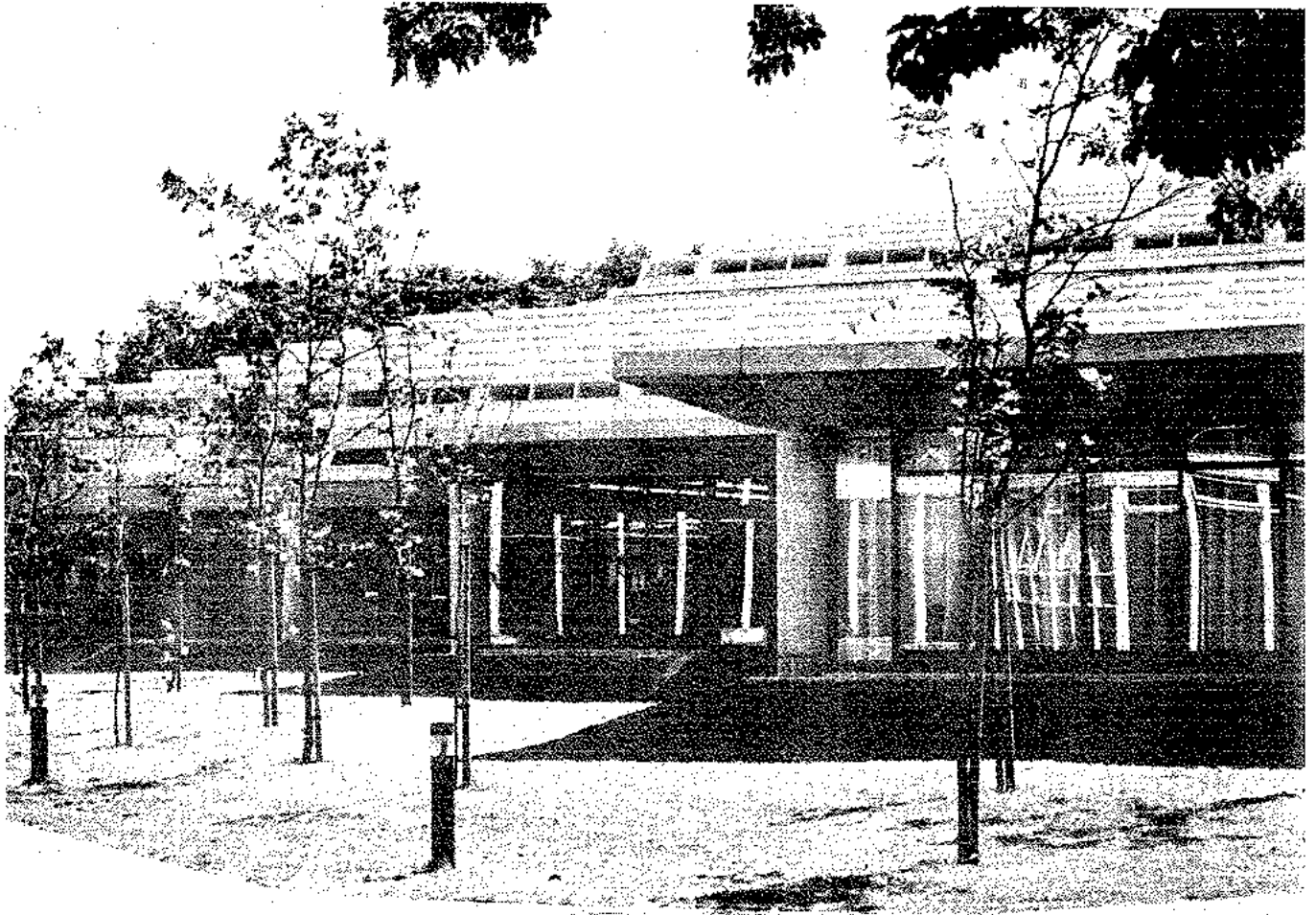
따라서 建物の 計劃은 主로 規模와 擴張과 變化의 問題, 增大하는 教授 体制의 特性, 그리고 그속에서의 GROUP과 個人의 場이라는 것에 關해서였다.

低層部の 2層은 모든 特殊한 機能이나 보다 公的인 空間—講堂, 圖書館, 展示場—을 모아, 이들 建物の 東西의 길 이 빠듯이 건너 中央群集의 周邊에 配置되었다.

이 群集은 建物の 中央部로서 1층으로 그 높이를 낮추고 있다. 正面의 入口는 이 部分에 모아 다시 “낮소” 거리에 서의 入口보다 韋로스廣場에 이르는 通路는 이곳을 通過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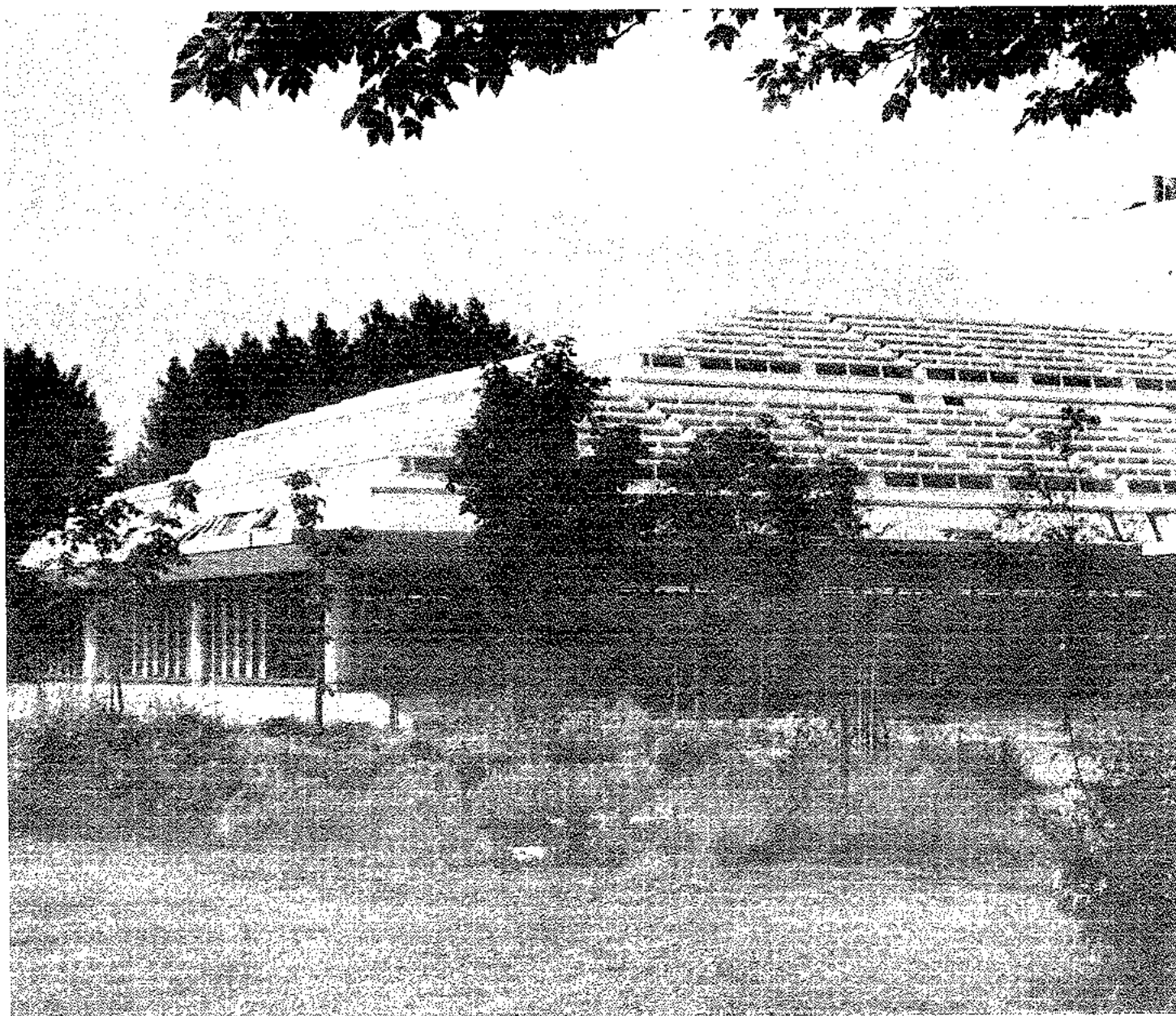
建物の 上部의 3층은 그 性質을크게 바꾸어 各部門의 施設을 收容하고 있다.

藝術學部棟은 視覺的인 環境의 質을 重要視하는 信念과 이것들이 教育 機能속에서 그 一役을 担当한다는 信念으로서 計劃되었다.



⑤-北側에서의 아푸로-치

⑥-北側外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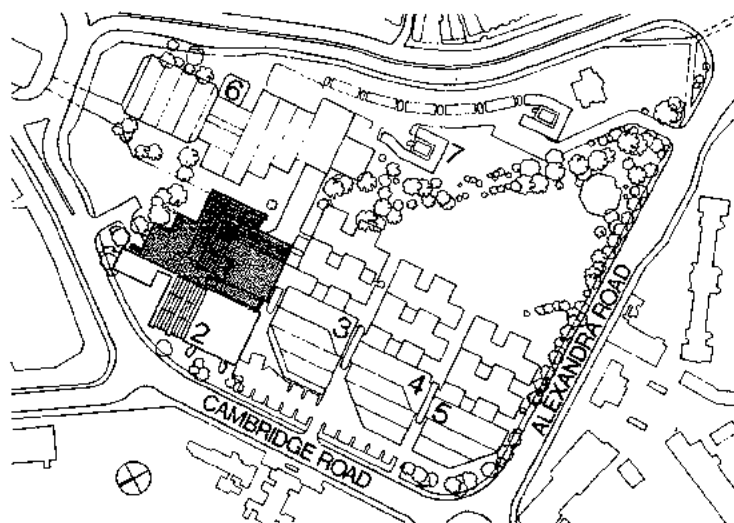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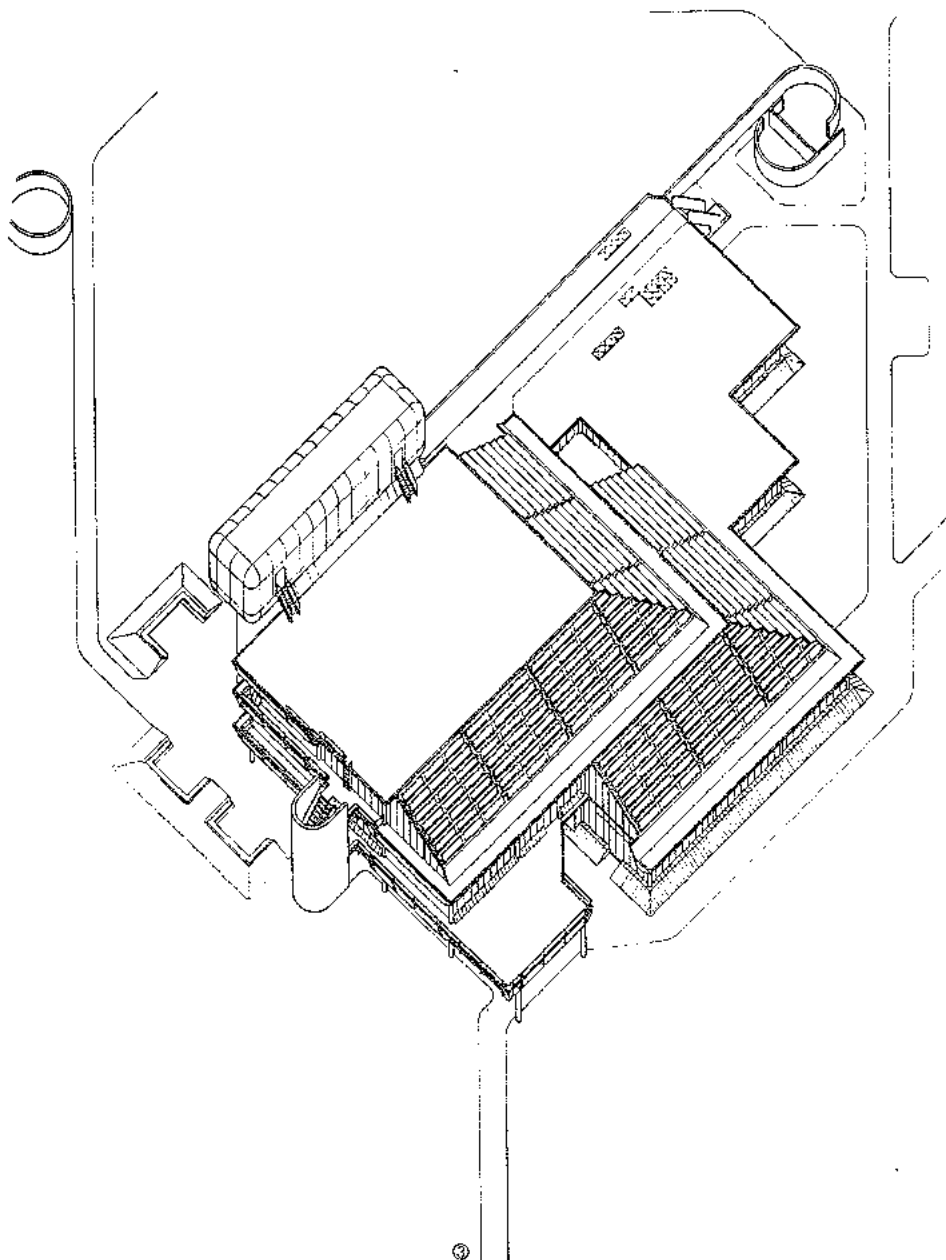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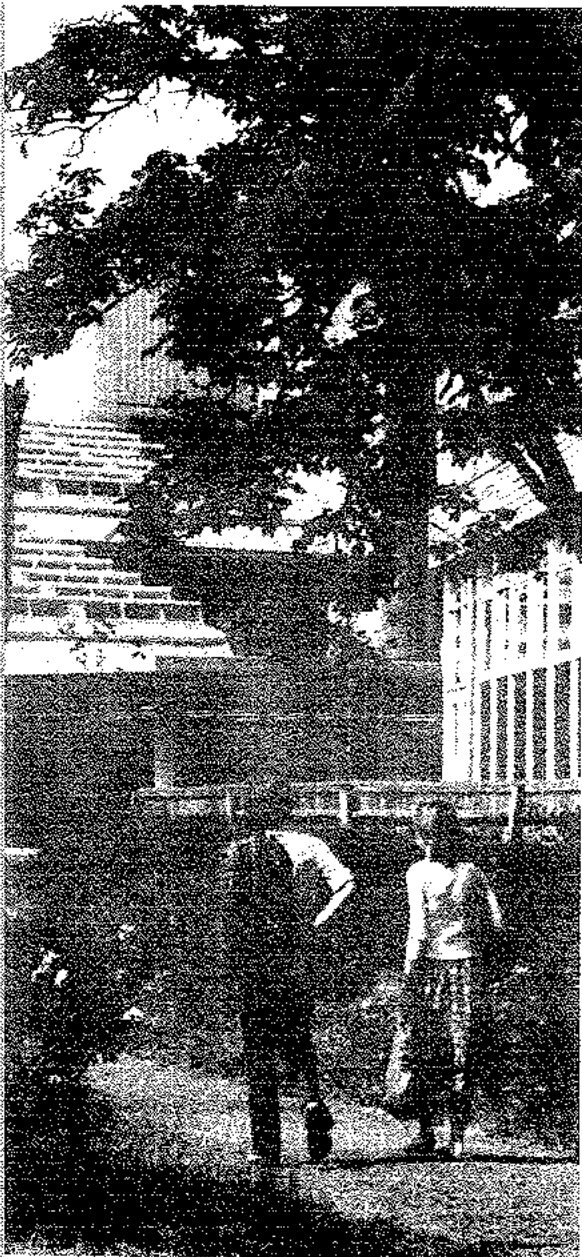


포트마우스 폴리테크닉 圖書館

設計：아—렌즈 바—턴 코라렉

①- 東側 아루-로치에서 바라봄

②- 南西側面부분을 본다



③엑소노메트릭圖

④-配置圖 -

1-도서관 (제 1 기)

2-도서관 (제 2 기)

3-人文学構

4-經濟学棟

5-教室棟

6-文化施設

7-住居

設計者の 말

포리테크닉圖書館은 라베린 하우스의敷地에 대해서 우리들이 1973년에 提案한 包括적이고 統合的인 開發計劃의一部分이며, 그것은 또 포리테크닉의 全体計劃中에 해당한다.

우리들은 그 敷地에 各樣의 施設을 要求받았다. 人文学, 社会科学, 經濟學 그外 明示되지 않은 学科의 教育施設, 多目的厅·劇場·食堂이나 스포츠施設과 같은 文化施設, 2期로 나누어 建設되어지는 圖書館은 勿論이고 住居 施設등인 것이다.

우리들은 2例의 建築群을 計劃하였다. 하나는 東側의 한프샤-데라스에 沿한 文化施設을 包含한 建築群이며 또 하나는 西側의 케인브리지 거리에 沿한, 北쪽끝이 圖書館으로 끝나는 教育施設의 建築群인 것이다.

計劃은 대개 5~10年の 期間으로 段階的으로 實施되어질 予定이었다.

圖書館의 제1期가 그 제1段階이며, 工事는 1975年 4月에 시작되었다.

設計作業은 다음 二段階—人文学科과 文化施設의 複合體—에 着手하여, 人文学棟의 建設이 막 시작되려는데 1975年の 財政비감으로 圖書館 以外의 모두의 建設이 中止되었다. 이 計劃의 要点의 하나는 敷地內에 建物を 아무렇게 配置하는 것이 아니라 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建築群의 統一된 複合體를 만들어 내는 일이었다.

이와같은 複合體는 各部門 相互의 關係를 한층 親密히 將來 高度의 柔軟性을 갖일뿐 아니라, 포리테크닉 全体로서의 物理的인 独自性을 만들어 내는데 큰役割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圖書館은 그 自身으로서 完結되어 있고, 單體로서도 充分히 그 機能을 다하도록 設計되어 있으나, 그 形態는 計劃 全体로서의 脈으로 보았을때 本來의 意味를 갖는 것이다.

圖書館으로의 入り口—처와 그 入口는 敷地內의 他建物—現在는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는 않으나—특히 隣接한 人文学棟과 社会科学棟에 關係지워져 있다.

圖書館의 디자인 및 構造는 實際上, 複合體 總體때문에 만들어진 形態의 特殊化되어진 形態인 것이며, 이 全體로서의 概念에 準하고 있다.

圖書館의 形態는 이곳에 計劃된 어진 建築群의 全体로서 段狀으로된 外觀에 나르고 있다. 圖書館의 各層 相互의 關係를 內包한다는 單一機能과 커다란 量感을 나타내는 勾配지붕으로 덮여있다.

이 圖書館의 主要한 特徵은 아마도 3層의 段狀으로된 内部의 断面圖일게나.

圖書館은 3層으로 그 計劃은 東側에 제1期, 中央流通區域의 西側에 이제부터의 제2期, 두部分으로 나누인다. 이 流通區域은 現在 圖書館 西側을 形成하여 一時的인 壁으로 그 西面을 封鎖시키고 있다.

圖書館의 各層은 開架書庫와 데-마별로 分類된 閱覽設備가 있어 대개 30萬冊의 藏書와 500閱覽席을 備置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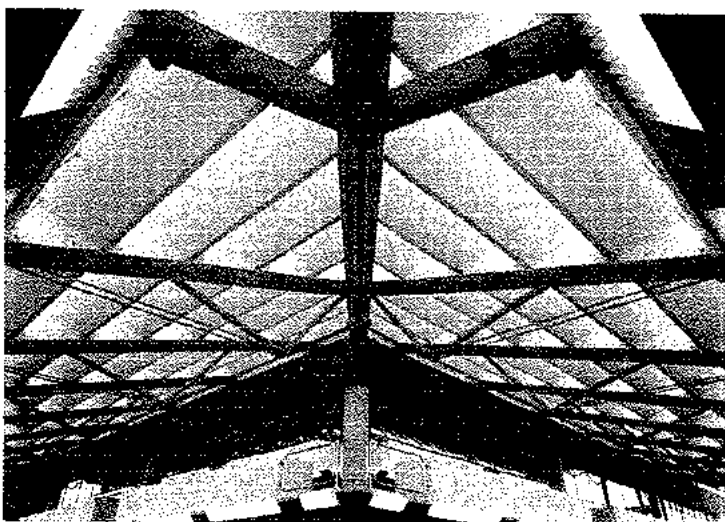
構造는 鉄筋콘크리트의 9m 西方の 構造 bay를 基本으로 하고 있다.

床스라브는 900mm 구릿트의 格子構造이다. 이 構造는 콘크리트 打放 기둥이나 天井인체 마감하고 있다. 평지붕은, 콘크리트 지붕板에 直接 合成 고무의 膜을 호손히 깔고, 그위에 断熱材層을 덮어 다시 지붕材로서 눌러놓고 保護한다는 마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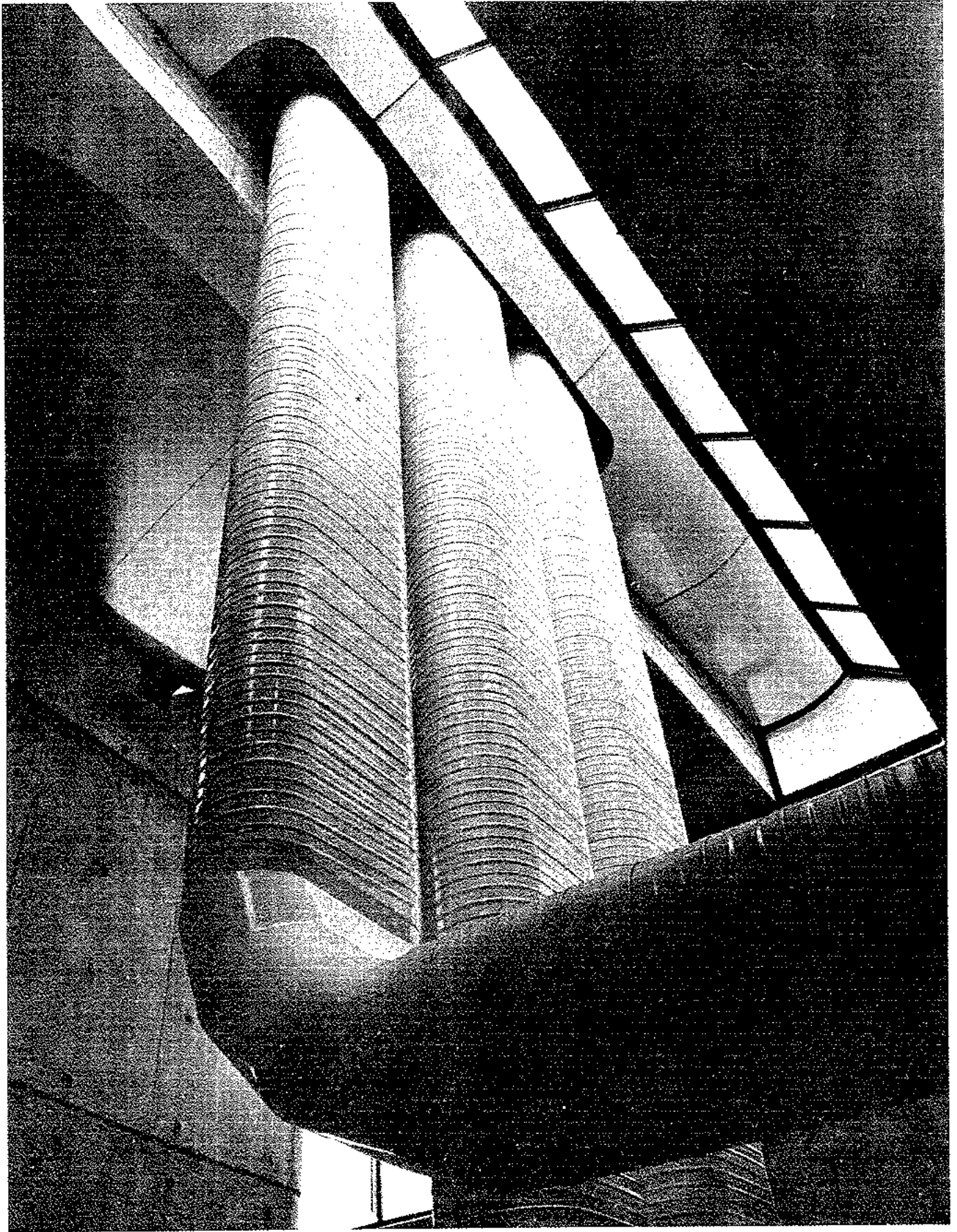
圖書館은 研究를 위한 作業場인 것이다. 그 性格과 表情은 構造上의 各樣인 構成要素를 直接 表現한 結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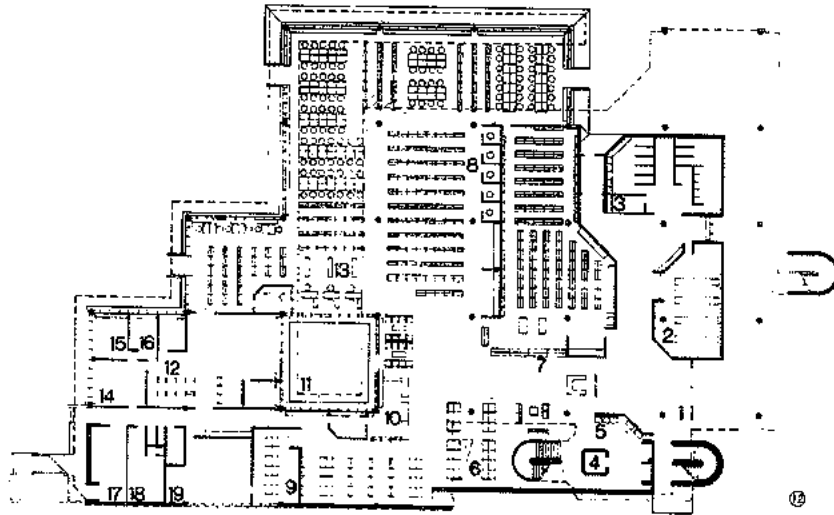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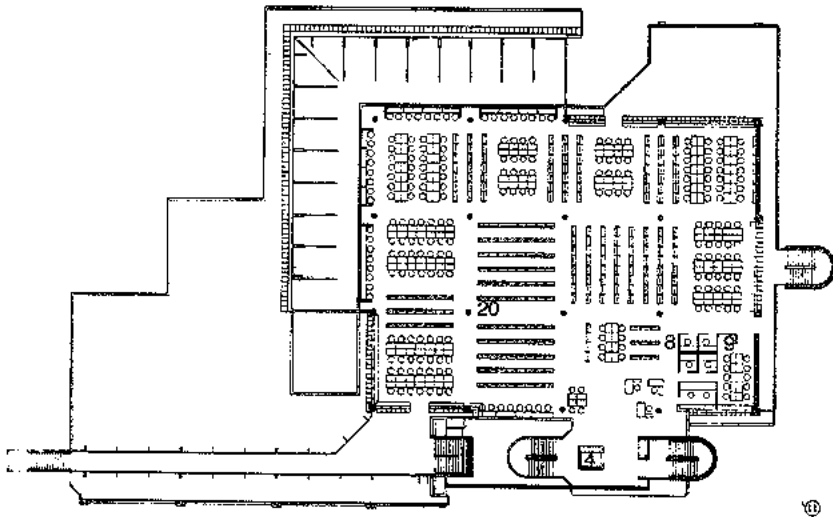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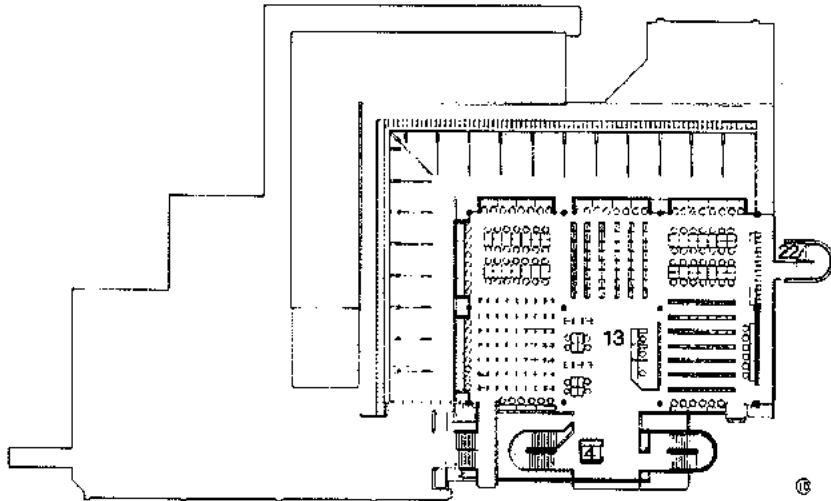
모든 構造나 配管의 要素는 露出되어 그들이 한개의 秩序를 가지고 서로 연관되도록 細心히 디자인되어 있다. 이 建物は 비교적 多樣한 空間과 施覺的으로 複雜한 部分이 多少있다고는 하고 이것은 限定된 一連의 構成要素를 各樣으로 맞춘 結果 생겨난 것이다.

이 圖書館의 제1의 目的은 研究의 도움이 되고 學生의 要求에 調和시키는 雰圍氣를 가진 多樣한 空間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 ⑦-主閱覽室
- ⑧-1층지붕 트라스 接統部分을 본다.
- ⑨-空調덕트





⑩-3층平面圖

⑪-2층平面圖

⑫-1층平面圖

1-入口

2-구로-구

3-화장실

4-승강기

11-中庭

12-目錄空室

13-학파연구실

14-사무실

5-사진실

6-圖書目錄

7-貸出台

8-독서실(carrels)

9-세미나실

10-안내소

15-16-司書室

17-發送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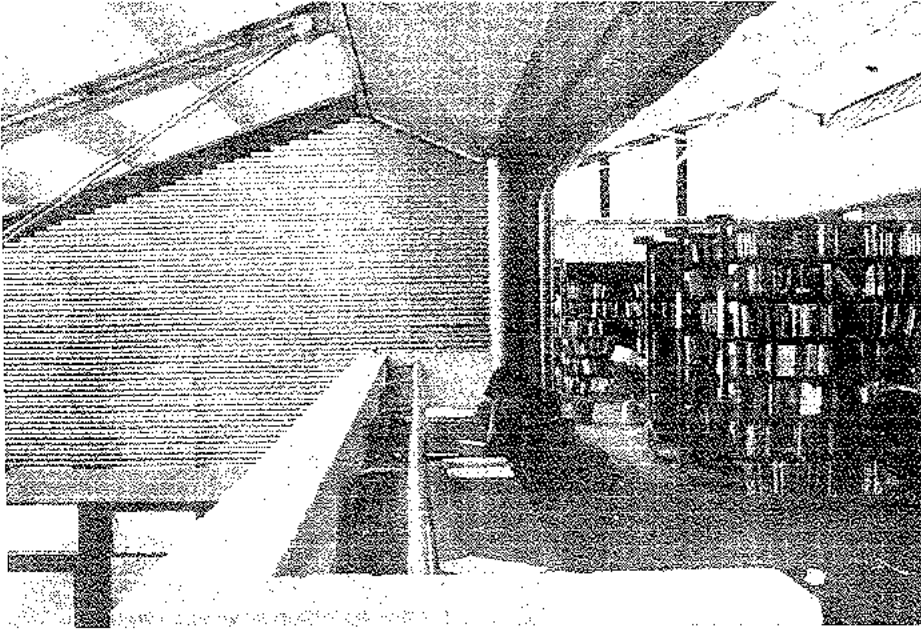
18. 기계실

19. 從員室業

20-書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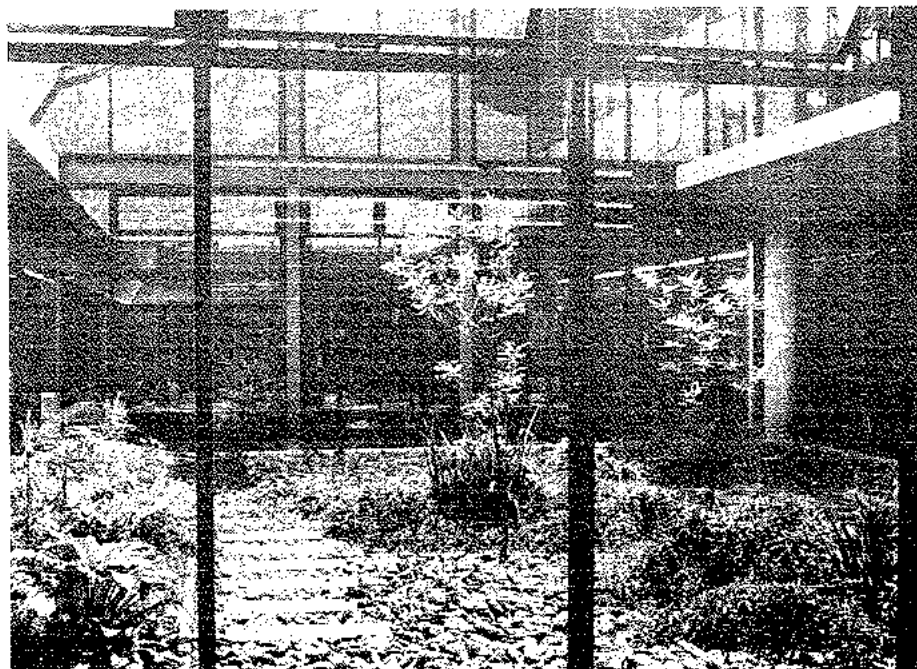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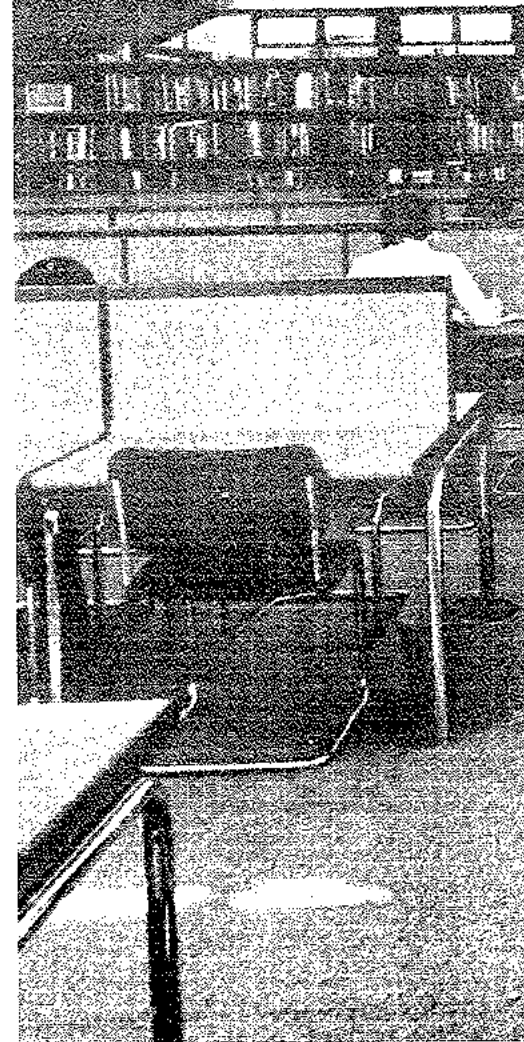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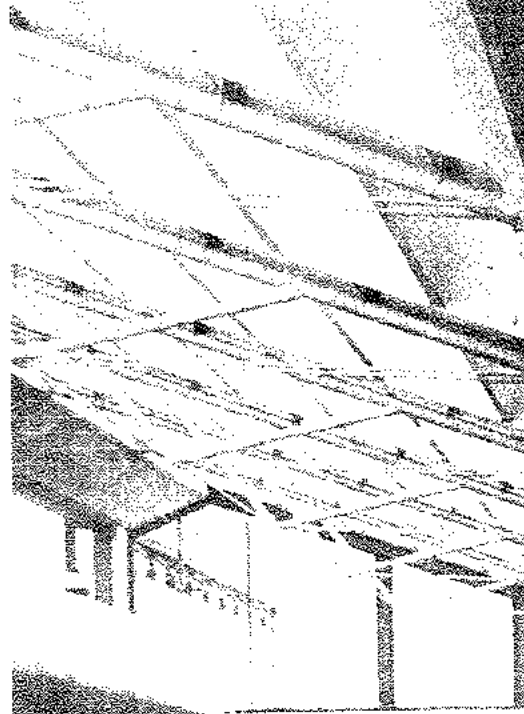
⑬-3層 窓際의 독서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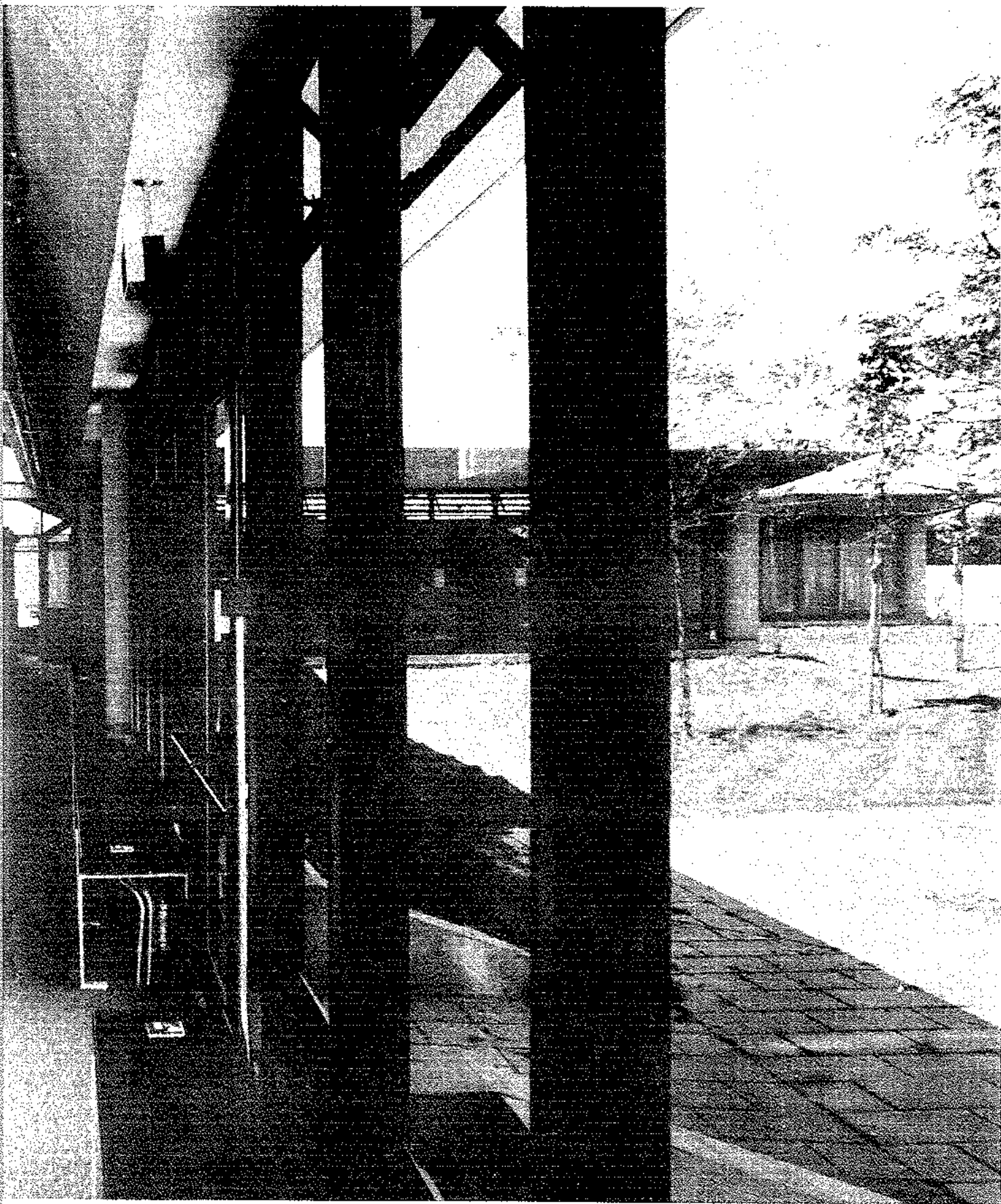
⑬- 2層閣下コーナ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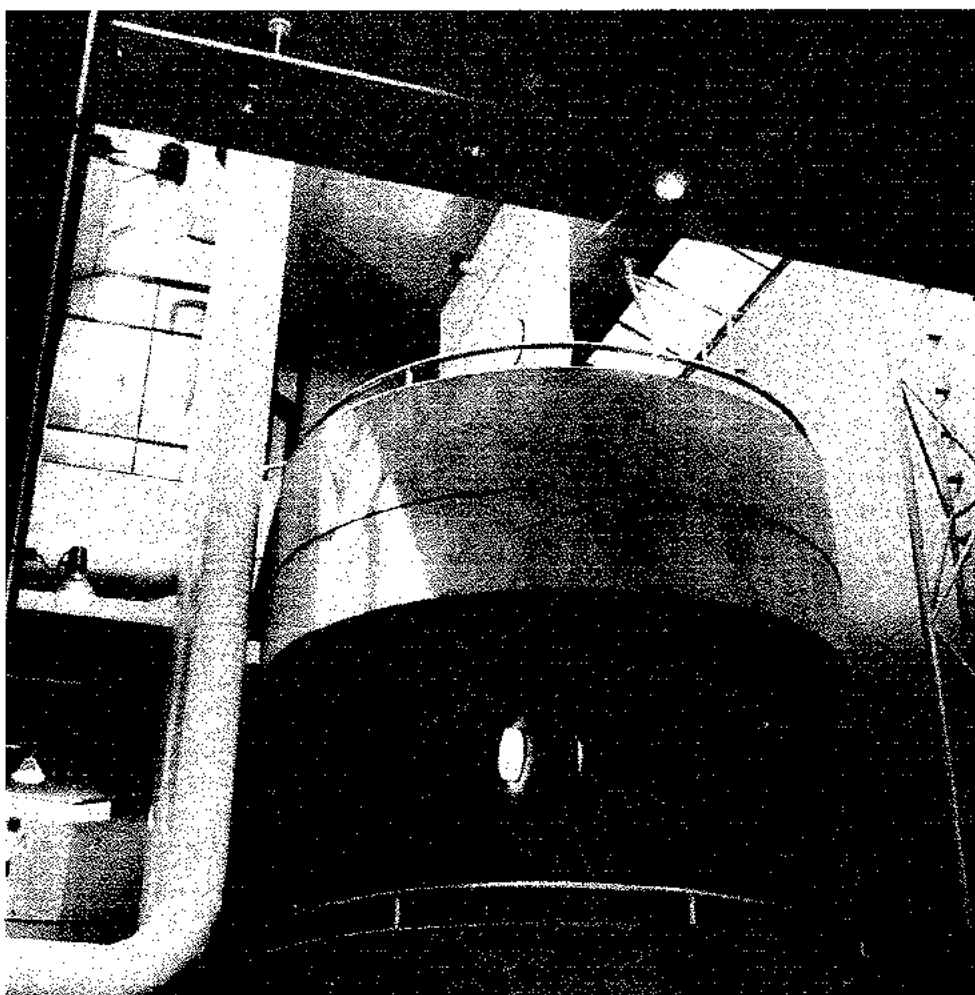
⑭- 넓다란 中庭을 본다.

⑮- 1層 閱覽室에서 窓 넘어 東側の
뜰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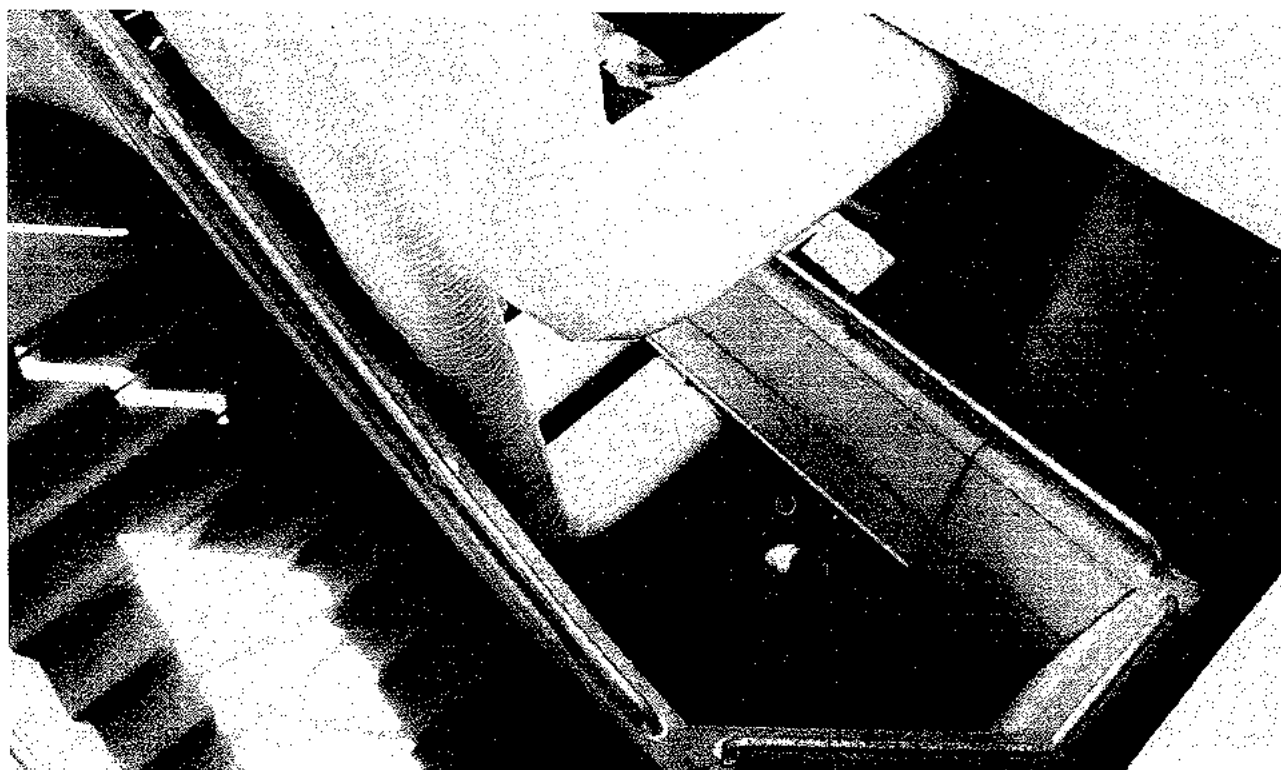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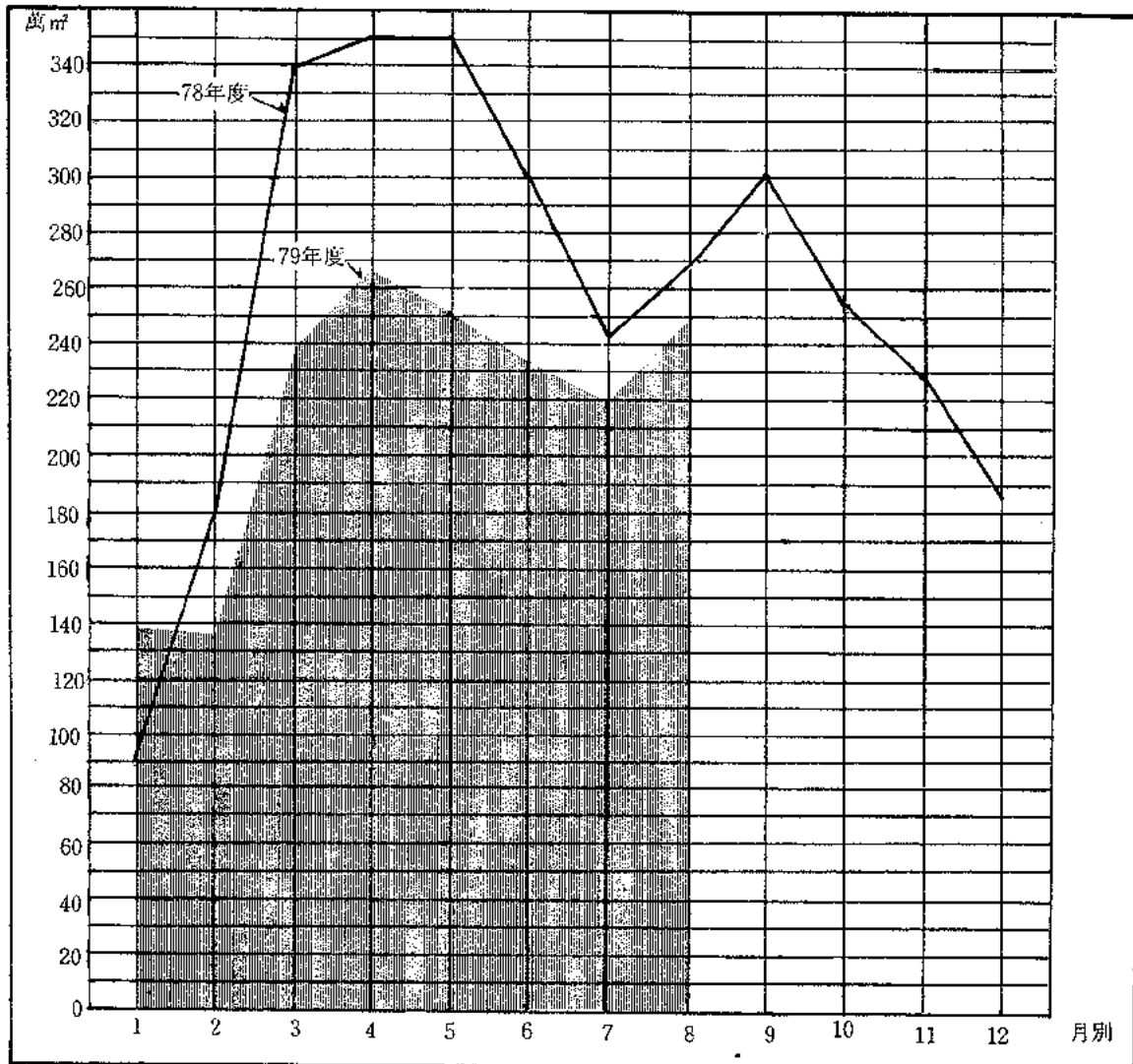
⑬-主動線의 계단실을 본다.
⑭-主階段室을 내려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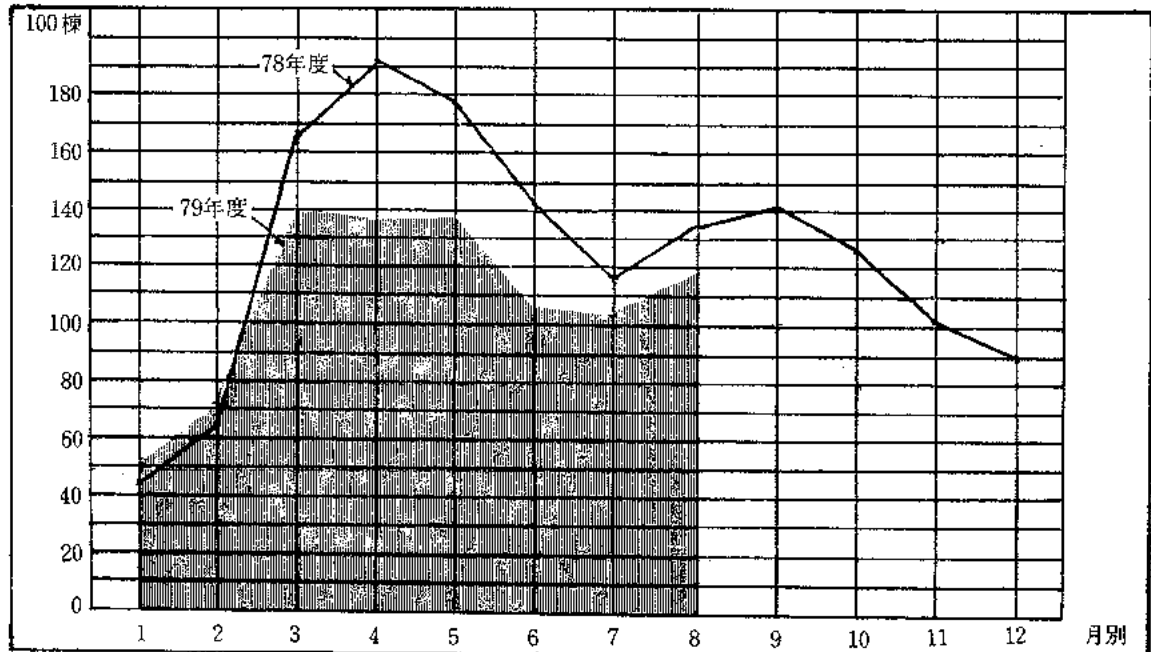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1979年(1월~8월)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1979年(8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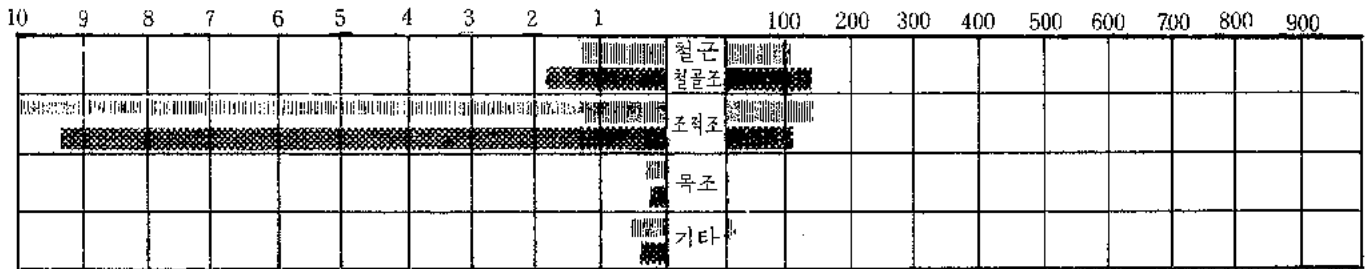
棟数(千棟)

構造別 許可統計

1978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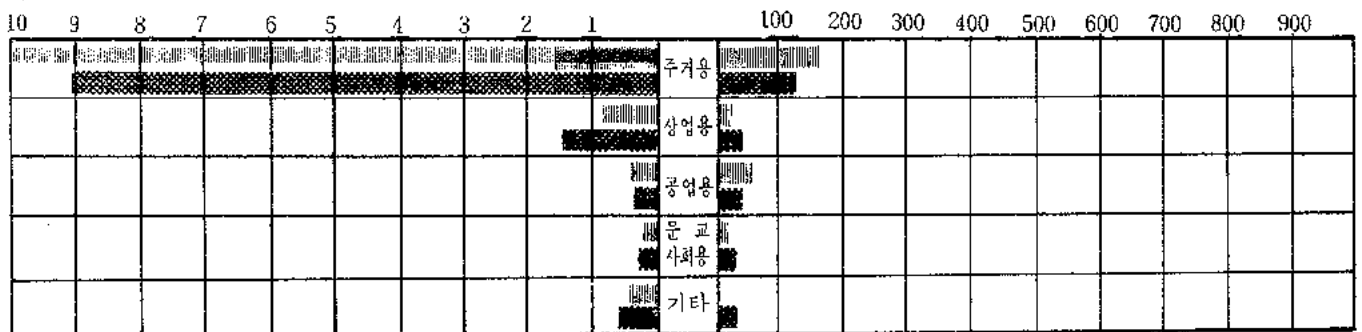
(延面積:万㎡)



棟数(千棟)

用途別 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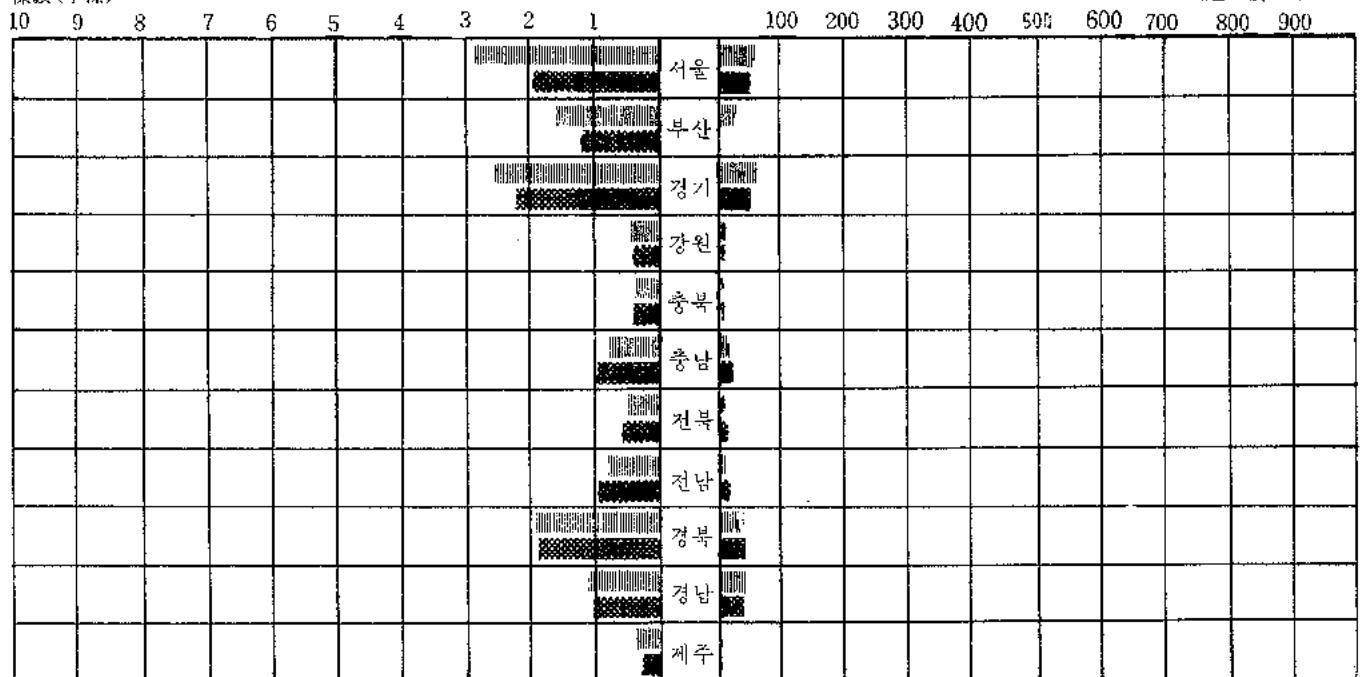
(延面積:万㎡)



棟数(千棟)

市道別 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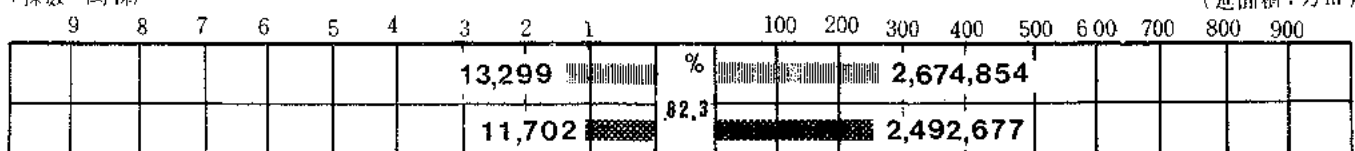
(延面積:万㎡)



(棟数 萬棟)

全国 許可 統計總括

(延面積:万㎡)



發明 電子열쇠 (도어록) 新発売 特許品

열쇠계의 혁신! 電子열쇠로
여러분의 財産을 保護합니다

電子열쇠는...

1. 電子열쇠는 다른 열쇠나 어떠한方法으로도 열수 없음.
2. 電子열쇠는 故障이 全然없음.
3. 電子열쇠는 使用操作이 부드럽다.
4. 電子열쇠는 特殊磁石을 使用하여 永久的임.
5. 電子열쇠는 複製 (合鍵) 가 않됨.
(239, 296個가 生産되는데 同一한 열쇠 1개가 나옴)

使用處 : 아파트, 住宅, 事務室, 병원
保管倉庫, 金庫, 호텔 등
販賣處 : 有名鐵物商이나 本社營業部

※ 열쇠가 더 必要하거나 紛失時는
本사로 注文하십시오.

“쥐 쫓는 초음파기 판매”
(日本 完製品輸入)

世林貿易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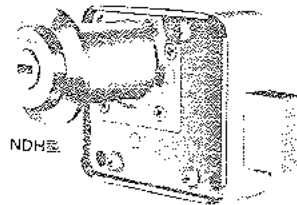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2 街 60-3

TEL. 776-7040-7041

공장 TEL. 260-1623 부산지사: 26-8765

日本美和LOCK 株式会社

補助錠 (ECNDH型) 電子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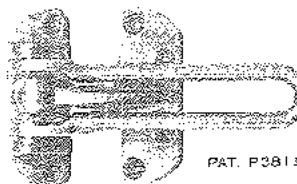
附着하기 쉬우며
堅固하고 耐久性이 좋고
防犯上 安全합니다.

도어록크 (ECHMU型) 電子式



한가지형으로 左右
內外, 開門自由로히
使用할수 있고, 重
要保管用途使用,
補助錠이 必要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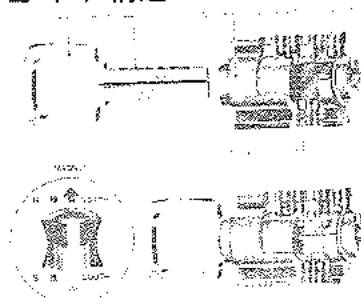
安全문고리 (SL-1型)



外部에서 門을 열때
10cm 程度만
열리고 확인후 門을
열어주는 安全고리

※ 金庫用, 家具什器用, 카비넷트用,
私書函, 其他 電子열쇠가 있음.

電子열쇠의 構造





Rocket 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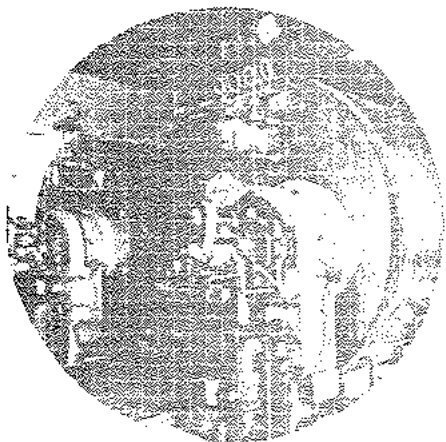
연료비 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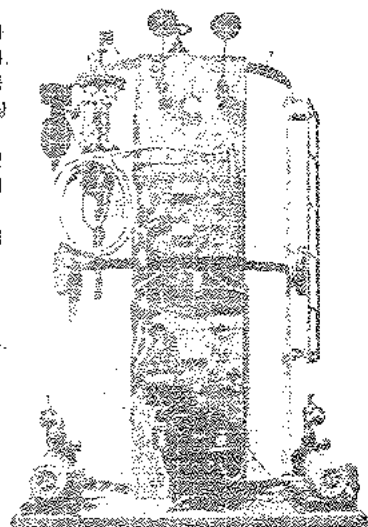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고압연관식보일러 (K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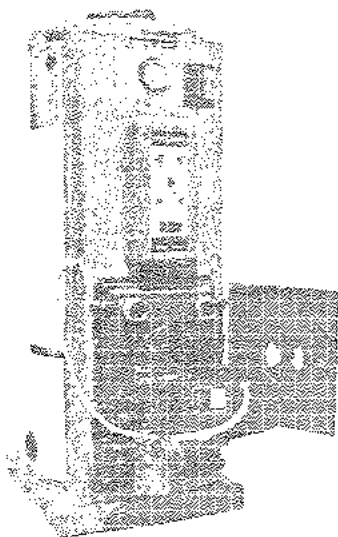
- 1ton에서 10ton까지 용량의 폭넓은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 11백가에서부터 1000마력까지의 다양한 용량의 보일러를 생산합니다.
- 연관식 보일러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벽합니다.

전자동 증기보일러 (K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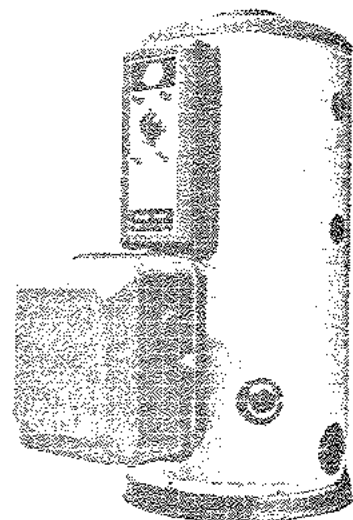
- 1000명 미만의 거주자 수는 20분내에 해결합니다.
- 적정온도에서 자동 증기 발생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 화력발전기, 산업용 난방 및 다양한 용도의 공장에 적합합니다.
- 미연소물질을 수송물과 함께 적재합니다.
- 규격 0.2에서 0.5ton의 전자동 소형 스팀 보일러로 관리에 편리하고 연료비 40%가 절약됩니다.
- 전자동으로 관리가 편리합니다.

다목적온수보일러 (KRZ)



- 난방용, 급탕용, 목욕탕 전용.
- 증기식 또는 오일버너나 가스식 연탄화목 및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제품은 5면에서 40만 Kcal까지 용량이 폭넓은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to-one입니다.
- 외부기 화전 노즐처리 및 급탕용과 난방용이 합쳐진 급탕 난방 전용기 있습니다.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 (KRQ)



- 경이적인 보일러 기술의 선진.
- 소형 KRQ는 발전기의 원수 기술력 0.1 열성된 것입니다.
- 본제품의 개발목적은 15평이상 30평미만 40평이상 60평미만 주택의 난방과 급탕을 해결 하는데 있습니다.
- 본제품은 저렴한 시설비와 맞먹는 기름연료비 1/2 소형 오일버너나 전기소비가 적고 설치면적이 작은 지하설비와 창고 등에 간단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량생산 기계화로 동종과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비가 30% 이상 절약됩니다.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6

전화: (6) 5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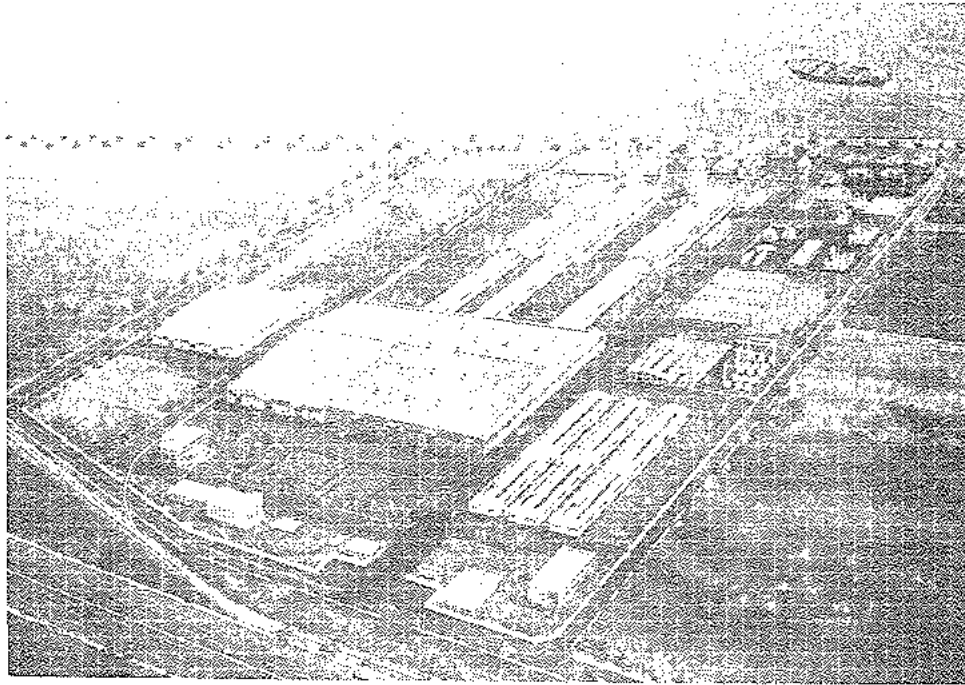
여의도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 (세우회관 6층)

전화: (782) 7373, 7387, 8757

祝! 群山FOLAT 工場起工

“奉仕하는 企業 韓國유리”는 이제 世界의 韓國유리로 跳躍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속에서 成長하는 韓國유리는 世界 最高 水準의 유리를 生産할 수 있는 FLOAT 工場 起工으로 이제는 名実共に 世界속의 韓國유리로 躍進하고 있습니다.



제 품 규 격

맑은 유리 Clear Sheet Glass								무늬 유리 Figured Glass							
2mm		3mm		5mm		5mm대형		2.2mm		3mm		4.6mm		6.8mm	
규격	대수	규격	대수	규격	대수	규격	대수	규격	대수	규격	대수	규격	대수	규격	대수
24×36	17	36×72	6	48×72	4	36×96	4	30×50	10	48×72	4	48×72	4	48×72	4
24×30	20	36×60	7	48×60	5	60×72	3	24×48	13	48×60	5	48×60	5	36×72	6
18×36	22	32×60	8	36×72	6	72×72	3	24×36	17	36×72	6	36×72	6		
16×32	28	36×52	8	36×60	7	48×96	3			36×60	7	36×60	7		
12×36	34	24×60	10	32×60	8	60×96	3			36×52	8				
		30×50	10	36×52	8	72×96	2			26×96	9				
		24×48	13	24×60	10	72×84	2								
		24×36	17	30×50	10	84×84	2								
		20×36	20	24×36	17	84×96	2								
				24×30	20										
				18×30	27										

◎ 맑은유리最大規格

厚さ(mm)	inch	mm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08	2134×2743
10	84×96	2134×2438
12	84×96	2134×2438

※ 弊社에서는 群山FLOAT 工場이 稼動된 해까지 당분간 FLOAT 유리를 直接 輸入하여 供給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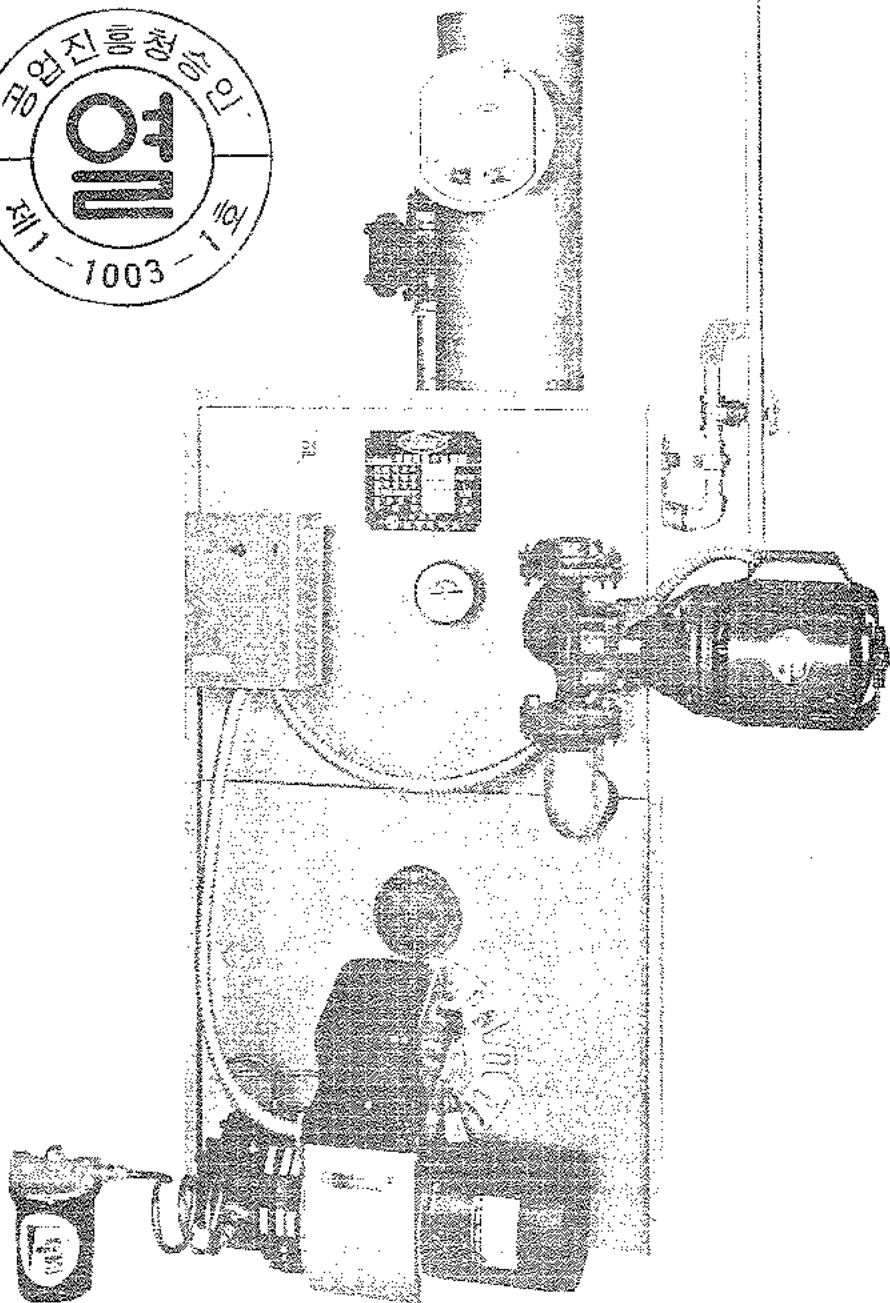
本 社 :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의 154. ☎ 0311, 0911, 3711
 仁川工場 : 京畿道 仁川市 東區 萬石洞 2 仁川 ☎ 0111~0119
 釜山工場 : 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 4066~4070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 난방 / 급탕겸용 *

Utica **유티카** **신**
지름 **보일러** **제**
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 4 街 126-1 号

進洋商街 1 층 2 동 나열 109 号

TEL: 266-2807, 266-8015